

THE COMET

코메트

☆特 點☆

新武器가 지나는 防衛線..... 魏 德 林
新武器의 飛越線上的 國情..... 羅 德 漢
新武器發射의 技術的 考慮..... 金 順 喆
空軍이 作戰을 觀戰하고..... 尹 宗 鉉





졸업생(卒業生)을 격려(激勵)하는 이기봉(李起鵬)
민의원(民議院) 의장(議長)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에테 → 피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봐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란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짬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기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삼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텔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33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그리스도와 종도(宗徒)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33)	루오 작(作)	
화보(畫報)		
◇ 6기사관(六期士官) 임관식(任官式) 광경		
◇ C-46 기상격투(機上格鬪)의 용사들		
◇ 영예로운 우리 Z기(機) 조종사		
◇ 기지교회(基地教會)에 참례(參禮)하신 이(李) 대통령 각하 내외분		
◇ 10비단(飛團) 기념식전(記念式典)에서 훈시(訓示)하는 장(張) 총장		
〈권두언(卷頭言)〉		
국민(國民)의 군대(軍隊)가 되어야 한다	김기완(金基完)	2
전력론(戰力論) (상)(上)		
	이경춘(李慶春)	16
두 개의 아랍 연방(聯邦) 탄생		
국군감축론(國軍減縮論)의 시비(是非)를 논(論)함	김창순(金昌順)	4
소련 내각(內閣) 개편(改編)의 경위(經緯)와 전망(展望)	임원규(林元圭)	11
미국(美國)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	윤일균(尹鎰均)	26
스위스의 고산조종사(高山操縱士)	윤주영(尹胄榮)	36
	H. P. 듀바흐	42
시원(詩苑)		
그와 내외설(內外說)	설창수(薛昌洙)	48
봄에의 격(檄)	박두진(朴斗鎭)	50
「청록(靑鹿)」 습유(拾遺)	박목월(朴木月)	54
2층(二層)에서	김윤성(金潤成)	56



〈장병시(將兵詩)〉

만일에	최기영(崔基榮)	14
신무기(新武器)가 지니는 방위력(防衛力)	양중호(梁仲鎬)	58
신무기(新武器)와 휴전선상(休戰線上)의 균형(均衡)	유건호(柳建浩)	65
신무기(新武器) 발전(發展)과 전술적(戰術的) 고찰(考察)	김순철(金順喆)	68
눈송이 작전(作戰)을 참관(參觀)하고	윤종현(尹宗鉉)	88

수필(隨筆)

새옹마(塞翁馬)의 교훈	안수길(安壽吉)	98
대한공군(大韓空軍)과 대한(大韓)어린이	마해송(馬海松)	100
달과 꿈	조기호(趙基鎬)	104
사람의 재질(才質)	이건호(李建鎬)	108

유도탄(誘導彈)과 그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	전봉희(田鳳熙)	77
나는 헝가리(洪牙利) 의거(義擧) 학생대장(學生隊長)이었다	마트야스 코탈리	111

향토민요해설(鄕土民謠解說)	성경린(成慶麟)	124
----------------	----------	-----

외교(外交)와 기지(機智)	장재용(張在鏞)	134
총선거(總選舉)와 군인(軍人)	신현경(申鉉經)	137
미국(美國)은 월세계(月世界)를 이렇게 정복(征服)한다	외지(外誌)에서	148
미국(美國)의 인공위성해부(人工衛星解剖)	외지(外誌)에서	152

만화(漫畵)

합법적인 수단	김만선(金萬善)	94
양지 영감	이상호	96
일요휴가(日曜休假)	한성철(韓聖哲)	158

★ 코메트 휴게실(休憩室)	중간 중간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이곳저곳

베스트 골프 (2)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위해	토미 아머	164
혈연(血緣) 〈소설(小說)〉	홍종인(洪鐘人)	120
처첩(妻妾) 〈소설(小說)〉	장덕조(張德祚)	180
붉은 밤 (3) 〈연재(連載)〉	박용구(朴容九)	192
망향(望鄕) 〈소설(小說)〉	임옥인(林玉仁)	199
	최상규(崔翔圭)	212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그리스도와 종도(宗徒)

조르주 루오 작(作)

현대에도 서양에서는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는 많으나 진정한 뜻의 종교화는 루오¹⁾를 빼고는 없을 것이다. 다른 작가들은 종교적인 제재를 그려도 실은 깊은 종교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루오는 예수의 얼굴이나 십자가상을 그린 것도 있기는 하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 광대, 죄인을 그린 것이 많다. 그 종교적이 아닌 제재의 경우에도 르네상스의 종교화를 보는 것 같은 경외하고 숭고한 종교적 정조(情操)는 나타나 있다. 어두운 성당 내에서 쳐다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의 갖가지 빛은 굵은 선에 둘러싸여 있다. 그 신비하고도 명상적이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천재성은 싹트기 시작했다.

초기의 루오는 용서도 타협도 없었다. 그의 비타협성은 사회적 악덕, 파렴치, 잔학에 대한 그의 격노를 폭발시키는 수단이었다. 그가 그린 창부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노여움과 참회(懺悔)적 반항에서 생겨난 변환(變幻)이다. 그의 반항은 전체적이다.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열렬한 기원(祈願)이고 종교적 의식(意識)의 표현이다. 그것은 예술가의 화포(畫布)가 아니고 사회악에 대한 저주이다. 그러나 루오 자신의 예수를 그리게 되기까지는 긴 고투의 시간이 있었다. 반항과 저주의 시기를 지난 후 그가 그리는 인물들은 타락은 하고 있으나 평소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 생명의 모습을 영혼의 □□를 대어 타오르게 한다. 이러한 심정에서 하나의 완벽한 예술이 출래(出來)했다. 굵고 어두운 윤곽의 테를 둘러싼 색면상(色面相) 서로의 색면으로 조성된 화면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 윤곽은 중세기 스테인드글라스의 납(鉛)처럼 감입(嵌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톤에 대한 콘트라스트의 구실을 하며, 따라서 회화적 효과를 낸다. 색과 색이 쌓여 빛을 발하고, 타오르고, 그들도 또한 색채적 의의를 가지며, 빛도 그들도 색체에 속한다. 그래서 루오의 화포는 열기를 연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그의 예술의 위대함은 모든 인간관계의 매듭인 윤리와 미와의 지고한 심상을 그의 색채의 백열하는 불꽃 속에 용해시킨 것이다. 1871년 파리의 빈민가에서 나서 어릴 때부터 가톨릭적 분위기에서 자라 보통 교육을 끝마치고 교회 스테인드글라스 직공의 도제가 된 후 미술학교를 거쳐 1900년 전후 레옹 블로이²⁾ 따위의 가톨릭 작가를 알게 되었으며, 가톨릭적 사상을 이상으로 하여 사회와 예술의 세계에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의 화업(畫業)은 소년 시절에 스테인드글라스의 기술이 영향을 주고 있다.

(1958년 몰(沒))



그리스도와 종도(宗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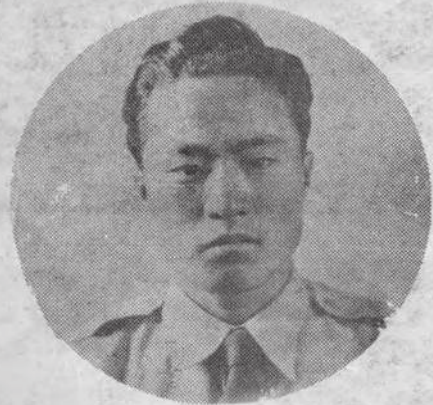
루오 작(作)

1) Georges Rouault 2) Léon Bl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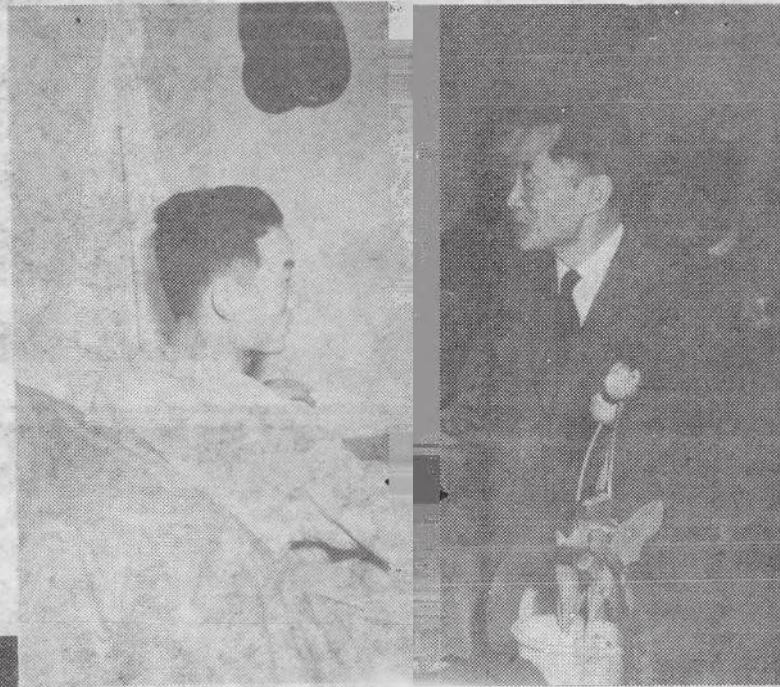


정비사(整備士) 천병훈(千炳勳) 중사



통신사(通信士) 고(故) 김상호(金相浩) 상사

빛나리! 투(鬪)의 용사(勇士)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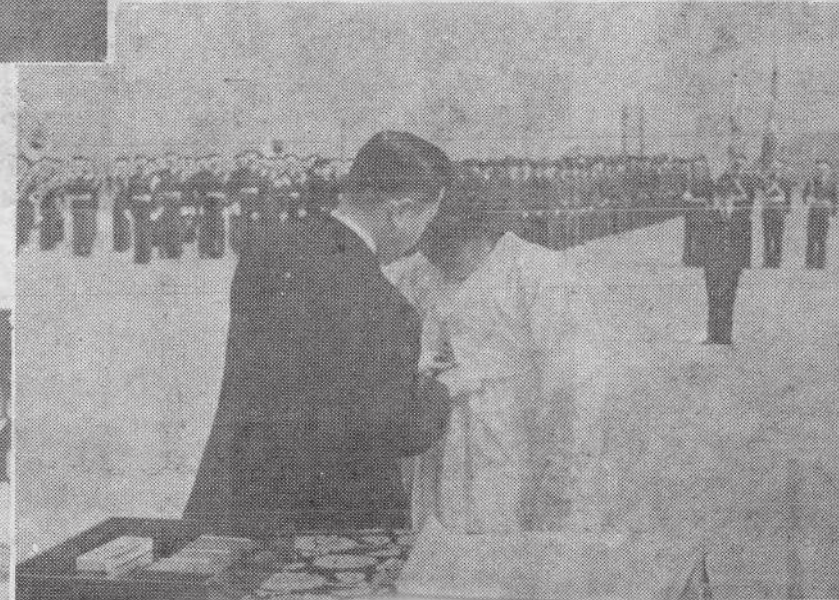
조종사(操縱士) 김갑규(金甲圭) 대위



부조종사(副操縱士) 최병린(崔炳麟) 중위



고(故) 김(金) 상사에 분향(焚香)을 올리는 장(張) 총장(4월 16일 영락교회(永樂教會)에서)



4월 16일 본부광장(本部廣場)에서 거행된 훈장수여식(勳章授與式)에서 고(故) 김(金) 상사를 대신하여 훈장을 받는 미망인(未亡人)

코메트



상(上), 우리 Z기(機) 조종사 김진선 대위와 한영규 중위를 격려하시는 이(李) 대통령 각하



중(中), 기지교회(基地教會) 창설 제5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신 이(李) 대통령 각하 내외분



하(下), 10비단(飛團) 창단(創團) 제5주년 기념식전(紀念式典)에서 훈시(訓示) 하는 장(張) 총장

국민(國民)의 군대(軍隊)가 되어야 한다

정훈감(政訓監) 김기완(金基完)

우리는 국민의 지지나 신뢰는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친밀하고 다정하고 완전하게 융화되어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수(傾首)³⁾ 숙고(熟考)하여야 할 여러 가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일 신문지상에서 우리 국군장병이 야기한 사건들의 보도는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파렴치한 일부 몰지각배(沒知覺輩)의 행위라고는 하나, 국군에게 부여된 임무를 생각할 때 울연(慄然)⁴⁾ 국민에 대하여 참괴(慚愧)하고도 부족함이 있다.

X X

국군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조직된 의무와 충성의 조직체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수준으로 보아 과중하고도 짐작되는 세금의 부과와 납부로서 국방비의 일부는 지출되고 있다. 환언하면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서 육성되고 존재하고 영위되는 국군의 일원임을 촌시(寸時)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적침에서 받은 피해가 막심한 후 원치 않는 정전(停戰)으로 소강상태에 있으나 적

3) 머리를 수그린다는 의미임

4) 두려워 떠는 모습

은 재침의 준비와 무력 확장, 훈련 등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은 북괴군을 동원하여 중노동의 노력을 착취하여 경무기 생산과 증공업 농업부문의 일까지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시에 우리는 군인이 폭력행위, 군수품 부정처분, 그리고 도망, 탈영 등 이러한 사건을 신문 3면에 게재하게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X X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묻기 전에 각자의 자각상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적행위로 규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엄숙한 의미의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공산침략에 패배하여 그 학정(虐政)하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지속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서 점점 이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대하여 친근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사건들과 같은 불미한, 그리고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악(惡)의 행위를 범한다는 것은 군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가서 이러한 과오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감투(敢鬪)할 국군의 사기에도 미치는바 다대한 이중 죄과(罪過)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철저한 반성과 자율이 있어야 할 것을 제의한다.

두 개의 아랍연방(聯邦) 탄생

통일 아랍공화국과 아랍연방의 성격

김창순(金昌順)

1. 중근동(中近東)의 고뇌(苦惱)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에 이집트와 시리아는 통일아랍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동월 14일에 이라크와 요르단은 또 하나의 아랍연방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중동정세의 이와 같은 급속한 전개는 세계정국에 일대 파문을 야기하고 있는 바 아랍민족의 통일아랍운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 역사적 근거와 현실적 동기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7천여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근동의 정치적 개념은 지고로 그 범위가 명확치 않은 것이 있어서 영국에서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중동이라 했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및 아랍 반도를 근동이라 부르는 용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양자를 혼동하여 이 지역 전체를 중근동(中近東)이라 부르는 경향이 흔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北) 아프리카로부터 파키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정치적 개념상의 중근동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 지역은 아랍인, 터키인, 페르시아인, 유대인을 비롯하여 쿠르드족, 터키, 몽골족, 앗시리아 족, 루르 족, 아르메니아 족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종교적으로는 압도적인 회교도와 유대교의 대립,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군의 대립 및 바그다드 조약국과 이것을 반대하는 중립주의적 경향이 착잡한 혼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터키,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니지만 회교를 통해 아랍 민족과 종교 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터이며, 그 의미에서는 유대교의 이스라엘과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이 다 같이 친서방적이란 관점에선 서방측에 대해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친공적 이집트 및 시리아와 반드시 사이가 좋다고도 할

5) Lur
6) 원문의 版土는 版圖의 오기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종적으로 또는 정치·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아랍 국가의 단결관계는 언제든 불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국가와의 분쟁을 통해 넉넉히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

팔레스티나에 조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유대인의 숙제는 1948년에 달성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 지역의 정세론 움직이는 폭발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저 팔레스티나의 무력 충돌은 1949년의 휴전 협정으로 일단 전문이 가신 듯했으나 이스라엘·아랍 국가 간의 국경분쟁은 거듭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분쟁은 그 뿌리를 뽑지 못한 채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스라엘국의 출현으로 80여만의 팔레스티나 피난민이 생겼고, 또한 이스라엘 국의 판도(版圖)를 아랍 국가의 실지(失地)로 보는 아랍인의 경향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의식으로 굳어져 갔다.

이리하여 1945년 3월 22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의 아랍 7개국 대표에 의해 카이로에서 결성된 '아랍 연맹'은 1953년 3월에 리비아의 가맹 그리고 1956년 1월 수단의 가맹으로 도합 9개국 연맹으로 되었다. 이 9개국 아랍 연맹은 사실상 아랍 통일운동의 주체를 목표하여왔다. 아랍인 5천만의 통일을 목표로 한 이 연맹의 활동은 격렬한 민족 감정에 편승하면서 이스라엘의 말살과 아랍 여러 나라의 단합을 지향하여 왔지만, 최근 년에 이르러 아랍 권내의 정치적 분열에 의해 그 운동 역시 당초의 목표로부터 약간 후퇴한 느낌이 없지 않다.

예컨대 아랍권의 맹주를 꿈꾸는 이집트 나세르의 중립 친소 친공 노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왕을 비롯한 요르단의 후세인 왕, 이라크의 파이잘 왕 등 연합세력으로 '아랍통일운동'은 두 개의 분파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상의 개관(概觀)은 중근동 자체의 고뇌를 엿보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착잡한 사태의 몇 가지 면을 열거한 바이다. 그렇지만 중근동의 자체 고뇌는 이것으로 그 설명이 진(盡)한[끝난] 것은 아니다. 아시아사피 이 지역의 민족국가들은 그 모두가 2차 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들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주권

의 지배세력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잠재적인 지배요소와 이에 항거하는 민족독립운동의 폭발적인 기세로 인하여 각종 대소 사건들을 폭발시키고 있었다. 이란과 요르단에서의 반영(反英) 야기 수에즈 분쟁사태 등등을 비롯하여 북아프리카의 반불(反佛)항쟁은 모두 역사적인 근거를 갖는 사태들이다.

어떻게 보면 3차 대전의 화약고 같기도 한 이 지역에 재빨리 촉수를 뻗친 소련은 민족 자결운동에 편승하여 반서방 세력권을 형성하려 했다.

그리하여 중립주의의 표방 하에 반서방 친소 친공 노선을 취하는 이집트와 이에 동조하는 시리아를 자기편에 끌어들이으로써 아랍권을 서방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했다. 이것은 또한 아랍 여러 국가를 하나의 아랍권으로 단결시켜 소련에 추종시키려는 술책이기도 하거니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랍권의 친서방 경향을 막기 위해서 아랍 국가군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기도 할 것이다. 소련의 이와 같은 술책은 자유진영의 대소 포위망을 뚫고 대륙의 동서를 양단시키려는 전략상의 포진이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은 바그다드 조약을 통해 중동으로의 소련 진출과 팽창을 막는데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 바그다드 조약은 NATO 가맹국인 영국과 터키의 가맹으로 NATO와 METO(바그다드 조약)를 연결시키고 있다 할 수 있고, 또 SEATO(동남아 방위조약 기구) 회원국인 파키스탄의 가맹으로 METO와 SEATO를 연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이 이처럼 정력적으로 아랍권에 촉수를 뻗치는 주요 목적은 전략상으로 볼 때 대소 방파제의 일각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볼 때 중근동 지역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세력을 추출하자는 시도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나세르 독재 치하의 이집트는 바그다드 조약에 반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55년 11월 시리아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통합 사령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56년 7월 시리아 회의에서는 이집트와의 연방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승인했다. 시리아 이집트 양국은 모두 연방관계를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1일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합하는 '통일아랍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곧 중형제간인 이라크의 파이잘 왕에 대해 요르단 이라크의 통합 관계를 실현할 것을 교섭한 결과 이집트 시리

아의 통합이 실현된 지 2주일 만인 지난 2월 14일에 '아랍연맹'의 결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 두 연방(聯邦)의 가는 길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방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금년 2월 1일에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된 이면에는 나세르의 강력한 추진 공작과 시리아 국내의 나세르 형 민족주의자들과 친소 그룹의 세력증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본다. 시리아의 친소 그룹은 통합의 최종단계에 이르러 버림을 받은 감이 있고, 나세르형 민족주의자들이 끝까지 이니셔티브를 잡고 '통일아랍공화국'의 출현을 보게 한 것은 '통일아랍공화국'의 장래를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통일 아랍운동의 패권을 다투면서 나세르의 강적인 사우드 왕은 잠시 사태를 정관하는 듯한 동정이 엿보인다. 이 와중에 시리아와 이집트의 사이에 끼여 가장 괴로운 입장에 서게 된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이라크의 파이잘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것은 즉 요르단과 이라크의 통합문제였다. 아닌게아니라 이집트, 시리아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요르단 국내의 친 나세르 파의 세력은 대두하게 되었고 왕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반서방 친소 친공 노선의 나세르 산하에 들어가지 않고 친서방 반공 진영에 서서 요르단의 국운과 왕위를 보존하는 길은 오직 이라크와의 연방성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리라.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요르단도 바그다드 조약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점이다. 그렇지만 이라크는 바그다드 조약의 정회원국이다. 그리하여 이 점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문제였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랍연방' 결성의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방 전에 체결된 국제협정은 각각 종전의 국토에 한해 유효하다고 인정함으로써 보아 바그다드 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우선 보류상태에 두기로 하고 당장에 표면화시키지 않은 듯하다.

이라크의 파이잘 왕이 후세인 왕의 청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면의 사정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만일 요르단이 '통일아랍공화국'에 휩쓸려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파이잘 왕권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통일아랍공화국'의 출현과 더불어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당착했던 고뇌와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라크의 파이잘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르단의 '통일 아랍공화국' 편입을 막아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이념상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세르의 지배하에 들어간 '통일아랍공화국'의 팽창과 강대화가 실현되면 아랍권의 현상은 전도되고야 말 것이며, 그 결과는 첫째로 왕제의 축출이라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로는 반(反)서방 친소 친공의 나세르 노선과, 친(親) 서방 반공노선의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결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라크의 파이잘 왕은 우선 요르단과의 왕제연합체를 결성하여 나세르 지배하의 '통일아랍공화국'에 대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왕이 장차 어떤 태도를 결하게 될 것인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욱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아랍의 패권을 다투는 그는 얼마동안 사태의 발전을 관망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3. 두 아랍연방(聯邦)의 성격(性格)

공화제로 나타난 이집트, 시리아의 연방체인 '통일아랍공화국'과 왕제연합체로 나타난 요르단, 이라크의 연방체인 '아랍연방'은 저마다 '아랍통일운동'의 본산'임을 자처하고 경쟁하고 있는 터이지만 그 어느 것이 더 아랍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는가는 지극히 미묘한 문제이며 또 그것의 여하가 국제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지극히 심대한 것이 있을 줄 안다.

예컨대 서방측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나세르의 친소 친공적인 중립주의가 아랍권을 지배하는 경우 대소 석권 정책 및 대소 봉쇄정책 또는 그를 위한 방위전략중심의 세계정책은 지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랍권이 친소 중립국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여기에는 대공방파제가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세계를 위해 행복한 일일까? 또는 중근동 자체를 위해 안전한 일일까? 또는 아랍인 자신을 위해 다행한 일일까? 정치적 주권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드시 하나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친소 중립주의의 역정은 도처에서 그 비극을 노정하고 말았다. 근자에는 인도네시아의 정정이 그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만일 중근동에서 친소 중립주의가 만연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사의 불행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침략위협을 막아내

야 하는 인류공동의 유대가 이 지역에서만 좌절된다는 것이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친공방위전략의 태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랍통일운동'을 표방하는 2개의 '아랍연방'은 쌍방이 모두 아랍통일의 제일보라는 것을 선명하고 있는 점에서 일견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한 상위한 점도 없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세계정국에 미묘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두 개의 아랍 연방이 나오기까지의 경위 또는 '통일아랍공화국'을 선언함에 제하여 발표된 17개 조의 임시헌법과 '아랍연방'의 결성에 관한 12개 조의 협정을 대조하여 볼 때 양자 간의 유사점 또는 상위점을 대강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유사점(類似點)

가. 쌍방이 다 같이 아랍통일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천명하고 이타의 아랍 여러 나라에 대해 가맹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점.

나. 하나의 의회 하나의 정부를 갖는다는 점. 국기와 통화를 동일의 것으로 제정한다는 점.

다. 외교·경제 정책의 통일 및 군대의 통합을 밝힌 점.

라. '통일아랍공화국'의 수립은 시리아의 국내 사정으로부터 발단하여 통합이 추진되었고(나세르의 야심적인 통합공작이 그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랍 연방'의 결성에서 요르단의 국내 사정으로부터 발단하여 통합공작이 추진되었다는 상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시리아는 이집트에 비해 소국이었으며, 요르단은 이라크에 비해 소국이었기에 소국들이 먼저 통합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결과로서 소국 측이 대국 측의 전면적인 원조 하에 놓이게 됨으로서 합방이라곤 하지만 사실상은 흡수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상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 또한 합방 전에 체결된 국제협정은 합방 전의 해당 국토에 한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서도 유사점은 발견된다.

△ 상위점(相違點)

가. '통일아랍공화국'은 공화제가 중심이 되어 있고 '아랍 연방'은 왕제 중심

을 취한데서 상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 '통일아랍공화국'에서는 대통령(나세르) 권한이 강대해 이집트 및 시리아의 양 지역에 부여될 자치권이란 것은 극히 한정될 전망이 보이지만 '아랍연방'에서는 앞으로도 양 국왕이 모두 왕의 칭호를 갖기로 되어 있고 만일 이라크의 파이잘 왕이 부재 시에는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원수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다. '통일 아랍 공화국'은 그 수립에 제하여 시리아의 정당을 해산시키기로 되어 있지만, '아랍 연방'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집트, 시리아의 합방보다도 이라크, 요르단의 합방이 펍 자유로웠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끝>

점차(漸次) 소련화(蘇聯化)하는 연방(聯邦) 아랍군(軍)

시리아와 이집트 육군이 요즘 가장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연방 '아랍'의 새로 편성된 육군들은 수적으로 '이스라엘'의 육군보다 우세할 뿐만 아니라 최신식 소련 무기들이 그들 국가들에게 도입되고 있다.

과거에 가장 약한 부대였던 장교군(將校軍)들이 현재 재빨리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마스쿠스에는 90%의 소련인 교수들을 보유하고 공산군 장교들의 지휘 하에 있는 참모대학 하나가 개교했다. 공산군의 '전문가' 들은 대대급(大隊級)의 연방 아랍군들에게 배속되고 있다. 수천명의 이집트인들은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세뇌 교육을 받기 위해 소련으로 파견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재래의 이집트군 장교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이한 사람들로 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소련의 해군 및 잠수함기지들은 현재 알렉산드리아와 포트사이드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지가 홍해 내에 있는 작은 항구 허가다⁷⁾에 건설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동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아랍군대라고 보고 있는 요르단 육군에 대해서도 상당한 침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도 아랍인들의 이 중대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소련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또 서방측의 영향력이 동 지구에서 소련 세력을 저지할 기회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견해를 표할 수 없다.

7) Hurgada

국군감축론(國軍減縮論)의 시비(是非)를 논(論)함

임원규(林元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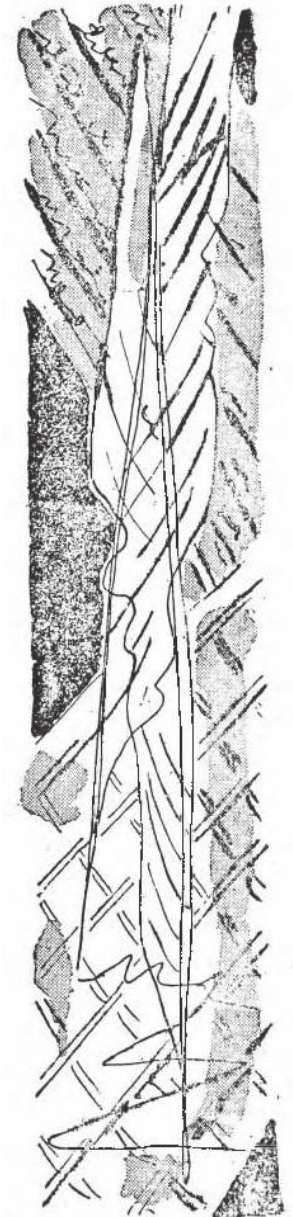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유력한 「뉴욕타임스」지의 기사를 인용한 외신은 이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한국군의 규모를 감축시키는데 동의했다”고 전제하고 약 6만 명을 감축하는 시안을 놓고 현재 한미군사지도자간에 회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앞서 워싱턴 관변 측에서 외신을 통해 한국군 병력 삭감 제안설이 전문된 이래 국내 여론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언론계의 반대여론이 한때 비등(沸騰)했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통된 이유는 피아간(彼我間)의 군사력 불균형 문제이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공산군은 최신식 무기의 공급을 받는 90만 내지 95만의 군세로 증강되었으며, 공군력은 3 대 1 화력에서 5 대 1이라는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훌륭하게 훈련을 받았고 사기가 왕성한 한국군은 약 65만 내지 7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2사단과 소수의 유엔군 병력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1개월이 채 못 되어 공산군이 이를 위반하면서 오늘날 그와 같이 방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동안 유엔군은 현존하는 병력의 선으로 점차 철수를 했으니 국제적인 도의만을 지키고자



신무기의 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적인 저울대가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을 깨닫게 된 유엔군은 한국정부의 항의와 국회 및 언론계의 점고하는 여론에 자극을 받았음인지 만시지탄이기는 했으나, 드디어 휴전협정 제13조 D항을 폐기하고 신무기의 반입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린 뒤에도 필자가 아는 한 원자포 및 200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유도탄이 도입되기까지 신무기의 적극적인 반입은 볼 수 없었다.

과연 이 양 무기의 한국전선 배치가 역시 원자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 되는 공산군과의 화력 차이, 즉 작년 말 현재의 전기한 5 대 1이라는 화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 접근시켰는지는 군사전문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미지수이다.

국군 병력 감축안에 대한 정부당국의 공식 태도가 국군을 신무기로 장비하여 개편하지 않는 한 감군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군에게 근대식 무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능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괴뢰군이 중공군과 합세하여 재침해올 경우 주동적(主動的)으로 전투에 임할 한국군이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또 신무기의 훈련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전개될 것인가? 미군이 원자포나 유도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만 믿고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방어의 입장에 서있고, 공산군은 항상 기습을 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는 이때, 과연 이러한 방어체제로만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가?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공군력, 화력 및 병력이 우세해야지 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수비하는 편이 압도를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외국군사 및 정치관측자들이 보는 한국전선은 일부의 원자무기 도입만으로 공산군과의 군사력 차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공군력 및 화력의 균형이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 그나마도 90만 명 대 70만 명이라는 병력 차이가 있는 기본전투원을 구체적 대책 없이 6만이나 삭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워싱턴 당국자가 누구인지 모르되 그 사람의 현 한국 군사 정세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참혹한 6.25전란의 발단도 그 성질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와



<사진은 필자(筆者)>

같은 그릇된 관점에서 방치된 무방비 상태에서 연출된 비극이었다.

물론 일조에 방어선이 허물어지고 수도 서울이 붉은 마수에 유린되고, 서울 부산 간의 국도로 내리미는 공산괴뢰군과 탱크 부대를 겨우 지연작전으로 막아냈던 전란 초기와 같은 비참한 상태는 재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군력, 화력, 병력 등 종합적인 군사력에서 그 차이가 현저해진다면 오직 승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뭉서리칠 만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감군안을 논하기 전에 우선 국군을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무기로 개편을 해서, 원자무기의 공급을 받았고 또 맹렬히 원자전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하여지는 공산군과 언제 어느 때 대결하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입장은 이상과 같은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에 입각되었다.

중공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란 자는 최근 북한에 있는 중공군을 금년 말 이래로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종용(從用)했다.

그자의 이와 같은 성명의 뒤에 숨은 음모는 실로 가공한 것이다.

중공은 우선 북한에 있는 중공군을 일위대수의 압록강 너머로 철수시킨 다음 미국 내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국전에 항상 미온적 태도를 취했으며, 휴전 성립에 크게 작용을 한 영국 등 일부 참전국에 압력을 가하여 미국도 한국에서 철수시키게 하려는 흑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원자무기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산괴뢰군과 아직 최신무기의 공급을 받지 못한 한국군만이 대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산 측은 언제든지 기습을 가하여 남침을 재연할 수 있다는 계산을 그들의 머리에 넣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계략이나.

오늘날 자유 공산 양 진영 간의 동태를 볼 때 소위 평화를 모색한다는 동서

정상회담이 금년 말 이전에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떠돌고 있다.

소련 수상 니콜라이 불가닌이란 자가 제안한 이 동서 정상회담은 그들이 오래 전부터 전개하여 온 평화공세를 클로즈 업 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세계에 대한 일대 음모이다.

중공군 철수 성명도 이와 같은 평화공세의 부분적인 제스처이며, 최근 평화 통일론을 선전해오고 있는 북한 괴뢰집단이 공산 간첩들에 의해 납북된 KNA

여객기의 승객과 승무원을 간첩 일단을 제외하고 우대한 뒤에 송환했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평화공세의 음모를 가장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동서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미소양국은 회담에 임하여 우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논쟁과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소련은 그의 위성국들을 사주하여 동과 서에서 이미 이 방면에 있어서 선수를 쓰고 있다.

금년 중 개최될 것이라고 외신이 관측하고 있는 동서회담은 자유세계에 관한 한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요 제네바 회담의 재판이 되고 실망만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위성국들은 세계에 대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느냐. 가장선전(假裝宣傳)을 통해 자유진영의 방위태세를 하나하나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정복을 획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서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때 과연 6만 명의 병력을 증강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웬 말인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란 이러한데다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병력 삭감론의 주요이유가 경제적인 것인 만큼 더욱 의아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적성국인 유고슬라비아나 공산국 폴란드나 용공(容共) 중립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게 거액에 달하는 원조를 주고 있으면서, 자유진영의 교두보이고 반공 최전선에 있는 한국에 대한 원조액 삭감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 관변 측은 병력 삭감을 통해 직업군인제도를 확립시키고, 군인 봉급 인상을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벌써 있어야 할 이와 같은 건설적인 의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선 6만에 가까운 군인을 제대시키면 그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원조를 증가시켜야 옳을 것이며, 그만한 대병력이 삭감된 후에 생기는 진공을 메꿀 수 있는 신무기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업군인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원자전 군대로 재조직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만 자유세계 방어진의 일각인 한국은 북으로부터 오는 어떤 군사적인 침해의 위협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극동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筆者) 시사통신사(時事通信社) 사장(社長))

<시(詩)>

만일에

상병(上兵) 최기영(崔基榮)

이내 몸이 만일에 꽃이 된다면,
눈 속에 홀로 피는 동백꽃이나
산골짜к 샹터의 풀꽃으로 피소서.

화려한 온실 꽃은 바라지도 않으니.

X X X

이내 몸이 만일에 새가 된다면,
창공의 자유로운 종달새거나
한 마리의 이름 없는 작은 새가 되소서.
금농(金籠) 속 카나리안 바라지도 않으니.

X X X

만일에 만일에 물고기가 된다면,
대해에 뛰노는 큰 고기거나
차라리 시냇가의 송사리지요.
어항 속 금붕어론 아예 되질 마소서.

전력론(戰力論) (상(上))

(군비(軍備)를 중심(中心)으로 한 몇 가지
기본적(基本的) 사고관(思考觀)에 대한 시비(是非))

공군 대령 이경춘(李慶春)

서론(序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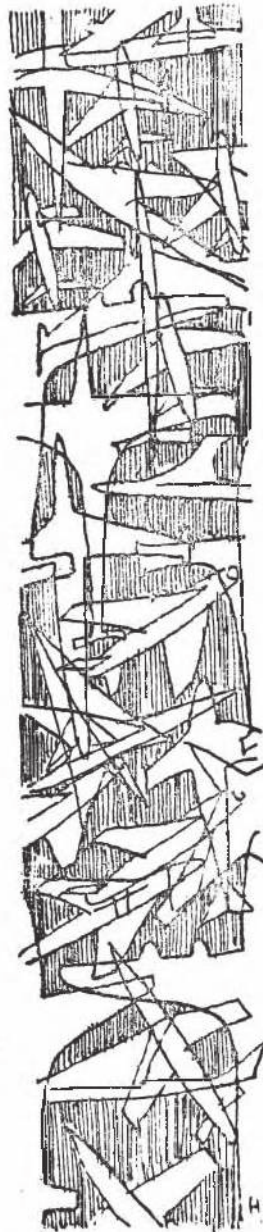
현대에서의 전력은 과거의 단순한 전쟁양상 하에서의 개념과는 판이하다. 그것은 전력, 즉 총력전으로 상통되는 것이므로, 그 국력의 충실 강화만이 국가의 엄존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제반 조건의 과학적인 분절과 통찰로서 구명되고 검토되어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위정자나 혹은 고위지도층 또는 일

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과학적인 사고관에 의함이 없이 편협한 주관적인 사고 하에서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은 통탄해 마지않은 바이다.

논자는 16년간의 군대생활의 체험과 특히 국방연구원에서의 학구를 통한 지식을 토대로 여기에서 군비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영향하는 정치 경제 전략 문제 중 몇 가지 기본적 사고관에 대한 시비를 논구(論究)코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광의적인 전력의 전반적 문제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체 논문을 4절로 구분하되 제1절에는 참다운 국방의 의의에 비추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이론에 기초를 두고 군비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 미국의 전략가 마이야스의 전략론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인용하



여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다. 제2절에서는 현대의 국제정치의 본질을 구명하는 동시에 그 속의 일환인 대한민국은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고차적 정치이념을 확립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히 했다.

제3절에서는 정치의 연장인 전략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전략관에 입각하여 근대적 군비를 보유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마지막 제4절에서 현대군비의 특성에 비추어 한국의 제반 능력을 대조·검토함으로써 군비와 경제를 균형 시켜 국가목적의 달성하는 방안을 구명했다. 이에 인용된 제반 문헌과 자료는 가급적 새로운 것을 이용하여 주관적 편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보다 높은 시야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국방 혹은 전력을 논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타당성 있는 방향과 사고관을 제시하는 것이라 믿는다.

제1절 국방(國防)의 의의(意義)와 군비보유(軍備保有)의 기준(基準)

대한민국에서 국방이라면 휴전선을 연상하여 공산군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논하고, 국방력이라면 이것이 현존하는 국군과 무력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형태가 단순했던 고대에서는 국방은 군비 그 자체의 관념으로 충분했으나, 전쟁형태의 복잡성과 전쟁수단의 발전에 수반하여 현재의 소위 국가 총력전이라는 항상 하에서의 국방은 군비·경제·사상 기타 유형무형의 각종 요소를 망라한 국력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현대에서 국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시 물심양면에서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것을 국방의 목적에 의거하여 유지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일원적으로 국가의 제(諸)요소를 총 통합하여 일체로서 전쟁에 임하여 국가목적의 달성을 기해야 한다. 국방이란 국가의 목적 또는 국책과 밀접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국방의 주안은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하여 국민의 도덕·문화·경제의 기반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유지하고, 그와 동시에 일단 유사시에는 침략을 격퇴하여,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방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한 요소가 군비이며, 그 본질은 자국의 국토와 국민은 물론 문화·경제·기타 제반 사회적 요소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의 도구이며, 국민생활을 존립시키며 보장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군비는 국가가 보유하는 전투력의 총화(總和)이며, 전쟁에서는 일 국력의 표현으로서 대내

적인 사법기관의 엄존과 동일하게 대외적인 안전보장에 절대 불가결하다. 현재와 같이 세계의 모든 국가가 법적 질서 하에 통제되는 초국가체제의 확립이 없는 한, 불가법 침략자(不可法侵略者)를 방지하며 독립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후의 것은 군비 이외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녕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군비의 기준을 무엇에다 둘 것인가의 문제는 국방을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미국의 전략가 마이야스는 그의 전략론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장애(障害)를 제거해야 하며, 그 수단의 크기는 소요의 목적과 그 달성과정에 개재하는 장애물의 크기에 의해 결정지어져야 한다.”고 논하고, 또 “상정(想定) 적국의 군비규모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론의 소유자가 다수이다. 물론 군비 문제를 고려할 시에 시인할 수 있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상정적국의 의의를 협의로 해석하여 현재 또는 명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적국만을 대상으로 군비를 한다는 것이 되며, 예기치 않은 적국에 대한 방위는 군비의 범위 외인 것이라고 된다. 이와 같은 군비는 이론상 일국의 안전보장으로서 신뢰성이 없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소요의 목적과 장애물의 크기, 이 양자로서 결정된다면 자국이 보유하는 제반 능력이 그 양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론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가능력상 그 양자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군비의 기준이 반드시 상정적국의 군비만을 상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의 전략론 속에 “전쟁은 단순한 적개심의 발로가 아니며 정치의 변형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논했다. 이것은 보편성 있는 정당한 이론이며 전쟁을 하나의 특수적인 고립적 현상이라고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전쟁과 이를 수행하는 사회 체제를 관찰할 때 양자의 관계를 전도시킬 수는 없으며 전쟁은 실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비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그 국가의 사회적 기반에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군비로서 수호해야 할 주체인 국가는 결코 생명이 없는 하나의 평면적인 물체로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즉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 있는 국민 또는 정치조직 문화 경제 등 이러한 제반 요소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 국가 활

동을 현현(顯現)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요소를 무시하고서는 국가존립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침략자에 대한 국토의 방위는 국토의 단순한 면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는 물론 그 속에 활동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수호일진대 전쟁 그 자체가 최종목적은 아니다. 비유컨대 각 가정에서 저위(邸圍)에 장벽을 구축하며 문호(門戶)에 견고한 자물쇠를 설치한다든가 혹은 번견(番犬)을 양육하며 수위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거대성이 방위하고자 하는 주체의 가치를 초월하여 그로 인해서 내부의 붕괴를 면치 못한다면 국방 또는 군비의 참다운 의의를 상실하며 외적의 침략을 저지하기 전에 자멸의 과정을 스스로가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비보유의 기준이라는 문제는 개개 국가의 객관적 조건의 차이, 특정의 능력, 특정의 시기, 특정의 상황에 따라 군비의 기준은 상이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휴전선 하나를 경계로서 공산군과 대진하며 그 적국은 과거에 불법적인 침략을 감행한 사실을 가지는 동시에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여 강대한 군비를 보유하게 된 현재, 평화적인 해결로서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우미(愚迷)한 관념이라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고 침략의 시기를 노리는 적 앞에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현재, 국방이란 공산군의 침략을 격파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며, 그를 위한 군비는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군비라야 한다. 이러한 이론은 물론 정당한 것이며 또 누구나 다 긍정할 수 있는 논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개념 그 자체만으로서 현실적인 군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국가의 능력이 목적과 예기되는 장애물의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침략을 격퇴하는 데도 미국을 위시한 UN 제국(諸國)의 공동작전으로서 휴전체결에 도달했다는 엄연한 사실은 이미 한국에 소요되는 군비는 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범위를 멀리 초월하는 것으로서 국가목적의 달성에서 독립적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자인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하다면 물론 어떤 악조건 하에서라도 한국은 한국국민으로써 수호하겠다는 정신적 각오는 물론 필요한 것이나 그 각오만으로는 결코 국방이나 군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보다 높은 시야에서의 집단 방위라는 개념 하에서 한국의 보전책을 구상함은 물론 군비보유도 연합체 내부에서 개개

의 능력에 상응하는 분담으로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전쟁 예상 지역인 한국 특히 약소국의 입장에서 과민한 불안과 초조는 무리 아닌 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유국은 자국이 아닐진대 불필요한 불안을 일소하여 그 속에서 한국의 활로를 찾으며 보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군비보유의 기준은 집단방위체제 내에서 자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군비를 분장(分掌) 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것이 결코 주권국가의 굴욕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의뢰심 혹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견실하며 현실적인 국가목적 달성의 최선의 방법이다.

제2절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본질(本質)과 국가보전(國家保全)을 위(爲)한 고차적(高次的) 정치이념(政治理念)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개개 국가 간의 대립은 다수의 강국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그 주위의 국가가 단합 혹은 협조함으로써 상호 세력을 견제 유지한 Balance of Power였다. 이러한 국제정치는 제 2차 대전의 결과 초파괴무기의 발전과 동시에 종래 군비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절대무기를 기초로 하는 신군비보유의 국가만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되어, 국제세력의 중심은 미국과 소련의 두 국가에 집중되었다. 이 두 세력은 과거 4세기 간 영국이 점한 지위 즉 세력균형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그 힘 자체가 세력균형의 결정적 요소로서 어떤 기타 소국가의 이동출입에 의해서도 결정적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 결과로서 과거의 세력균형이 가지던 유연성은 상실되어 상호 경직된 2대(大) 극으로 분할되어 국제간에 서로 대치하는 주도국의 세력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소국은 거대한 양국의 어느 일권(一團) 내에서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이 양국 우월성으로 인하여 자국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는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자기 자신의 사활적인 이해에 관한 문제도 이미 실질적인 제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 현상 하에서 2차 대전 이후 전후 세계질서의 확립과 침략을 방지하며 영구평화를 유지하려는 세계기구로서의 국제연합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기구 자체가 표방하는 목적과 주의 또 원칙에 크나큰 간격이 있어서 순

조로운 진행과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자태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해 국제연합을 통해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이상으로는 족할지 모르나, 결코 이 이상만으로는 냉혹한 현실 해결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할 씨가 1943년 '막부회의(幕府會議)'에서 귀환하여 "안전보장은 전후의 강력한 평화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 기대와는 반대로 세계적화를 궁극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자에게 국제연합은 항상 국책수행의 일수단으로 간주·이용되어 왔다. 국제연합에서의 한국문제 해결은 공산주의의 책원지(策源地)인 소련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은 과거의 제반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 거니와, 소련의 국책에 일대 변혁을 야기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국제연합 그 자체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다.

법만능주의적인 국제연합은 그 성질상 제반 사건을 여기에 선행하여 수반한 계속적인 여러 사실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취급한다. 그 결과로서 법이 산 사실을 '그 공죄에 따라' 차단하는 소송사건으로 대치되어 처리된다. 그러나 처리된 그 결과를 시행시킬 수 있는 실재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처리이며 실질적인 해결을 기할 수는 없다.

세계적화를 몽상하는 공산국가라는 것은 이러한 이상적인 법률적 의무수행이라는 것을 망각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평화애호국가군과의 투쟁은 힘의 상대적 관계라는 관념에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나 법의 질서에 대한 침략 범죄 무질서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국제연합이란 법을 옹호하는 국가가 죄를 범한 침략 국가를 소환하는 장소로 변해, 전자는 현장의 이상적인 문구를 이용하여 후자에 대해 단조롭게 다수결에 의한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 행사가 국제간에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공헌되지 않았던 예증을 한국자신의 문제로서 충분히 볼 수 있다.

① 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을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서 국제연합은 승인했다. 그러나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결정한 연후에 북한의 거부를 제치 못하여 1948년 2월 26일 남한에 국한된 총선거를 실시했다.

②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야기된 한국 전란에 1950년 6월 27일, 직각적인

UN군의 참전은 현장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였으나 침략자의 낙인을 찍은 공산군을 완전히 제재치 못했음은 물론 그 국가의 대표들과 동석하여 1953년 7월 27일 한국이 반대하는 휴전조약을 체결했다.

③ 휴전협정에 조인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침략국에 대해 하등의 저지책이 없으므로 북한은 현재 강력한 군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력한 제반 사실이 국제연합의 존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침략국가 앞에 얼마나 무위한 것인가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평화적 해결에 발휘한 기능도 없는 것이 아니며, 강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에 봉착하지 않은, 즉 일국(一國) 혹은 다수 국에 의해 승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國際機構)는 자신 위임하여 해결을 원하는 정도의 제 2의적 분쟁은 평화적 해결로서 가능했다. 국제연합의 정책이 각국에 대치되어 권력정치 그 자체를 없앨 수는 도저히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체결된 지역적 협정 또는 동맹은 현장 제8장 범위 내이기는 하나 국제기구로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의 표현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적 협정 혹은 동맹의 본질은 개개의 국가 간에 상통적인 국가이익의 추구에서 오는 상호부조의 조직체이다. 한 국민사회의 내부에서는 개인이 때에 따라서 그 이익을 개인을 초월한 도덕적 원리 앞에 자진하여 종속시킬 수도 있으며, 또 종속을 강요당할 때도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생존 그 자체까지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 이유로서는 국민 회사의 내부에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될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이상 또 중요한 것은 국민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증진시키며, 특히 개인의 생명을 폭력 앞에서 수호한다는 것을 임무의 일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사회에서는 개개의 성원이 그 개인적 이익을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 스스로 종속시킬 때 비로소 존립할 수 있고 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타주의와 자기희생은 그러한 범위 정도 내에서 도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치행동을 규율 지을 수 있는 구체성을 띤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개개의 국가 자신 이외 어떤 기관이라 할지라도 개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여 증진하며 또 존립을 수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그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하여 이타

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강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지도 못한다. 그 이유로서는 개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각기 개별적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개개의 국가가 해야만 하는 사실을 그에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제도, 즉 구체적인 도덕적 원리를 체현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시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국에 대해 보다 높은 고차의 도덕적 목표를 갖는 사회복지를 위해 무조건 국가적 이익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현재에 체결되고 있는 조약 혹은 협정이 순수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적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관으로서 성립되고 있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을 수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도 절대 중요한 것이 될 것이며,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결코 이러한 협정 혹은 동맹은 그와 같은 이상적인 도덕관에서 성립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상통적인 개개의 국가이익으로서 결합되어 있다.

한미 간에 체결된 경제원조협정 혹은 상호방위협정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의 팽창과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이익으로서 이루어졌다. 한국은 그것으로써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전하며, 또 나아가서는 국가목표인 실지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방호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공산국가 포위방어선의 일부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협위(脅威)를 제거하며, 태평양지구의 진출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자체의 안전보장을 확립한다는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경제 원조도 한국은 자립의 능력이 없으므로 원조에 의해 국가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경제적 파탄은 공산주의 침투의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산 침략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것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귀결된다. 더구나 해외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의 순환을 도모하며, 또 한국에서 산출되는 일반자원도 이용 가능한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한국을 상실하는 경우 아시아 전체의 약소 후진국가군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의 실추를 우려하는 것도 일부 요인이며,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미국의 도의적인 체면 문제의 영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50년 애치슨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면, "단순한 지상의 협약과 현존하는 사실을 기술한 협약과는 서로 다르다. 전자는 일방 또는 쌍방이 파기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파기되기에 효과가 없다. 그러나 후자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 되므로 준수된다. 따라서 유용하다.”

이 분석은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협정 혹은 조약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며 영속성 있는 것은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든가 또는 상호상보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그 유효기간은 그 내용이 쌍방의 이익과 일치되는 기간에 한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국가 모든 시대에도 부합될 수 있는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경제원조협정의 제10조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이를 폐지한다.’고 한 것이 이를 단독으로 표현한, 그리고 상술한 이론의 증명이다.

상호국가간의 이익은 그 국가의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影響度)에도 크나큰 간격이 있다. 따라서 하등 하처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고방식과 또는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서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미국·영국·프랑스 간에 수다한 불통일적 행동을 드러냈다는 사실도 이에 대한 산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합체는 국가이익이 반대되는 때는 절대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으나, 국가이익이 일치되는 한 효과적인 국가안전보장의 한 방법임에는 이론이 없는 것이다.

강대한 군비를 보유하여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공산군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이 당면한 현실에 감하여 국가목표인 남북통일의 달성과 또 국가 존명을 위한 보전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국제연합의 근본정신인 침략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의 희구관(希求觀)과 한미상호방위협정의 범위 내에서의 미국의 힘과 한국의 힘 이외에는 없다.

국제연합이 공산 침략국의 야망을 좌절시키는데 무위·무력하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미방위협정이 북대서양동맹 혹은 미일안보조약처럼 공산침략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성과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은 한국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능력이 없는 국가가 이와 같은 집단보장체제로부터 고립될 때는 그 국가의 운명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개의 국가이익추구의 한 방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의 이익이 영속되는 한 국가의 보장책으로서 절대적인 것이나, 국가이익이 서로 상반 분리된다면 그 결과는 한국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의 장단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한국

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와 같은 결합체가 신뢰성이 없는 그 자체만을 중요시하여 무의미하며 불가능한 노력만을 소비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결합체 내에서 상호이익이 상반되지 않을까의 문제에 대한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적인 이익에 부합된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지상목표로 하는 남북통일이 결코 미국의 지상목표로는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한 직각적으로 미국의 운명에 상통될 수도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어떤 국면에 도달하더라도 한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성이 없는 그 자체에 결코 한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정신적 무장은 한국 국민은 누구나가 다 가져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진영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 역시 어떤 형태 하에서나 정부 내에서 국민으로서의 생의 영위(營爲)를 원한다면 민주주의적 국가 공통적인 이익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합체의 힘의 근원은 결합된 국가 간에 상호가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또 협력가능한가와 아울러,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타협할 용의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롭고 자존심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은 공산주의의 결합과 같은 힘의 복종지배와는 판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수(眞髓)는 동의와 이해에 의해 그 권리가 영향력을 균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주권국가의 그 자체보다 넓은 테두리의 요청 속에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단국가 중의 약소국인 한국이 강국의 정책과 태도에 대해 신경질이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큰 사회 내부의 불통일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통절할 불안감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연합적 결합체 내의 일환으로서 그 속에서만이 활로와 국가존명의 보장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불필요한 불안을 청산하여 상호국가이익의 상반을 초래치 않도록 고차적 정치이념의 확립이 가장 선결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

소련 내각개편(內閣改編)의 경위(經緯)와 전망(展望)

윤일균(尹鎰均)

1. 서론(序論)

금년 3월 27일에 개최된 소련 제 5기 최고회의 제 1차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제 1서기 니키타 흐루쇼프는 내각 수상 불가닌을 국립은행총재로 좌천시키고 자신이 수상 직을 겸임함으로써 소련의 실권을 모조리 장악하게 되었고, 스탈린식 일인독재체제를 부활시켜 놓았다. 흐루쇼프가 오늘의 지위를 쟁취하기까지에는 크렘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허다한 자들이 모조리 추방 또는 숙청당했다. 1953년 3월 5일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츠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정부에서 발생한 주요한 변동을 더듬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53년 3월 6일, 게오르기 말렌코프가 스탈린 후계자로 지명됨.

1953년 3월 14일, 니카타 흐루쇼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됨.

1953년 7월 10일, 소련 정부는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의 체포를 발표했으며, 동년 12월 23일 사형에 처했음.

1953년 9월 12일, 흐루쇼프가 공산당 제1서기가 됨.

1955년 2월 8일, 말렌코프는 수상 직을 해임, 불가닌이 수상 직에 임명되고, 주코프는 국방상이 되었음.

1956년 6월 1일, 소련외상 몰로토프가 취임하고 셰피로브가 외상이 됨.

1957년 6월 22일~29일, 몰로토프, 말렌코

프 및 카가노비치가 반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축출되고, 주코프는 공산당간부회의 정회원으로 승진됨.

1957년 10월 26일, 주코프 국방상이 파면되고 말리노프스키가 국방상이 됨.

1958년 3월 31일, 불가닌이 수상 직으로부터 해임되고, 흐루쇼프가 수상을 겸임함.

이상과 같은 크렘린 변동사를 검토하여 볼 때 스탈린 사망 후 흐루쇼프는 온갖 음모술책을 다하여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오늘의 지위를 쟁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작년 7월, 흐루쇼프가 동구 여러 나라를 방문 중에 있을 때 몰로토프 그룹이 흐루쇼프를 제거할 공작을 전개하다가 주코프 등의 압력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오히려 자기네가 추방당했지만 작년 9월 주코프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중에 있을 때 흐루쇼

프는 주코프를 제거할 공작을 교묘히 추진하여 결국 주코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귀환하기도 전에 국방상 직으로부터 해임시키고 말았으며 그때부터 흐루쇼프가 스탈린 사후 내걸었던 소위 집단지도제라는 구호는 점차 와해되어가는 감이 있었고, 흐루쇼프의 일인 독재체제가 성숙되어 갔다.

2. 제5기 소련 최고회의(最高會議)와 내각개편(內閣改編)

A. 소련의 국가기구(國家機構)

정치적으로는 중앙, 지방을 통해 근로자 소비에트가 권력기관이고, 소련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권력기관이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국가소유 또는 협동조합이나 꼴호즈 소유의 형태를 취한다.

소련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소비에트, 민족소비에트로 구성되어 다민족 국가로서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주의로 설명되고 있다.

의사는 양회의 별개로 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합동회의에 의해 보고 의결이 행해진다.

소련 연방 최고회의는 소련 연방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직능을 가지며, 전 연방입법기관이고 연방최고재판소·특별재판소를 선출하고 각료회의(정부)를 지명 조직시키고 연방검사를 임명한다. 연방소비에트의 대의원은 전 연방을 통해 인구 30만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며, 민족 소비에트의 대의원은 15개의 각 가맹공화국에서 25명씩, 각 자치공화국(가맹공화국 내에 있음)에서 11명, 각 자치주(가맹공화국 내에 있음)에서 5명, 각 민족관구에서 1명씩의 비율로, 각 선거단위의 인구수에는 관계없이 선출된다.

B. 제5기 소련 최고회의(最高會議) 대의원선거(代議員選舉)

제4기 소련 최고회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소련에서는 제5기 소련최고회의의 대의원들의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연방 소비에트	783명
민족 소비에트	640명
계	1,378명

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제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c. 제5기 소련 최고회의(最高會議) 제1차 회의내용(會議內容)

가. 개최일시: 4291.3.27~3.31(5일간)

나. 개최장소: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다. 참가자: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대의원들과 소련공산당 간부회 및 정부각료, 기타 외국사절 및 내외기자들

라. 회의의 주요의제

- ① 소련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문제
- ② 소련정부의 구성문제
- ③ 콜호즈(집단농장)제도의 개선 및 MTS(기계 트랙터 스테이션)의 개편문제
- ④ 원자 및 수소무기시험 금지

마. 일정별 토의결정사항

3월 27일(목요일), 첫날의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양원합동회의에서는 소련 내각 수상 불가닌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고회의에 사표를 제출하자, 최고회의 간부 회의장 보로실로프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연장자 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를 수리하고 신내각 수상으로 니키타 흐루쇼프를 임명할 것과 그에게 소련 정부의 구성을 위임할 것을 제의한 바 최고회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서 이를 찬성(贊成)했다.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에는 보로실로프가 재선출되고 부의장 15명과 위원 15명을 선출했다. 그런데 전 수상 불가닌은 동 간부회의 멤버에서 이름이 빠졌으며 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의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급(論及)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만은 아직 보지(保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흐루쇼프가 신수상으로 선출된 후 그는 대의원들에게 ‘봉사에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피력한 다음 집단농장제도의 개선과 농경기구를 집단농장으로 이전하는데 관한 보고서를 낭독했다.

3월 28일(금요일), 양원회의가 각각 진행되었으며 대의원자격심사보고에 뒤이어 전 일회담에서 행한 흐루쇼프의 보고 즉 콜호즈 제도의 개선과 MTS의 개선 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3월 29일(토요일) 제3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연방회의를 개최하여 흐루쇼프 보고에 대한 토론을 계속한 다음 콜호즈 제도의 개선과 MTS의 개편에 동의했다. 흐루쇼프 보고토의에는 마스케비츠 농업상 등 계 12명의 의원이 발언하여 토론을 전부 종료했다.

3월 30일(일요일), 이날 휴회.

3월 31일(월요일), 흐루쇼프 수상이 신 각료명단을 발표하자 즉시 승인했다. 다음 소련 외상 그로미코가 행한 원자 및 수소무기 시험금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를 승인했다. 다음 소련 외상 그로미코가 행한 원자 및 수소무기 시험금지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를 승인했다. 그로미코는 소련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 시험의 중지를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만약 다른 국가에서 소련의 예를 따르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시험한다면 소련은 자위상 필요할 경우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 내각개편(內閣改編)의 특징(特徵)

금반(今般) 소련 내각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끄는 특징은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인 흐루쇼프와 내각 수상을 겸임하고 전 수상이던 불가닌이 국립은행총재라는 한 직으로 좌천되었다는 사실이다. 불가닌 수상의 사임은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며 그 후임으로서 흐루쇼프의 직계인물인 키리첸코(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가 임명될 것이라고 관측되어 왔었다. 금반의 내각 개편에 의해 흐루쇼프는 당과 정부의 실권을 한 손아귀에 장악한 사실로 보아 그가 스탈린 사후 오랫동안 부르짚어 온 집단지도제나 개인숭배 및 1인 독재 반대 등은 하나의 헛된 구호로 화했으며 흐루쇼프는 오늘날 스탈린이 없는 소련에서 최고의 권력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순간에 소련 내에서는 감히 그에 도전할만한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또한 금반 신 내각 구성에서 흐루쇼프의 심복자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공화국 수상 꼬즈로프가 일약 제1부 수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는 결국 소련의 당과 정부의 주요한 성원이 흐루쇼프 일파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소련의 권력쟁탈 투쟁이 일단 종료되었음을 표명하는 것 같다.

E. 소련 연방 각료회의(閣僚會議)

소련 연방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각 성은 전 연방성(단일성)과 연방 및 각 가맹공화국에 동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성(복합성)으로 분류된다. 각 성의 분류 통합은 종전에 종종 행하여졌고 스탈린 사후 말렌코프 수상 하의 각료회의는 일시적으로 그때까지의 51성으로부터 25성으로 통합되었는데 다시금 개조, 분리의 경향을 보였고, 다시금 1926년 2월의 제20차 당 대회 이후는 중앙집권을 개정하여 지방분권화에 의한 연방공화국성의 점증을 보여주고 있다. 1956년 7월의 개정헌법에 의한 전 연방성과 연방공화국성은 전연방성 24성, 연방공화국성 26성 계 50성이다. 그러나 1958년 3월 31일 소련최고회의에서 발표 승인된 소련각료회의의 편성은 별표와 같은데 특히 연방공화국상 12명, 전연방상 7명, 계 19명은 전원이 유임했음을 특징하는 바이며, 그리고 신(新)각료회의에서는 작년(1957년) 11월부터 폐지되어 있던 제1부 수

상제(2명)가 부활되었고, 그 이외에 특히 새로운 것은 없다. 각료회의에는 간부회의 외 공화국상 12명, 연방상 7명, 국민경제 장기계획위원회 의장 등 각 국가위원회 의장 13명, 국립은행 총재, 다시금 국민경제 장기계획위원회의 제1부 의장(2명), 부의장(3명), 부장의 1부(4명)가 더 가입되었다.

구분	비교	불가닌 수상(首相) 당시 (1956. 7 헌법개정 (憲法改正))	흐루쇼프 (1958. 3. 27.)	과부족(過不足)
상(相)		50	19	(-) 31
위원회(委員會)		4	12	(+) 8
국립은행 총재			1	(+) 1

※ 1957. 11월부터 폐지되었던 제1부수상제(2명)가 부활되었음.

F. 신내각(新內閣)의 주요인물(主要人物) 약력(略歷)

수상 흐루쇼프 약력

1894년 - 우크라이나에서 출생
 1918년 - 모스크바 공산당에 입당
 1937년 - 모스크바 공산당 서기
 1939년 - 정치국원
 1946년 - 우크라이나 수상
 1953년 - 스탈린 사망으로 소련 공산당서기장 취임
 1955년 - 말렌코프를 수상 직에서 축출하고 불가닌을 수상으로 임명
 1957년 -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을 반당분자(反黨分子)로 당중앙위원회에서 축출추방
 1958년 - 소련 수상 겸 당 제1서기

제1부수상 프, 르, 고를도프의 약력

1908년 - 소련 모스크바 동남 도야진 주에서 출생, 오카 강안 카시모프 방직공장 사동
 1926년 - (18세) 공산당 가입, 레닌그라드 공예학교 졸업, 기술자
 1939년 - 중북 러시아 이제프스크 시 야금공장 공산당 서기
 1940년 - 이제프스크 시당위원회 서기
 1953년 11월 - 레닌그라드 지구당 제1서기
 1957년 7월 - 공산당 간부회의 정회원
 1957년 12월 - 러시아 공화국 수상

1958년 3월 - 소련 제1부 수상

제1부수상 미꼬얀의 약력

1895년 - 그루지야 공화국 수도 트빌리시에서 출생
 아르메니아 신학교 졸업
 1915년 - 소련 공산당에 입당
 1926년 - 정치국 원보
 1935년 - 정식 국원
 1953년 - 부수상 겸 상업상, 무역상
 1955년 - 부수상 전임
 1958년 - 소련 제1부 수상

※ ㄱ. 아르메니아인으로 소련 최고지도층에 들밖에 없는 비(非)슬라브인 중의 한 사람
 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4명 중 한 사람, 즉 고참 볼셰비키
 ㄷ. 소련의 현 지도자를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련의 고위정사에 장기간 종사한 경험이 있음.

부수상 알렉세이, 코시킨의 약력

1904년 - 출생
 1938년 - 직물공업인민위(소비에트 관계에서 주목을 끌게 됨)
 1939년 - 소련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됨
 1940년 - 부수상, 산업회의 생산필수품회의 의장 겸임
 1946년 - 정치국원 후보
 1948년 - 재무상
 1948년 - 경공업상, 정치국정국원

※ 스탈린 사망 후 제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개조 시에 간부회원 후보로 떨어지고 부수상을 전임, 경석료공업상

1953년 - 생활필수품공업상

1953년 - 부수상 겸임
 1954년 - 생활필수품 공업상을 면(免)함
 1958년 - 부수상

※ 레닌 훈장 3개 적기장(赤旗章) 및 메달이 수여되고 있음
 국립은행 총재 니콜라이 불가닌의 약력

1895년 -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출생
 1917년 - 소련 공산당에 가입(비밀경찰원)

1931년 - 모스크바 시장
 1937년 - 소련 중앙은행총재
 1941년 - 국가방위위원회 위원
 1948년 - 정치국원
 1952년 - 공산당 최고간부위원회
 1955년 - 소련수상
 1958년 - 수상직 해임

국방상 말리노프스키의 약력

1900년 - 오데사에서 출생(당년 59세)
 1940년 - 소장, 독소전쟁 발발 당시에는 백러시아의 군사령관으로서 퇴각작전을 전개 드
 메쁘르페뜨르보스크 시 근방에서 폰 구데이스트 지휘 하의 독일군 수개 사단을 격멸함으
 로서 중장으로 승진
 1943년 - 스브로스 일급훈장 수여
 1943년 - 대장으로 승진(1월)
 1943년 4월 - 상급대장으로 승진
 1944년 - 루마니아 석유지대 점령, 부다페스트 점령,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일소전쟁 당시에 자바이칼 방면군사령관
 1945년 - 자바이칼, 아쿠르 군관구 사령관(군사령부는 하바로브스크 시)
 극동군총사령관
 1951년 - 중앙으로 복귀
 제19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후보에 선출됨
 1958년 - 소련 국방상
 ※ 제2차 대전 당시 소련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영웅의 한 사람이나, 최근에는 원수로 승격되리라는 징조는
 전혀 없다

외상 안드레이 그로미코의 약력

1910년 - 백러시아 민스크에서 출생 경제전문학교와 농업전문학교를 졸업
 1939년 - 외무성에 들어갔음
 1943년 - 주미대사관 참서관 근무
 1943년 - 리도노프와 교대해 주미대사
 1946년 - 국제연합 안보이사회 소비에트 상임이사 대리

1948년 - 말리크와 교대해 외무차관
 1951년 -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 수석전권
 1952년 - 주영대사
 1958년 3월 31일 - 소련 외상

3. 소련의 내각개편(內閣改編)과 각국(各國)의 반향(反響)

미국, 딜레스 미 국무장관은 3월 29일 소련공산당 제1서기 니키타 흐루쇼프가 소
 련 수상을 겸임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미소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의 관련 측에서는 흐루쇼프가 당의 제1서기로서 사실상
 의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직접 겸임하게 된 동기는 앞으
 로 열리게 될 동서정상회담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상직과
 당 제1서기를 겸임하는 것은 스탈린식 독재형태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
 월 28일부 Washington post지는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흐루쇼프가 정부수석의 지
 위를 탐내는 이유는 상상 밖의 일이 아니지만, 동서회담에서 타국 수뇌와 완전 동등
 의 자격으로써 출석하기 위해 혹은 국제 활동의 면에서 보다 탄력성을 가지기 위한 것
 이라고 본다. 흐루쇼프가 스탈린과 같이 국내에서 승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스탈린의 재현이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흐루쇼프가 전부터 최고 권력자
 였으므로 국내 세력관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프랑스: 파리발 AP 통신에 의하면, 프랑스 사관들은 27일 흐루쇼프의 소련 수상피
 임은 동서 정상회담을 위한 계획안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소식
 통들은 흐루쇼프가 전임자인 불가닌보다 더 중책을 띤 것으로 서방측 지도자들이 생
 각하는 것처럼 소련은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변동에 관한 공식논평은 아
 직 없다.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3월 28일 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유고정부 대
 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의 수상 취임에 대해 "우리들은
 이러한 기타의 정변에 논평을 가하고 싶지 않지만, 유고슬라비아는 흐루쇼프의 수상
 임명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은 3월 28일 흐루
 쇼프의 수상 취임에 축전을 보냈다고 함.

타이완: 타이페이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자유중국 정부대변인은 흐루쇼프가 소
 련에서 최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은 자유세계에 대한 불길한 징조라고 해석했다.

일본: 3월 29일부 일본 매일신문은 '소련은 독재체제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제목 하
 에 사설을 게재하고, 요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소련 수상의 교체는 의외이기도 하고,

의외가 아니기도 하다. 불가닌의 실각설은 누차 전해진 바 있으므로, 예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독재체제를 배경하여 집단지도제를 도입한 책임자의 한 사람이며 스탈린 개인승배에 격렬한 비판을 가했던 흐루쇼프가 수상을 겸임하여 스탈린과 같은 독재적 지위에 오른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은 먼저 흐루쇼프가 개인적인 독재제를 구축하여 나가는가의 여부에 두고 있다.

각국(各國)의 반향(反響)에 대(對)한 소련의 변명(辨明)

런던 3월 30일 발 AP통신에 의하면, 소련의 대북미 모스크바 방송은 3월 29일 흐루쇼프의 수상겸임에 대해 “소련의 지배적 정당인 공산당 지도자가 정부 내부에서 지도적 지위에 취임토록 요청된 것은 경악할 일이 못된다.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당의 지도자가 정부의 수반을 겸임하고 있다. 서방측 논평가들이 무엇 때문에 흐루쇼프의 수상취임을 개인승배의 부활로 보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산위성(共産衛星) 국가(國家)에 주는 영향(影響)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내각수상을 겸임했다고 하여 대 위성국 관계에 있어 흑종(或種)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각 공산 위성국가들 간의 행동통일은 당을 중심으로 하여 유지되어 왔고, 흐루쇼프가 지금까지 소련 공산당의 제1인자로서 군림하여 왔기 때문이다. 국제공산기구로서 과거에 존재했던 코민테른이나 1947년부터 1956년 5월까지 부다페스트에 설치되었던 코민포름이나, 작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공산진영 정상회담 이후 설치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각국 공산당 간의 정기적 국제회의를 막론하고 이를 영도하고 있는 것은 소련 공산당이다. 따라서 1953년 3월 14일부터 소련 공산당 서기 직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각국 공산당을 통솔해온 흐루쇼프가 수상직을 겸임했다고 하여 국내의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국내에서의 자기의 독재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 대(對) 위성국가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산진영 간의 유대를 가일층(加一層) 강화시키기 위해 그 회유정책에 흡흡(吸吸)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의 대 북한괴뢰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흐루쇼프가 내각 수상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괴뢰 수상 김일성은 3월 29일 그에게 아래와 같은 축하 메시지를 재빠르게 발송했다.

“조선 인민은 공산당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불굴의 투사인 당신이 소련 각료회의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축하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중공을 비롯한 다른 공산 위성국가에서도 발송되었을 것이며, 불가

닌의 초상화 대신 흐루쇼프의 초상화를 게양할 것으로 본다.

4. 내각개편(內閣改編)과 앞으로의 전망(展望)

소련은 현재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작년도에 실시한 경제행정의 지방분권화를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 MTS(기계 트랙터 스테이션⁸⁾)를 집단농장으로 이양하는 사업 등은 실로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하여 흐루쇼프가 스스로 수상을 겸임한 것은 대 내외정책에서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련에는 아직도 반 흐루쇼프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가 국내정책을 수행하는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경제의 지방분권화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의 공업관계성이 대부분 없어졌고, 고위직 책에 있던 특권 관료들이 지방으로 추방되어 그 권력이 박탈(剝奪)되었으므로, 그들이 불평불만을 품고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불가닌을 비롯하여 스탈린 파인 수솔로프(공산당 중앙간부회의) 등과 합세하여 흐루쇼프에 대항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러므로 흐루쇼프는 자기의 독재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금후 전력을 다할 것이다.

5. 결론(結論)

과거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기까지의 그 모든 동란의 와중(渦中)에서도 소련의 국내 정책은 관성을 유지했고 중공업 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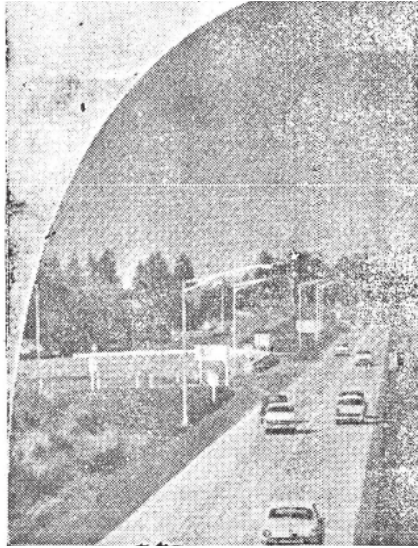
외교정책에서는 계속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인민전선을 비롯해서 오늘날 까지 유지되어 온 그 모든 국제공산주의 기관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흐루쇼프도 역시 중공업 치중 제일주의를 신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조력과 뒷받침으로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광적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스탈린은 자기의 일인 독재를 유지하는데 거대한 비밀경찰과 그와 분리된 경찰군을 가지고 있었으나, 흐루쇼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탈린이 가지고 있던 것의 미약한 잔재(殘滓)에 지나지 않는다. 흐루쇼프는 스탈린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밀경찰을 숙청함으로써 그의 권력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흐루쇼프가 스탈린식의 강력 한 권력 형태를 다시 한 번 그의 손아귀에 쥐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과 흐루쇼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스탈린 시대에는 소련이 아직도 미개하던 땅에서 공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나, 오늘의 소련은 문화와 생산수준이 향상되었으므로 완전한 독재체제를 확립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筆者): 공군정보국 차장(空本情報局次長) 공군대령(空軍大領))

8) machine tractor station; 러시아어로는 МТС(машинно-тракторная станция)

미국(美國)에서 보고 느낀 것

윤주영(尹靑榮)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무규율하다는 말을 우리들 자신이 곧잘 해도, 어디가 어떻게 무질서하냐고 따지고 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은 우리가 무질서한 사회상에 만성화되어 문란(紊亂)한 사회질서를 보아도 별로 자극을 안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 거리는 홍수 같은 자동차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연상케 하지만, 매일 보고 또 겪고 나면 '서울 거리는 의례(依例)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도 신기한 사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외국을 여행하면 외국의 실상과 우리의 실상을 부단히 비교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어떤 점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을 갖게 된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기도(企圖)하는 목적은 아마도 이런 데 있는 듯하다.

한국을 처음 떠나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동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운 동경만 해도 시내 택시가 30마일 또는 35마일로 달린다.

매일 기껏해야 25마일 속도의 자동차 밖에 타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는 불안감에 잠기게 된다. 자동차라는 것이 원래 바쁜 일에 타는 것이고 보면 그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처럼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실정이고 보면 자동차를 전폐

(全廢)해 버려도 좋다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 교통이 얼마나 질서정연하나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생활이 안정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측정되고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질서도 좀 더 질서정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침 일곱 시 반경에 동경 거리를 택시로 달려본 적이 있다.

자동차는 일산인 도요타 우리나라의 택시가 거의 미제 아니면 영제의 외래품인데 반해, 일본의 택시는 국산품이라는 점이 부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속도는 35마일, 이것도 우리에게서는 불안스러울 만큼 빠르다.

그러나 더욱 놀란 것은 차창 밖의 풍경이었다. 서울서 일곱시 반 경 하면 통근자와 학생들로 거리가 미어질 듯이 혼잡할 때다. 그러나 동경의 일곱 시 반은 우리나라의 새벽 여섯 시에나 해당할 정도로 고요하고 한산하다. 어찌된 영문을 몰라서 운전수에게

“이곳 통근시간은 대체 몇 시요?” 하고 물었다.

“아홉 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적하던 말이요?”

“아직 한 시간 반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럼 몇 시나 되어야 통근자들로 혼잡하게 되요?” 했더니

“글쎄요 시내 같으면 아무래도 여덟 시 반은 되어야죠.”

나는 그저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 시간의 차이. 그것은 사회가 안정된 것을 의미하는 한 시간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통근밥을 지어야 하는 한국의 주부보다 한 시간 늦게 일어나서 유유히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일본 주부들은 얼마나 행복하며,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단단히 받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기왕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다. 미국의 남도(南都) 뉴올리언스에 들렀을 때 이야기다. 뉴올리언스는 미국 제2의 항도(港都)이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대단하다. 흑인은 백인 영화관이나 식당에 발을 못 들여놓으며, 전차나 버스도 흑인좌석과 백인좌석이 지정되어 있다.

전차와 버스 좌석 뒤에는 나무로 만든 패목이 달려있어 '이 좌석 앞에 유색인은 앉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써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색인'에 우리들 동양인이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동양인은 백인과 같이 백인석에 앉지만,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고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다. 뉴올리언스에는 3일간을 묵었지만 3일간 한시도 유색인의 관념을 잊어본 일이 없다.

어느 날 전차를 타기 위해 혼자서 집을 나왔다. 나의 머리는 전차 좌석 위에 붙는

‘패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연한 신경과민인 것을 알면서도 ‘차장이 흑인좌석으로 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다. 질주하던 자동차가 급정차를 하면서 내 안에서 멎었다. 나 자신을 살펴보니 길을 3분의 1쯤 횡단하고 있었다.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도로를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연한 차도를 마음대로 횡단하고 있었다. ‘아차!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들었다.

유색인에 열등 대우를 심하게 하는 이곳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얻어맞아도 도리 없다는 체념감이 떠올랐다. 더구나 그 차에 있는 운전수가 정숙한 숙녀도 아니며 신사도 아니고 험상궂게 생긴 트럭 운전수이고 보면 걸려들기도 단단히 걸려 든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흔히 미국 병졸들이 “갓땀. 선 오브 비치” 하고 욕설을 퍼붓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목덜미를 붙잡고 서너 번 걸어치는 꼴을 보아온 나는 ‘저 자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가서 사과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모자를 벗어들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운전수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손을 내젓고, 어서 건너가라고 권유하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병병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더니 다시 “먼저 건너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안하다는 인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하면서 통로를 건너갔다. 운전수는 극히 만족하는 낯으로 “굿바이” 인사까지 하면서 차를 몰로 갔다.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고, 교통은 ‘보행자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에서 트럭 운전수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의 하나였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교통법칙을 위반한 보행자는 10달러 내지 20달러 또는 며칠간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하와이다. 하와이에는 8,000명의 교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시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하와이에서도 와이키키 해수욕장은 별천지다. 현대식 호텔이 즐비하게 늘어진 대로를 남녀가 해수욕복만 걸치면 거리낌없이 활보할 수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의 동양 윤리(倫理)를 고수하는 우리나라 영감님들이 그 광경을 보면 “아아! 드디어 말세로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자살할지도 모르는 남녀의 노출증이 가장 심한 곳이 이곳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와이 대학의 여학생 복장은 대단히 간결하고 노출적이다. 상반신의 블라우스는 겨드랑이 보일지 말지 한 짧은 소매에 그 기장도 해수욕복 기장만큼이나 짧다. 본래의 팬티도 블라우스 기장보다 더 짧다.

“도대체 저 학생이 뽀스를 입었나? 안 입었나?”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외관이다. 이러한 복장을 하고 보이프렌드(남자친구)와 팔을 끼고 강의실(講義室)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다.

어떤 날 어떤 교수가 그러한 여학생에게 너무 지나치다는 주의를 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대답 “That’s none of your business(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나?)” 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내가 할 일이지 당신 사무는 아니지 않느냐? 남의 일에 참견 말라!” 이것이 그 여학생의 대답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처럼 실례되는 일은 없고, 혐오감을 사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자기만이 옳고 자기 의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고 반역자다. 전술한 여학생의 경우는 좀 지나치지만, 미국에서는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 되어 있다.

타인이 법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웃 간이나 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대체로 보면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대강 들어보면 “남이 쌀을 가마로 사다 먹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든 당신네가 무슨 참견이나?” 하는 것이거나 “내가 술을 먹고 여자를 희롱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 하는 식의 다툼이다.

생각하면 한심할 때가 많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한다’는 의사결정 하나만으로써 만사가 해결된다.

미국여행 중에 영원히 잊지 않는 노인 한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전연(全然)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는 노인이다. 뉴올리언스역에서 고대의 현승호(玄勝鎬) 선생님과 헤어져서 시카고행 기차를 탔다.



<사진은 UN본부(本部)에서 필자(筆者)>

그때까지의 여행은 현 선생님과 동행이 있으므로 고독감이나 지루한 감정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뉴올리언스로부터 시카고를 거쳐 뉴욕까지는 혼자서 가야 했다.

뉴올리언스는 시발역이었으므로 좌석도 텅 비어 나는 아무데나 앉았다. 내가 탄 객차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다. 그러나 기차가 발차하여 얼마 안 되자 차장이 들어와서 흑인을 몰아낸다. “당신들 좌석은 저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나에게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근처에 있는 백인들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뉴올리언스에서처럼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기차가 인종차별이 없는 북부로 달림에 따라서 흑인 승객도 한사람 두 사람 우리 객차에 올라와 앉게 되어 시카고 근처에 이르러서는 흑백인이 완전히 혼합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나의 마음도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시카고 행 열차의 승차시간 대부분을 끄연실(喫煙室)이 아니면 바에서 보냈다. 내가 끄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Flag Man이라는 모표(帽標)를 단 노인 하나가 들어왔다. 철도에 종사하고 있는 신호수였다.

그는 나를 한참 주시하더니 “당신 일본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오오, 코리아!” 하고 반색을 하면서 자기의 막내아들이 한국전란에 참전했다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한국 이야기가 실마리로 되니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기차소속 회사인 일리노이 센트럴에 50년이나 근속했다는 말이 나왔다.

기껏해야 50밖에 안돼 보이는 당신이 50년을 근무했다니 실례지만 지금 몇이냐고 물었다. 74세라는 것이었다. 곧이들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사진을 꺼내 보이며 노년기에 들어선 자신의 자식들을 가리켰다.

“70이 넘는 노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오?”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모두 내 낙이죠. 자식들은 모두 잘 삽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이렇게 튼튼한데 무엇 때문에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있겠소?” 하며 그는 탭댄스나 추뿃 발을 굴렀다.

한국 같으면 산송장 취급을 받는 노인이 미국에서는 건전하게 일하고 있으며, 또 한 자기의 노동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싫은 데에서라는 것과 자기의 낙을 위해서라는 말을 들을 때 크나큰 감명(感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30세만 넘으면 벌써 “이젠 늙어서……” 하고 없는 수염을 쓰다듬는 젊은이들을 꼭 한번 대면시켰으면 좋았을 노인이었다.

끝으로 미국여행을 회상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에서 각계각층의 미국인을 상당히 만나보았어도 내가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만난 사실이다. 파상적인 관찰이었는데는 모르나 그들은 조금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국가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고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활 관념이다. 퇴근시간이 되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국가적 사무가 있더라도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더불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부부 동반하여 극장이나 파티에 간다.

사회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자기가 담당(擔當)한 관청사무나 회사사무는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나 파티에 가는 일보다 비교가 안될 만치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 사회 사무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 관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철칙이다.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긴급한 국가 사무를 박차고 부부 동반하여 극장에 간다면 당장에 파면감이 다. 남편이 회사의 사무상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부인이 군소리를 하면, 남편은 “내일이야? 회사일로 그랬는데!” 하고 당장에 구박을 한다.

개인이나 가정은 국가나 회사를 위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식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세계최강의 강국이며, 회사는 번영일로에 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각자가 자기 임무와 책임만을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는 개인들이 단합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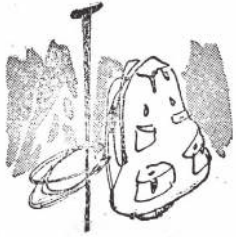
우리나라처럼 ‘국가를 위한다.’ ‘사회를 위한다.’는 엉뚱하고 지나친 생각을 하는 홍길동식의 인물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러한 것인 듯 생각이 든다.

(필자(筆者)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조교수(助教授))

스위스의 고산조종사(高山操縦士)

= 고산준령(高山峻嶺) 위의 이착륙모험기(離着陸冒險記) =

H.P 듀바흐 기(記)



주(註): 이 글은, 등산가들을 구조하기 위해 알프스 산의 험준한 암석과 빙하 사이의 절벽과 계활지(開豁地)를 거의 날마다 비행기로 이착륙하면서, 구난 혹은 공수(空輸)작업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노련한 민간 조종사 헤르만 가이젤 군에 관한 이야기이다.

헤르만 가이젤 군이 1952년 어느 날 파이퍼 슈퍼 큐브 25호 경비행기를 타고 백설과 얼음으로 뒤덮인 스위스의 칸텔피몬 산 위에 착륙함으로써 그때까지 불가능하다고만 알고 있던 유럽 산악지대 간의 수송에 신기원을 획(劃)했다.

오늘날에 와서도 글레시어 파일렛(빙하상의 조종사)라고 불리고 있는 가이젤 군은 높이 7,000 피트의 빙산 위에 다만 스포츠 하는 기분으로 착륙했던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10년 동안의 계획과 수련(修練)이 결실한 혜택이었다. 그동안 가이젤 군은 백설이 쌓인 산정의 성질과 자연상태 산간을 부는 바람의 성격과 험준한 경사지를 비행하는 기술 등의 연구와 수련에 끈기 있게 골몰(汨沒)해왔다.

1952년 5월 10일 역사적인 비행을 하던 날까지 가이젤 군은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인 준비에 완벽을 기했다. 물론 임무를 하는데 적당한 비행기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이젤 군이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게 된 동기를 알자면 그가 열 살 때 스위스의 발라이스에 있는 시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개최된 항공연구회에 참석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부터 비행기에 대한 흥미와 조종사가 되려는 영감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4년 후 자동차 수리공으로 취직할 때까지 틈만 있으면 젊은 가이젤 군은 글라이더 모형 만들기에 자유시 간을 투여했다. 그 후 저축한 예금으로 대형 글라이더 1대를 구입하여 활공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그가 조종사 면허증을 받을 때까지는 거의 어떤 비행기나 활공기라도 단독으로 혹은 승객을 싣고 어떤 험준한 산악지대 사이도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을 때였다.

“나는 알프스의 계곡을 따라 수백 수천 번을 날아 보았다. 그때마다 험준한 산정들은 나를 유혹하는 듯했고, 기암괴석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무서운 자연의 힘에

대해 동경의 마음이 조금씩 썩트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그의 과거를 술회한다.

“때때로 기상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좋지 못하여 혹은 나 많은 선배들의 권고를 받고 비행을 중지하고 집에 머물러있을 때의 심정은 언제나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라고 그는 종종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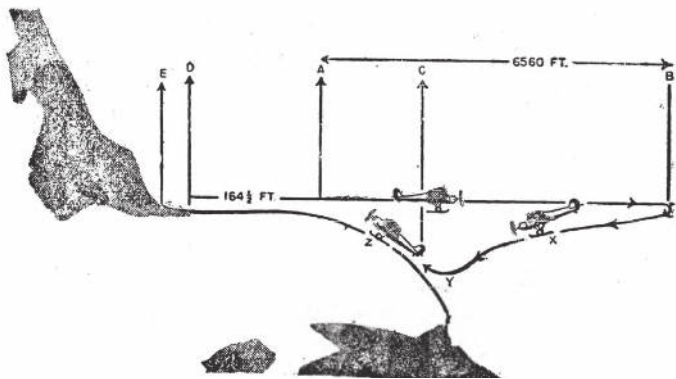
가이젤 군이 고산준령 위에 착륙해 보고 싶은 충격은 처음부터 마음을 꼭 휘어잡았다. 그의 꿈은 다시 말하면 등산가들의 집을 막고 보급을 중단시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부상당한 등산가들을 구출하기 위해 빙하, 산등성이 혹은 험한 산정 위에 공중수송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무르익어갔다. 그는 1921년 프랑스와 듀라포 군이 쿠드롱 G-3 형 복엽(複葉)비행기를 타고 높이 15,600피트의 도메두고르 산 위에 착륙한 아슬아슬한 경험담을 들었다. 이러한 모험을 다시 해볼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이젤 군으로부터 받은 듀라포 군은

“왜? 내가 이런 짓을 끝장도 맺지 않고 그만둘 것으로 보여?”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펄쩍 뛰었다. 가이젤 군은 독일전쟁 때 강착차륜(降着車輪)착륙용 바퀴와 스키를 장착한 클렘 형 비행기로 트레인트 고원 위에 안착한 독일의 에이스(하늘의 용사) 우테르 군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몇몇 선배들의 과감한 모험담을 듣기는 했어도 막상 가이젤 군 자신이 실험해 보려고 했을 때는 가지가지의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글레시어 파일렛은 그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했다. 산중에 한 채의 오두막집을 세우고 그곳으로 석탄, 장작 혹은 그 밖의 보급물자를 공수하는 것

부터 시작했다. 최초의 수송 장치와 공중 낙하 장치는 그가 대기하던 천막속에서 고안했다. 그의 장치는 무게 440파운드와 4각이 3피트인 입방체로 된 짐 정도는 능히 공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회에 걸쳐 연습을 거듭한 결과 그는 고도 100 내지 130피트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30평방피트의 지정된 장소 내에서 성공적으로 물자를 낙하시키는데 완전한 자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에 성공한 후부터는��감용 장작, 식료품, 화약, 고립지에 있는 촌민들에 대한 우편물은 물론 양이나 소의 먹이까지도 공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서지기 쉽거나 물렁물렁한 식





료품들을 수송하자면 반드시 그곳에 착륙해야 했다. 이것이 그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난관이었다. 낙하산을 이용한다면 첫째, 부정확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젤 군의 야심을 더욱더 북돋아 준 사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수송기를 타고 보급물자를 산중의 등산가들에게 낙하해 주기 위해 동승하는 어떤 계약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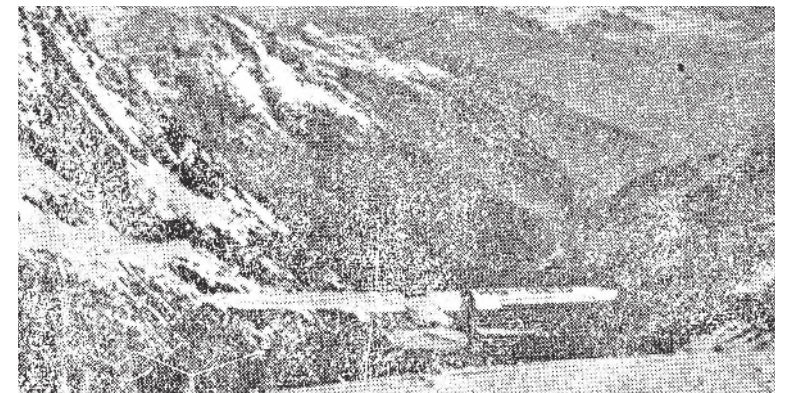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위험천만의 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파이프 슈퍼 큐브 125형 경비행기가 최적이었다. 물자의 낙하장치를 완비한 파이프 비행기는 강착차륜 사이에 유압작용으로 승강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미국제 차륜식 스키를 장착했다. 빙하 위에 착륙하는 최초의 모험을 개시하기 전에 그는 예정한 착륙지점을 도보로 면밀히 조사했으며, 약 5도의 비탈을 가진 경사지 위의 활주로까지 다시 숙고했다. 과거의 경험을 살리면서 처음에는 28도의 경사지를 밀고 올라가야 한다. 고산준령의 비좁은 계활지(溪豁地)에 착륙하려면 먼저 풍향, 풍속뿐만 아니라 지대의 경사각, 적설의 상태를 비롯하여 착륙을 저해할 만한 장애물을 세세히 관찰하기 위해 확신을 얻게 될 때까지 그 지역을 선회비행해야 한다. 가이젤 군은 선회비행의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있다. 흰 눈 때문에 눈이 부시면 착륙할 때 실수하기 때문에 눈을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 이상은 동 지역 상공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가이젤 군은 항상 맨눈으로 비행했는데 그것은 선글라스를 쓰면 시계가 부정확하며 거리의 목측(目測)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착륙지점의 면밀한 관찰이 끝나면 비행기를 착륙지점과 수평으로 비행시켜 고도계를 영점에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착륙지점과 직선거리 약 1인(呎) 반의 위치에서 경사계와 고도계가 영점으로 된 것을 확인하면서 그대로 선회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림1의 A에서 B까지) 그동안에 착륙지대의 고도와 지세를 비롯해 기류의 난동까지 측정했다. 이때부터 스로틀을 충분히 넣은 후에 기체를 약간씩 강하시켰다. 기체는 약간의 동요를 일으켰다(비행기의 위치는 X점). 다음 스로틀을 닫으면서 비행기는 착륙지점(Y)과 수평으로 되게 하여 플랩을 늘리면서 조종간(操縱杆)은 뒤로 제쳤다. 그리하여 지면에 차륜이 접촉되는(그림 Z지점) 즉시로 스로틀을 최고로 넣고 경사지의 최고지점(그림 D 지점)까지 활주했다. 이때 이강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소(그림 D에서 E 지점)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활주 중 비행기가 일단 멈추면 다시는 그 이상 전진할 수 없이 고착된다는 것이었다.

착륙태세로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도를 일정시키려 접지점(그림 Z 지점)도 먼저 정확히 예측해 두어야 했다. 또한 착륙방향은 풍향의 여하를 불구하고 항상 경사지의 밑에서 위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철칙이었다. 그리하여 비행기가 최고지점(D)까지 활주하여 오면 기체를 진입 방향과 다른 쪽으로 어긋나게 정지시키고 강착차륜을 눈 위에 내려서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경사가 매우 급한 곳에서는 강착장치와 스키를 동시에 하강시켜서 강착장치는 브레이크로 대용했다. 그뿐 아니라 엔진이 너무 빨리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터는 건달로 돌게 놔두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활주용 스키를 증대시킴으로써 활주거리를 50퍼센트나 단축시키지만 그때그때 적설의 상태에 따라 변동시켰다. 기체의 꼬리를 이동시킴으로써 파이프 호의 위치는 변동시키지 않고 그 위치에서 이륙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비행기가 추진 중에는 스로틀(9)을 충분히 하고 방향타(方向舵)로서 조작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최소한도의 속력을 얻게 되면 즉시로 플랩을 늘리며 조종간에 있는 후방 자크로 부양하게 했다. 안전한 순항



9) throttle ; 기류 조절용 밸브

속도를 얻게 될 때까지 비행기는 수평을 유지했다.

즉 이륙 시에 (그림 2)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스로틀을 충분히 넣고 조종간을 약간 앞으로 민다. 점차 속력을 얻게 되면 C지점부터 조종간을 뒤로 부드럽게 젖힌다. 비행기는 절벽 위에서 경사지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이윽고 부력을 얻고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된다.

가이젤 군은 오늘날까지 알프스에 이착륙을 했으며, 무려 200여개소의 위험지대를 활주했다. 진퇴로가 차단(遮斷)되었거나 또는 부상당한 180명의 등산객을 구출했으며, 200톤 이상의 물자를 공수했다. 이제 그가 25 내지 30의 고고도 착륙을 했을 때도 별로 진기(珍奇)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었다. 가볍게 부딪히지만 해도 눈 사태나 빙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험하고 비좁은 골짜기나 산꼭대기 위도 아슬아슬하게 스쳐나가며 비행장으로 귀환할 때는 비행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암석과 암석 사이를 빠져나간다.

보급물자를 수송하고 귀환하던 어느 날 빙하 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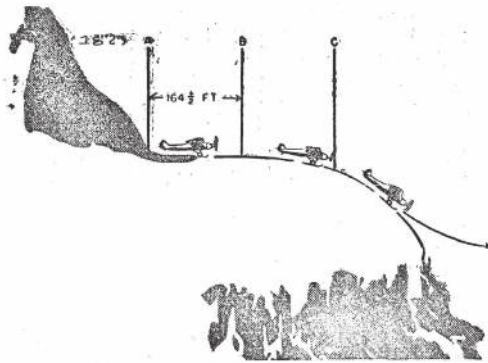
비행기를 발견했을 때 대다수의 등반기들은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 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그는 불길한 예감으로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지점의 적설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었고 경사도 무시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가이젤 군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150 피트 지점에 착륙했다.

그 사람은 빙하의 찌꺼진 틈 위에 앉아서 기다란 로프를 꼭 휘어잡고 있었다. 그 때야 그 사람은 말했다. “저기 저 찌꺼진 틈 안에 나의 동료 두 사람이 매달려 있소.” 이렇게 하여 빙하 밑에 떨어진 한 쌍의 부부는 구명되었다.

두 부부는 어깨뼈가 부러지고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뜻하지 않은 이 구호자에 대해 치사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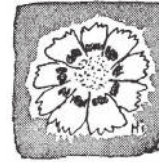
이들은 20분 이내로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만일 보통 구조대가 이러한 일을 한다면 적어도 7시간은 걸려야 했을 것이다.

(플라이잉 지(紙)에서)



<오늘의 과학(科學)>

식물(植物) 호르몬의 경이(驚異)



영국에 있는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은 지베렐린¹⁰⁾ 산이란 새로운 화학약품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 약품은 비료는 아니고, 마력적인 효능을 가진, 하나의 자연적인 식물 호르몬으로서, 이것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대신에 식물이 받아들이는 영양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과정을 자극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 식물 호르몬의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경이적인 사실들이다.

첫째, 이 호르몬은 십여 개의 식물에 대해 그 줄기와 잎사귀의 면적을 증대해 그 줄기의 길이를 약 600%나 더 크게 했고, 또한 난장이 식물들을 거대한 식물로 변화시켰다.

둘째, 이 호르몬은 식물의 성장과정을 촉진시켰으니, 이 지베렐린 산의 처리를 받는 꽃을 피우는 수목들은 1개월이나, 또는 5개월이나 더 빨리 꽃을 피우고, 보다 빨리 씨를 만들어 냈다.

셋째, 이 호르몬은 제라늄과 정원의 국화를 보통 때보다 3배 내지 5배나 더 크게, 또 더 많은 꽃을 피우게 하여 주고 있다. 이 화학약품의 광범한 용도가 보다 명백해지면, 앞으로도 3, 4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영국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나, 식물 호르몬은 농업면에서 머지않아 일대 혁명을 일으킬 것을 모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 농업혁명은 우리에게 쌀과 파인애플, 설탕 및 수천 가지의 다른 농산물들을 보다 염가(廉價)로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 전기(電氣) 타이프 출현(出現)

휴대용의 아주 간편한 전기 타이프 라이터¹¹⁾가 영국에 등장했다.

이것은 두 개의 손가락으로 올바른 글자를 치기만 하면 전문가들이 힘들여 찍은 것과 똑 같은 서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전기 타입이 실용단계에 오르기만 하면, 우선 수많은 타이피스트들의 정신적 시간적인 많은 고생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가 실무가 또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서류를 손수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편리와 혜택을 줄 것이라 한다.

10) gibberellin 11) type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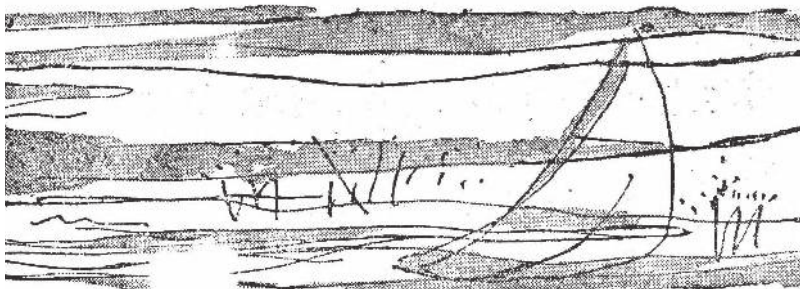
<시(詩)>

그와 내외설(內外說)

- 모든 맹아력(萌芽力)에 관(關)하여 -

설창수(薛昌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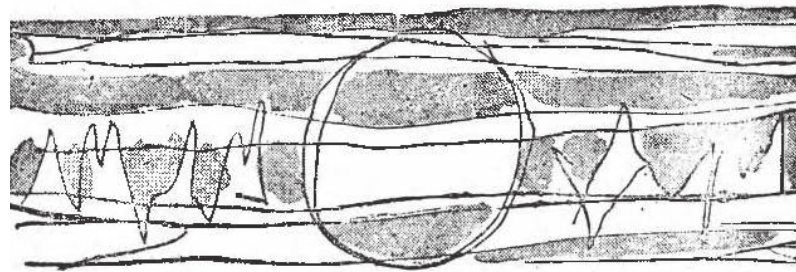
애기 사슴의 이마뺨을 뚫고 용(甬)이 돌아나듯이 그는 돌아났고,
돌 틈에 소리 없이 돌샘이 용솨음쳐 나듯 그는 용솨음쳐 났다.
노고지리의 분기(奮起)에서 대표되는 그는
평면에서 입체(立體)에로의 높은 시련(試鍊)에
날개 파닥거리며 마구 솨아올랐다.



그건 빈틈없이 지표를 점령했고,
벽찬 숲결은 가득히 하늘에 사무치는 것이었다.
햇빛이나 봄비에 매개(媒介)되어 오는 것이었고,
그것에 의한 대지의 감동이 오 그 젓가슴의 개방이라고 생각되었다.

- 착각이었다.

그의 원인은 본시부터 땅속에 있었다.
모세관이나 힘줄을 거느린 심장이 우리의 가슴팍에 간직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발견과 신뢰로써 대지파(大地派)가 되는 것은
창공에 대한 <섹트>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본의(本意)이기도 한 소이연(所以然)을 말한다.



<시(詩)>

봄에의 격(檄) <초(抄)>

박두진(朴斗鎭)

일어나라.

나무여, 잠자는 산이여, 돌이여, 풀이여, 땅버러지여,

물이여, 웅덩이여, 시내여, 바다여,

이러한 것들의

죽음이여, 낯이여, 얼이여, 영이여,

이러한 것들끼리의 사무침

이러한 것들끼리의

눈물이여, 한숨이여, 피보라여, 반항이여, 불덩어리여.



일어나라

산에서는 오래 두고 산이래서 사는 것.

입이 붉은 너희

침범이여, 개호주여, 살가지여, 꿈이여, 여우여,

승냥이여, 오소리, 멧돼지여,

바보 같은 사슴이여, 노루여, 너구리여, 토끼여

방정맞은 다람쥐여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눈물이여, 피 흘림이여, 잡아먹음, 잡아먹힘이여,

쫓겨 감이여, 달아남이여, 한숨이여, 반항이여, 불덩어리여

그중에도 친친한 어둠속에 들끓드린

능구렁이여, 까치독사여, 독이빨이여.

일어나라.

이제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의



오래고 억울한 사무침을 위해, 햇바닥을 위해, 어금니를 위해,
발톱들을 위해, 핏대들을 위해,
약탈을, 살육을, 겁탈과 결투, 승리를, 둔주를, 패배를, 반항들을 위해,
정복을 추적을 피 흘림을 위해.

일어나라.

숲에서는 오래오래 숲이래서 사는 것
날갯죽지를 가진,
멧새여, 할미새여, 무당새여, 꼬꼬리여.
비둘기여, 산제비여, 칼새여, 지미새여.
장끼여, 까투리여, 부엉이여, 올빼미여, 독수리여, 매여,
너희들은 깃 죽지의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사랑이며, 노래며, 보금자리며, 속삭임이며, 따스함이며, 보드라운이며,
싸움이며, 할킴이며, 피 흘림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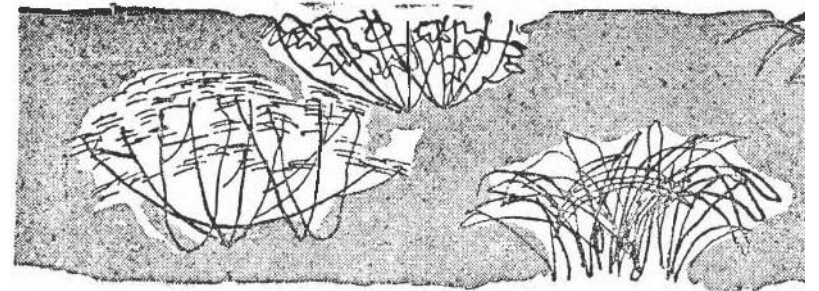
죽임이며, 쫓김
눈물이며, 안도며, 승리며 또 평화들을 위해.

일어나라.

땅버러지여,
흙일래에 흙에서 흙낼 말고 사는,
지지도도 못생긴, 아, 그중에서도
개밥뚜기여, 오줌싸개여, 소금쟁이여, 굼벵이, 지렁이, 쇠똥벌레여,
딱정벌레, 집게벌레, 방구벌레여,
노린쟁이, 투구벌레, 지네 새끼여,
너희들은 이제야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쾌적,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투지, 너희들의 혁명, 너희들의 승리들을 위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詩)>

청록(靑鹿) 습유(拾遺)

박목월(朴木月)

석탑리(石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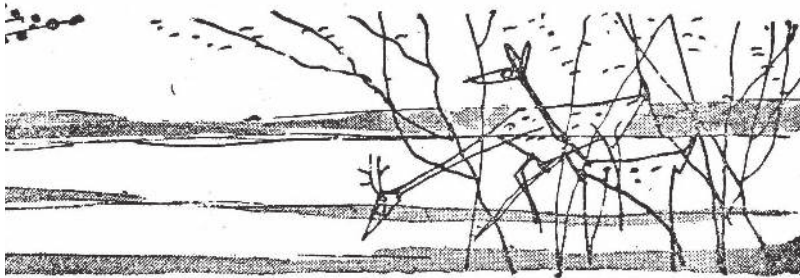
산에

산이 겹쳐

봉우리를 안은 채

반(半) 넘어 발이 된 절터마을.

반쯤 열린 사립문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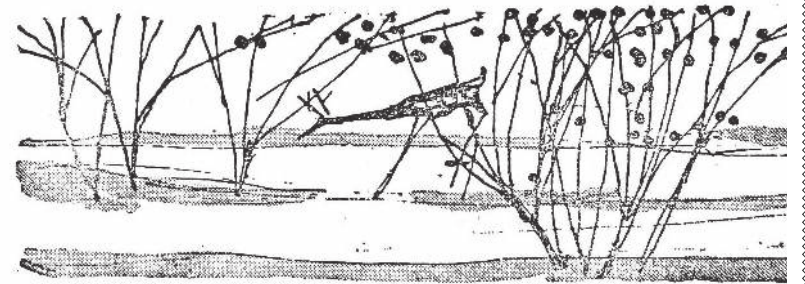


대추 꽃만
오붓이 폈네.

도화(桃花) 한 가지

물을 청하니
팔모 반상에 받쳐 들고 오네.
물그릇에
외면한 남자의 모습
반(半)은 어둑한 산봉우리가 잠기고.

다만 은은한 도화(桃花) 한 그루
한 가지만 올 녘으로
령(嶺)으로 뻗쳤네.



19) Pento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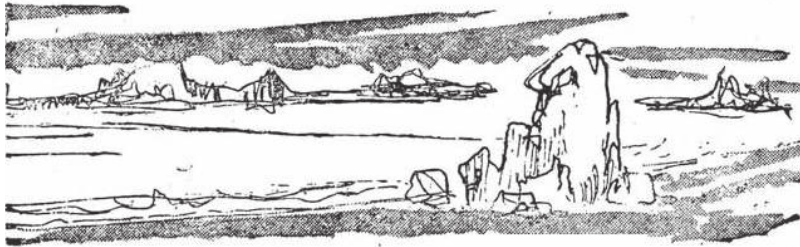
<시(詩)>

2층(二層)에서

김윤성(金潤成)

육중한 무게로 짓어드는
울겐소리……

푸른 불기둥처럼
활활 타오르는 나무 그늘로
계단을 밟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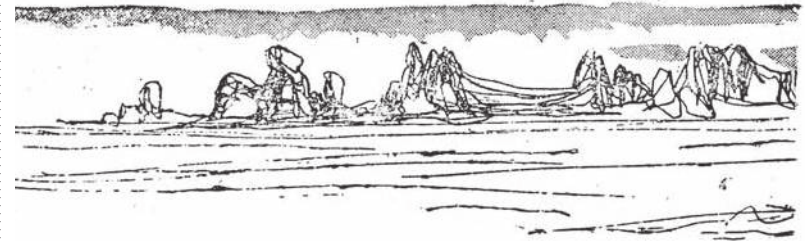


문득 오수(午睡)에서 깨어난다.

저기 내려다보이는 운동장 -
셀라 교복(校服)의 소녀들이
열(列)을 지어섰다.

운동장 가득히
피어나는 해바라기

고사리 숲 같은 손을 일제히 흔든다.
아, 해바라기는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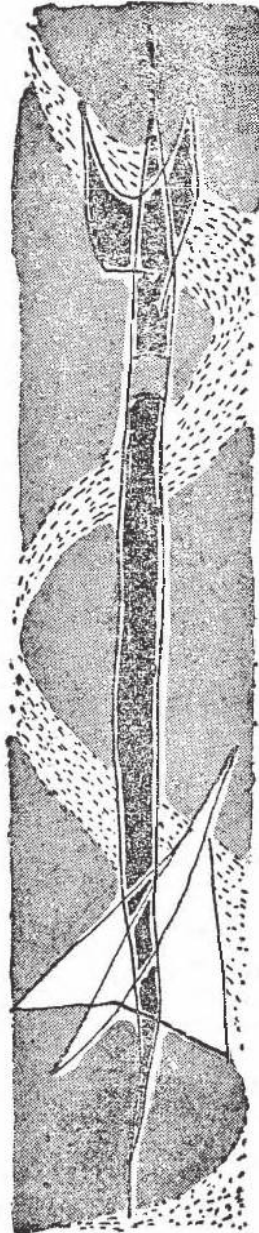


신무기(新武器)가 지니는 방위력(防衛力)

육군 준장 양중호(梁仲鎬)

1. 냉전(冷戰)과 신무기(新武器)의 발전과정(發展過程)

격렬한 냉전의 와중에서 미, 소 양 대국은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위요(圍繞)하고 궁극적인 병기 보유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은주지의 사실이며, 앞으로의 진전을 예측키 곤란하나 2차 대전 이후의 열전 아닌 냉전이 신무기 발전에 적극적인 자극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신무기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과거에까지 소급(溯及)하여 서기 1346년에 있었던 백년전쟁 이래 원자폭탄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2개의 도시에 투하되어 제2차 대전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누차 거듭되었던 과거의 전쟁에서 전쟁 도구인 화력과 그 운반수단은 비교적 동일한 속도와 수준을 유지(保持)하면서 발달해 왔다. 즉 화력은 심지어 TNT 화약을 사용하는 총포로 발달했고, 그 운반수단은 기병으로부터 항공기로 발달했다. 그런데 제2차 대전 말의 원자폭탄의 등장은 전쟁 양상을 돌변케 했을 뿐 아니라 화력의 비약적인 발전, 즉 수폭(水爆) 같은 핵무기는 운반수단의 발달과는 간격과 시간적 차를 현저하게 격리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떤 공격무기가 출현했을 때 이에 대비키 위한 방위무기가 지체없이 발명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폭과 같은 고성능 폭발력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에 적합한 운반수단은 출현치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소 양국은 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한 해



답이라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도무기일 것이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동·서 진영 간의 냉전은 신무기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고, 그 중에서도 원자력을 이용한 유도병기는 현대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무기로서 등장했다. 유도무기가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무서운 속도와 위력, 그리고 정확성 때문이다. 그리고 군대의 재래식 대포나 함포 그리고 고사포의 역할을 한꺼번에 무서운 위력과 정확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는 어떤 고성능 장거리 항공기 이상의 기능으로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원자무기시대란 곧 유도식 무기시대를 말하며 군의 현대식 장비화한 유도무기로 무장한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무기라 할 때 반드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그리고 이의 운반수단인 유도무기만이 신무기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또한 신무기라 해서 원자무기여야 할 이유도 없다. 왜냐 하면 현대 전쟁의 태반이 전자무기에 의해 수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생각할 때 또한 유도무기 자체가 전자무기에 힘입는 바 크를 비추어 볼 때 획기적으로 성능을 연신(延伸)하고 부분품의 신뢰도가 극도로 향상된 신무기 레이더나 장차 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기동력 강화에 소요되는 신식 장비역시 신무기일 것이다.

2. 신무기(新武器) 발전(發展)과 전략(戰略)의 변동(變動)

이와 같이 실 줄 모르는 기술문명의 발달은 계속하여 신무기를 발명했으며, 전쟁은 점차 처참(淒慘)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지금의 유일한 가공무기인 원수폭도 대형에서 소형으로 각종의 형태를 보유케 되었다. 미소 양국은 이와 같은 가공할 원수폭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원수폭 보유가 초래한 정체 상태는 점차 전쟁의 위기를 감퇴시키고 있는 듯 하나 오늘날과 같은 냉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전술 원자무기의 역할은 더욱 중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현저한 변천을 가져왔으며, 특히 후자에서의 변천이란 후술하기도 하겠거니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전쟁 양상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천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전쟁형태를 말할 때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간에 원자전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미국의 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지원자전략의 기초는 침략이 발생하는 경우 전술적 원자무기를 사용해 국지적인 침략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국지전이전 전면전이전 한에 국지원자전략도 핵무기의 대량보복이란 힘의 배경 없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국지전을 제한전쟁으로 극한한다고 해도 국지적 원자전이 전면적인 원자폭전을 유발하데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것은 결정적 어려운 큰 문제이며, 전략을 운위(運籌)하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구구하다. 다만 오늘날 통일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래의 예상되는 핵무기 사용의 원자전에 관한 전략론의 골간(骨幹)은 단계적 억제와 대량보복이라는 2안이라 할 수 있는데, 요컨대 방위자는 제1단계로 침략군을 후방지역에서 고립시켜 이를 격멸하기 위해 전장에 한해 소형 원폭을 전술적으로 사용한다. 만일 침략군이 원폭 등으로 반격해온다면, 제2단계로 핵무기로서 적국의 심장부와 군사기지 및 적의 보복(報復)폭격력을 박멸(撲滅)한다. 그래도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이 반격해올 때는 본격적인 원수폭의 대량 보복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사상의 변화는 극동지역에서 원자전에 대비키 위한 방안이다. 일선 기지의 후퇴, 지상병력의 철퇴, 분산, 그리고 기동력이 우월한 해군력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의 방위의 간접 침략에는 현지 군이, 그리고 공공연한 침략에는 연합군이 투입될 때까지 현지 군이 지탱(支撐)하되, 미 공군을 중심으로 한 기동성 있는 강력한 미군이 신속히 출동하며 원자공격의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극동 방위 전략의 변화된 기초는 미 태평양 지구 사령부의 기구 개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앞날의 전쟁 특히 국지전에서 유도무기와 핵무기의 역할은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원자력을 이용한 각종 유도무기의 발달은 국지전쟁의 전술도 일변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면 군장비의 현대화에 없어서는 안될 신무기 중 특히 중요한 신무기인 유도탄은 현재 어느 정도 발달되었으며 그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의 예를 들어 참고로 아래에 별기해 본다.

발전(發展)하는 유도탄(誘導彈)

형별(型別)	유도탄명(誘導彈名)	사정(射程)	용도(用途)	완성여부(完成如不)	주관별(主管別)
ICBM	아틀라스	5,000마일	지상대(對)지상	생산중	육군
	타이탄	5,000마일	지상대지상	발전단계	공군
	나바흐	5,000마일	지상대지상	시험 중	공군
	스나크	5,000마일	지상대지상	시험 중	공군
IRBM	톨	1,500마일	지상대지상	시험 중	공군
	쥬피터	1,500마일	지상대지상	시험 중	육군
	폴라리스	1,500마일	해중대지상	발전 중	해군

고능성포 (高能性砲)	레드스톤	200마일	지상대지상	발전 중	육군	
	마라도어	200마일	지상대지상	사용 중	공군	
	서전트	200마일	지상대지상	초기발전	육군	
	코포탈	100마일	지상대지상	사용 중	육군	
	레굴러스	100마일	해상대지해상	사용 중	해군	
	레굴러스 2호	100마일	해상대지해상	생산 중	해군	
	어네스트 존	15마일	지상대지상	사용 중	육군	
	리틀 존	15마일	지상대지상	생산 중	육군	
	다인트	15마일	지상대지상	생산 중	육군	
고능성 (高能性)	라크로스	8마일	지상대지상	생산 중	육군	
	트리론	8마일	해상대지상	발전 중	해군	
	나이크 아작스	25마일	도시방어용	사용 중	육군	
	나이크 헤트클레스	50마일	도시방어용	생산 중	육군	
	나이크 제우스	?	지상대공중	?	육군	
	보마크	200마일	공대용	생산중	공군	
	테리어 1호(號)	10마일	해상대공중	사용중	해군	
	테리어 2호	20마일				
	타로스	25마일		생산중	해군	
	팔콘	5마일	공중사용중	사용중	공군	
	대공포 (對空砲)	사이더 윈더	?	공중사용중	불원사용가능	공군
		딘동	?	공중사용중	불원사용가능	공군
		탈타	20	해상대공중	사용중	해군
		스패로 1호				
		스패로 2호	?	공중대공중	사용중	해군
스패로 3호						
라스칼		10마일	공중대지상	사용중	공군	
볼푸프	?	공중대해상	사용중	해군		
페로델	?	공중대수중	사용중	해군		

3. 경이적(驚異的)인 신무기(新武器)의 위력(威力)

현재 미국에서는 유도탄 제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미 제조되어 사용단계에 있는 각종 유도탄 외에 구주(歐洲) 방위용으로 제조 중에 있는 최신 3개 종류의 유도무기가 있다.

이와 같은 신무기의 위력은 제원이나 성능의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요약해서 망일에 소련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영국이나 구주에 기지를 둔 이들 유도무기는 수소탄을 운반하여 모스크바를 비롯해 소련의 공업지대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위력을 가진 것이라 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280mm 원자포만 하더라도 그 1발이 재래식 155mm 야포의 12,600발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라 하며, 사정거리가 20,000야드,

그리고 재래식 편제 장비의 일개 사단의 방어 정면 거리가 만 내지 만 5천 야드였음에 비해 이 원자포 1문의 지원담당 거리가 80마일에 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위력이란 경이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4. 장차전(將次戰)의 추세(趨勢)와 방위(防衛)

전술한 바와 같이 원·수폭의 소형화와 유도병기의 발달은 전략사상의 변화를 초래했다. 장차전의 추세는 기왕(既往)의 전투방식과는 판이한 양식의 오히려 해양전에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화력의 우세가 승인이 될 것이나, 핵무기의 파괴력과 방사 능력을 피하기 위해 시종이동(始終移動)을 계속하는 전투일 것이다.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친 것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분산성과 유동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광범위한 기동력 강력한 공격력과 광범한 통신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장차전에 대한 관점은 재래식 군대의 장비 및 편성을 변화케 했으며 사용될 무기도 면목을 일신케 될 것이다.

이에 기인하여 탄생한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단의 PENTAMIC화이다. 즉 종래의 일개 사단의 배치가 전선 2개 연대 후방 1개 연대에 3각형이던 것이 펜타믹¹²⁾ 사단에서는 연대 대대가 폐지되고 5개의 전투단이라는 부대로 편성되었다. 재래식 사단에 비해 병력은 감축되었으며, 이와 같이 화력군 등 독립의 5개 전투단으로 세분한 것은 원자력에서의 손실을 적게 하고, 기동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원자포나 유도탄을 보유하는 원자지원부대가 배치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편제로 된 사단이 보유하는 화력은 전대전시 구주군 사령부가 보유하던 전 화력 이상의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증강된 화력의 위력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 전술에서는 군대의 지원을 포병과 비행기에 기대했으나, 앞으로의 신진 전술에서는 군대 지원을 핵무기 공격에 기대하게 되었는데는 것이다. 또한 병력을 감축하고 화력 증강에 중점을 둔 기계화된 부대 편제가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함으로서 앞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기동력, 원거리 화력 및 광범한 통신망의 3대 요소를 적응시키기 위해 둔중(鈍重)한 중포 대신에 백주식(百走式) 또는 장갑차 적재의 유도탄 원자포 등을 대치함으로써 공격력을 증강할 것이다. 그리고 장갑병원 수송차 경량초 헬리콥터 경비행기 또는 TV 사

12) Pentamic(Pentomic) organization

용 등으로 기동력을 증강하고 중형으로 요긴한 GRID 방식의 통신망 등으로 통신력을 강화하여, 핵무기 공격 하에서의 통신의 확달을 기할 것이다. 전략이 변화했고 무기가 비약적인 발달을 했고 편제 장비 그리고 전술 등 모든 것이 이처럼 변했다.

그러나 제아무리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발달한다 해도 최후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병력에 의한 점령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도로 기계화된 병력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며, 원자전에 대한 방위는 시간 단축에 수반(隨伴)되는 대책과 흡수력이란 2대 문제에 봉착되는 바, 요컨대 어떻게 하여 원자전에 지탱하며 생잔(生殘)한 반격력을 보지 이용해야 할 것인가가 승리의 요인일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장차의 원자전에서 전면전이건 국지전이건 간에 적응시킬 수 있는 전술한 바와 같은 근대식 군대를 보유해야 할 것이다.

즉 앞서 기술한대로, 펜토믹 사단은 중점을 병력에서 병기에 두고 동시에 국지전에도 적응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방위력을 강화키 위한 체제 확립은 이미 진행 과정에 있다. 이미 미 지상군 18개 사단 중 5개 사단이 PENTAMIC화 했으며, 미군은 이미 북대 동맹군과 구주 미군을 어니스트 존을 비롯한 각종 무기로 무장시키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중거리 유도탄 슈퍼터와 톨의 유럽 등장도 예기되거니와, 한 편 국지전쟁이 폭발될 우려성이 농후한 극동에도 미국은 이미 일본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니스트 존으로 무장시켰으며 자유중국군에도 고성능 장거리 유도탄 마타도어를 공급하여 사용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한국군에게 UN군 측은 공산 측에 휴전 조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무력 증강을 일삼음으로써

군의 전투력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을 때 UN군의 신무기 장비를 방해하고 있던 휴전조항 제2조 제13항 D를 폐기함으로써 280모(耗) 원자포와 어니스트 존이 도입되었으며, 주한미군 2개 사단도 PENTAMIC화 도상(塗上)에 있다.

5. 장비(裝備) 현대화(現代化)와 방위력(防衛力)

이상과 같이 신무기의 발달 과정과 전략의 변이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전술적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 고찰했다. 또한 현재 한국군의 병력감축이란

중대문제가 실시단계에 있으며, 아울러 병력은 감축되더라도 보다 강력한 화력 증강을 위한 현대식 장비화를 절구했으며 국민운동에까지 파급된 바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공산괴뢰들이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근대식 장비화로 전력을 증강하여 남침의 시계를 노리고 있는 이때 노후화(老朽化)된 재래식 무기로 장비된 한국군에게는 부단한 협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적의 침략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적의 침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원자전의 긴박성에 비추어 우리 국군이 근대전에 적합한 신무기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이며, 시급(時急)을 요하는 문제이다. 적이 원자포를 보유했다면 우리도 보유해야 할 것이요, 근대식 무기에 의한 공격에 재래식 병기로 대항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정세에서 지난해 주한미군의 신무기 도입은 적의 침략 의도를 좌절시키는데 적기(適期)를 얻은 처사라 하겠다.

요는 전술한 바와 같은 국지 원자전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신무기로 한국군이 장비되기는 기대기 곤란하다 할지라도,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최신식 항공기, 전차, 지뢰, 야포, 통신기재는 물론, 나아가서 원자전과 또한 현대전의 여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으나 이렇게 함으로서 기능적인 방위 조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요, 동맹국과 더불어 전면전이거나 국지전의 경우 공산주의 침략을 제압할 수 있는 동맹체의 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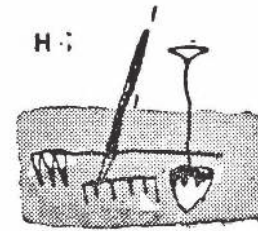
오늘날 강력한 전투력의 유지는 곧 그것이 방위력이 되는 것이며, 신무기, 곧 새로운 전략적 개념에 적응되는 무기 없는 방위력이란 무방비 상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침략 위협은 결코 불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무기의 확보는 방위력을 강화하고 자유진영의 평화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첩경(捷徑)일 것이다.

(필자(筆者), 연합(聯參) 제1부장(第一部長))

★특집(特輯)

신무기(新武器)와 휴전선상(休戰線上)의 균형(均衡)

유건호(柳建浩)



우리 국토를 양단시켰던 북위 38선도란 국경 아닌 경계선은 6.25전란을 겪고 난 이후 서쪽 끝이 남하하고 동쪽 끝이 북상했으며, 직선에서 굴곡선으로 변한 연장 155마일의 휴전선이란 이름의 선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힘의 균형'을 너무나도 상실했던 까닭에 무너졌던 38선이 3년간의 혈전을 거쳐 다시 균형을 얻음으로써 휴전선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 균형이 휴전선을 형성한지도 벌써 5년, 그 간의 쌍방의 각 방면에서의 변화는 반드시 오늘날에도 5년 전의 그 상태를 계속할 수 있을리 만무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간 유엔군 측에서 지적한 바 있는 공산군의 북한에서의 가지가지의 군비확장을 위한 광분상(狂奔相)을 상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공산괴뢰군은 재차 남침을 하기 위해 기한의 한정 없이 힘의 균형을 그대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해 체결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즉 비행기지를 증설하고 제트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비를 확장하여 사실상 휴전선상에서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이것이 그대로 방임될진대, 또다시 6.25의 비극이 언제 우리에게 강요될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측의 여러 가지 협정 위반을 지적한 유엔군 측이 휴전협정의 폐기를 통고한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적의 증강에 대비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군과 대항할 미 극동군은 최신무기로서 무장되고 우리 국군도 차츰 이에 준하게 되었다.

그러면 신무기의 도입은 적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플러스를 초래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술한 바, 휴전선 상의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 내지는 영향을 가져왔을 것인가?

한국 전선에 신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이다.

우선 한국 전선을 담당한 모 미 항공기지에 제트 폭격기와 F-100 제트 전투기가 배치되어 남한 상공에 웅자(雄姿)를 드러냈으며, 금년 1월에 한국에 도입된 280mm 원자포와 원자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로켓포가 벌써 국민 앞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무기가 우리 국군에게도 공급될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원자무기훈련도 결속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간 수백 대의 제트기를 증강하고 비행기지를 확장함으로써 압력을 가하고 있던 한국전선에서의 공산군은 거꾸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2월 19일, 중공군이 금년 내로 북한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겠다고 성명(앞으로는 정세 여하에 따라 또 무슨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는 일이다)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내에 원자무기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 중 뚜렷이 한 자리를 차지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치적인 복선은 둘째 문제로 하고라도 보급면, 특히 식량문제로 곤경에 빠져있으면서 남침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던 중공군이 미군이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하게 되자 남침기도를 완전히 저지당하게 되매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철수원인을 카무플라주¹³⁾하기 위해 오히려 당치도 않은 대의명분(?)을 내세우려고 급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 측의 전력증강을 방임하여 다시 침략의 기회를 줄 뻔했던 휴전선에 원자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잃었던 균형을 다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릇 전력이란 일선에 배치된 병력만이 아니요, 폭과 깊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현대전의 성격이 과학전에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극도로 압축된 열에너지인 핵무기가 공격이나 방어면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가의 하는 문제는 군사적으로 문외한의 입장에 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까지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상태

13) camouflage: 프랑스어로 '위장'이라는 뜻.

에 있는 병력은 거의 비등했다. 적의 배후에는 237개 사단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중공군과 또 그 뒤에는 소련이 있지만, 이것은 한달 총원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일정한 면적 내에는 일정 수 이상의 병력을 투입치 못하는 것이며, 더욱이 무기가 고도로 발달될수록 이러한 면적에 비한 투입가능 병력은 감소되는 것이며, 우리도 전선의 소모(消耗)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힘이 뒤에서 대기상태에 있으니만큼 앞에서 말한 쌍방의 병력배치가 상호 견제하는 작용을 해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의 비행기 및 비행장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 신예기를 배치한 UN군 측에서 새로이 핵무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적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蘇), 핵실험(核實驗) 중지(中止) 선언(宣言)은 중대(重大)한 낙하진(落下塵) 사고(事故) 때문

지난 3월 말일 소련이 돌연 일방적으로, 모든 핵무기의 실험을 중지하겠다는 의외의 선언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구구한 추측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덴마크 최대신문인 <베리린스케 티텐데> 지(紙)는 그 이면상을 폭로하여 4월 13일 자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즉, 그들은 서투른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방사능 낙진(落塵)이 지나치게 증가해, 마침내 비참한 사고를 발생하여 부득이 중단치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외교 경로를 통해 코펜하겐에 들어온 정보를 인용한 것으로, 소련은 그들의 '극심한 흥결을 갖고 있는 핵무기 실험'을 더 이상 계속한다면 장차 중대한 위험성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모험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한편 미 상원 군축분과위원장 허머트 H. 험프리 씨는 이 덴마크 신문의 보도는 믿을 만한 근거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련의 핵실험을 가리켜 '세계에서 제일 더럽고 방사능 투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최근의 소련 실험으로 말미암아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일본 및 미국의 일부 지역에 걸쳐서 막심한 방사능 낙진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신무기발전(新武器發展)과 전술적(戰術的) 고찰(考察)

김순철(金順喆)

1. 서론(序論)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비극적인 전쟁의 연속선은 결정적인 신무기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뚜렷한 한계를 그어 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장차전(將次戰)의 양상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 만인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우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발단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장을 촉구한다. 이는 우리의 집과 가족과 국가 나아가서는 문명까지도 보호하려고 한다. 또한 무장함으로써 우리는 심약과 공포 대신에 힘과 자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수록 적에게 공포와 질투심(嫉妬心)을 고무시키는 결과도 된다. 우리에게 전투를 자극하는 적은 도리어 분기하고 공포의 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한층 더 강력한 병기와 위협이 따르며, 위협의 도가 깊어감에 따라 공포가 더욱 심각해져 결정적인 신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무서운 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결과는 세계 전반에 걸쳐 근대공학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오며, 오늘의 신(新) 전술을 자아내고 있다.

2. 신무기(新武器)와 그 성능(性能)

어느 전사(戰史)를 보더라도 새롭고 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출현할 적마다, 한편으로는 이 신무기를 활용하고 타방으로는 이 효과를 감소키 위해 전술상의 변화와 편성의 변화를 초래했다.

여기서 그 실례를 약간 소개해보자. 제1차 대전 당시의 기관총 및 전차와 제2차 대전 당시의 감응지뢰 기갑전격전 V-1 V-2 등의 신무기는 비록 그것이 최초로 출현했을 때 세계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들 신무기는 승패를 결정하는 커다란 영향을 줄 만큼 효과적으로 또한 충분한 양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러고 싶어서 그리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제 또 다시 공학기술은 전술에 관한 지식을

발전할 사이도 없이, 이를 뒤에 남긴 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전술의 분야는 새로운 원자무기에 대해 자신을 조정치 않으면 안 되게까지 이르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무기가 출현한 뒤 이들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 내지 효과에 대항하는 방법과 수단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擡頭)되었다. 핵무기가 발전됨에 따라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촉구되고 있으며, 무기가 발전하는 것과 정비례로 위협하고 있다. 다행이라고 할까. 적 역시 새로운 전술을 발전시키기까지는 미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하는 양 군대 중 어느 쪽이 더욱 빨리 야기될 새로운 파괴력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상대적 속도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세계주요국이 보유 내지 개발 중에 있는 원자무기(신무기)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世界) 미사일 현황(現況)

참고서지(參考書誌):

LOOK 1957, 10, 1호 (미)

세카이(世界) 1957, 11월호 (일)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957, 10월호

(1) 미국

(가) 육군

1. 코포랄: (CORPORAL) 지대지(地對地)

추진형: 액체추진식 로켓

크기: 2.5 X 40 피트

무게: 12,000 파운드

사장: 75마일

최대속력: 시속 2,000마일

기타: 생산 중이며 사용가(可) NATO에서 사용, 영 육군에서 주문

(포인트 조정)

2.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지대지

추진형: 고체 추진식

크기: 2.5 X 27 피트

무게: 1,500 파운드

사장: 15마일

기타: 비(非)유도의 자유로켓 원자두탄 혹은 재래식의 폭탄 탄두를 장비할 수 있음.

개발, 생산 중, 사용자

3. 써제نت(SERGEANT) 지대지

추진형: 고체추진식

기타: 연구 개발 중이어서 제원미상(諸元未詳), 코포랄의 대체물로 될 것임.

4. 리틀 존(LITTLE JOHN) 지대지

추진형: 고체추진식

기타: 연구 개발 중이어서 제원 미상. 어니스트 존과 같이 사단 포병급에서 사용할 것이며 경(輕)트럭

으로 운반 가능

5. 닌(DART) 지대지

사장: 3,4마일

기타: 연구 개발 중이어서 제원 미상. 대전차 로켓으로서 팬타밀 사단에 장치 사용될 것임.

6. 라크로스(LACROSSE) 지대지

추진형: 고체추진식

사장: 20마일 이하

기타: 고도로 정확성을 띤 근접지원용 미사일. 생산 중에 있음.

7. 모리쳐(MORTIZER) 지대지

기타: 제원 등은 미군이나 원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박격포란 사실만 공개.

8. 레드스톤(REDSTONE) 지대지

크기: 5 X 60 피트

무게: 25톤

사장: 200마일

시속: 초음속

기타: 연구 발전 중. 독 V-2 로켓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됨, 주피터의 연구과정용

9. 주피터(JUPITER) 지대지(ICBM)

사장: 1,500마일 중거리탄도 미사일

시속: 초음속

기타: 발전 생산중임. 레드스톤에서 발전, 수치의 시험에서 성공

10. 나이키(NIKE) 지대공

추진형: 액체추진식

크기: 10 X 21척

무게: 450kg

사장: 20마일

시속: 1,800마일

기타: 연구생산 사용자

※ 이 나이키는 현재 미국의 13개 도시 근교에 100개소 이상이나 설치되어 있음.

이것은 NIKE-AJAX이고 이것보다 발전된 NIKE HERCULES, 원자탄두를 가지

고 75리의 사정거리를 갖는 고체추진 로켓이 연구 중에 있고 또한 더욱 성능이 좋은 NIKE-ZEUS가 현재 고안 중에 있음. 이 ZEUS는 ICBM를 요격하려고 고안 중.

11. 호크(HAWK) 지대공

크기: 12 X 16 피트

기타: 연구생산 중에 있음. 자공으로 침공하는 적 미사일 및 비행기를 요격하려고 연구 중.

(나) 공군(空軍)

1. 아틀라스(ATLAS) 지대지(ICBM)

추진형: 액체추진식

크기: 약 100 X 10피트

무게: 약 110파운드

사장: 5,000 마일

시속: 16,000 마일

기타: 개발 생산 중. 개당 백만 불. 초시험 실패

2. 타이탄(TITAN) 지대지(ICBM)

추진형: 액체추진식

사장: 5,000마일

기타: 연구 개발 중. 아틀라스와 유사형 미시험

3. 토르(THOR) 지대지(ICBM)추진형: 액체추진식

무게: 15톤

길이: 4.5미터

사장: 1,500마일

시속: 초음속

기타: 당전(當展) 생산 중, 최근 신문에 의하면 시험 성공

4. 마타도어(MATADOR) 지대지

추진형: 터보제트 식

크기: 4.5 X 39.5 피트

무게: 12,000파운드

사장: 500마일

시속: 600마일

기타: 독일 V-1의 신형, 생산 사용자, 무인 비행기

5. 스나크(SNARK) 지대지(ICBM)

추진형: 터보제트식

크기: 4.5 X 68피트

익장: 42피트
 무게: 7톤
 사장: 5,000마일
 시속: 600~650마일
 기타: 개발, 생산 중, 수차의 시험에 성공
 6. 보마크(BOMARC) 지대공(地對空)
 추진형: 랩제트식
 크기: 20미터
 무게: 5,000 파운드
 사장: 300마일
 시속: 200마일
 기타: 개발, 생산 중, 방공용 무인비행기, 핵탄두장치가, 목표에 소형 로켓을 일제사격
 7. 덩동(DINGDONG) 공대공(空對空)
 추진형: 액체추진식
 기타: 연구 개발 중. 핵탄두 장치가 최근 네바다에서 실험했었다는 사실 외 미상.
 8. 펄콘(FALCON) 공대공
 추진형: 고체추진식
 크기: 0.5 X 6.5 피트
 무게: 112 파운드
 사장: 5~8km
 기타: 전자발전 및 유도 F69 요격기가 장착, 생산중
 9. 라스칼(RASCAL) 공대지
 추진형: 액체추진식
 크기: 4.5 X 26 피트
 사장: 100마일
 시속: 1,200 마일
 기타: 개발 생산 중.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식 무인 소(小)폭격기

(다) 해군(海軍)

1. 폴라리스(POLARIS) 지대지(IRBM)
 추진형: 고체추진식
 사장: 1,500마일
 시속: 초음속
 기타: 연구 개발 중. 토르(공군)의 3분의 1의 무게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
 2. 레굴러스(REGULUS) 지대지
 추진형: 터빈 제트형

크기: 4.5 X 33피트 익장 21피트
 사장: 500마일
 기타: 생산 사용가. 잠수함 순양함 항공모함에서 발사 성공. REGULUS형으로 신개발 중
 3. 탈로스(TALOS) 지대공
 추진형: 로켓 랩제트식
 사장: 100마일 이하
 기타: 발개발 생산 중. 대(對)비행기 미사일 함상 발사가능
 4. 테리어(TERRIER) 지대공
 추진형: 고체추진식
 사장: 20마일
 시속: 2,000마일
 기타: 생산. 사용 가능
 5. 타타르(TARTAR) 지대공
 추진형: 랩제트식
 사장: 20마일 이상
 기타: 연구개발 중. 구축함에 장착가능. 효력은 테리어보다 크다.
 6. 뱅가드(VANGUARD) 지대공
 추진형: 액체추진식
 크기: 3.7 X 72피트
 사장: 300마일 수직
 기타: 인공위성발사용. 시험실패
 7. 스페로우(SPARROW) 공대공
 추진형: 고체추진식
 크기: 0.8 X 8피트
 무게: 300파운드
 사거리: 8km
 시속: 200마일
 기타: 연구, 개발, 생산. 사용가, 제트 전투기 및 폭격기에 대해 효력발생. 유도신호 가 미사일에 반사(反射)되어 목표물이 피해도 적중할 수 있다.
 8.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공대공
 사장: 10마일
 기타: 바주카포를 발전시킨 소형 핵무기 발사용.
 9. 페트렐(PETREL) 공대지
 추진형: 터보제트형
 기타: 생산 사용 중. 초계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잠(對潛) 로켓.

- (2) 소련(蘇聯)
- (가) T-1 독 V-2 탄에서 발전
- (나) T-2 독 V-2 탄에서 발전 IRBM
- (다) T-7 독 V-2 탄에서 발전 지대공, 해군함정장치
- (라) T-3
- 사장: 8,000km ICBM길이: 30-50m
- 무게: 100-150톤
- 기타: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표
- (마) T-4A이상

3. 현대전(現代戰)의 전술(戰術)

본래 여러 전쟁이 취하게 될 상이한 과정 중 가장 가공한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앞으로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전쟁을 도발하게 될 적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주저함이 없이 이를 구사하여 우리의 의사를 좌절시키고자 전력을 다하는 이른바 전면전을 시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반대하거나 혹은 우리의 국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히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을 고찰컨대 우선 원자탄 열핵무기 및 포탄뿐만 아니라 이들을 목표지까지 도달시키게 하는 제트 추진식 항공기 대포 및 유도탄처럼 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군사이론의 진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술이란 일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무기와 기구)로 생각되며, 일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도구를 이용하는 것(작전운동과 군사정책의 수행)으로도 해석된다. 무기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물자, 즉 기계의 장치로 간주된다. 무기는 흔히 충격력, 기동력, 보호력, 및 각층의 견지력(堅持力)이 종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 여러 특성 가운데서 마지막인 견지력은 특히 중요하다. 이 견지력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혹은 기구(편성)의 능력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기구라는 것은 무장한 개인의 조직체이며, 이는 전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하의 행동을 협조할 수 있도록 훈련된 개인의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 조직체는 어떤 하나의 기계와 같이 기계에 주는 압력이나 근력의 조절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명령으로써 군편성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군 작전이란 해상 지상 및 공중에서 의식적으로 지휘되는 군기구의 내적 및 외적 이동으로서 이루어지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전쟁의 기술이다. 전술에는 전투장에서의 모든

군사력(전투력)의 운용과 전투 전(前)의 전략적 기동의 실시 및 각종 전투병과의 운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술은 광의로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구태여 세분한다면 포병전술, 전차전술, 항공전술 및 독립적으로 논할 수 있는 많은 전술이 성립된다. 또한 전술은 흔히 전략적 병력배치에 의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술의 본질 그 자체가 오늘날 원자전에서 어떤 변천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원자전 하의 전술은 원리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라 점차 신무기가 전투장에 사용케 됨에 따라 이들 신무기에 대한 효과와 이 효과에 대한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응용하는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적응성을 검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건대, 원자전 하의 전술은 유동성 신속(迅速)한 집결 및 분산 그리고 시계가 감퇴되었을 때 증가되는 정찰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편제상의 각종 역량을 달리하는 고도의 기동성을 가진 부대의 결합으로서 어떤 특정된 임무를 부여(附與)하여 분권 내지 반(半)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케 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공격에서는 각종 역량을 달리하는 부대의 결합과 원자 화력의 병합으로부터 획득한 충격력과 신속한 전과 확대로서 목표를 점령한다. 따라서 종전의 그것보다 더 많은 융통성(融通性)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화력운동(원자화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임무완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를 지배한다. 비(非) 원자화력 역시 원자화기와 더불어 병용되며, 방해되는 적의 외곽에, 또한 우군의 기동력을 장해하는 곳이나 공격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원자화력과 혼용하여 사용된다. 방어에서는 융통성 분산 및 깊은 중심(縱深)으로 축성될 추가적인 지역을 확보하게 되며, 종전과 같은 융통성 없는 진지편성과 판에 박힌 사고방식은 이를 부정한다. 따라서 원자전 하에서의 방어 정면(正面)은 하나의 지점으로 사용될 뿐이며, 이는 적의 원자무기축적이 증가됨에 따라, 또 신무기가 지상부대에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방어 정면과 중심이 증가되는 경향에 있다. 이른바 이를 기동방어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더 많은 자료가 있으나 지면 관계로 부득이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4. 원자전(原子戰) 하(下)의 전술(戰術)과 제기(提起)되는 문제점(問題點)

원자전 하의 전술은 곧 분산과 기동 그리고 화력이라는 선입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미래의 원자전 하의 전술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의 분야만을 고찰코자 한다. 한 무기가 개발된 후에 그에 대해 전술을 적용시킨다는 하나의 역행된 절차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국가 목표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미래전의 개념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무기가 전쟁에 소요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편

성과 장비 상의 요구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펌이나 힘이 들 것이다. 이는 필히 이행해야만 하는 과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와 발전을 거쳐야만 신무기는 전투장에서 최초로 기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우군 부대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확성과 작전 목표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 및 이에 소요되는 수와 파괴력을 갖는 원자무기 및 투발수단.

둘째, 정확하고 시기에 맞는 정보 획득 능력의 보유,

셋째, 원자무기의 효과로부터 조성된 이점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부대와 전술의 요구, 반면에 원자무기의 사용으로서 얻은 적의 이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첫째, 적의 원자무기 집적소 투발 수단 및 공업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원자능력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고,

둘째, 적이 우군에 관한 첩보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셋째, 우군 부대에 투척된 적 원자무기의 효과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절차와 전술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분산과 기동을 강조하는 원자전의 교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즉 분산의 요건인 통신 제도의 전폭적인 발전과 전투지대에서의 경계수단과 기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고려 중에 있는 편제상의 기동력을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는 하나, 전투부대가 지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속도는 2차 대전의 그것과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지상군의 이동속도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 항공기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結論)

이제 또다시 공업기술은 전술지식을 뒤에 남긴 채 앞으로 나갔고, 전술은 새로운 원자무기에 대해 자신을 조정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신무기가 미래전에 실제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영국의 처칠 경이 말하는 '공포의 벨런스'가 출현한 급일 원자무기의 발달은 국지전에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한 점으로 보아 아직 이에 대한 예상은 곤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자무기의 위협은 계속 존속할 것이며, 또한 이 위협은 편성과 전술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래전에서 시초에 원자전의 감행 여부를 결정하는 이니셔티브는 어느 정도 적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자전 부대와 함께 비원자전 부대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술과 부대는 원자전 또는 비원자전에 다 같이 적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국방연구원(國防研究院) 교수부(教授部) 육군대령(陸軍大領))

유도탄(誘導彈)과 그 전략적(戰略的) 가치(價値)

- 세계적(世界的) 문제점(問題點)과 그의 발전(發展)에까지 -

전봉희(田鳳熙)

1. 유도탄이란 무엇인가?
2. 유도탄은 왜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나?
3. 유도탄의 발전사
4. 유도탄의 구성
5. 유도방법 (이하 차호(次號) 계속)
6. 유도탄의 전략적 가치
7. 유도탄의 전망

1. 유도탄(誘導彈)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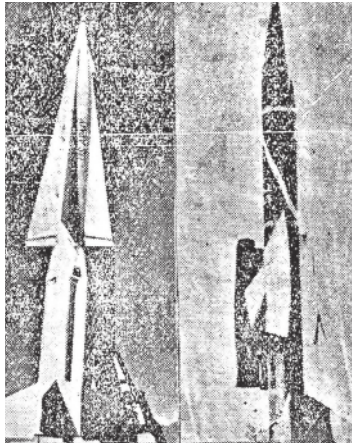
유도탄이란 그 이름과 같이 인간 이외의 물리적 방법에 의해 유도되는 비상체(飛翔體)이며, 탄(彈)은 아니다. 그런 고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행되어 가고 있는 유도탄이란 말은 학문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도탄 비상체'로서 구(舊) 독일 V-1, V-2 계열과 같은 공격무기이다. 미 육군 NIKE나 미 공군 BOMARC와 같은 방공병기 뿐만이 아니라 고속 유체역학의 실험용구로서, 하늘을 나는 풍동(風洞)¹⁴⁾으로서, 우주선으로서, 또한 우편기로서, 그리고 초고속 전서구(傳書鳩)¹⁵⁾의 역할을 담당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병기로서의 GUIDED MISSILE는 그 목적에 따라서 공대공, 공대지, 지대지, 지대공의 4종류로 분류된다. 그 외에 지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선박으로부터 발사되는 것 및 대잠수함용 같은 것도 있으나, 크게 분리하면 상기와 같이 4종류가 된다.

공대공은 항공기에 장비한 유도탄으로서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를 겨누어서 발사되는 것으로, 미 공군의 FALCON을 비롯하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SIDE WINDER 및 미 해군의 SPARROW 이외 5-6종이 있으며, 소련 것으로는 M-100A

14) 인공으로 기류를 일으키는 장치 15) 통신용 비둘기



<미 육군의 Nike(좌)와 미 공군의 지대공 Bomarc>

및 POL-1이 있다. 공대지는 공중에서 지상목표에 향하여 발사되는 것인데, 미 공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RASCAL 해군의 PETREL 이외 여러 종이 있으며, 소련은 POL-2만을 보유하고 있다. 바 그 이상은 미상이다. 지대지는 지상에서 지상목표에 향해서 발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소가 다 같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 크게 ICBM으로는 공군의 TITAN ATLAS 해군의 SNARK 이고, IRBM으로는 공군의 THOR, 육군의 JUPITER, 해군의 TRITAN REGULUS 2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한국전선에 최근 배치된 미 육군의 단거리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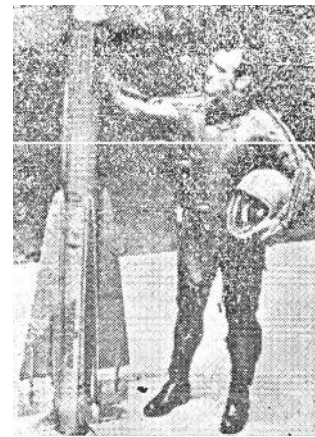
탄 HONEST JOHN과 대만에 이미 작년에 배치된 미 공군의 MATADOR가 여기에 속한다.

소련 것으로 ICBM는 T-3(M-104) T-4A와 IRBM는 T-2(M-103) T-4(M-102) 이외 여러 종이 있으며, 지대지 단거리 유도탄은 T-1(M-101) T-7A 등인데, 이것들이 다 유도탄이다. 끝으로 지대공은 지상에서 공중의 항공기 및 유도탄 목표를 향하여 발사되는 것으로 이것 역시 미국에서는 미 공군의 BOMARC, 미 육군의 NIKE, 미 해군의 TALOS 이외 수종과 소련에서는 M-1, T-7, T-8 등이 있다.

1. 유도탄(誘導彈)은 왜 세계적 문제(世界的問題)가 되었나?

오늘날 세계기술계가 원자력과 유도탄의 그 최첨단(最尖端) 기술을 투입해서 그 시간을 다투는 맹렬한 연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불행하게도 또다시 세계전쟁이 폭발한다면 누구든지 제1로 원하는 것은 이 최후의 세계결전 후 '생존'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지만 인간본능에 뿌리를 두고 가장 강한 욕망이란 병기인 항공기로부터 '인간'을 내리고, 그 대신 전자기술과 기계기술을 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사람은 유도탄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을 그 비용에 대해 말하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곤란과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인간은 유도탄을 제조할



<미 공군의 공대공 FALCON>

수 있다. 그러나 비행기는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인간은 살고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로 유도탄의 완성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사람들은 기계에 방공(防空)을 위임할 수 없는 혈기(血氣)의 용사가 나타났더라도 금일(今日)의 폭격기는 이미 인간이라도 INTERCEPTER(요격기)로서는 방어불능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우선 속력에서 오늘날의 최신 중폭격기는 JET폭격기이며 JET ENGINE를 싣고 있는 한 JET 전투기와 그 속력이 동일하다. 전투기는 방공의 임무를 전부 맡기 위해서는 폭격기에 대해 50%의 속도 우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런데 현재의 JET전투기는 10%의 속도우위를 가지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가령 ROCKET 또는 RAM-JET 전투기가 만들어졌더라도 무장이 문제가 된다. 2차 대전 시의 어려운 경험으로 우리들은 INTERCEPTER와 고사포에 의한 방공이 얼마나 곤란한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B-29의 대(大)편대는 RADAR 및 고사포와 INTERCEPTER의 막(幕)을 피하여 마음대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었다. 독일인의 계산에 의해 구식 미 공군 폭격기 B-17을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20m/m 구경 기관포로서 1,000발 발사가 필요하다. 만약 4정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25초 걸린다. 25초간에 고속기들이 서로 사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2초 정도에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

탐재 기층수를 많이 할 수 없다. 이것은 고속전투기의 날개가 넓어서 휘발유가 들어갈 장소가 없을 정도이며 동체의 공간은 RADAR로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은 장소는 ROCKET 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ROCKET 탄을 발사하기 위해 RADAR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ROCKET탄을 지상으로부터 발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따라서 인간의 신경의 반응이 늦으므로 진공관의 반응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 인간은 깨끗이 지상으로 내려와 진공관과 교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비용 면에서 INTERCEPTER와 유도탄과는 어느 편이 더 경제적인가? 경제력이 빈약한 나라의 군비에는 이것이 큰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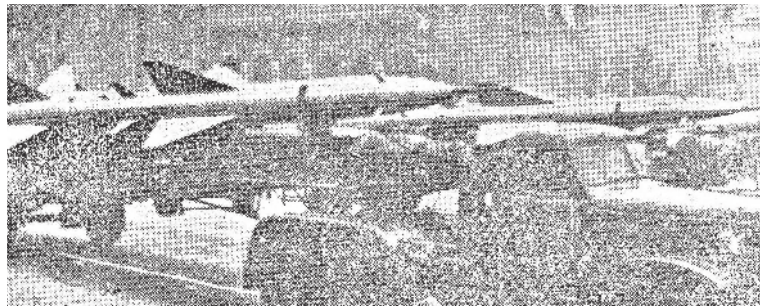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력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가(미소에 비해) 이 점에서 유도탄에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에 의하면 유도탄 부대를 보유하는 비용은 전투 부대를 보유하는 비용의 6분의 1 내지 7분의 1이던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으로서 유도탄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유도탄만으로 될 수 가 있는 것인가? 문제는 장래의 공습이 비행기가 아니고 지대지의 GUIDED MISSILE 자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은 구 독일의 V-1, V-2의 공습에 의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았다. 다음 전쟁에서는 이 원자폭탄을 적재한 유도탄이 필연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이미 소련에서는 원자폭탄을 적재하고 5,000마일을 나는 ICBM(대륙간용 초장거리유도탄) T-3(M-104)을 완성했다는 정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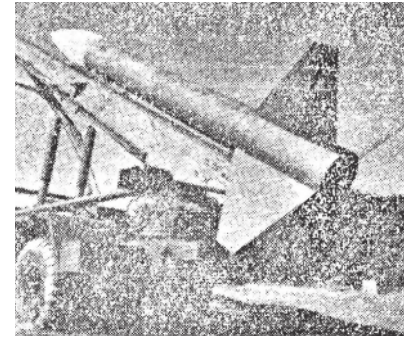
대(大)포탄의 속력은 음속의 2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장거리유도탄의 속력은 최고 음속의 20~25배에 달한다. 대포탄의 10~13배의 속력으로 날고 있는 것을 공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격추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공기총의 탄이라 할지라도 날아오는 공기총의 탄환을 다른 공기총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인가?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에 있다는 병법에 따라, 각국은 대공유도탄 같은 공격용 장거리 유도탄의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유도탄(誘導彈)의 발전사(發展史)

(1) 독일 실전에 유효하게 사용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유도탄의 원조는 독일의 V-1, V-2호이며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에서 로켓기의 연구는 오래 전부터이며, 1933년에 오이겐 쟁거박사¹⁶⁾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연구 시작하고 있는 ROCKET유도탄의 대부분의 기초이론을 세웠다. 쟁거 교



<소련의 지대공 2단 ROCKET>



<한국에 배치된 지대지 HONEST JOHN>

수 등의 관심은 우주 ROCKET에 있었는데, 이것이 HITLER의 명령으로 전시 목적에 응용되었다.

그리하여 페네뮈데¹⁷⁾라는 곳에 큰 지하연구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연구시작 생산을 조직적으로 행했다. 이 연구소는 동서의 돌로 나누어 일방을 육군이, 타방을 공군이 사용했다. 육군부의 계획은 A-1부터 A-10까지였으며, 이 중 V-2는 A-4에 해당한다. 전부 47척 전

비중량 140톤 화약 200파운드를 가진 250마일의 비상거리를 보유하고 최고속도 2470ft/s 음속의 6 - 8배란 경이적인 것이므로, 만약 달(月)에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달에서부터 발사한다면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ROCKET이다(지구에서부터는 지구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권 외로 달아날 수 없다).

금일 우주 ROCKET가 실현될 수 있는 문제로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V-2(A-4)의 출현에 의해 큰 자극을 받고 있다. 영국에 1,152발, 벨기에의 안트와프에 134발이 발사되어 큰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무기들이 전후 미국으로 100발과 120명의 기술자가 건너가고, 나머지는 소련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V-1 호는 공군부의 설계로서 날개 달린 로켓 비행기 유형에 가깝다. 전장 25피트 항속력 200마일이며 속력은 360MPH로서 V-2에 비하면 느다. 그래서 후기에는 영국의 요격기에 대부분이 격추당했다. 총계 8,070발이 발사되었다. V-2의 ROCKET가 소위 2단식으로서 알코올(ALCOHOL)과 액체산소의 대표적인 ROCKET이면서도 이쪽은 가솔린을 사용한 PULSE JET 식 ROCKET이다. 이는 독일기술의 광범함을 보여준 것이다.

공군부는 이외에 RHEINBOTE, WASSERFALL, RHEINTOCHTER 등의 대공유도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육군부는 A-4에 따라 유익(有翼)의 A-4B를 계획했고, 나아가서 2단 ROCKET A-9 A-10의 조립으로서 3000마일을 6300MPH의 속력으로 날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달된 유도탄 중 V-2는 현재의 미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하게 된 JUPITER-C를 개량·제조하게 이르렀으며, 그 외에 미

16) Eugen Sänger 17) Peenemünde Army Research Center

소 공히 독일제 유도탄을 기반으로 다수의 유도탄을 제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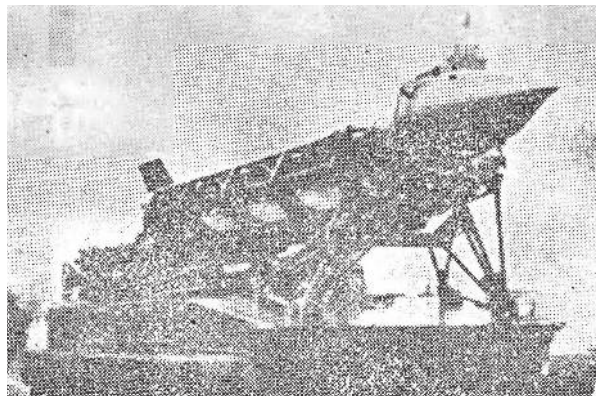
2) 미국은 1957년 6월과 9월의 2회에 걸쳐서 행하여진 항공의 ICBM ATLAS의 실험발사에 실패했다. 모두 ROCKET 관계의 고장으로 대추력(大推力) ROCKET에 있어서 소련에 비해 늦어진 것이 인정되고 있다. IRBM은 소련에서는 이미 수십 회의 시험발사를 1957년 중에 실시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대체로 실용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 IRBM은 대개 T-2(M-103)로서 사정거리는 1,800마일이라 한다. 미 육군의 IRBM JUPITER은 1956년말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JUPITER-C는 3,500마일의 비행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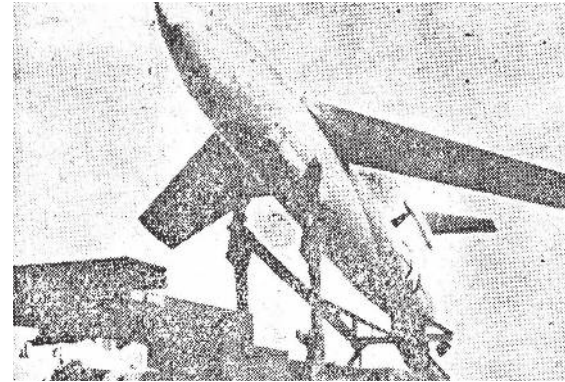
또한 8월 16일부의 N.Y.T 및 8월 26일 부의 TIMES에 의하면, JUPITER는 1,200마일을 날아서 목표구역의 4분의 1마일 내에 착탄하여 열장애(熱障害)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1월 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로 대체된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1957년 초두(初頭) 이래 수차례에 걸쳐 발사에 실패한 공군의 THOR는 최근 처음으로 성공했다. IRBM의 급속한 실용화라는 점에서 JUPITER과 THOR를 여하히 결합하여 조정할 것인가는 초미의 급박성을 요하는 문제로 생각되나 아직 미정인 것 같다. 미 공군의 B-52 B-47 등의 전략폭격기에서 전략목표에 사용하는 공대지 MISSILE RASCAL의 완성이 1957년 10월 27일에 발표되었다. RASCAL는 수소탄두를 가지고 목표에서 75 - 100마일의 거리에서 발사되어 초음속으로 RADAR 유도가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 공군의 무인 전략폭격기 형식의 SNARK는 실험이 일단 종료되고, 1957년 말에 최초 중대가 편성되어 전략공군부대에 편입될 예정이다. SNARK는 TURBOJET기 형식으로 음속에 달하지 못하며, 방어 화력도 없고 회피운동(回避運動)도 할



<소련의 지대지 사정 200마일>



<대만에 배치된 미 공군 지대지 MATADOR>

수 없기 때문에 방어의 엄중한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SNARK보다도 진보된 RAMJET 초음속기인 공군의 NAVAHO도 1957년도에 종결하려고 했으나, 1957년 중에 실험이 계속되어 그의 성과가 크게 선전되었다. 전술 MISSILE로서는 미 육군의 전술

탄도 MISSILE REDSTONE이 실용화의 단계에 들어갔고, 최근 육군 전략부대에 REDSTONE 부대가 편성되었으며 사정은 200 - 300마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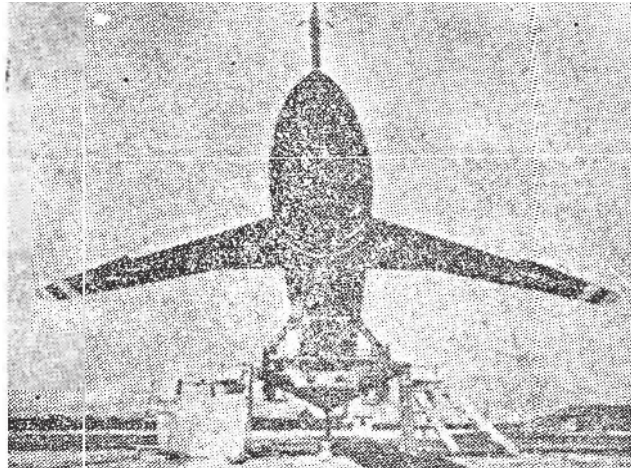
(3) 1957년도 MISSILE계의 최대의 사건은 동년 8월 26일 타스 통신의 ICBM 발사성공의 보도였다. 그러나 소련의 인공위성이 2호까지 이미 지구를 돌았으며, 또 소련의 ICBM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나 대체로 3,000 - 5,000마일(5,000 - 8,000km)를 날았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열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병기로서 실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도에 달했는가의 여부가 소련의 ICBM에 대한 논쟁의 초점인 것 같다.

열장애의 문제에서 ICBM은 음속의 20배 정도 즉 초속 6,000m(20,000피트) 내외의 초고속으로 대기 중으로 재돌입한다. 그대로는 충격파의 압축과 마찰열 때문에 외피는 수천도 이상으로 되어 유성과 같이 연소되어 버린다. 이 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열재료, 냉각방법, 두부(頭部)형상, 내부로의 열의 절연, 외피를 여러 겹으로 하여 점차로 연소되어 떨어지게 해서 내부를 보호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감속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인공위성 제2호의 개(견(犬))가 생환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열장애의 미해결을 생각케 하며, 1957년 12월 23일의 MOSCOW 방송도 해결에 가까웠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미해결 중임을 알 수 있다.

정밀도의 문제는 인공위성이 잘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시키는 정밀도가 대단히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ICBM이 실용병기로서의 정도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ICBM이나 인공위성

도 ROCKET을 분사하고 있는 사이만은 관성유도방식으로 유도되며, 후에는 자유로 탄도(궤도)를 날아간다. 인공위성은 위성방출(ROCKET 분사 중지(噴射終止)) 시의 속도가 초속 약 7.9km(4.7마일)~12.2km(7.6마일)의 범위에 있으면, 원 또는 타원형을 그리면서 돈다. 속도 오차의 허용범위는 초속 3.3km(2.05마일)로서 속도의 30%에 달한다.



<미 공군의 지대지 SNARK>

그러나 ICBM은 탄두의 1메가톤급(TNT 100만 톤) 수폭의 파괴반경에 합치되는 정도가 되면 착탄점에서 대체로 20km(12.4마일) 이내의 편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속도 오차가 초속 5~10m(16.4~32.8피트) 정도로 속도의 약 0.1%의 오차가 아니면 안 된다. 방향 오차가 대체로 같은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인공위성에서는 ICBM의 실용병기로서의 요구정도의 300배에 달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것만으로 실용적으로 가치가 있는 ICBM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여하간 소련의 ROCKET 기술의 진보는 경탄할 만한 것인데 ICBM의 실용화에는 아직도 수년을 요할 것이라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설인 것 같다.

전술 MISSILE로서는 종래 사정 30 - 60마일의 T-7A 및 400마일의 T-1(M-101)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다. 1957년 11월 7일 소련 혁명 40주년 기념의 시위에 나타난 소위 ICBM이라고 전해진 탄두 MISSILE은 길이 65피트 정도의 일반 ROCKET인 것 또는 차재이동용인 것 등에서 T-1(M-101)의 전술 MISSILE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유도탄(誘導彈)의 구성(構成)

소위 유도탄은 비행기 비행탄(飛行彈), 폭탄 등의 전상체(戰翔體)를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자세 및 경로의 조종 혹은 관제를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기체 또는 탄체
- (2) 추진기관
- (3) 연료공급기구 및 연료 TANK
- (4) 연료
- (5) 탑재물
- (6) 자동조종장치
- (7) 유도장치
- (8) 전원 및 유압 장치

다음은 이것들에 대한 개략을 기술한다.

(1) 기체 또는 탄체

비행기는 비행탄 폭탄과 전적으로 같은 형을 이루고 비행형의 것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후퇴의 DELTA익을 사용하고 있다. 비행탄의 경우는 익(翼)날개이라 칭하지 않고 FIN(나래)라고 불리는 보통 4매(枚) 또는 8매의 사각형 혹은 DELTA형이 작은 날개가 부착되어있다. 초기의 것은 목재 견포(絹布)를 바른 것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체가 금속제로서 이것도 점차 합성지(合成脂)로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기관

현재는 추진기관으로서 전적으로 ROCKET 또는 JET가 사용되어 가까운 장래는 속도와 상승한도에 있어서 유도탄의 추진기관은 액체 ROCKET와 RAM-JET에 귀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JET의 경우는 산화제로서 공기를 사용할 수 있기에 연료소비량이 적고 비교적 소형-경량이므로 장거리용의 유도탄을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속도와 상승한도가 다 한계가 있고 (제1표)에 따라서 용도도 자연 한정될 것이다.

ROCKET는 산화제를 스스로 휴대(携行)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연료탑재량도 많고 사정이 긴 것으로는 중량과 용적이 대단히 커지면 V-2호는 전비중량 13톤, 독일이 계획한 500km(311마일) ROCKET A9/A10은 90톤이라고 하고 있다.

제1표 추진기관의 한계

	한계고도(m)	한계속도(HACH)
TURBO JET	18,000 (59,000 Ft)	1.3
TURBO RAM JET	25,000 (82,000 Ft)	2.5
RAM JET	30,000 (99,000 Ft)	4.0
ROCKET	무	무

(3) 연료공급기구 및 연료 TANK

연료공급기구는 자동조종장치에 달린 연료제어장치와 추진기관에 연료를 송입(送込)하기 위한 여압장치 등이 있다. 또한 연료 TANK는 기체 외부에 장치되어 사용 후 빈 TANK를 절리(切離)하여 투하하는 것이 있다.

(4) 연료(燃料)

유도탄에도 미 공군의 MATADOR SNARK 해군의 REGULUS PETREL 등과 같은 TURBO JET기관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나, 이것들에 사용되는 연료는 일반 JET기에 사용되는 소위 항공용 GAS TURBINE 연료인데, V-1과 같이 PULSE-JET를 사용한 것. 미 공군의 BOMARC 혹은 해군의 TALOS와 같이 RAM JET를 사용한 것 등은 연료 선택범위도 넓어진다.

제2표 ROCKET 연소제

산화제	연료	혼합비	연소실 압력 (기압)	연소온도 (°C)	이론분사속도 m/sec(Ft/sec)
액체산소	액체수소	5.33	23	2360	3250(10.660)
액체산소	CASOLINE	3.5	20	3020	2340(7670)
액체산소	ETHEL ALCOHOL	1.5	20	2000	2350(7700)
액체산소	HYDROGEN	0.67	20	2810	2590(8960)
액체산소	액체 AMMONI	1.4	20	2730	2480(8180)
초산	ANILINE	3.0	20	2770	2140(7020)
과산화수소	ETHEL ALCOHOL	3.4	20	2450	2220(7280)
과산화수소	HYDROGEN	1.45	20	2450	2400(1840)

V-1이나 고-곤 4는 80 OCTANE의 자동용 GASOLINE을 사용했다. ROCKET은 일반적으로 연료 외에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ROCKET연료제의 중량은 전 비중량 중에 큰 비율을 점하게 되어 V-2d에서는 69% 미 육군의 VIKING에서는 72%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연소제의 주요한 것은 제2표와 같은데, 이것은 화약이나 니트로메탄(nitromethane)과 같이 산화제와 연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좋은 것도 있다.

(5) 탑재물(搭載物)

유도탄은 전시에 사용되는 경우와 평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물론 그의 탑재물로서 작약(炸藥) 원폭 때에 따라서는 세균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평시에는 유도탄 그 자체의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와, 고층기상의 관측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종 측정기계 외에 경제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PARACHUTE[낙하산] 등을 탑재하여 그의 회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각종 관측기계 외에 때에 따라서는 산 동물을 탑재하여 생리적인 실험을 할 때도 있다.

각종 측정 혹은 관측기계에는 시시각각의 측정치를 전파로 보내는 원격 지시장치나 혹은 스스로 기록하는 자기계가 있고, 또한 CAMERA 등도 포함된다.

(6) 자동조종장치(自動操縱裝置)

자동조종장치는 자세가 기관의 제어를 하는 것으로 종래의 자동조종장치뿐만 아니라 자동엔진조정장치 및 기타 자동조종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항상 안정되게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최량의 엔진 상태로 비행케 하는 등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장치에는 이상 즉 정상적이 아닌 미소한 변화를 검지(檢知)하는 장치와 검

(93면에 이음)

눈송이 작전(作戰)을 참관(參觀)하고

- 원자지상전(原子地上戰)과 전술공군(戰術空軍)의 위치 -

윤종현(尹宗鉉)



버섯 같은 원자구름이 솟고 세이버들의 은빛날개가 하늘을 뒤덮은 중 주한 미 제1군단에서 실시한 동계 대원자(大原子) 기동훈련 - 눈송이 작전은 지난 1월 22일 서부전선 임진강 남안 훈련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었다. 이 훈련은 주한 미 제1기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근대식 원자 펜토믹 편제로 전환된 이래 그 공격력과 기동력을 처음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훈련에서는 기자들이 종래 다른 기동훈련이나 시범전투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견문 여러 모에 접할 수 있었다. 거대한 280mm 원자포가 이동되는 장관, 한미공군 신예 제트기들이 실제로 훈련에 참가해서 대지(對地) 지원공격을 감행하는 장면 영하 20도의 찬바람이 뼈를 깎는 산악에서 끝내 항복을 거부하며 고립분전하는 장병들의 용맹성과 협동미, 그리고 헬리콥터를 사용한 공수도하작전 등…… 새로운 훈련양상이 모두 원자전쟁을 실감케 하고 있었다. 기자는 동 훈련기간 중 두 번(1월 20일과 22일)에 걸쳐 이 전투훈련을 참관했다. 비록 문외한이 본 것이거나 훈련 상황을 보고 난 몇 가지 메모를 모아 <코메트>와의 첫 연분(緣分)을 맺으려 한다.

◇…시나리오와 훈련 상황…◇

20일 훈련은 약 2개 사단의 적이 1월 10일경 불의의 침공을 시작 많은 병력을 손실당하면서 그중 12개 사단이 미 제1군단 지역까지 침투했다는 가상 적정 하에 준비되었다.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분투하던 우군부대 중 일부는 임진강 남방 산악 지대에 고립돼서 항전을 계속하고, 적의 기습을 받아 약간 전선을 정비했던 미 제1군단 예하부대(공격군)들이 15일 경부터 반격태세를 갖추어 이날 상오 6시를 기해 원자무기를 가지고 동서 27마일 연습장에서 일대 반격전을 시작했다는 상황이었다. 트루더 장군(당시 미 제1군단장)의 기습 반공(反攻) 명령을 받은 한국해병 제1사단은 좌측에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서서히 진격하고, 중앙에서는 메 제7사단,

국군보병 제8사단, 동 28사단이 침략군의 강력한 진지를 공격함으로 격전이 벌어졌으며, 우측에서는 보병 제26사단이 포화의 엄호 사격을 받으면서 이날 새벽 침략군을 강타했다는 것이다. 공격군의 이러한 진격에 대항하는 가상침략군은 1개 미군 전투부대와 동 수색중대, 국군 보병 1개 연대 터키군 1개 중대로 구성되어 미 7사단 부사단장인 사무엘 E. 지 준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X X X

22일. 이날에는 시범 훈련이 공개되었다. 20일부터 2일간 공격군이 착실한 성과를 거두면서 진격하는 중 침략군(대항군)을 동두천, 북방 어느 무명고지와 강 북안 아이스클 고지에 몰아넣고 원자무기로 섬멸하는 시범이었다.

동두천 북방에서 실시된 시범공격은 2개 사단의 침략군이 집결된 산악 6개 무명고지에 모의 원자포탄 각 1발씩을 발사한 후 F-86 제트기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보전포(步戰砲) 협동진격으로 고지의 적을 섬멸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 공격에는 보병 제8사단과 26사단에서 선출된 1개 중대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이 공격에서 대지협동공격을 하던 중 고 이열수(李烈秀) 공군대위가 의정부 남방에서 추락 순직했다.

아이스클 고지에서도 공격 순서는 거의 같았다. 먼저 원자무기에 의해 고지에 사격을 실시하고, 뒤이어 공군이 대지공격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대위기의 사고로 말미암아 Z기의 참가가 중지되었고 육군정찰기대가 그 역할을 대행했다. 항공기에 의한 대지공격이 한창 중 H-21 대형 헬리콥터 10여 대로 소총중대 장병들이 임진강을 공수 도하되어 공격목표 고지 앞 300야드 남쪽 지점에 착륙했다. 그들은 보병 28사단 81연대 소속이었으며, 이 공수도하 소총중대 공격전 시범은 국군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소화기로 알맞은 무장을 하고 헬리콥터에서 내려진 소총중대원들은 육로로 임진강을 건는 전차대와 각종 포사격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지로 진격, 적을 섬멸해 버리고 드높은 함성으로 고지를 탈환했다. 고지 탈환의 신호가 오르나 가상 적군이 역습을 시도했기 때문에 다시 원자포탄 일발을 적 후방진지에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 대령은 이날 두 곳의 시범훈련을 모두 참관하고 “원자무기를 다루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고 시종 장병들을 격려했다.

X X X

아이스클 고지에서 시범훈련이 전개되는 중 임진강 남방 무명고지 상공에서는

동 고지에 고립되어 항전 중인 2개 중대 병력의 우군을 헬리콥터와 항공기로 지원 하는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악에 분산되어 장비, 인원, 식량 등을 항공기로 지원받으면서도 한사코 항복을 부정하는 면모가 뚜렷했다.

X X X

훈련장에서 벌어진 이러한 상황과 함께 눈송이 작전은 또한 거대한 해공군의 기동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20일부터 본격화된 상황 전개에 앞서 15일부터는 미 해, 공군이 일본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3천마일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의 전투훈련을 했다. 미 제7함대와 제5공군 제13공군이 참가한 가운데 이 훈련은 22일까지 계속됐다. 눈송이 작전은 이 해, 공군 기동 연습에 참가한 재일(在日)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지원 하에 전개됐다는 것이며, 공방 양군이 모두 원자무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던 만큼 한국의 지상원자전 연습을 태평양의 해공군 기동력이 커버해주려는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원자전술과 공군의 위치…◇

펜토믹 군사연습은 작전의 진전 과정과 시범공격 순서에서 원자전의 특징 전술 및 장차 벌어질 전투양상의 모습을 선명히 해주고 있었다. 동시에 원자전에서 계산할 수 없이 중요한 전술공군의 역할과 위치를 또한 잘 인식시켜주고 있었다.

20일 새벽부터 반격을 계속한 공격군이 우세한 전차대와 수송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대로 급속히 진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원자전 하에서는 대부대 회전(大部隊會戰)보다도 각 전투대가 충분한 거리를 서로 유지하면서 분산된 형태로 행동한다는 원칙에서 온 것 같다. 이 원칙은 우군의 피해를 덜고 한꺼번에 전투력을 파손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진격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급속한 탱크 부대의 진격작전이나 인해전술 같은 것보다도 침입한 적을 어떤 거점으로 압박해서 몰아넣은 후, 그 거점을 원자무기로 공격, 섬멸하는 전술에 쓰이는 것이다.

X X X

시범장인 아이스클 고지와 동두천 북방 무명고지에 대한 원자포탄 공격은 이러

한 전술로 적의 거점과 집결된 전투력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 같았다. 먼저 원자포탄을 발사해서 적을 얼먹인 후, 공중공격으로 적의 기동력과 잔존 역량을 제압하고 적이 얼먹고 제압당한 '충격의 순간'을 이용해서 우군의 지상공격이 시작되어 적과 접전하는 것이다. 접전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부대를 신속하게 집결-투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때는 기동력과 수송력이 가장 필요하며, 아이스클 고지 시범에서 대형 헬리콥터로 소총 중대원을 공수 도하시킨 것은 이러한 전술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소총중대원들이 전차와 각종 화력의 지원을 받으며 고지로 진격하는 것은 종래 보던 '보전포(步戰砲) 협동작전 훈련'과 비슷했다. 이때는 재래식 무기가 총동원되고 항공기의 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리 위력이 큰 원자무기를 가졌어도 일단 접전이 벌어지면 적과 함께 우군을 살상케 된다. 그러므로 그 전투 지구에는 원자무기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지상군 전술은 원자탄에 얼먹은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분산된 전투부대를 기동력을 이용해 재빠르게 집결 투입시키고 각종화력을 집중해서 접전 끝에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X X X

이 원자지상전투를 지원키 위해 공군은 원자무기가 발사된 직후 첫째로 가장 효과적인 대지 접근공격을 감행했다. 이 접근공격은 얼먹은 적을 지상 접전에서 소탕시키는데 중요한 선제가 된다. 마치 공중잡이로 나가떨어진 폭탄을 바닷물로 지질러놓은 격과 비슷하다. 또한 공군은 이 지상접전이 계속되는 동안 적의 저항을 꺾기 위한 대지공격과 적정에 대한 정찰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역할은 지상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공권의 장악이 원자전 하 지상전투에서도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부대의 집산과 유동에서 항공기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수 도하작전 시범에는 미 제13수송중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되었고, 헬리콥터는 반드시 공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전이 대규모 화했을 때 하늘의 기동력과 수송력이 지상을 커버해야 할 것은 명제화 될 것이다.

광범한 지역에 전투부대들이 분산되고 그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분산된 부대들을 항상 유동시켜야 하는 반면, 어떤 지상 접전이 벌어지면 이들을 또한 집결-투입시켰다가, 전투 직후 또다시 분산시켜야 하는 원자 지상전의 전술은 공지(空地) 기동력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 지상전에서 전술공군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적의 부대 집결지나 군대 시설 및 특화점에 대해 잠입 공격을 할 것은 물론이다. 이날 시범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없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케이스로 보아 우군부대와 격리되어 있는 적의 전력요소를 마구 공격할 수 있을 것이며, 원자전 하에서 전술공군이 차지하는 위치는 종래보다 천금의 무게가 가해질 것이다.

적에 대한 사나운 경제자로서, 적정에 대한 정확한 정찰자로서, 적의 전력의 철저한 공격자로서, 우군의 지상부대의 엄호자로서, 공방전의 기동력으로서 그의 위치와 역할은 승패의 제1급 요소가 될 것이다. '스노우 플레이크¹⁸⁾작전'에 참가한 한미 공군제트 전투부대들이 당일 이런 임무 전부를 지니고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프라이드는 이러한 정신적 위치와 역할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선에 새 시대, 새 역사…◇

22일 저녁 기자들의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중 훈련부대는 원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휴전 이후 주한 유엔군이 실시한 최대의 원자 기동훈련이 끝난 것이다. 훈련성과와 강평은 그 후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전선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군이 적침을 격퇴하는데 원자무기를 사용하고, 공격적인 방어태세로 전환케 될 테스트를 했다는 점에서 훈련의 첫 의의는 큰 것이었다. 훈련 총지휘관이었던 트루더 중장도 "침략자에게는 우세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가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둘째는, 원자전술을 군단 단위로 확대 적용시키는 훈련이었다는 데서 전술 면에 전진이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눈송이 작전에 앞서 종래에도 몇 번 원자전을 가상의 훈련이 실시되었지만, 모두가 사단 이하 단위부대에서 한 것이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1 군단 예하의 부대뿐만 아니라, 인접한 한국군 제6군단 예하 부대 장병들까지도 참가해서 원자전의 지식을 넓히며 기동력과 전술능력을 시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무기의 전술적인 사용방법을 비롯하여 각종의 화력 전차 야포 등의 시범사격과, 포병대의 기동 및 야간공격, 조명탄 투하, 항공기에 의한 병력 및 보급품 수송, 무선통신망의 이동보호방법, 공지(空地) 기동협조, 그리고 참가한 유엔군 부대 간의 협동관계 등 광범위한 전투기능이 발휘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전투 기능은 가장 나쁜 조건 - 영하 20도의 혹한과 발목이 빠지는 백설의 산악에서 발휘되었다.

셋째, 눈송이 작전은 우리에게 원자시대 생활을 영위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훈련장에서 우리들이 국내에 도입된 원자무기를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

18) snowflake: 눈송이

문이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알라모¹⁹⁾ 고도 비행장에서 원자탄의 첫 실험이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아직 미지의 것이었다. 그해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에 터져 우리는 그 절대적인 위력에 경도는 되었지만, 원자무기에 대한 생리적 감축은 경험치 못했었다.

그러나 눈송이 작전에 나타난 원자무기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의식이 들렸다. 이 무기가 적침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영예를 보존해 주려고 우리 전선에 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병들은 이 무기를 다루고 민간인은 원자시대와 생활에 대처하는 태도를 갖추어 살아야 된다는 인식에 가슴이 설렘다. 원자탄이 생산된 지 열두 해 반 만에 한국에도 새 시대, 새 역사가 온 것이다. 눈송이 작전의 뜻이 군사 면에서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진하게 번진 감이 들었다.

(필자(筆者), 한국일보(韓國日報) 중군기자(從軍記者))

(87면에서 계속)

지된 양을 전기량에 변환하여 이것을 전자산정장치에 의해 적당한 전기량으로 바꿔서 일련의 조타(操舵)장치 혹은 엔진 조정 장치에 주는 것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유도장치

유도란 피(彼)유도체를 목표한 COURSE(목적물에 도달하는 COURSE)에 올려놓는 것, 즉 경로의 제어를 하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피유도체의

(ㄱ) 현상을 완전히 파악하고

(ㄴ) 소망의 COURSE와의 차를 측정하고

(ㄷ) 그 차의 수정량을 산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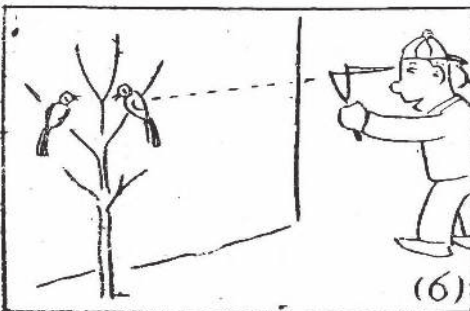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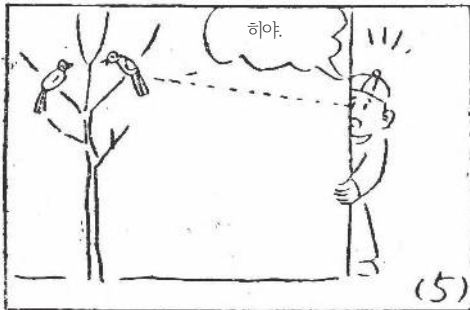
(ㄹ) 이 양을 연속하여 조타장치에 부여한다.

(8) 전원 및 유압장치

각종의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유압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일반 항공기의 것과 같다. 특히 발전기는 필요한데 이는 일반항공기의 것과 같다. 특히 발전기는 GAS가 압축공기에 의해서 구동(驅動)되는 3상 유도발전기가 중시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다. 로스앤젤레스의 <에어 리서치>사에서 연구되고 있는 유도탄용 교류유도발전기는 3상 115-200V 12120 RPM 400 CYCLE로서 출력은 미상이나 길이는 30cm라 한다.

(필자(筆者) 공군본부(空軍本部) 정보국장(情報局長))

19) Alamo



<시조(時調)>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나.
저리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윤선도(尹善道))



<시조(時調)>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이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전에 뿌리 곶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윤선도(尹善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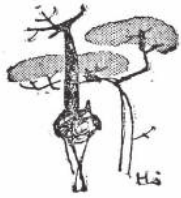
양지영감

이상호



수필사제(隨筆四題)

- ★ 새옹마(塞翁馬)의 교훈(教訓)
- ★ 대한 공군(大韓空軍)과 대한(大韓) 어린이
- ★ '달과 꿈'
- ★ 사람의 재질(才質)



새옹마(塞翁馬)의 교훈(教訓)

안수길(安壽吉)

KNA 남북사건은 국민 전체의 격분을 자아내고 나아가서는 반공결의를 한층 더 굳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의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요히 생각하게 한다.

옛날이야기다.

중국에 새옹(塞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늦게 본 아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아들은 말 타기를 좋아했다. 그런 나머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병신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위문을 갔다. 그러나 새옹은 다리 부러진 아들을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만든 말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빙그레 웃을 따름이었다(이상한 영감이다).

생각했는데 그 말이 하루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동네사람들이 시원섭섭하겠다고 했다. 영감은 또 빙그레 웃을 뿐. 얼마 지난 뒤, 말은 이웃나라에서 수천 필의 다른 말을 끌고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했다. 영감은 역시 무표정인 채 겨우 빙그레 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웃나라와 큰 싸움이 붙었다. 말은 모조리 징발(徵發)당했고, 아들도 병정으로 뽑히게 되었으나, 그의 아들만은 다리가 병신인 까닭에 면했다는 이야기다.

'새옹마득실(塞翁馬得失) 혹은 '새옹마' 라는 말의 고사(故事)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뜻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이번 여객기 납북사건에서도 사소한 일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므로 화를 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문(餘聞)으로

들려온다.

어느 장관은 15분이 늦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어떤 어린 학생은 2천 원이 모자라서, 볼모잡이의 신세를 면했고, 어느 장교는 친구 덕분에 술을 마시다가 난을 피한 결과가 되었다고도 하는 등등.

타지 못한 사람이 그랬거늘, 화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이와는 반대되는 알려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 아닐까?

새옹마의 득실!

이렇게 되면 세상일이란 나쁘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좋다고 좋아할 것도 없지만, 이랬다고 인간 만사를 운명론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달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도, 인간 자체의 일에는 과학으로 설명하고 밝힐 수 없는 신비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신령학(神靈學) 따위의 허무맹랑한 것을 거드는 것은 아니다.

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연성이 예기치 않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대한 하나의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연성과 감성성을 남용하는 점이 통속소설의 특색을 이루고 있지만, 무턱대고 그것을 배격할 것만도 아니다.

필연성만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작용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예상외의 사태를 전혀 생각지 못한다면 세상은 도리어 단조(單調)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닐까?

여행이 좋다는 것은 그 여행의 목적 자체보다 도중에 일어나는 예기할 수 없는 우연사나 시시각각으로 주마등과 같이 바뀌는 차창의 풍경의 변화에 있다.

KNA 여행기 납북사건은 극히 특수한 예에 속하므로 이런 우연사는 처음부터 생각은커녕 어떤 치밀한 추리를 가지고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령 기차여행에서 달콤한 로맨스를 꿈꾼다든가, 의외에 옛 친구와 해후(邂逅)한다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이 우연성이 빚어내는 여덕(餘德)일 것이다.

우연성으로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운명은 곧 앞에서도 쳐들어온 새옹

마의 예는 또한 우리 인생의 처세철학으로서 가장 소박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거기에겐 무시 못 할 진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항상 뇌리(腦裏)에서 떠나지 않는다.

안암동 4인 가족 자살사건의 어두운 보도를 읽고 며칠 암담한 기분에 잠겼지만, 그 사람이 이 처세철학을 터득했다더라면 그러한 참극을 빚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만사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다. 자기의 처지가 불운하다고 너무나 절망하고

비관만 할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우쭐대고 안일하고 방자한 행동으로 소일(消日)할 것도 아니다.

마음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요는 불행을 가져오는 우연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항상 자신을 노려보고 그 자신이 향상의 길을 지향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경계를 깨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연성이 이루어 놓는 결과도 새옹과 마찬가지로 침착과 냉정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처세철학인 동시에 또한 인생철학이라고 본다.

물론 거족적, 세계적인 압력은 있었지만, 염려되던 KNA 여객들은 무사히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왔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의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될 귀중한 것들을 보고 겪고 왔다.

(필자(筆者)소설가(小說家))

대한공군(大韓空軍)의 대한(大韓) 어린이



마해송(馬海松)

3년 전이었을까?

웬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면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청년은 압전히 인사를 하며, - 기억이 없으실 것입니다.

4년 전인가 대구(大邱)에 있을 때 공군의 현상 문예에 당선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훈감실에서 영예의 상을 받았는데, 나는 심사원이었고 김기완 정훈감에게서 상을 받은 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좀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였다.

그것이 웬걸 영등포(永登浦)였다. 가고 오는데 두 시간 이상 걸릴 것이요 식이 또 한 시간 이상이라면 거의 하루일이 될 모양이니 선뜻 귀찮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저 어름어름 대답해서 총총히 보내었다.

그런데 곧 편지가 왔다.

깨알같이 쓴 편지는 이런 정성이 어디 있으랴 놀랄 만치 지극 정성을 들인 편지였다.

더욱이 그 글귀에 '고향을 등지고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 외로운 몸이……그래도 하느님의 은혜로 인연을 얻어 결혼식을 올리는 자리에 자주 찾아 뵈옵지는 못했으나 평소에 아버지같이 생각한 선생님이 꼭 참석하셔서. 아버지 대신……이라는 데 이르러서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직 질병으로 있지만 문학을 하려는 희망은 버릴 수 없고, 제대하게 되는 날에는 외로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아예 괴로움은 끼치지 않을 생각이니 식장에 참석만 해주면 좋고, 그날은 오전 10시까지 차를 보내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귀찮다고 생각했던 지난 순간이 괴롭도록 죄스럽게 생각되고, 차를 보낼 것이 무어 있겠느냐 내가 일찌감치 버스를 타고 나서면 될 일인데 하고 생각했었다.

영등포도 한끝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식은 진행되고 있었다.

찬송가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는 곧 나를 안으로 인도했다.

교사의 주례로 교회인과 교회의 어린 남녀들이 식장 안에 꽉 차 있었다.

그러나 한참 둘러보아야 신랑의 가족 같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신부 측의 가족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모두가 교회 속 교우와 선배가 아니면 부대 친구들뿐인 것 같았다.

신부와 나란히 긴장해서 서 있던 신랑은 애가 들어간 것을 눈치 챘는지 힐끗 고개 돌려보는데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한쪽 눈과 눈 아래 공이 경련을 일으키는 듯 하더니 가웃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 이내 몸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반갑다든지 널리 나와 주어서 고맙다든지 하는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은 감사와 더불어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키워 준 아버지는 남북이 가로막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당신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성례를 하는 것이요." 그런 눈치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신랑은 주례자 교사를 똑바로 보면서도 입술을 여태 빨고 있었다. 침이 자꾸 마르는 탓이었으리라.

나는 더 그 자리에서 신랑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눈물방울은 안경알에 옮겨져서 눈앞이 흐려지니 그만 그 자리를 물러나서 그러나 신랑의 눈에 뵈 수 있는 외 다른 곳에서 먼발치로 보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영향이 끝난 다음 신랑은 또 바깥마당에 서 있는 나를 서둘러 찾았다.

식에 모였던 사람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과 아이들까지 마당에 그득히 있고 색깔의 테이프를 치장한 자동차도 몇 대 들어서 있는 마당에서 나를 찾더니 사진을 한 장 찍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례자 목사도 젓혀놓고 자동차 옆에 신랑 신부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해는 높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곳까지 가고 온 시간은 서너 시간이었는지 모르나 하루를 바치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나 후회되는 마음은 없었다. 빠근하고 뿌듯한 감격에 벽차 있었다.

그들의 행복을 비는 마음, 그들의 앞날에 어떻게든 힘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무는 해를 넘겨 보냈던 것이었다.

추석과 크리스마스에는 꼭 편지가 왔다. 깨알같이 정성들여 쓴 글씨였다.

아들을 낳았다고 편지가 왔다. 깨알같이 정성들여 쓴 글씨였다. 백날을 지냈는데 모시지도 못했다고 아기의 사진을 동봉해 왔다. 제대가 되었다고 편지가 왔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곳에서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고 편지가 왔다.

나는 그에게 아무 힘도 되지는 못했다. 편지를 받아야 생각날 만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편지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 있기를 기구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 전생(前生) 차생(此生) 무슨 인연이기에 이렇도록 얽전하고 진실 한길로 살아가는 외로운 젊은이와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었다.

공군이 맺어준 인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공군이 베푼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게 해 준 사실이 떠올랐다. 개인과 개인의 것만이 아닌 공군과 어린이들의 어쩔 수 없는 인연이 두드러지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조르다시피 했었고 치사스럽고 구차스런 정도의 교섭의 결과였지만 해가 갈수록 인연은 깊어가고 그것이 곧 빛나는 역사로 옮겨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1953년 5월 5일 제31회 '어린이날'을 피난 대구에서 맞이하게 되매 서임수 정훈감은 비행기로 피라를 뿌려 주었다. 서울, 대구, 부산으로 뿌린 피라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라는 소파(小波) 방정환의 구호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뿌리

지 말자…….' 라는 나의 구호를 실었고 유래의 정통을 밝힌 '제31회'라는 글자를 잊지 않았다. 일부에서 20 몇 회라는 그릇된 회수를 칭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피라를 주어 읽은 어린이는 오늘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55년에는 이종승 정훈감이 더욱 대담한 기획적인 행사를 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비행기로 피라를 뿌리는데 피라에 '상타기 문제'를 내걸어 알아맞힌 어린이를 비행기에 태워준다는 것이었다.

5월 25일(여의도 당시 본부)는 남녀 어린이들과 부형들로 꽃밭을 이루었고 초등학교 어린이 35명을 3차에 걸쳐 비행기에 태워주었다.

장덕창 소장이 시상하고 김신 준장은 손수 조종하여 어린이들을 태워주었더니, 그 인상 그 감격은 그들의 일생 절대로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초등학교 3년생으로부터 6년생까지 있었으니 이번에 고등학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때 그들의 감격에 넘친 감상문은 <코메트>에도 실렸고 일간신문에도 실렸던 것을 나는 잊을 수 없다.

1957년 '어린이날'은 35회이기도 했지만 <어린이 현장>을 발표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고 모든 행사가 일절 정통적인 '제35회'를 칭하게 된 기념할 만한 해였다.

이종승 정훈감은 이계환 인쇄소장과 협력해서 피라를 제작할 것을 약속해 주었고, 김신 준장, 장성환 준장은 서울, 대구, 부산으로 비행기를 움직일 것을 승낙해 주었다.

5월 5일이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교섭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린이 현장>이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었다. 그런 비화는 다음으로 미루자.

5월 5일부 석간이 비로소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에 <어린이 현장>을 4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5월 5일 일요일 유난히 맑게 갠 푸른 하늘에서 우리 공군 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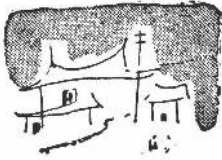
는 방금 발표된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전문을 인쇄한 피라를 서울, 대구, 부산에 뿌렸다.

지방신문은 공군 피라로 비로소 전문을 알게 된 곳도 있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대한 공군은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어엿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요, 그 어린이는 또 쉬지 않고 자라고 있다.

공군이 베푸는 기쁨을 맛보고 감격하고 잊지 못하는 인상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마침내 대한 공군을 보금자리처럼 찾아 들게 되는 인연을 맺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달과 꿈



조기호(曹基鎬)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흔히 부르는 이 단조로운 노래 속에서 그윽한 향수와도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어릴 때 누구에게 배웠는지 분명치 않으면서 그저 쉽게 외워지는 바람에 달을 보면 목청을 돋우면서 뽑아 보았다.

물론 이태백이 무엇인지 알 까닭도 없지만, 그것을 몰라 답답할 것도 없었다. 이태백을 사람으로 짐작이나 했는지, 또는 강아지 송아지 하는 따위의 짐승의 호칭쯤 여겼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달아달아……'하고 '아'를 길게 뽑는 것이 구미에 맞은 상 싫었다. 이렇게 '이태백'에게 무관심했던 나는 웬일인지 토기와 계수나무가 궁금했다. 계수나무를 찍으면 집을 지을 수 있고 토끼는 떡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가 신비로운 꿈만 같았고 좀 더 아쉬운 감정이 치솟으면 제법 골몰하여 달을 우려 보았다. 달을 아무리 꿰뚫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아야 이런 나에게서는 분명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계수나무가 어느 것이고, 또 떡방아 찧는 토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성화를 댔다. 도무지 신기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 위에 더욱 궁금한 것은 떡의 처리방법이었다. 토기가 찧는 떡은 대체 누가 먹는 것일까?

이런 나의 궁금증을 어머니는 어떻

게 풀어 주셨던가? 분명한 기억이 없다. 그저 아무렇게나 '응,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답을 했을 것이 십중팔구다. 그래도 나는 그 노래가 그토록 좋았다. 대여섯 살이 되어서 심겁게 어머니 등에 말을 타고 쳐다보는 달도 좋았고, 동네 계집아이들이 땀기드린 머리를 출렁대며 숨바꼭질하는 밤 그 계집애들의 얼굴이 달인지 하늘에 있는 달이 그들의 얼굴인지 분간 못하는 황홀한 기분 이 또한 이를 데가 없었다.

초승달이나 그믐달은 먹다 놓은 송편 쪽지 같아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가슴에도 어쩐지 허전한 구석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달은 나에게 어떤 막연한 동경이라고 할지 그리움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나이와 함께 차츰 커갔음은 물론이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집집 창문에서 새나오는 불이 달빛보다 붉은 것은 무슨 꿈고 애친 낮이라도 머물러 있는 양하여 좋았고, 그곳에 내 마음대로의 꿈을 담아 보기도 했다.

이러한 감정은 비단 나만이 간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각기 달에 따르는 아름다운 꿈을 가져보기도 하고 달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토막이라도 간직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한 나도 가정을 이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 같다. 도대체 구실 같은 이야기지만 달을 보고 어찌고저찌고 씨부릴 만큼 한가지지 못하다. 한 자아비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위에 또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힘에 겨워 기진맥진할 지경이다. 이쯤 되니 간혹 창문을 스며드는 달빛을 의식할 때가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꿈같이 아름다운 것이 못된다. 잠자기에 더 마음이 썩어서 달을 대하기가 이미 낡아 빠진 책장을 뒤질 때만큼이나 시들할 뿐이다.

그런데 내가 달에 얽히는 낭만에 소연하여진 것보다도 그런 낭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근대 과학인가 한다.

벌써 하늘에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닌 인공위성(人工衛星)이 병글병글 돌기 시작한 지 이미 몇 달이 된다. 소련의 것 스푸트니크와 미국의 것 익스플로러가 각각 우리의 머리 위를 돌고 있다. 본래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나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기만 하다. 아직 지구의 인력설도 그대로 배워 익히기는 했으며, 썰에 물을 붓고 불을 때면 밥이 된다는 것 같이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없도록 우둔한 인간이니 말이다.

본래 인간의 꿈과 욕망에는 한도가 없다. 이 인간의 끝 모르는

욕망이 인공위성이라는 위대한 물건을 만들어낸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본디 인공위성의 꿈은 독일의 독재자인 히틀러에서 비롯했다 한다. 그 당시 일본 신문에도 보도된 일이 있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 같아서 읽는 사람도 하나의 잠꼬대로 치우치고 말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도 우스울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는 인공위성은 끊임없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1년이 걸려야 태양의 돌레를 다 돌 수 있고, 달은 약 29일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한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미국의 익스플로러가 106분 만에,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103.7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돈다고 하지 않는가. 거기에도 또 달나라

에 로켓탄을 발사하느니 머지않아 달나라에 가느니 화성인은 어떻게 생겼고, 화성에서 전파를 보내오느니 하는 것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단계를 훨씬 넘어선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달나라의 계수나무도 토끼의 떡방아도 히틀러가 인공위성 연구를 지령했다는 보도를 읽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만치나 아니 그보다 훨씬 얼마나 어리석은 옛 얘기가 되느냐 말이다. 소설의 대목에 잘 나오는 사람이 다 제 각기 제별을 하나씩 지니고 있다는 말도 말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지나쳐 난센스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물론 반드시 계수나무가 있다고나 토끼가 떡방아를 찧는다거나 해서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쓸스러울 정도의 거짓말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늘을 도는 인공위성에서는 전파를 통해 우주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니 말이다.

과학자의 말대로 일단 궤도에 오른 물체(사람을 실었건 다른 것을 실었건)는 지구의 인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인력이 있되 원심력(遠心力)이 반대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공에 떠 버리고, 뿐만 아니라 시속 16,0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자체는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에 뜬 채로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이것이 다 나에게서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여서 도리어 이태백이가 놀던 달의 서정이 그리워진다. 사람의 꿈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꿈이 하나하나 스러지고 나중에는 잃었던 꿈을 도로 찾고 싶어질 때가 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과학시대에서 낙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봄 안개를 머금은 것 같은 초승달을 쳐다보며 지난날에 흠뻑 젖어 보았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도 아이들의 성화에 오래가지 못했다. 라디오를 본 따서 노래자랑을 하자고 줄라대는 바람에 나도 놀랄 만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힘껏 불러본다. 계집애의 까르르 웃는 얼굴과 함께 어머니의 따뜻했던 등의 감촉이 홀연히 느껴진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주의 신비를 풀고 '우주여행'을 위한 과학자들의 설계에도 동서각축(東西角逡)의 냉전 속에서 더욱 명백한 선을 그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인류 최대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나라 탐험이 이룩되는 날 달은 계수나무와 토끼 대신 우리에게 어떤 신비를 안겨 줄 것인가……?

(필자(筆者), 합동통신(合同通信) 편집부장(編輯部長))

달의 원자력(原子力) 이용방식(利用方式)을 발명(發明)

전세계(全世界)를 정찰가능(偵察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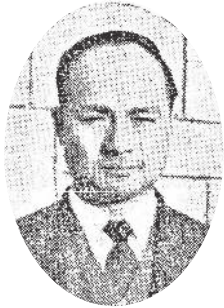
미 해군에서는 두 가지의 새롭고도 놀라운 과학의 발전 사실로 말미암아 미국은 불원한 장래에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용 위성으로 달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해군의 연구발전책임자인 존 T. 헤이워드 소장은 하원의 한 위원회에서 이 새로운 '원자이용방식'의 발견 사실을 시인했으나, 그 이용방식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혁신(革新)될 지하철도(地下鐵道) 기관사(機關士) 없이 운행(運行)

매일 200만 명에 달하는 방대(龐大)한 승객들을 위해, 매력 있는 지하철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파리의 메트로 지하철도회사에서는 그들 승객들에게 우주 시대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조만간에 '기관사가 없는' 독특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지하철도 열차를 운행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재질(才質)

이건호(李建鎬)



보통을 말하기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한다. 평등하다고 하는 말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체로 말한다면 사람에는 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뜻인 듯하다. 과연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일까, 나는 항상 이 문제에 의심을 품고 있다. 만민평등이라고 하는 표어는 대단히 듣기 좋은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현대의 정치방식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 것이 제 1차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을 요망한다. 그리하여 국민 중의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부터도 지지를 받기 위해 그들은 사언이 아닌 듣기 좋은 말을 크게 떠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만민은 원래 평등한 것이며 평등하기 때문에 그 처우에 서도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민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법적(政法的)인 표어이지 과학적, 현실적인 표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표어에 정면으로 반대성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만민이 평등하게 처우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는 적어도 이념상 정당할 것이며, 둘째로 누구나 국민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논함으로써 많은 적의에 당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는 본격적으로 철학자라야 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민주정치라는 것은 환민정치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따위 소리를 입에 담는다면 당장에 '시대착오'라는 낙인이 찍힐 것은 틀림없다.

사람에는 그 본래의 재질이 천차만별한 것 같다. 어리석은 자는 거의 동물에 가

깝고 현명한 자는 거의 신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인류사회를 내다보면 그림과 같이 이것을 알 수 있다. 기묘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인류의 역사는 현명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쟁의 발자취처럼 생각된다. '지구엔 돈다.'고 절규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이것을 망언이라고 처형한 인간들이 어찌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군사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이것을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결국은 쉽게 개정되고 말았다. 아직도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운동도 있다.

대학의 강의 내용도 말이 아니 될 정도로 저급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다.

중학교 2, 3학년의 아동이 대학입학시험문제를 서슴지 않고 풀어내는 예가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가 청년이 대학입시에 평균 10점, 20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감고 우리는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종교를 신앙해야 할 것인가? 혹은 불평등을 자인하고 차별처우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깡통 대가리만을 표준으로 삼는 한 국가의 장래에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각 급 학교의 입학시험이 너무 어려우니 연합출제를 해야 한다. 혹은 무시험 전형을 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이미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소로운 일은 없다.

공부를 하지 않은 자도 상급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반역적인 책동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은 것이다. 입시문제 의 수준을 점점 올려서 결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응시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의 질을 무시하는 데서 형식주의가 활개를 치게 된다. 다 같이 대학출신, 고등학교 출신, 중학교 출신이라고 해도 그 질은 교사와 학생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니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체하는 일이 많다. 대학을 나온, 학사라고 하는 자 중에는 ABCD로부터 Z까지를 제대로 못 쓰는 자조차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이것은 모 신문사의 견습 기자시험을 담당할 일이 있

는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굉장한 실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학출신, 고등학교 출신, 중학 출신 등의 간판만이 상대되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사회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지금 각 급 학교들은 거액의 대가를 받고 간판판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극언한다면 누구나 필자를 나무라겠지만, 이것이 결코 사실무근은 아닐 것이다.

사람에 재질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 심리학상의 소위 지능검사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가를 비약 발전시키는 방도는 좋은 재질을 가진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의 면에서는 소위 수재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우리의 손으로 원자탄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날릴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재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둔재들 속에 가두어 놓고 이 둔재들을 표준으로 한 우열 유치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희극이며 또한 비극이다. 누구나 교원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학생 중에는 반드시 빛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빛나는 학생들을 끝까지 빛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특히 이 문제는 자연과학, 예술방면 등에 있어 그러하다.

정치가들의 평등론은 듣기 좋게만 들을 수 없다. 그 평등론은 수많은 좋은 재질을 가진 우리 차세대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물리학의 제1인자라고 하는 테일러 교수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는 식의 교육' 만을 가지고는 '기술과 과학의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교육과 아울러 소수의 좋은 재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종래의 염원이다.

(필자(筆者) 고대교수(高大教授))

<반공투쟁실화(反共鬪爭實話)>

나는 헝가리(洪牙利) 의거(義舉) 학생대장(學生隊長) 이었다

미국(美國)으로 망명(亡命)하여 비로소 공개(公開)하는 생생(生生)한 수기(手記)

마트야스 코탈리
박운암(朴雲巖) 역(譯)

그 몸집이 큰 금발(金髮)의 소련 여군병정은 대담(大膽)했다. 그는 부다페스트 페타그 판유 가(街)에 있는 빈 창고의 서까래의 머리위로 손을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하나하나 노려보며 이렇게 비웃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부대장이 있는 곳을 일러줄 줄 아니? 너희들이 하는 꼴이 재미있다.”

“오냐 네년을 좀 더 재미있게 해줄 테니 염려마라” 하고 전에는 암전하고 말도 조용 조용히 하던 23세의 공과대학생 산도르 군은 말 했다.

산도르는 담배에 불을 붙여 가지고 여자에게로 가서 여자의 블라우스를 잡아 젖히고 유방에 담뱃불을 대었다. 여자는 비명을 울리고 욕을 퍼부으면서 몸부림을 쳤다. 나는 산도르 군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11월 6일 모리스 지그몬드 광장에서 소련여군은 무장도 하지 않은 두 시민을 학살했는데 그게 바로 산도르 군의 부모였다. 우리가 포로로 삼은 그 소련 여군병정은 장난삼아 웃으면서 학살을 감행한 그 잔인무도한 소련여군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자백했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그러한 고문을 받아야만 했고, 그의 부대장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만 하면 그 부대장에게도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우리는 맹세했다. 이들 소련 여군들에게는 티끌만치도 자비심(慈悲心)을 베풀 여지가 없었다. 11월 3일까지에 우리 헝가리 인민은 헝가리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3개 사단을 쳐부수었는데, 그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투입된 소련군 16개 사단 가운데 이 소련 여군이 가장 혹독한 만행을 자행했다.

“자, 어서 대라, 누가 그 학살을 명령했지? 네 부대장, 그 녀은 어디 있지?”

산도르 군은 담배로 고문을 끝마치고 소리쳤다.

몸집이 큰 그 금발의 소련 여군 병정은 산도르 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격

분한 산도르 군은 여자의 뺨을 후려갈기고 얼굴의 침을 씻으면서 우리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노기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어디 저년이 말하지 않고 배기는지 봐야지, 좀 더 극적인 고문을 해야겠지.”

그는 우리가 ‘몰로토프 칩테일’이라고 부르는 가솔린이 든 보드카 병을 하나 집어 들고 그 소련여자에게도 가서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가솔린이 윈 몸에 흘러내리자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외쳤다.

“제발 불을 붙이지는 말아줘요.”

나는 소련 여자에게로 가서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고 말했다. “너는 여기 이 사람의 부모를 죽였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너를 불태워 죽일 용기가 없다면 내가 대신 해 줄테다.”

“당신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려준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어요? 나를 놓아 주겠어요?”

“물론이지.” 하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정말 원수는 너보다도 네 부대장이니까.”

그는 잠시 나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는 나의 말이 거짓인 것을 눈치 챘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니, 난 말하지 않겠다. 너희를 헝가리 개새끼들은 이 모욕에 대해서 복수를 받고야 말 것이다. 이자(利子)까지 붙여서.”

올화가 치밀은 나는 부하들(겨우 14명에 불과했지만)에게 눈짓을 했다. 우리는 그 큰 창고에 붙은 조그마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맥없이 말했다. “그 계집은 배짱이 대단한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자 산도르 군은 슬픈 듯이 말했다. “그 계집들이 내 부모를 죽였을망정 난 도저히 저년을 불태워 죽일 수는 없어.”

이렇게 그가 증얼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창고로 다시 나갔다. 나는 의거민(義學民)의 한 지도자로서 비록 때로는 나의 책임을 다한다는 나의 부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소련 여자에게 말했다. “이건 네가 불에 타죽는 것을 면하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어서 네 부대장이 누구이고 어디 있는지 말해라.” 나는 성냥을 켜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끼었다. 여자는 어른거리는 불꽃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의 어조에서 내가 정말 가솔린에 젖은 그의 몸에 그 성냥을 내던지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키에스라 노비칸야 대령이에요. 대학의 큰 백색 건물 안에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성냥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으면서 혁대에서 권총을 빼었다. 여자는 잠시 권총을 응시하면서 공포에 떨어 아무 말도 못하



<헝가리 의거에서 갓은 만행을 다한 소련 여군>

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그 이상 더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렇게 울부짖었다.

“나는 능욕해도 좋아요! 제발 무엇이든지 다 바칠 테니 쓰지만 말아줘요! 당신네들에게 가담이라도 하겠어요! 내가 노비칸야를 죽이겠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줘요!” 나는 잠시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보고 권총으로 그의 눈과 눈 사이를 쏘았다. 그를 죽인다는 것은 유쾌한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를 놓아줄 수는 없었다. 그다음 우리는 사무실의 벤치 위에 앉아 마치 파티나 계획할 때처럼 태연하게 그 소련여군부대장 노비칸야 대령을 잡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우리는 그 잔인무도한 암캐를 없애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소련 여군 부대장을 잡아 죽였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는 24세의 전 부다페스트 대학 학생의 몸으로서 어떻게 헝가리 의거민의 한 지도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에 와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용하게도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주해온 나의 숙부집에 살고 있다. 나의 짧고도 피비린내 나는 혁명가로서의 경력은 10월 23일 화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날 우리 대학생들은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공산 헝가리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한 것 이였기 때문에 후에 공산당자들은 당황했다. 수천 명의 시민들도 우리의 대오(隊伍)에 참가해 우리는 ‘소련인은 물러가라!’ 외치면서 부다페스트 시의 변화한 거리를 행진했다. 이것은 우리 옆을 걸어가고 있던 소련비밀경찰의 비위를 거슬렀다. 그들은 소련 정부의 지령을 받고 표면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80퍼센트가 인민의 아들딸,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딸이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공업생산품을 착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민과 노동자를 사실상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실을 간과(看過)하도록 우리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소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얼마나 알곡은 운명이었던가! 그러나 비록 소련이 노(怒)했을지라도 어리석은 소련관리들이 비밀경찰에게 발표하라는 명령만 내리지 않았던들 이 시위운동은 공산기관지 ‘자바드 쉘’지(紙)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부다페스트의 코수트 방송국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비밀경찰들은 우리를 향하여 발포하고 약 150명의 학생과 시민을 살상했다. 기어코 놈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았다! 이 무차별 대량학살의 소식은 순식간에 온 시가지에 퍼져 몇 시간 안으로 외거의 불길은 폭발할 기세를 보였다.

그 날 저녁 5개의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의 집단들이 크게 분개하여 복수할 방안을 찾아서 부다페스트 거리를 헤매었다. 우리는 조직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다 할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저 소련군을 찾아 해매고 있었다.

몇이 안 되는 우리 그룹은 페스트 구(區)에서 두 소련군 병사를 보았다. 그들은 사이드카아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다. 나의 동료인 기오르기 라지크 군은 돌을 집어 그들을 갈겼다. 돌은 운전수의 넓적한 얼굴에 제대로 들어맞아 흐르는 피에 앞이 보이지 않아 운전수는 오토바이를 건물에 꼬라박고 말았다. 우리는 모여든 군중과 함께 그 두 소련군 병사에게로 달려갔다. 누가 그들은 죽였는지는 몰라도 얼마 후에 그들은 자갈 위에 짓밟혀 뒹어있었다. 기오르기와 나와 그리고 다른 세 학생은 그 소련군의 무기를 빼앗아 오토바이에 실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소련군을 찾아 페스트 구로 달렸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우리는 소련경찰의 차가 우리 옆에 다가온 것을 보았는데, 그때 우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벨라 주지 군이 별안간 멈추었다. 그 두 소련경찰은 붉은 별(星)이 붙어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심문하는 것이었다. 노어(露語)를 유창하게 막하는 벨라 군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 나머지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했다. 그 때 기오르기와 나는 조금 전에 빼앗은 권총으로 그 소련 경찰을 사살했다. 우리는 다시 무기를 빼앗은 후 시체를 길가에 내려놓고 우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가스탱크 마개를 열어 그 안에 성냥을 그어 놓고는 그곳을 달아났다.

우리는 차를 달리는 동안 그 날 오후 소련군의 대량학살에 분개하여 복수에 혈안(血眼)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우리처럼 뛰어 돌아다니고 어떤 시민들은 소련군, 헝가리 경찰, 소련 헌병들을 때려눕히고 있었다. 의거는 바야흐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 때 기오르기 군이 묘안을 생각해 냈다. “창고에 불을 지르자.” 하고 그가 말했다. “부다 구와 페스트 구의 경계가 되고 있는 다뉴브 강 옆에 있는 창고로 가자. 소련놈들이 가져갈 물건이 들어 있는 창고를 찾아. 놈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 들어있는” 그리하여 우리는 그 소련 경찰의 자동차를 몰고 강변으로 달려갔다. 페스트 구의 복잡한 네거리에 서 있던 한 소련 헌병이 호각을 불며 우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했다. 어째서

우리 청년 다섯이 소련 경찰차를 몰고 있는냐고 물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기오르기 군은 자동차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헌병을 향해서 돌진했다. 그 몸집이 큰 소련 헌병은 기겁을 하여 셋길로 몸을 피했다. 기오르기는 전 속력을 내어 그를 따라가 차로 받아 버렸다. 소련 헌병의 몸은 셋길로 날아가 건물의 벽에 부딪혔다. 우리는 차를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뺏어버린 그 소련 헌병에게 시민들이 달라붙어 서로 총과 탄약을 빼앗으려고 야단들이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벽돌로 지은 큰 창고 문 앞에 차를 멈추었다. 그 앞에는 바보 같은 두 소련군이 지키고 서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소?” 하고 벨라 군이 뒷좌석 창문으로 내어다 보며 물었다.

“자동차 타이어야.”

벨라는 머리 문 차안에 들여놓으며 말했다. “됐어, 타이어는 잘 타거든, 그건 소련놈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야, 우리는 불구경도 할 겸 소련놈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단 말야.” 보초들이 우리를 수상하게 여겼을 때 벨라 군이 미소를 띠면서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은 자동차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벨라 군과 플라로라는 또 하나의 청년이 창밖으로 권총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서 발사했다. 그 창고의 불은 불만했다. 검은 연기와 짙은 오렌지 빛 불꽃이 몽게몽게 올라왔다. 소방차가 일곱 대나 달려왔으나 그들도 별 도리가 없어 옆에 붙은 건물에 물을 뿌릴 따름이었다. 이 수천 개의 타이어가 타고 있을 무렵 다뉴브 강의 페스트 구에서는 또 세 군데에서 큰 불이 일어나고 있었고 부다 구 쪽에서도 너댓 군데에서 큰불이 일어나고 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몇몇 청년들의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소련 당국자들은 부다페스트 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들은 군대를 출동시켜 6인조로 거리를 순찰케 하고 모든 헝가리인에게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빼앗은 경찰차의 전파 라디오로 들었다. 그 때 우리는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소련군의 타이어 창고가 불타는 것을 통쾌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밤중까지도 불은 맹렬하게 타고 있었으나 우리는 그 이상 그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미 거리에는 무장한 소련 순찰병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다 구를 걸어서 가기로 작정했다. 물론 우리는 그 좋은 자동차를 다시 적의 쓰도록 내버려 둘 생각은 없었다. 그리하여 기오르기 군이 가스탱크에 권총으로 구멍을 뚫고 졸탄 군이 차 밑에 흘러나온 가솔린에 성냥을 그어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우리는 딴 곳으로 가서 자동차를 파괴할 것을 잘못 다. 창고가 타는 것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던 두 소련군이 기오르기의 총소리를 듣고 졸탄 군이 성냥을 내던지는 찰나에 우리를 목격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파괴하고 있

는 자동차가 붉은 별이 붙은 소련 경찰차라는 것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우리를 향해서 다발총을 발사하여 기요르기 군과 졸탄군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머지 우리는 낮은 콘크리트 제방 뒤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 별안간 두 발의 총성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제방위로 머리를 내밀고 넘겨다보았다. 그 소련군 들이 거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노동자의 옷차림을 한 거대한 헝가리 사람 하나가 손에 권총을 들고 그 소련군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부상한 소련군의 머리에 한방씩 권총을 쏘 다음 다발총을 빼앗아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혈떡거리며 말했다. “난 자네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았네, 만약에 자네들이 집단을 조직한다면 나도 그에 한몫 끼고 싶은데.”

이 사나이는 페스트 구 강변에 사는 뱃집 신는 인부 칼 흐르마크 라는 사람이었다. 몸집이 큰 칼은 그다지 총명하지는 못했으나 소련인을 경멸하고 있는 대담한 사람이었다. 다섯 명 가운데 살아남은 우리 세 사람과 같은 날이 밝기 조금 전에 부다 구에 도달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소련 순찰병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골목길에 숨기를 수십 번 거듭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페로 피 다리(橋)에 도달하여 무사히 다리를 건너 부다 구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학교는 휴교였다. 의거는 부다페스트 전시에 파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의거는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장한 시민들이 떼를 지어 혹은 단신으로 부다페스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같은 동포를 죽이라는 소련상전들의 명령을 거부한 헝가리 군인들로 떼를 지어 소련군을 보는 대로 죽이고 있었다.

그날 10월 214일, 수요일, 루니 26 명의 학생은 칼 흐르마크 와 함께 정식으로 의거부대를 조직했고 나는 그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우리는 페라그 판유 가에 있는 빈 아파트 2층을 본거지로 하여 적에 대해 성공적인 전투를 개시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그날 그날이 큰 모험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6명에게는 음식을, 다른 6명에게는 탄약을 구해오도록 명령했는데 탄약은 주로 소련군 시체에서 입수했다. 그리



<의거민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소련군과 싸웠다>

고 나머지 우리는 적을 찾아 해매었다. 물론 의거부대는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외에도 의거부대는 수없이 많았으며, 공산 헝가리 군을 탈주해 나온 잘 무장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많았다. 따라서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불과 11월 3일까지의 10일 내에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 3개 사단을 쳐부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하여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11월 4일, 일요일에 소련은 5,600대의 탱크와 함께 19개 사단(20만 명)을 헝가리에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던 우리 인민의 피는 이제 분류(奔流)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살인마였다. 놈들의 탱크는 외과대학병원을 포격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127명의 환자와 6명의 의사, 38명의 간호원을 무참히도 살해했다. 놈들은 민가를 포격하여 부녀자와 어린애들까지도 사정없이 죽였으며 시장에 서있는 군중에게도 수류탄을 던지고 11월 11일, 일요일에 아트네멘토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다. 그러나 모든 이와 같은 학살은 우리 국민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우리의 원수와 싸워서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우리의 각오를 한층 더 굳게 했다.

이와 같은 소련군의 잔인한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소련군 보병들을 저격(狙擊)하는 한편 우리는 ‘몰로토프 카테일’의 유용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물론 신무기는 아니었으나 제2차 대전 당시에 아직 어렵던 우리에게는 꽤 영리한 묘안으로 생각되었다. 현 빈병에 가솔린을 넣고 마개 밑에 형겅으로 큰 심지를 만들어 넣어 탱크를 향하여 내던지기 전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병이 탱크에 맞으면 불붙은 가솔린을 토한다. 그러면 탱크의 뚜껑이 열리고 무장한 소련 탱크 병이 기겁을 하여 뛰어나오려고 한다. 얼굴을 밖으로 내밀 때 저격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여 많은 소련 탱크 병을 사살했다.

몸집이 큰 칼은 누구보다도 담대했다. 11월 12일 화요일에 그는 우리가 탑승원을 사살한 탱크에 기어 올라갔다. 그는 소련군의 시체를 들어 땅위에 던지고 탱크의 엔진을 걸었다. 우리의 동료인 임테 자바누 군과 나는 그 탱크에 올라타고 칼이 탱크를 운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리를 달렸다. 그때 우리 앞에 또 하나의 소련군 탱크가 달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옆에 다다랐을때 우리는 그 탱크를 공격했다. 적의 탱크는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그 30분 후에 우리는 행진하는 소련군을 발견하고 이에 기관총과 포를 퍼부었다. 우리는 수많은 적병이 피투성이가 되어 거리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렸다.

그러나 소련 탱크를 몰고 달린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다. 우리 편이 던지는 물로토프 카테일에 얻어맞아 타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탱크를 소련군이 운전하는 탱크로 알고 있던 소련군 자동차를 공격한 후 탱크를 버리고 불살라 버렸다.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소련 여군이 몹시러치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소련군은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몸집이 크고 사나운 여군 1개 중대를 전투를 위해 헝가리에 투입했다. 그리하여 우리 의거부대는 그 여군을 주요 목표로 삼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이 여군 병정들의 뒤를 밟아 때로는 지붕위에서 때로는 파괴된 탱크 뒤에 숨어서 이들을 저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11월 19일 월요일에 우리는 이들 새디스트 10명이 부다페스트 교외의 사치스러운 주택가 루자사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 9명은 성 요셉 가에서 빼앗은 자동차를 몰고 루자사들로 달려갔다. 그곳은 나무가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길가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몸집이 크고 얼굴이 사내처럼 생기고 입이 큰 상사(上士)의 인솔 하에 그 여군순찰대가 지나갈 때 우리는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우리는 일부러 한 명만을 남기고 9명을 사살했다. 그때 같은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공포에 떨고 있는 남은 한 명에 덤벼들었다. 그는 소련 여군의 팔을 뒤로 비틀어 묶어 우리 차에 던져 신고 페타그판유가의 본거지로 우리는 차를 몰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소련 여군을 우리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빈 창고로 끌고 갔다. 그 후 우리가 그를 어떻게 자백시키고 처형했는가는 이미 앞에서 말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 10명은 노동자의 차림을 하고 벨라 군은 소련군 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부다페스트의 암캐 키에스타 노비칸야 대령이 있는 그 대학으로 향했다. 우리는 소련군에게 징발된 노동자 행세를 하고 한편 노어를 잘하는 벨라 군은 칼을 쫓은 총을 메고 마치 전형적인 소련군 하사관 모양으로 큰 소리로 우리를 호령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탱크의 포격으로 허물어진 건물의 부스러기를 정갈로 치우고 장난꾸러기 벨라 군은 때때로 심긋이 웃으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호령을 했다. 그 날 우리는 거만해 보이는 노비칸야가 틀림없는 소련군 여자 장교가 두 번이나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주위에는 살인을 다반지사(茶飯之事)로 아는 여군 병정들이 수없이 경비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그곳에서 노비칸야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연 이틀 동안 우리는 가면극을 계속하는 가운데 언제나 대략 일정한 시각에 노비칸야가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소련본부에 보고를 하러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잠복하여 기다리기로 했다.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었다. 얼굴이

등근 우둔한 소련군 병사처럼 보이는 같은 전날 밤에 군복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살해한 소련군 헌병의 옷을 입고 거리 한가운데에 서서 노비칸야의 차를 정지시켰다. 그곳은 나무가 늘어서 있는 한적한 프리베트스키 로(路)였다.

잠복하고 있던 우리 5명은 운전수와 그 옆에 앉아있는 두 호위병에 대해 사격을 개시했다. 우리는 한적한 거리에서 암살하는 이상으로 극적인 복수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고급장교의 관례에 따라 뒷좌석에 홀로 앉아있는 노비칸야를 죽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운전수와 무장 호위병이 쓰러지자 우리는 차를 향해서 달려갔다. 칼이 먼저 달려가 그를 차에서 끄집어내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몸부림쳤다. 그리고 칼에 마구 덤벼들었다. 그러나 같은 노비칸야의 목을 졸라매고 기절한 몸을 어깨에 메고는 일행과 함께 우리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 11월 29일, 목요일 우리는 소련 여군부대장 노비칸야를 산도르 페퇴피²⁰⁾의 석상(石像)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산도르 페퇴피는 1848년의 헝가리 혁명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살해당한 시인(詩人)인 헝가리의 애국투사이다. 같은 주춧대에 올라가 그 거대한 석상의 두 다리에 급히 노비칸야를 묶어 놓았다.

이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다. 부다페스트의 이 변화가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시민이 몰려와 환호의 소리를 던지고 노비칸야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으나 우리가 일을 끝마치기 전에 소련군 순찰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므로 키알은 곧 밑으로 뛰어 내려왔다. 나는 소련 다발총을 들어 그 부다페스트의 암캐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 요란한 총성과 함께 불꽃이 뛰어 나갔다. 나는 이를 막물고 다발총의 총알이 모조리 없어질 때까지 사격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끝>

헝가리의 국민가(國民歌)

산도르 페퇴피 작(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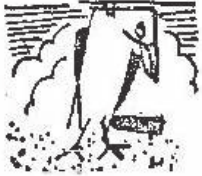
사랑이여, 자유(自由)여,
지상(地上)에서 가장 귀(貴)한 것이여,
내 사랑을 위해
생명(生命)의 불꽃을 바치고,
내 자유(自由)를 위해
그 사랑을 또한 바치노라.

(작자(作者)는 100년 전 조국독립전쟁에 순직(殉職)한 애국(愛國) 서정시인(抒情詩人)

20) Sándor Petöfi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위하여

홍종인(洪鐘仁)



1.

군대란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양(量)보다 질(質)이 높은 정병주의(精兵主義)란 것을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군대를 양성하여 편성한 것이 못되고, 약간의 기초위에 6.25

전쟁을 막 부닥치면서 소질보다도 수량의 필요에 의해 급작하게 팽창케 된 군대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3년간의 대전쟁을 치르고, 또 그 휴전 협정 이후 상당한 정비와 보강과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때문에 전에 비할 바 아닌 비약적인 대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대이다.

그러나 시초의 출발이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하게 팽창되는 바람에 전통(傳統)이라고 할 수 없는 고쳐야만 할 인습(因襲)이 벌써 많이 생겼으리라고 본다.

혹은 교육과 훈련 내지는 규기에 속할 문제도 많을 것이다. 이 역시 양보다 질의 문제에 속하는 토론거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한된 자연적 조건이 있는 것이고, 지리적 전략적 지위로 따져 보아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란 것은 어느 정도 이상 더 확장시킬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즉 평상시나 전시를 갈라서 말할 수도 있고, 또 현유(現有)의 병력(兵力)과 잠재(潛在)된 병력이란 것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설의 기계화가 사람의 수효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면하여 미국의 군사원조가 새로운 과학병기나 시설의 능률적인 것을 도입함으로써 병력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일이고, 또 국가정책상 중요문제이므로 아무래도 우리가 참견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과학기술, 또 인구 등을 참작하여, 언제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유능하고 효과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병(精兵)주의의 채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병주의를 말하자면 먼저 군인이 되는 사람들의 소질과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이다. 다수의 군인을 두고서 각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또는 군대 등의 큰 집단의 전반적인 소질과 능력은 역시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소질과 능력의 평균(平均)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로 측정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 서나 마찬가지로 통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교육, 어떤 훈련이겠느냐? 할 때 군대에서는 군대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을 것이므로 그 전문적인 방면에 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은 관여할 바 못된다. 그러나 우리를 일반시민과 공동되는 바이면서 군대에 더 요구될 교육, 즉 정신면의 교육에 대해서만은 우리 시민도 국민적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 그 몇 가지 점을 말한다면

첫째, 군대는 용감스러워야 한다. 용감한 군인, 혹은 강한 군대를 흔히 말하는데, 용감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길은 우수한 병기로써 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신무장이 절대 긴요하다.

다시 말하면 생사(生死)를 초월하여 작전 목표를 투철히 하고 전투의 사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휘관의 명령이 엄중하다는 것만으로써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군인된 사람들 각 개인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적극 완수하는 왕성한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는 물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전반의 정신 교육에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군대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조국 정신에 통하는 도덕심(道德心)도 건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국민정신의 정예(精銳)요 중심이 될 군대의 정신면은 국민의 어느 층보다도 진실과 정의(正義)에 투철하고 양심(良心)에서 우리나라는 겸손(謙遜)을 마음의 무장으로 함으로써 가장 높은 사기(士氣)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실한 용기는 오직 양심에서 나오고, 맑은 양심에서 우리나라는 행동이야말로 진실한 자유(自由)이며, 자유를 스스로 행하는 그 전진임에 생사의 두려움이 나 주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굳은 신념(信念)을 지닌 의지(意志)의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보건의대 우리에게 가장 모자라는 것은 공동체(共同體)에 대한 협력의 정신이다.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만을 두고 할 말이 아니라, 소위 후진국이라는 모든 민족의 결함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앞서고 가장 발전하고 있다는 나라의 국민생활은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정신이 왕성하다.

유럽의 사상은 개인주의 사상이 그 토대가 되어 있는데, 개인주의 사상이란 개인 각자의 이익을 위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란 말을 제 이익을 위해 이웃의 손해도 방관하는 이기(利己)주의와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그 근본부터 잘못 알고 있다.

유럽파의 개인주의 사상은 독립된 개인, 개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생활체인 한 사회, 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표리(表裏) 관계로 되어 있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서 그 국민의 국가생활에 대한 더 크고 높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 사회의 더 큰 번영을 가져오는 데서 각 개인이 더 많은 복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선진국에 비해 가장 뒤떨어진 점은 일반 국민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협동 정신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어떤 개인에 의해 간단히 배울 수도 있고 또 훌륭한 능률을 가진 새 기계도 간단히 수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자리를 바로 가지게 하여 이웃을 돕고 이웃과 협력하여 한 사회 한 국가를 번영케 하는 것이 곧 각 개인의 복리를 위하는 것임을 몸소 깨닫고 생활에 반영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사상이 국민적으로 한 신념이 되게 하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여 외치는 자유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가 되고 만 것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원래가 한 조직 원리를 가진 집단이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동생활체 이상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공동체의 고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그 조직과 운영 즉 지휘의 능력에도 크게 관계가 있다. 하지만 널리 요구되는 것은 군인들 각자가 보다 더 높은 견지에서 자발적이며 희생적인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는 동시에 우리 금후의 정병주의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도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의 하나가 또한 이점이 아닐까 싶다.

2백년(二百年) 동안을 선회(旋回)

벵가드 위성(衛星)의 우수성(優秀性)

지난 3월 17일 발사된 미 해군의 벵가드 인공위성은 적어도 2백년간 지구를 선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성의 속도는 그 궤도선의 변화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로 보아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의 거리는 451마일이고, 가장 멀어질 때의 거리는 2463마일 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인력은 약간이나마 이 위성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벵가드 위성은 결국 지구상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200년 동안은 선회를 멈추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론상(理論上)으로는 영구(永久)히 발전(發電)

벵가드 위성(衛星)의 배터리

미국 위성 벵가드에는 소형의 송신기를 작동하기 위해 태양력 배터리가 장치되어 있다. 그런데 동 배터리를 제작한 호프만 전력회사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영구히 전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송신기 역시 마멸되지 않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장치는 무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향토민요(鄉土民謠)의 해설(解說)

성경린(成慶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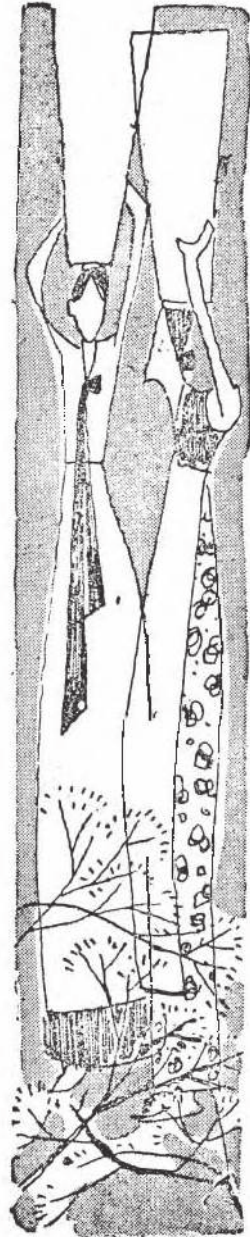
모양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진한 정감이 별건히 부푸는 노래, 이것을 민요라고 이른다.

의관을 갖추어 의젓피우는 호강스런 가곡이 아니요, 다듬은 명주(明紬)처럼 윤기가 흐르는 가사가 아니요 한결 부드럽롭되, 그대로 테두리처럼 구속이 있는 시조는 모두 잘 비려는 분 냄새가 바늘 간 자욱이 있다. 그러나 막된 사람의 육담 같은 민요는 수수하니 민얼굴이요 물소리 같은 단순한 꺾음이 꾸부리고 가리는 것 모르는 천연스런 소릿조이다.

부질없이 이 생각을 저 말로 지껄이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험하게 험뜨리는 꾸밈이 없다.

먼저 이 말을 놓고 나중 저 말을 놓는다는 차례도 없고 기쁘면 기쁘대로 산새처럼 즐겁고, 설으면 설은대로 두견이 울음처럼 목이 메고, 그러면서 이 노래처럼 이르고자 하는 뜻이 듣는 이를 파고들어 울리는 소리를 못 본다. 그것은 담 높은 대궐의 풍류가 아니요, 끼리끼리만 좋아했던 배부른 계급의 소리가 아니요, 정말 천사람 만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바로 백성, 그네의 기쁨이요 노여움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퍼뜩대는 생각이거나 재주스런 목의 농간이 아니요, 공동의 정이요, 함께 지르는 그 여센 부르짖음이 귀한 것이다.

그러기에 성음(聲音)으로 하여금 넉넉히 다스림을 해야 한다 함은 이 백성의 소리로서 미를 것이다. 노래(詩)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게 뜻이라면 이게 말이 되어 밖에 흐르는 게 노래겠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저절로 말이 된다. 그러나 말뿐으로는 부족해서 이어 이를 탄식한다. 느껴워 탄식해도 시원치 않아 다시 길게 소리 질러 노래한다. 노래로도 오히려 안타까워 드디어 손을 벌리고 발



을 굴러 모르는 곁에 춤을 춘다. 이렇게 마음속의 정이 소리되고, 그 소리가 고하청탁(高下淸濁) 놓일 데 놓여 곡조를 이루는 것, 이것을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러기에 잘 다스려진 나라의 풍류가 평안하고 즐거운 것은 그 다스림이 화순(和順)한 까닭이요, 어지러운 세상의 음악이 원망과 노여움에 사무침은 그 정사가 도에 어긋난 까닭이다. 망국의 음조 슬프고 애처로움은 그 백성이 괴로워 몸부림치고 선정을 그리움에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다스림의 득실을 바르게 하여 사람은 새로에 천지귀신을 감동케 하는 데에 이 노래에 오를 게 없다.

공자께서 삼백(三百)의 노래 깨끗하니 그지없이 착해 무사(無邪)함을 어어써 여기신 「시경(詩經)」의 머리말을 그대로 우리의 민요 허두에 놓아도 맞춘 듯 어울린다.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생활의 기록이요 설은 소리는 괴로웠던 아픔이라, 모두 말미암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민이 어떻게 살았나도 민요를 통해 헤아릴 수가 있다. 저들이 무엇을 노여워하고, 무엇을 바랬던가도 민요는 말하고 있다.

민요는 땅에 사는 백성의 부르짖음이면서도 또 하늘의 소리라고 한다.

괴롭고 즐거운 삶을, 혹은 역세게 혹은 나직이 외로운 허다한 노래를 앞에 하고, 좋은 노래를 가졌단 자랑보다 비판의 정서를 한 가닥 노래로 풀었던 너그러운 선인의 심사에 경건(敬虔)히 두 손을 모은다. 민요가 어느 때 시원했는가의 천착(穿鑿)은 우습다. 인류의 응애 소리에도 견줄 민요는 온 문화의 연원(淵源)이 되는 것으로서 그레 아무것도 있기 이전에 나타난 태초의 예술인 것이 또 자랑이다.

민족이 있고 언어만 있으면 민요는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여기 4000년을 잡는 대도 민요의 나이는 훨씬 오래된 단군왕검 저 너머에 아득히 줄대어 있다.

민요가 지나는 미덕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소박한 정과 꾸미지 않은 천연한 태(態)는 이 민요의 태반에 얽혀진 아름다운 버릇인지도 모른다. 재주를 모르고 착한 마음을 뒤집듯 해서 서로 보이는 어짐이야 실로 태고의 습속인 게 분명하다.

한 겨레의 민요는 어느 무엇보다도 그 민족의 성품(性稟)을 말하는 좋은 거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이 민요라고 모두 슷스럽고 모두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겨레의 민족성(民族性)을 떠나서 설명되지 않는다.

희면 흰 대로 검은 대로 그렇게 속일 수 없이 저절로 내배는 정직한 소리가 곧 민요이다. 왕실이나 귀족계급을 거치지 않은 생생한 우리의 민요는 과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남 유달리 음악에 뛰어나 가무를 즐겼던 이 겨레는 상고시대에도 형그러운 노래에

21) 원문의 民族性은 民族性의 오기임.

배불렀을 것이다. 입에서 입에 옮기고 그 시대의 기풍에 따라 바람처럼 불었다 미고 하는 민요는 어느 것보다도 매정해 적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긴 하다. 사실 어떤 노래가 얼마만큼 어떻게 불렸던가는 너무 아득해 알 길이 전혀 없다.

10월이며 선달에 베풀던 고대 여러 부족국가의 종교적인 의식은 그대로 호화한 가무의 잔치였다. 무슨 악기를 다루어 재주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옛날 우리는 그리 많은 악기를 갖지 못했다. 억양과 절주(節奏)나 거드는 간단한 몇 악기를 지녔을 뿐이다. 소리는 부드럽고, 튼튼한 팔다리에 뛰는 춤은 그대로 시원하다.

이때까지 민요라든가 정악풍의 점잖은 노래를 가릴 수는 없다.

민요가 민요 본래의 물줄기를 넓이 해엄치고 민요로서의 길은 빛깔을 나타낸 것은 실로 그 삼국시대 이래 중국의 문화와 정치, 사상의 이입으로부터이다.

위아래 모르는 이 겨레의 생활에 뚜렷이 그려진 두 개의 단층, 많은 토지를 갖고 그 위에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귀족계급과, 순종과 노력만이 부과된 서민계급과의 대립, 확연히 갈려진 이 높고 낮은 두 층의 생활은 가요에서도 뚜렷이 같지 않은 특질을 저마다 내세우게 되었다.

외래한 고도의 귀족예술을 제 것처럼 숭상하는 상층사회는, 자랑할 민족의 특질이자 고유한 전통정신을 헌신처럼 버리는 패려자(悖戾者)였던 것에 비쳐, 이것을 죽기로 수호하며 오히려 성장케 한 공훈의 빛나는 금관이야 아무래도 서민의 머리 위에 씌워져야 할 것이다.

민요가 그 민간의 노래로서 그네의 생활, 그네의 인정, 그네의 풍속, 그리고 놀려온 대중들의 노여움과 반항이 이 민요를 통해 힘줄서고 소리치던 것은 더욱 그 무렵부터 두드러졌다. 신라 진흥왕 2년 왕정의 득실이며 풍속의 용체(隆替)를 알리고 왕명으로 국풍의 그 향가(鄉歌)를 거두었다고 했다.

이것이 유명한 <3대목(三代目)>이라지만 헛되이 책 이름만 전하고, 당시의 민요를 더듬어 알길 없음이 진정 한스럽다. 그러나 음조가 그렇듯이 옛 어른의 생각과 감정을 엮은 한쪽의 가사도 현존하는 노래로서 대충 껴잡지 못할 것은 없다. 오랜 곡조에 뭉긋이 서린 구수한 말 오늘의 민요로서 능히 천년을 올려보지 못한대서야 무에 장하라!

그 뒤 고려의 속가로 <청산별곡>, <가시리> 등의 몇 편은 너무 미끄럽고 영글어서 얼마까지를 민요의 본색으로 볼 것인가 어렵지만 이 또한 기교화한 민요의 변형으로 당시의 세태와 민요의 전통을 짐작하는데 도움은 크다.

즐겨 시경을 외우면서도 내 나라의 시경인 민요는 또 우리말로 된 것이 트집이요, 많이 남녀상열(男女上悅)의 정가(情歌)인 것이 괴란하다고, 관부는 물론이요 문필을

일삼던 이도 완명(頑冥)히 모른 체해서 가까운 조선시대 것도 글에 옮긴 민요의 가치 수는 아주 말이 못되는 형편이다.

그런 정치제도에 놓여있던 평민의 함성은 그러기에 얼마라도 폭넓고 거셀 수 있어, 아무 세력에도, 굽히고 수그러지지 않는 민요의 대도를 오늘에 누리고 있다. 민요는 비록 한 돌이 지었대도 백성의 마음으로 지었기에 귀하고, 그 말 투박해 상스러워도 백성의 소리기에 감히 하늘에 견주는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이 민요는 민요이기에 남의 소릴 눈감고 듣는 주제가 당치 않고 백성의 함창에서 마음을 씻고 힘을 기를 것이다. 어제까지 억눌려 살아온 고난과 비굴을 씻어 자유로운 내 살림을 드높이 구가하는 것도 민요이다.

내 얼굴은 내가 내 겨울에서만 볼 수 있듯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민요에서뿐 거짓말을 않는다. 민요는 율조(律調)가 앞을 서야 할 것이면서도 이제까지의 분류를 보면 거의 부르는 노래의 내용으로서 이를 가리는 것이 아주 투식(套式)이었다. 몇 사람의 기쁘고 느껴온 애환의 정이 아니라 백성의 노래인지라 땅을 파는 농민과 물 위에 사는 어부와 산에 드는 나무꾼이며 규방의 아가씨 철없는 어린이의 노래까지도 모두 큰 의미의 민요 속이다.

일할 때 부르던 힘이 안 드는 노작가(勞作歌)요, 놀이에서 부르던 즐겁기도 한 유희의 노래이다. 산에 나무꾼의 노래가 있으면 들에 모심기 노래가 있고, 방에 가시내의 홀로 누운 원정(怨情)이 있으면 밖에 역겨운 살림을 때뵈는 지아비의 탄식도 이를 민요에서 듣는다.

아가기가 잠드는 자장가, 오래 사신 아버이를 기리는 꽃노래, 물에 도는 신세를 설다는 어부의 뱃노래여, 색시 꿈을 짜는 베틀가도 모두 이 속이 아닌가?

숯 굽는 골짜기에서, 졸졸대는 물가에서, 연기 오르는 마을에서, 흙내 이는 밭고랑에서, 이 강산 어디에 발을 들여도 우리의 민요를 못 듣는 고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환경으로 풍속 습관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생활조건에서 민요 또한 제각기 향토를 자랑하는 것을 안다.

그 지방에만 있는 아름다운 풍경, 재미있는 전설이 아니고도 같은 초동의 노래, 같은 농부의 노래도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다. 민요는 사상 감정을 함께하는 민족의 우렁찬 소리면서 그 향토의 기풍에 맞는 아름다운 말과 미끄러운 율조 위에 서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 고장의 사투리처럼 그 지방의 흥내가 짙게 물결거릴수록 민요는 더욱 값이 나간다.

남도로 내려서도 영남과 호남이 같고도 다르다. 그러니까 남도와 북도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남에 육자배기, 북에 수심가는 그래서 유명하고 값있다는 걸까?

대충 일러오는 우리 민요의 지방색은 대개 이렇게 미루고 있다.

시원스럽고 후령조의 우람스런 경상도가 있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소리엔 전라도를 친다, 대궐의 단청처럼 맑고 깨끗한 소리는 경기지방.

황해와 평안 두 도를 합친 서도(西道) 소리는 애처롭고 설은 목 많아 아프기조차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즐거운 소리니까 낮고 설은 소리니까 못하단 비교는 당치 않고 이 서로 같지 않은 지방적 특색이야말로 존귀한 것이다.

그리고 시골의 소리라서 반드시 바쁜 일과 얽혀있고, 서울의 소리라고 놀이에 매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벼슬아치와 장사치 또 공장(工匠)이와 하방의 노동계급이 옥실거리는 시정(市井)의 민요는 또 많이 어두운 내용의 퇴폐적(頹廢的)인 율조가 거센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출 줄 모르고 솔직히 드러내는 민요의 본색으로, 조금도 불건전하다 할 것은 아니다.

의젓 뽀는 선비의 예절이 민요에는 아랑곳없고 보드라운 말 공대(恭對)가 꼭 민요를 빛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는 도리어 아주 반대의 것이 이 노래의 생명이다.

간사하지 않은 마음이 거울처럼 보이면 그만이다. 다음에 우리 민요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23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붙이기로 한다.

1. 아리랑

그리 오랜 노래도 아니면서 이것처럼 시름스런 가슴을 헤칠 노래가 없고, 뒤뚱거리며 걸은 한국의 근세사가 방울방울 피땀한 기록도 없을 것이다. 종래 이 아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어느 것이나 한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이룩할 때에서 비롯한다.

但願我耳聾(단원아이농)
不聞願納聲(불문원납성)
(원하노니 내 귀가 어두워져서
원납 소리 안 듣기 소원이로다)

크나큰 역사이고 보니 부역도 그렇거니와 돈이 술하게 든다. 처음에는 돈 있고 녀석한 사람에게 자진해서 바치라고 생긴 원납(願納)이었지만 나중에는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사뭇 강제로 뺏어가듯 백성의 재물을 털었다. 어떻게나 년덜머리가 낮

으면야 차라리 귀가 먹어 원납전 소리를 안 듣겠다고 탄식이라?

아리랑은 그 아이농(我耳聾)이 변하여 그런 노래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옛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부역하는 백성들은 사람 된 자랑도 있고, 물에 노는 고기의 떼를 부러워했다.

어유하(魚游河)
아다고(我多苦)
(고기는 물에서 노는데
우리는 고생도 많구나)
경복궁의 역사도 고생은 한가지라 누군지 이 옛 노래를 빌었다.

어유하(魚游河)
아난리(我難離)
(고기는 물에서 노는데
우리는 갈 수도 없구나)

메불듯 이렇게 불러보았다고 한다. 아리랑은 그 아난리가 거북해서 뒤집어다 아리란(我離難), 다시 아리랑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생각이지만 아리랑은 또 그때 멀리 아내와 떨어져 있다는 향수 아리랑(我離娘)에서 불렀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이 노래가 그 무렵에 생겼다는 걸가지 증거 이외에는 시원하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신라의 알영비(闕英妃), 또는 영남루의 아랑(阿娘)도 그렇고 억지로 아리랑의 뜻을 캐자니까 그런 궁색한 부회(附會)가 생겼다.

그러나 아리랑은 아리랑에서 아무 의미도 챙길 순 없다.

뜻있는 말이 아니요, 그냥 소리만 가지고 음조를 메워나가는 그런 여음(餘音)이다.

그보다 한 노래로 이 아리랑처럼 전국 어느 곳에나 멀리 퍼지고 종류가 많은 소리도 드물 것이다.

이른바 본조(本調) 아리랑으로 알려있는 대표적인 서울풍의 아리랑이 있고, 그밖에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긴 아리랑, 별조(別調) 아리랑, 신 아리랑 등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따라 음율도 저마다 다르고 아리랑의 여음이며 가사도 각기 같지 않다.

2. 육자(六字)백이

소리는 많은 게 자랑일 리 없고, 한 가지라도 빼어나는 게 값이다.

수타나 많은 남도 소리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지 않고, 그 하나에, 아무나 육자백이를 듣는 건 참으로 이 바닥 소리의 맛이며, 멋이 이 한 조에 어린 것에 틀림없다. 늘씬한 장단이 치렁대지 않고, 무거움을 갖는 것도 육자백이다.

꺾이는 가락이 모나지 않고, 동글 듯 부드러움도 육자백이다.

서러워 인생을 내던지는 수십가의 어둠이 아니요, 기꺼워 세상을 알보는 흥타령의 가벼움이 아니라 힘찬 삶의 영위와 올바른 삶의 철학이 빚었달 건전한 소리를 여기서 보는 것이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몰아 들어온다.

우장을 두르고 지심 매러 갈거나.

육자백이 하면 의례 이 사설(辭說)을 머리에 두고 또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만, 노래의 뜻, 곡의 태(態)로 농민에서 부르던 그 농요의 하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즘 육자백이에 올리는 말은 구구하다.

태산에 지는 꽃은 지고싶어 지라마는
사세(事勢)가 부득이해서 지는 꽃이로구나

자연에 대한 쓸쓸한 관조

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峯)이 바람 분다고 쓰러지며
송죽(松竹)같은 곧은 절개 매 맞는다고 휘절(毀節)할까?

비유격의 높은 정조예의 찬미
그보다 육자백이에는 판소리 속에 춘추가, 수궁가, 심청가 등의 한 대문을
그대로 떼어다 부르는 게 많다.

여봐라 동무들아 말 들어 보이라
춘향이 중형 당해 거의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 일이 웬 말이고 어서 바삐 삼장거리로 나가 보세

백운청산 노던 토끼 동국유수 흐르는 물에 목욕차로 내려왔다
별주부 만나서 수궁에 완경(玩景) 가는구나

천지가 사정없어 이윽고 닦이 우니 심청이가 기가 막혀 닦아
닦아 우지마라. 네가 올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내가 간다. 나
죽기는 겁지 않으나 불쌍한 우리 부친 어이 잊고 내가 갈거나.
육자백이는 육자백이와 자진 육자백이 두 가지로 나눈다.

여섯 구를 단위로 하는 진양조 장단에서 육자백이의 이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된다.

3. 수심가(愁心歌)

남에 육자백이, 북에 수심가라 해서 수심가는 서도 소리의 여왕일뿐더러 남도의 저 육자백이와 아울러 이 나라 대표적 민요의 쌍벽이다.

역겨운 처지며 시류한 심정에는 쾌활한 육자백이보다 한결 목메는 수심가의 음절이 맞아서 어제든 수심가, 오늘도 수심가인지 모르겠다. 흔히 지나친 서글픈 소리에 이마를 찡그리는 사람들을 본다.

못되는 살림이나 괴로운 아픔이 그 슬픈 울조 때문이라고 그것만을 걱정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평안도와 황해도까지를 묶은 한 이름 서도의 노래가 이 슬픈 소리에 사무침은 생각할 것이다.

흑강스런 술잔에 느껴운 수심가는 아예 아랑곳이 없다. 그렇듯이 역정낸 가슴에는 가벼운 타령이 뻗어질 수 없을 것이다. 수심가를 타박하기보다 한길 수심가를 외어온 억눌리고 기없는 사람을 어루만질 것이다. 청산맹호로 일러오는 관서(關西)의 씩씩한 사나이들의 애운(哀韻) 어린 수심가가 호상(好尙)되기는 어지간히 오랜 연대를 거슬러야 할 것이다.

보장왕 27년 나당연합군에 망해 버린 고구려의 만가(輓歌)도 응당 이런 마디가 아니었을까? 이 나라의 쇠망과 함께 빛나던 이 지방의 역사 또한 남쪽에 옮겨져 시름은 그래 또 두 겹 세 겹 겹겹이었다.

정치며 문화의 중심이 떨어진 서울도 잊지 못할 것이 있는 데다, 뜻을 안고도 쓰지 못한 조선 500년의 억울함이 덮쳐, 웅크린 밤이 접동새보다도 서러웠으리란 인식 없

이 한 구절도 수심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전하는 이야기로 수심가를 지었다는 분명한 임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민요가 한 두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 설령 누구 재주 있는 이가 처음 불렀어도, 그것이 민요로서 행세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뜻과 목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얼마큼이나 믿을 것이냐는 그대로 의심스럽다. 시를 잘 지어 시기(詩妓)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아름다운 얼굴로 정말 부용(芙蓉)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성천(成川) 기생 부용(芙蓉)이 있었다.

오죽해야 손님과 더불어 해주 부용당에 올랐는데, 한 손이 있어 이런 시로써 부용을 추켰다는 것도 별로 과찬만은 아니었다.

부용당상부용립(芙蓉堂上芙蓉立)²²⁾
인부용승화부용(人芙蓉勝花芙蓉)
(부용당 위에 부용이가 오르니,
사람 부용이 연꽃 부용을 이기도다)

부용은 또 운초(雲楚)라고도 일컬어 주옥같은 고운 시가 삼시에 관서 지방을 휩쓸었다. 여기 술과 시를 경계한 절구 한 수도도 능히 부용의 시재(詩才)를 미루고도 남을 것이다.

주과능벌성(酒過能伐性)
시교반궁인(詩巧反窮人)
시주수위우(詩酒雖爲友)
불소역불친(不疎亦不親)
(술이 지난 즉 능히 본성을 치고,
시를 잘 쓰면 도리어 사람이 궁해집니다.)
시와 술이 비록 벗은 될지나,
내치기도 친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심가는 곧 이 부용의 입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심코 입가에 올린 수심가의 노래가 너무 슬프고 원망하는 애원의 소리여서 그만 입 다물고 부용 스스로도 송연(悚然)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얽지른 물을 되담을 수 없듯 흘러나온 소리도 거둘 수는 없었다.

22) 원문의 芙蓉堂上芙蓉立는 芙蓉當上芙蓉立의 오키임.

명기 부용이가 났다는 인기와 구비지는 실은 목에 수심가는 부용의 뉘우침을 모른 채, 갈수록 버림받은 산천에 연기처럼 서렸다는 것이다.

저 병자호란의 앞뒤 누구의 소리건 수심가의 성조(聲調) 더욱 애처로웠다는 이야기는 가슴 아프다.

수심가도 두 가지가 있다, 말은 적지만 소리는 느껴지는 것을 그냥 수심가, 그와 반대로 곡조는 빠르고 말이 긴 것을 이 엮음 수심가라고 부른다.

유인비행기(有人飛行機)가 궤도선회(軌道旋回)? 미(美) X=15기(機) 설계발표(設計發表)

미국 항공전문가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탑승한 채 지구 주위의 궤도를 선회할 수 있는 개량된 실험비행기의 강력한 로켓 부스터(補助噴射推進機)를 개발했다고 한다.

보통 비행기와 미래의 우주선과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공군, 해군 및 민간항공자문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X=15기는 현재까지 무엇에 의해서도 도달할 적이 없는 고속도와 고도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성취할 단계인 개량형 X=15호에는 인간을 탑승시켜 로켓 부스터로서 지구주위의 궤도를 선회시킬 것이라 한다.

그는 스푸트니크나 익스플로러 따위 인공위성에 경탄한 나머지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위 우주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놀랄 만한 군사적 발전을 인식치 못하고 있다고 발하고, 그 한 가지 예로서 B=70 대륙간폭격기라고 말했다.

B=70 장거리폭격기는 항공사상 가장 곤란한 설계사의 난관을 해결한 예인데, 동기는 평상비행에서 2천마일 이상의 시속으로 비행할 뿐 아니라 7만 킬로 정도의 고도에서 어떤 표적이라도 공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탄도유도탄 발사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도에서 발사되는 탄도유도탄은 그 자체의 상승추진용 연료나 원동장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상승할 때 증대한 무게가 되는 단면적 대 연료 및 속도관계의 곤란이 자연히 해소되고, 또 고속도 모기(母機)로부터 고도에서 발사될 때는 어떤 방위각으로서의 표적공격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한다.

외교(外交)와 기지(機智)

장재용(張在鏞)



언젠가 몇몇 동료들이 모인 허물없는 자리에서 위트(wit)가 화제에 올랐다. 이어서 이 위트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의 '기지(機智)'라고 번역한 것은 참 운치 있는 명역이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재치 있는 지혜' 어감부터 멋진 여운을 풍기는 어휘(語彙)라고도 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이 위트를 높이 숭상하여 일상 회화는 물론이고, 대인(對人) 접객(接客)이나 심하면 연설을 할 때도 항상 위트와 적도(適度)의 유머를 써서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명랑하고 유쾌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최대의 효능을 얻기에 무척 마음을 쓴다는 것도 논의된 바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네들의 대화에는 우리네의 그것보다 생기가 있고 웃음이 많고 또 테이블 스피치 같은 것을 들어 봐도 대체로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며 또 재미가 있고 인간미가 풍부해서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들을 만하면서도 한편 논지는 논지대로 명확해서 인상적인 것이 통례라는 것이다.

이제 손안에 있는 사전을 펴고 이 위트를 찾으니 대략 다음과 같은 뜻으로 설명되어 왔다. '쾌락(pleasure) 특히 흥겨운 즐거움(amusement)을 일깨워 주는 사고간의 연관성에 대한 명민한 이해와 현명하게 적절한 설명.' 원문에 비해서 몹시 딱딱한 번역이기는 하나 직역을 하면 대체로 그렇게 된다.

인생은 고달프다고도 하며, 우리가 하는 일에는 쉽게 이뤄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많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언제 어떤 계제에 실의에 빠지고 우수에 사로잡히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어떤 차질로 인해 실의와 번뇌의 함정에 빠질 때 바로 인생의 기미를 뚫고 '사고간의 연관성에 대한 명민한 이해와 현명하게 적절한 설명'과 함께 '쾌락 특히 흥겨운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위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얘기가 계속 발전되면서도 화제가 항상 위트, 또 유머에 머물

렀던 것도 기묘한 일이었다.

사람이란 무슨 일에 꾸준히 힘쓰고 또 충실하게 일해서 실수 없이 항상하면 차차 출세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 사람도 더 많이 대하고, 따라서 이러한 면의 위트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리하여 얘기는 마침내 국내의 지명인사들의 대인법(對人法)에 대한 일화로 한 차례 담론의 꽃을 피웠고, 드디어는 저명한 외교관들의 프레스 미팅에까지 화제가 올라갔었는데, 하기는 뎀버가 뎀버였던 만큼 별로 탈잡힐 일도 아니었던 듯싶다.

프레스 미팅이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웠겠느냐는 논조였다. 저마다 약삭빠른 센스와 예리한 색출력으로 완전무장한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수많은 각계 기자들 사이에 휩싸여 화살처럼 몰아치는 난문에 간단없는 즉문즉답으로 대결한다는 것이 어찌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떤 중대한 외교문제에서 온 세계의 이목이 제한 몸에 총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절도 있게 능히 이 일을 치러낸다는 것은 과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때로는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까다로운 사정이나 애꿎은 까닭이 있어 일시 대답을 보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또 경우에 따라 어떤 부름에 대해 정면으로 옳고 그른 것 또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을 즉석에서 밝히는 것보다도 어물어물 다음 어느 시기까지 미뤄야만 할 계제도 있으리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무딘 침묵과 오만(傲慢)한 묵살로 이를 막아버리거나, 또 잠시 대답은 보류해야 할 질문에 대해 단순한 평계로 멋없이 처리하는 것은 묘법이 될 수 없다.

당시의 분위기와 그 모임의 성격을 될 수 있는 대로 손상이나 왜곡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속시켜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확실히 훌륭한 창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명민한 위트와 절도 있는 유머에 대한 욕구가 샘솟는 것도 당연한 생리일 것 같다.

언젠가 김을한(金乙漢) 씨의 글 가운데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 맥아더 장군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당시 일본 수상인 요시다(吉田)가 어느 파티에서인가 "한국에는 지금도 범(호랑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 판에는 기껏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 이때 우리 이(李) 대통령께서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다 잡아가고 지금은 없다." 라는 뜻으로 지체 없이 대답해 품위 있는 유머로서 요시다의 간교한 질문에 대해 오히려 점잖은 일침을 가해 오제(汚題)를 남겼다는 얘기

를 읽은 기억도 있기에, 위트의 묘미가 심금을 파고드는 느낌이 또한 없지 않다.

또 하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로이드 조지 씨가 선거연설에서 그의 독특한 변론으로 반대당인 보수당에 대해 가책 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을 즈음, 이것을 듣고 있던 보수당 편인 한 여인이 흥분 끝에 일어서면서 “너 같은 사람에게에는 독약을 먹고 싶다.”고 외쳤는데, 조지 씨는 냉큼 받아서 “부인과 같은 미국의 손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먹지요.” 라고 대답하여 그 순간의 위기를 모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중의 동정과 찬양을 받았다는 얘기도 재미있는 일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불의의 난문(難問) 또는 예측 불가 사태에 대처하여 그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는 위트란 이것을 능히 발산할 수 있는 천품, 그리고 또 그만한 인격의 바탕이 서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맨 처음 미인을 꽃에다 비유한 사람은 천재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천치이다.”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이미 남이 사용한 위트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도 썩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유머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듯이, 위트도 결코 ‘어떤 재치 있는 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인생의 기묘에 부딪힘이 있고, 웃음 가운데도 무엇을 생각게 하는 깊이와 교훈이 있어서 비로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트란 방대(龐大)한 학식에서 때때로 발산되는 예지(飲智)의 진수(眞髓)이기도 할 것이며, 또 훌륭한 천품이라 고매(高邁)한 인격의 순간적으로 반사되는 편모(片貌)이기도 할 것이다.

한때 국제 외교무대에서 공산주의를 대변하던 소련의 비신스키는 독설가로 악명 높았는데, 그의 독설이 끝내 위트가 될 수 없었던 것도 역시 상기한 인격적인 바탕의 결여에 그 까닭이 있지 않았나 싶다.

외교란 국가 간의 행사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를 필연으로 요구하고 있다. 말만 유창한 웅변 외교는 이미 역사의 유물이며, 한낱 얌은꾀나 재치로서 외교의 성공을 바라는 지략 술수도 오늘의 외교활동에서는 용납하기 힘들다.

위트는 훌륭한 매력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반드시 그 바탕이 될 천품과 지혜와 성실로 도야(陶冶)된 인격의 두터운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외교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아닐까 싶다.

(필자(筆者) 외교부(外務部) 통상국(通商局) 교역과장(交易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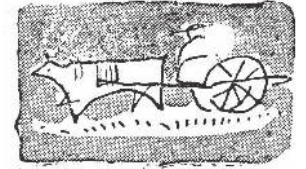
총선거(總選舉)와 군인(軍人)

- 신(新) 선거법(選舉法)을 중심(中心)으로 -

신현경(申鉉經)

1. 서론(序論)

‘총선거와 군인’이라는 제목 밑에 주로 금반 개정된 선거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라는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 여기에서 논의될 것은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타 일반 공직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특히 돌아오는 5월에 실시될 제4대 민의원 의원선거에 국한해야 할 것이고, 또 바로 이것이 과제를 주신 분의 의도일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총선거와 군인’이라는 제목을 대할 때 우선 밝혀두어야 할 점은 총선거라는 용어 해명이 그 1이고, 군인의 본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참정에서 특히 알아두어야 할 점, 즉 일반참정권자와 같은 점과 이상한 점을 구별할 것이 그 2 일 것 같다.

선거를 그 목적에 따라 구별한다면 본 선거 또는 총선거(Hauptwahl, General Election) 보충선거 또는 보궐선거(Ersatzwahl, Byelection)로 구별할 수 있다. 총선거 또는 본(本) 선거라 함은 의원의 임기만료(금번 5월에 실시될 총선거) 또는 일정한 사유(예 하원의 해산)로 교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정원 전부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충선거라고 한다. 즉 보충선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바, 본 선거 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궐선거라든가, 총선거에 위법이 있어서 그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실시되는 추선거(追選舉)(nach wahl)와 그 일부에 발생한 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再選舉)(일본)을 들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 둘 점은 보궐선거나 추선거나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다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법으로 의원이 확정된 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총선거 실시 후 아직 그 효력이 적법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재선거나 독일의 추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므로 이번 5월에 실시되는 제4대 민의원 선거가 총선거임은 물론이다.

다음에 주로 밝혀두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총선거에서 군인은 일반국민과 어떤

상이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며, 또 그와 같은 규정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은 참정권 행사에 어떤 태도로써 임해야 할 것인가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주정치(民主政治)와 선거(選舉)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것은 군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의 자격으로 입후보하거나 기타 선거운동과 선거관리를 할 경우, 물론 각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거(적임자 선거)가 회의제도 하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함으로써 선거의 본래의 목적에 얼마만큼이라도 접근해가며 실시된다면, 선거법 자체의 결함 여하보다도 그 운용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회의제도 하에서의 선거제도는 보정될 것이다.

원래 민주정치에는 2개의 형식이 있다. 그 하나는 직접민주정치이며 민주정치로서는 가장 순수한 민주정치(Pure democracy)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a)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소리가 집합 전체에 들리지 않을 만큼 크지 않은 도시'에서만 직접민주정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나 근대에 와서는 서서(瑞西)[스위스] 산중의 2, 3개의 소칸톤(Kanton)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며 국정이 복잡다단한 근대국가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 국가의 대다수는 제2의 형식, 즉 간접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대의정치(representative government) 또는 의회정치라고도 한다. 단 면에서 말한다면 여론정치 또는 정당정치라고도 한다. 이것들은 모두 간접 민주정치의 각 면을 표현한 데 불과하다.

더구나 이 민주정치의 근본은 개인주의 또는 인격주의의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선거법의 지도 원리를 이루고 있음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자유진영국가의 선거법에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의정치 하에서 입법, 예산, 기타 국가 중요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국회이다. 그 의결이 다수결에 따르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세력분포로서 또는 어떤 인구비례로서 또는 어떤 인물로서 구성되느냐 함은 정권의 유지 획득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최대관심사이며, 여기에 정당의 여론지도와 치열한 선거 전쟁이 전개된다. 또 한 편 국회가 기 본질상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 대표기관으로 존재하려면 의원을 선출하는데 무엇보다도 민의를 반영시켜야 하며 또한 국회가 국민의 축도(縮圖)

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일정한 인구를 단위로 하는 인구대표제, 그리고 정당정치가 발달함에 따라 소선거구제의 결함(사표가 많이 생긴다.)을 수정하기 위해 대선거구제에 따르는 선거방법으로 비례대표제가 각국 선거제도에 등장했다. 여하튼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느냐는 그 나라의 정치권을 좌우하며,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는 국민의 이해와, 적게는 정당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발안권,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 지극히 희소하다. 국민의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 역시 켈젠의 제1차적 기관(선거인)으로서 제2차적 기관(국회)을 선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주권행사(참정권)로서 가장 중요한 공무(公務)인 동시에 유일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군인을 포함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다만 선거를 통해서만 국가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회를 구성할 의원의 선출에 그 의사(민의를)를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여론정치가 이루어진다.

국회를 구성하는데 의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수속이 복잡하고 경비 기타 국민의 수고가 막대한 선거라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은 바로 민주적 선출방식에 의한다는 점과 아울러 그 본래의 의도로서 의회정치에 민의를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정치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거법 규정이 민주주의적인가 어떤가, 즉 선거제도 자체의 검토 개정 등이다. 제2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국민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선거권 행사에서 국민이 어느 정도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이다.

3. 선거법(選舉法)의 지도원리(指導原理)

선거는 직접적으로는 소위 국민대표기관을 선거하는 것이나, 직접적으로 선거인이 어떤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느냐는 어떤 정치를 욕구하는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개인주의 내지 인격주의(Personalism)가 그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으며, 선거법의 지도원리도 여기에 있다. 즉 첫째 근대적 대의제도는 국가의 정치적 단위로서 개인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근대적 대의제도의 원리로서 민주적 참정이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시민의 참정을 의미한다. 인격주의를 개인의 민주적 참정의 실현을 기하는 원리라고 규정한다면 현대 각국(자유 진영 국가)의 선거법의 원리아말로 바로 이 인격주의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권계급이나 직능단체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시민적 입장에 착안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격주의의 최고 공국의 원리의 구체적 표현은 자유, 평등이며 자유나 평등은 인격의 존엄성의 논리적 발전이다. 여기에 현대 각국 선거법의 공리로서의 보통선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제한선거제의 철폐, 부인선거제의 실시를 보았던 것이다.

이 밖에 시민적 인격은 모든 시민이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에게 각각 부여된 선거수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즉 인격주의는 평등선거제를 요청한다. 이밖에 각 시민의 참정을 유효하게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는 것도 인격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해준다. 그러므로 직접선거제와 비밀투표제로 역시 인격주의로부터 요청된다. 끝으로 각 시민의 투표를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평등하고 유효하게 하는 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규정되어 본 적이 없으나, 다른 선진국가(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등)에서 정당정치의 발달과 아울러 오래전부터 채용되어 온 비례대표제는 평등선거제를 철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격주의의 논리적 필연적 귀결이다.

이와 같이 현대 각국 선거법을 지배하고 있는 제(諸)원칙들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 은 순수한 시민적 입장에서만 고찰된 시민의 민주적 참정을 실현하려는 인격주의에서 파생된 제2차적 원리를 이루고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참조)

4. 선거권(選舉權)

선거는 국민의 정치상의 의견을 의회에 반영시키는 한 개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선거인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시켜야 함은 물론이나, 또 한편 선거는 국가가 국민을 선거라는 국가의 공무에 참가시키는 작용이므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국한해야 한다.

개정선거법은 전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일반국민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은 없다.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개정법 제10조). 현재로 산정하고(12조),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라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수 있고(18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물론 선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제13조 1항, 4항)는 구, 시, 읍, 면장의 조사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므로 투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선거법상의 불비(不備)로 인해 그 국가에 대해 생명을 걸고 충

성을 다하고 있는 데도 군인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영내사병이나, 영외거주 장병문관을 불문하고 그 빈번한 전속과 이에 따르는 주소변경으로 말미암아 선거권이 있지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함은 일반국민 이상으로 불합리하다.

이에 수반하여 또 한 가지의 큰 결함은 부재자 투표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개정선거법 역시 투표권 행사에 본인 출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는 실재상 허다하며, 또한 이러한 사정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때 이것을 무관심 또는 태만으로 기권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다른 선진국가들이 일차대전 당시 다수공민의 출정을 계기로 하여 주재 투표제가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미국은 1922년까지 39주는 일반적인 부재자 투표법을 갖게 되었고, 다른 주에서도 군인 기타를 위해 부재자 투표제를 인정했다. 영국(1919), 프랑스(1919년),

독일(1918년), 이탈리아(1923년) - 개정선거법에도 이 점에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선거권 있는 군인으로서 투표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분과 더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출처 159항·165항 참조).

끝으로 과거 독일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미국, 일본에 전해졌던 제도로서 현역 또는 소집중의 군인을 선거권으로부터 제외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군인은 특별히 중요한 국무에 복무하는 관계상 이와 같은 선거의무를 떠나야 하고, 따라서 선거에 참여함을 부적당하다고 했으며, 둘째로, 정부와 군무의 혼효(混淆)를 피하고자 했다. 특히 특별한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군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명령관계가 약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무를 정부로부터 구별하겠다는 추상적 이론과 예상할 수 있는 다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군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척이유(除斥理由)로서는 부당하며 보통선거제의 정신에 위반됨은 물론이다. 그 후 각국이 이를 폐지함은 물론이거나 우리나라 역시 인격주의적 입장에서 군인을 선거인으로서 제척(除斥)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출처 76수 참조).

5. 피선거인(被選舉人)

피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하며,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대(對)한 말이다. 정확한 의미에서 그것은 권리가 아니며 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한 적성(適性)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입후보하여 선거인의 선거결과 당선했을 때 이를 수락함으로써 비로소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인이 선거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선되었을 때 비로소 당선인은 자기가 당선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선거권은 피선거자격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 추상적으로 더구나 평등적 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입장에 따라 생각한다면, 투표권있는 자는 모두 피선거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각 선거인이 자기가 투표표자 하는 자에게 자기의 표를 준다는 자유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가 공무원로서 이행될 때 피선거 자격은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만 있어야 한다. 각국은 선거권을 피선거권보다 중하게 규정하는 나라, 동등히 규정하는 나라, 경하게 취급하는 나라로 대별할 수 있다.

개정선거법은 대체로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많이 참고한 것 같이 보이며 구법과 대차는 없으나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그 적극적 요건으로서 국책, 연령(선거일 현재로 만 25세 이상) 거주기간(선거권과 동)에는 구법(舊法)과 차이가 없다(제11조 제12조, 제38조).

둘째로, 흠격(欠格) 요건으로서 수정된 부분, 새로 규정된 부분, 그리고 삭제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자격제한을 경하게 함으로써 법자체가 민주화되었다는 점이 발견된다(제14조). 그런데 군인과 관계되는 부분으로는 구법으로서 삭제된 제677조(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구역 내에서 피선거권이 없다) 및 제7조(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사관 감찰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중 제7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보아 본법 시행 후 처음 시행되는 총선거에 있어서 공무원(군인 포함 - 논자주)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부터는 공무원 - 따라서 군인 - 과 선거위원회 위원이 입후보할 때는 39조 - 구법 29조에 따라 당해 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함으로) 본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2월 25일 이내에) 그 직이 임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기탁금으로서 후보자 1인당 50만 원을 제38조가 규정한 것은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선거공영제가 채택됨과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과 비용을 제한함으로써 그 단점을 보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당 공천제 채택과 아울러 입후보하는 자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피선거권, 나아가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선거법은 구법과는 달리 현역 군인 및 특수공무원의 제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단 피선거권을 부여한 점은 큰 발전(민주화)이라고 보겠다. 하지만 입후보자 규정에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의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법이 현역군인 특수공무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반해, 개정선거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입후보 절차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표가, 공무원은(따라서 군인 문관) 그 근무처의 장에게 접수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제37조 2항) 180일 전에 해임되어야 하나, 이번 선거에 한해서 본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법에 속하는 각국의 규정 설정의 취지를 보면 각각 다른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취지는 개정법의 취지와 전혀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참고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나온 것(미국)
- B. 직무의 성질상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온 것
(프랑스법계 -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에 반하여 독일법계의 주요 국가(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의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무자격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출처 130페이지 - 133페이지 참조).

6. 선거운동(選舉運動)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당선하기 위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당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득표 공작 내지 인기선전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 방해 또는 의원후보자에 대한 사퇴 권유도 역시 그것이 특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물론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개정법 43조).

그런데 원래 선거는 민주적 참정의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정히 행해야 함은 입헌정치의 존속 내지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다. 만일 선거가 부정의 희생이 된다면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인정된 가장 존귀한 민주적 참정은 허명(虛名)에 불과하고, 대의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전복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제 선거는 불행하게도 선거운동과정서 각종의 부정행위가 빈번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선거의 자유, 공

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속규정이 설정되고, 벌칙이 규정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정치의 기반과 경험이 박약함에 비추어 상세한 규정과 벌칙에 의해 단속을 기도하고 선거의 자유·공정을 유지하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선거운동규정(개정법 제7장 제43조·제88조) 중 중요 부분만 적기하고 특히 군인과 관계되는 부분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기간(44조)

입후보자 등록시부터 선거일 전까지(대략 4월로 추측됨).

2. 선거운동 불가자(45조)

입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

3. 유사기관 설치금지(48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사무소(읍, 면, 시의 동마다 1개소)

4. 선거운동원 선입(49조 2항)

가. 인구 1500명에 1인식(당해선거구)

나. 본인의 승낙을 요함.

다.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선입 해임시).

라. 신분증명서 휴대(선거구 선거위원회 발행).

5. 학생 미성년자의 선거운동금지(50조)

6. 벽보(51조)

가. 인구 50인에 1매(선거위원회 작성).

나. 규격(대통령령).

다. 매수(개인연설회 1회에 50매).

7. 소형 인쇄물 배부(54조)

가. 후보자의 성명 기호 기재.

나. 선거일까지 배포(운동원 노무원).

8. 선전문서 배부 설명(55조)

가. 경력, 정견, 인사(기재 내용)

나. 매 세대 2회, 배포 설명.

다. 1회는 무료우편 발송.

9. 선전시설(56조)

가. 간판, 현수막, 표식.

나. 규격 수량은 대통령령.

10. 규정 외 문서도화의 금지(57조)

가. 철거명령, 필요조치를 요함.

11.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文書圖畫)의 금지(58조)

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정당 정치단체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 (저술, 연예, 영화, 광고).

12. 합동정견발표회의 개최(59조)

가. 주관은 선거구 선거위원회.

나. 회수(60조) 구와 시는 3회(구법은 1회) 군, 읍, 면은 1회.

다. 개최공고(61조).

라. 연설자 순위는 추첨(62조).

마. 회장의 질서유지(63조) 선거구 선거위원장 및 위원이 제지 또는 퇴장명령.

13. 개인 정견발표회 또는 연설회(64조)

가. 개최·후보자, 선거사무장, 운동원.

나. 연설회, 좌담회, 토론회를 지칭함.

다. 개최시각 3시간 전에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

라. 수화·선거구 내의 투표수의 2배 이내.

14. 공개시설 이용(66조)

학교, 기타 공공시설(공회당, 극장, 공원 운동장, 시장)

15. 연설금지 장소(67조)

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영기업체 소유 또는 관리 건물, 시설.

나. 정차장 구내(항공기, 기차, 전차, 선박, 승합자동차).

다.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

16. 화성기 자동차사용 제한(68조)

가. 후보자 1인에 화성기 1대, 자동차 2대 이내.

나. 화성기와 녹음기 사용 - 합동연설회, 개인연설회에 한함.

17. 방송이용의 금지(71조).

가. 허위사실방송 금지.

나. 경력 방송의 공평(횟수, 내용) (제71조)

18. 신문 잡지 등의 불법이용의 제한(72조)

19. 허위보도의 금지(73조)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36) tanager: 풍금조

37) Tucson

20. 신문광고는 1회(74조)
21. 정치단체의 신문광고(75조)
소속 후보자를 위해 1회에 한함.
22. 호별방문의 금지(76조)
선거운동 또는 개인연설회 고시를 위해.
23. 서명날인운동 금지(77조)
24. 인기투표의 금지(78조)
25. 음식물 제공 금지(78조)
자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26. 노무자에 대한 식사대금의 지급(80조)
가. 노무자 수 1회에 투표구 수 이내.
나. 금전으로 규정액 지불.
27. 소란행위의 금지(81조)
대오조직하여 가로행진 연호행위.
28. 야간연설 금지(82조)
오후10시 - 오전6시 개인연설회.
29. 교통설치 편익공여의 금지(83조)
자동차 기타 교통설치.
30. 허위사실유포 금지(84조)
신분, 경력, 인격, 소속정당, 정치단체.
31. 기부행위의 제한(85조)
가. 운동기간중.
나. 후보자,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선거운동원.
다.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라. 내용 - 금전 제공, 물품시설의 무료대여, 양도, 책임면제, 경감 이익제공.
32. 기부 받는 행위의 금지(86조)
선거기간 중.
33. 사전운동의 제한(87조)
단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경우는 제외.
34. 선거일 후 답례 금지(88조)
축하, 위로의 향응.
35. 선거비용(제8장 80조 - 102조)

가. 선거비용의 제한액.
나. 제한액 공시(선거구 선거위원회) (91조)
다음에 투표에 관해 군인의 입장에서 특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관, 경찰관, 현역군인의 투표소 출입금지(116조) 투표 시는 제외
2. 무거나 흥기의 휴대 금지(118조)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경관의 원조 요구가 있을 경우 외.
3. 투표소 내외의 선거운동 금지(119조)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4. 투표의 비밀 보장(120조)
질문할 수도 없고 진술할 의무도 없다.

다음에 당선인이 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의 결정(133조 134조)
가. 다수결에 의함(유효투표)
나. 동점 2인 이상의 경우는 연장자순.
다. 등록 마감일에 후보자 1인일 때 무투표당선.
2.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136조)
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나. 선거일 후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3. 당선결정의 착오시정(137조)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구 80조).
4. 당선인의 재결정(138조)
당선무효 판결 시(신(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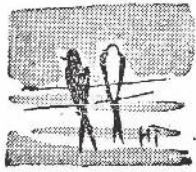
이상으로서 다소 제목과 어긋나는 점이 있을지도 모르나 다소나마 공군장병 문관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 마디로 끝을 맺는다면 우리는 법의 근본정신을 살려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과 아울러 번영을 위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손색없는 인물을 선출함과 동시에, 뜻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입후보하실 것을 바라며, 이번 총선거가 공정하게 실시 될 것을 믿는 바이다.

(필자(筆者) 국회도서관장(國會圖書館長))

미국(美國)은 월세계(月世界)를 이렇게 정복(征服)한다

- 뱅가드 계획(計劃)의 성공(成功)으로 -

외지(外誌)에서



(역자 주) 미국 해군은 지난 3월 17일 마침내 뱅가드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다. '달세계에의 제1보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걸고 정말로 피투성이의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국제지구관측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달세계로의 최초의 여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세계의 변명과 파괴의 관건은 미국 과학자들의 위대한 두뇌에 달려있다. 미국 최대의 대중잡지인 「뉴스위크」지의 과학·우주 및 원자문제 평론의 권위자인 에드윈 다이아몬드 씨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열병과 같이 끓어오르는 달세계 정복에 대한 욕망은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계획, 연구를 거듭하는 미국의 유도탄 전문가들 간에 급작스럽고도 전염병과 같이 충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열광적인 욕망은 지난 3월 17일 미 해군이 마침내 뱅가드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고 중량 3.25파운드의 인공위성을 고도 2,500마일의 우주로 공전시킴으로써 더욱 열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조만간 수개월 이내에 달세계로 로켓을 발사하라는 미 국무성의 명령 하달 가능성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유도탄을 실험하는 케이프 캐너베럴을 관리하고 있는 미공군 유도탄실험본부 사령관인 도날드 엔 예트 소장은 “우리는 이곳에서 애기달을 지금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발사시설과 로켓 구조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할리우드(聖林)의 배우 로날드 콜맨과 매우 비슷한 얼굴을 지닌 공군과학자 예트 소장은

“나는 미국인인 이상 우리 미국이 소련보다도 앞서 달세계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며, 이에 관해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케이프 캐너베럴에 즐비한 로켓 군(群)은 예트 소장이 이러한 자신만만한 낙관론을 피력하는데 충분한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다시 말하면

◇ 미국 해군은 공군과의 합동태세로 뱅가드의 제2, 제3 단계에 쏘아 중거리탄도유도탄을 장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 고체연료의 증가시킨 육군의 주피터 C 로켓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서 추출된다.

지난 3월 17일 우아한 흰줄을 남기면서 애기달을 실은 미국의 뱅가드 로켓을 우주로 발사한 해군발사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자들이 앞으로 7개의 유도탄을 더 발사하기 위해 분주하며 뱅가드의 재시합을 기약하고 있다.

뱅크드의 발사장으로부터 1마일 남짓하게 떨어진 곳에는 더글러스 항공사에서 개발한 토르 중거리유도탄의 홍백색으로 도장한 타워가 우뚝 서 있다. 이것이 바로 토르와 뱅가드 양 유도탄을 합성시켜 발사하려는 미 해군, 공군의 합동시험장이다.

“정부에서 청신호만 내리면 언제든 즉각 달세계로 향해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토르 유도탄 발사연구과학자 메디슨 중령의 얼굴은 태양열로 시커멓게 탔으나 자못 신념에 가득 차 있었다. 이들 과학자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문제, 즉

첫째, 24만 마일의 우주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의 추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둘째, 눈부신 달세계 표면에 어떻게 착륙하고 또 귀환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도표에 그리고 있다.

달에는 공기는 없다. 따라서 바람도 없고 식물도 없다. 모지와 같이 정숙과 고독으로 뒤덮인 달세계의 표면은 달 밝은 밤 우리가 보고 있는 월광보다도 훨씬 강한 지구로부터의 태양 반사광을 받고 있다. 로켓이 무사히 도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낮이면 염천혹서(炎天酷暑)가 강철도 녹이며, 밤이면 혹독한 엄한(嚴寒)으로 만물을 동결시키는 무서운 이곳 달세계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2주간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지구로부터 운반하는 산소나 음료수, 식료품에 의지하여 이 무서운 모지에서 우주정복의 가치를 높이 들 미국의 과학자들, 그들이야말로 세계의 변명과 파괴를 좌우하는 관건을 장악하고 있는 유일의 강자이다.

현재까지 1,500마일 거리 내에서의 작전용 유도탄으로 알려져 있는 토르는 실험의 결과 케이프 캐너베럴로부터 2,600마일 떨어진 사격장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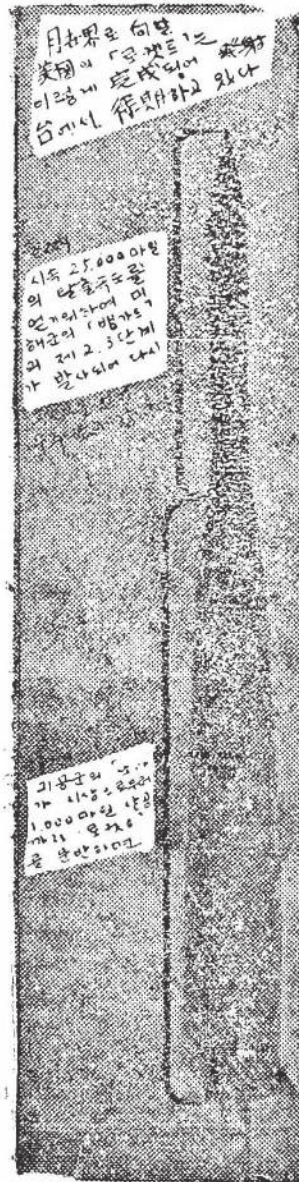
이 밝혀졌다. 이 정도이면 로켓 부분품을 능히 지구의 대기권으로부터 벗어난 외계로 사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다시 벵가드의 제2, 제3단계를 추진시켜 시속 22,500마일의 탈출속도(물체가 지구의 인력 한계를 벗어나서 우주로 직행할 수 있는 속도)로서 우주선을 달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로서 지구와 달세계의 공간은 10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토르 유도탄 발사장의 남쪽에서 올리브색과 담갈색(淡褐色)으로 칠한 강철제의 거대한 발사대는 육군의 달세계 발사용 주피터 C 로켓이다. 육군 탄도유도탄부대에서 파견된 기사와 칼텍 켈트 추진연구소 소속 민간인 기술자들은 4단계로 된 주피터 C의 탄환형의 익스플로러 제3호를 검증하고 있다. 이것도 조만간 발사될 예정이다.

켈트 추진연구소의 담당 기사인 잭 플로리치 박사는 “고체연료로 된 소형의 제5단계로 로켓을 부가하여 달세계로 발사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발사방법엔 고도 200마일의 상공으로 시속 18,000마일로 발사한 익스플로러 제1호와 다른 것은 없다.

제5단계의 로켓은 익스플로러의 광대한 타원형 궤도가 지구로부터 가장 원격한 상공에 미칠 때까지는 발사되지 않을 것이다. 약 2,000마일 떨어진 상공에서 비로소 달세계로 향하는 추력(推力)을 얻기 위해 마련된 지상에서의 시한장치 혹은 무선으로 최후의 로켓이 점화되어 발사된다.

달로 접근함에 따라서 로켓의 유도장치는 눈부신 원반 위에 반드시 적응하게 된다. 직접적인 달세계에의 도착은 지구와 달세계 간에서 원형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도착하는 것보다 더욱 용이하다. 달이 시속 2,300마일의 속도로 회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달세계에 무사히 착륙하는 임무는 고속도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빠른 속도로 나는 기러기를 총으로 명중시키는 것과 같다.

적어도 현재까지 계획되고 있는 최소한도의 복잡한 이상은 로켓의 탄두에 장치한 표적이 달세계 표면에 명중되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맨눈으로 그 표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달세계에 만곡(彎曲)이나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달세계 표면에 염색물(染色物)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위신에 관계된 문제이다. 소련은 어떤 종류의 꼭 같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상이 선전적인 승리보다도 더욱 의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메서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대양을 횡단 비행한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인간이 이렇게 비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이외에 무엇이 또 있었는가? 과학적 연구는 뒤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달세계의 정복에는 과학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며 노벨 과학상의 수상자인 해롤드 C. 윌레이 박사는 달(月)은 지구나 우주관측소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육군 연구발전본부의 부장보좌관인 제임스 B 에디슨 박사는 ‘최초의 영구적인 달기지가 수년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근 원자 과학지에 제공한 기사에서 에디슨 박사는 “달세계에 구축될 군사기지는 지구로부터 발사되는 여하한 공격에도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인간이 부딪혀야 할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초의 달세계 개척자는 부단한 태양선 및 우주선(宇宙線)의 세례를 받게 된다. 낮에는 혹서와 길고 긴 밤의 혹독한 엄혹 등 이러한 위험에 부딪히면서 식량·산소·음료수 등을 적당히 저장할 구멍이나 장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디슨 박사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주의학이 완성되면 종합적인 영양물을 인간의 혈액에 주사함으로써 음식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미국(美國)의 인공위성(人工衛星) 해부(解剖)

외지(外誌)에서

「알파·1958년호(號)」



미 육군에 의한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탐색자)는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거대한 발사대 위에서 이미 특징 있는 신호를 발신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쇠 목소리처럼 걸걸한 소리로. 이 최초의 인공위성은 뒤에 알파 1958년 호로 정식으로 명명되었다. 케이프 케네베달의 발사대로부터 발사된 10분 후에 영국령 서인도 열도의 안티퀘에서는 힘찬 신호를 청취할 수 있었고, 15분 후에 서부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무전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도처에서 힘찬 신호를 청취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발사된 인공위성이 안정된 궤도상을 선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여부는 캘리포니아 주로 되돌아온 2시간 후까지는 과학자들도 알 수 없었다.

이번 발사된 인공위성은 매우 특수한 장치를 휴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4단계의 로켓은 개량된 미 육군의 퍼피터 C로서 이 거대한 로켓을 우주로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출력을 주는 제1단계 로켓은 종전에 시험된 레드스톤 단거리용 유도탄으로서 세장형(細長形) 연료 탱크에는 가장 적당한 것이며, 기존의 알콜 연료보다 강렬한 추력을 주는 '하이다인'이라는 특수연료이다. 인공위성의 두부(頭部)에는 거대한 원통형의 용기 모양의 철통이 달려 있어 길이 40인치와 직경 6인치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14개의 소형 로켓이 차 있다. 이 철통의 상부에는 인공위성의 주동체(主銅體)가 될 길이 80인치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이 달려있다. 발사시간이 근접될 때면 소형의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이 철통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 철통의 작용은 마치 발사된 탄환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즉 이렇게 해서 상층의 로켓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내부에 장치된 로켓들이 일정시간이 되어도 발화되지 않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연소할 때 인공위성의 전체가 상궤(常軌)를 벗어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다.

발사대(發射臺)에서 궤도(軌道)에 오르기까지

발사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무게 65,000파운드와 추력 83,000파운드의 이 거대한 제1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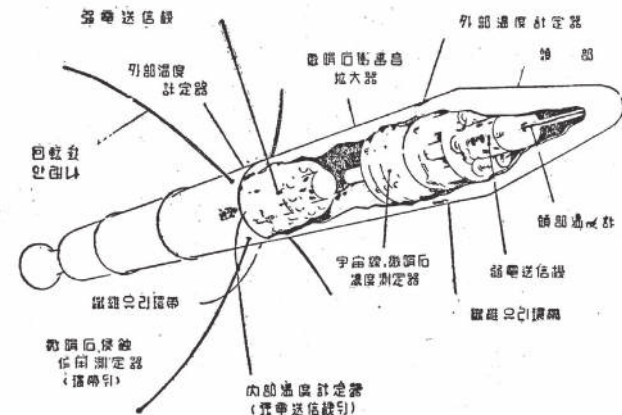
계 로켓은 발사대로부터 땅을 박차고 상승하기 시작한다. 제1단계의 로켓은 150초 동안 연소한다.

그런데 제1단계의 연료가 지상으로부터 고도 60마일 상공에서 연소를 완료하면 레드스톤 유도탄부는 동체로부터 이탈하여 낙하한다.

그런데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속력이 증가될 때 자이로스코프(回轉儀)와 같은 상승 장치의 조종으로 노즐부를 통해 압축된 공기의 분사로, 인공위성은 지구와 평행하는 방향으로 경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동작은 240초 동안 계속된다. 이때 인공위성은 제1단계의 추진력이 미치는 최절정에 달하여 점차 회전할 궤도의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이러는 동안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모든 신호는 지상에 장치된 여러 기기의 복잡한 조작을 통해 수신되는 것이지만 특히 독일 출신의 과학자 에른스트 스톨링거 박사는 복잡한 기계 앞에서 로켓의 제2단계 발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인공위성이 본궤도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다. 제1단계를 투하하여 단축된 위성체가 200마일 상공에 도달하여 정확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을 때 스톨링거 박사는 스위치의 버튼을 누른다.

전기장치에서 발사되는 무전신호의 명령 하나에 11개의 소형 로켓은 일제히 불을 뿜고 레드스톤 유도탄의 두부를 폭발시킨다. 이 로켓들은 불과 6초 동안에 연소된다. 이것이 끝난 2초 후에는 새로운 3개의 로켓이 처음 11개가 연소하고 남은 빈(空) 철관을 하늘 위로 밀고 올라간다. 로켓을 운반하는 중앙부의 로켓은 최후에 발화된다. 위성체는 시속 18,000마일의 선회속도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경미한 실패나 고장도 없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하늘을 날고 있다.

<인공위성 '탐험' 호 약도.....>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선회궤도(旋回軌道)는?

북극과 남극을 종단하는 소련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달리 미국제 인공위성 익스플로러는 적도선에서 34도의 위도선을 통과하는 지구의 중간지점의 궤도를 선회하며 최저 지점으로 미국의 애틀랜타 이북을 통과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고 선회궤도는 1,700마일 상공이며, 최저는 200마일 상공이고, 140초 만에 지구를 1회전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위성은 대기권으로 하강할 우려가 없을뿐더러 소련제 인공위성보다도 더 높은 궤도를 선회하는 가장 안정성 있는 위성이라고 한다. 어느 과학자를 막론하고 익스플로러가 우주권 내에서 얼마나 회전할 것인가에 대해 예언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육군 유도탄 연구주임 윌리엄 피케팅 박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제 인공위성이 선회하는 궤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피케팅 박사는 인공위성의 상층(顛)부를 발전시킨 과학자이다.

그런데 육군유도탄 연구소 책임자 존 B. 메드라스 소장은 적어도 10년은 우주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인공위성이 보여준 한 개의 장해는 예상한 것보다도 약간 고고도를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인공위성의 기기 저장부를 연구·개발한 아이오와 대학의 제임스 반 알렌²³⁾ 박사는 “훌륭한 선회궤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는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익스플로러의 주요 목적은 지구상으로부터 일정한 고도차에서의 우주선의 존재량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궤도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시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상조건 하에서만 이 인공위성은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지극히 소형이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스미스 소니언 천문관측소장 프레드 휘플 박사는 인공위성의 타원형 궤도가 저고도로 미국을 통과할 때만 목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선회궤도가 최고에 달하여 미국 상공을 통과할 때는 망원경이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데 익스플로러는 스푸트니크 1호를 따라다니며 육안으로도 분명히 보이던 로켓과는 달라, 적어졌다 커졌다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것은 인공위성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자재한 자이로스코프처럼 우주에서의 그의 지향점은 일정하다. 지구를 회전할 때의 인공위성의 중심방향은 같은 거리에 있는 별을 가리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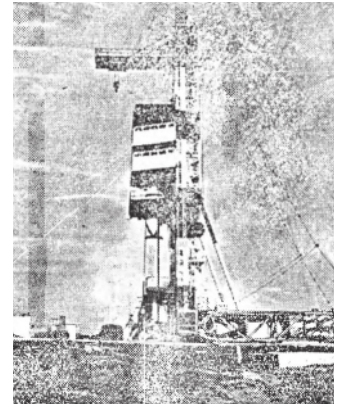
위성(衛星)에 장치(裝置)된 각종(各種) 기구(機具)

회전체는 타고 남은 로켓 탄피를 포함하여 길이 80인치, 직경 6인치이며, 무게는 30.8파운드이다. 인공위성의 무게는 18.13파운드이고 그 중 외피가 7.5 파운드이며 나머지 내부장치가 11파운드쯤 된다. 내부 장치란 측정 기구를 말한다.

23) James Van Allen

중량이 스푸트니크 1호(로켓을 포함하지 않고 184 파운드)나 스푸트니크 2호(개와 로켓을 포함하여 1,120파운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만 익스플로러가 장비하고 있는 측정 기구는 너무나 가볍고 많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제 인공위성에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계획된 반 알렌 기구통에는 3개의 측정기구가 장치되어 있다. 우주선, 운석 및 온도측정 계기 등이 그것이다. 우주선 측정계는 인공위성을 통과하는 32카운트의 우주선량을 알려준 가이거 뮐러 계수관이다. 이 우주선 측정계는 인공위성이 발사되던 즉시로 동작해 왔다. 운석계는 우주를 흩어져 날아다니고 있는 적은 모래알 같은 고고도의 우주진(宇宙塵)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 속에 있는 예민한 마이크로폰은 인공위성이 운석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진동도를 측정한다. 진동도란 것은 충격의 강약으로서 안다. 또 하나의 운석 검출계는 인공위성 외부에 있으며 극도로 예민한 철선으로 된 12선의 격자이다. 열두 줄의 철선 중 어느 것이든 직경 5마이크롬(50분의 1인치) 이상의 운석분자와 충돌하면 이 철선은 단절되고 동시에 그 충돌시의 손도(損度)를 알려 준다. 이 운석측정 및 운석검출계는 미 공군 케임브리지 연구본부에서 제조하여 제공한 것이다. 온도측정계는 4개의 위치에서 인공위성의 온도를 측정한다. 즉 인공위성이 선회할 때 지구의 한랭한 음지와 태양광선이 직사하는 지구상 지점의 내, 외부를 측정한다. 두 개의 한난계는 인공위성 표피의 전, 후방에 부착되어 있고 한 개는 내부 장치와 같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인공위성의 원추형 두부에 있다. 이렇게 하여 4개의 한난계로부터 얻는 한난(寒暖)에 관한 많은 정보는 인간이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할 때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기온상의 장애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구에 의해 수집(蒐集)된 많은 정보는 저마다 축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총 중량 2파운드의 미소한 무전송신기를 이용하여 지구상으로 송신된다. 주파수 108.3메가사이클에서 1,000분의 60와트의 출력으로 발신하는 그 중 강력한 송신기는 약 2나치 3주간 송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108메가사이클에서 1,000분의 20와트로 송신하게 되는 소 출력의 송신기는 약 2 나치 3개월 동안 송신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탐험호를 싣고……주피터>

어떤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는가?

미묘한 출력의 두 개의 송신기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는 실로 미약한 것이지만, 소련제 스

푸트니크가 발사하는 뽀뽀하는 소리와는 달리 약간 변조된 연속적인 음성은 공식적인 인공 위성 전파수신소 뿐만 아니라 라디오 아마추어들에게도 널리 청취되고 있다. 한편 이 신호를 어떻게 청취하며 어떤 정보로 번역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는 자유로이 이보다 먼저 세계각처의 관제 각 부문에 배달된 바 있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소련제와는 달리 이렇게 하여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에게 널리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신호음의 주파수는 라디오의 햄(HAM)(붕붕하는 소리)보다도 약간 높은 주파수이지만 20이나 40 메가사이클 대에서 발하는 소련제 인공위성의 주파수보다도 더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특제 마이크로 로크 신호수신소가 제트 추진연구소의 제안으로 플로리다의 인공위성 발사장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부근에 있는 어스퀘이크 벨리²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영국이 운용하는 2개 척의 수신기가 나이지리아 제2의 도시 이바단²⁵⁾과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시속 18,000마일이라는 엄청난 고속도로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에 의해 인공위성이 수신지점에 접근할 때와 소원할 때에 음의 주파수에 현저한 차이를 일으킨다. 수신소에 접근할 때면 신호음의 주파수는 높아지고 소원해질 때는 음의 주파수는 낮아진다. 이렇게 하여 수신소의 청취자는 신호음의 변화를 분절함으로써 인공위성의 정확한 속도의 변화를 추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지향성 공중선은 인공위성의 선회 중의 위치를 알려 준다. 인공위성의 송신기가 작동한 이후에 얻은 증거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궤도상 위치는 소련제의 스푸트니크보다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익스플로러가 기대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걸쳐 궤도를 서서히 이동시킨다면, 이 또한 지구의 중력장의 불규칙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로 접근하는 전파의 굴절도와 페딩(신호에 강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 신호가 통과해온 이온층의 위치에 관해 알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이 최초로 저속도로 지구편으로 접근함에 따라 대기권의 상층에 있는 공기의 농도인 에너지의 실락(失落)의 정도를 측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서 대양을 횡단하는 것만으로도 대륙과 대륙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제도가(製圖家)를 괴롭히고 있는 허다한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추산이 정확하다면 북미주와 유럽 대륙이 서서히 소원해지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의문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앞으로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의 더욱 더 정확한 탄착거리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來日)의 월세계(月世界) 여행(旅行)은?

오늘날 가장 우리들의 특기해야 할 것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한층 신예(新銳)의 측정기구

24) Earthquakes in Valley Center

25) Ibadan

나 새로운 형태의 유도탄 덕분에 성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걸쳐 이미 생산되고 있던 육군의 레드스톤은 사실상 제2차 대전시에 독일이 사용하던 V-2로켓탄의 개량품이다. 뿐만 아니라 소형의 로켓과 철통을 가지고 있는 주피터 C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부의 유도기구나 방향조정장치 혹은 신호수신장치 등 어느 것 하나 새로이 발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위성 그 자체와 로켓을 제외하면 거의 다 기성품의 조립에 불과한 것이다. 폰 브라운 박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인공위성에 몇 가지의 장치를 더 하면 현재보다도 50%는 더 무거운 짐(荷)을 궤도상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브라운 박사나 다른 육군 과학자들은 다 같이 레드스톤 유도탄은 비교적 소형의 로켓이며 소련이 발표한 스푸트니크 1, 2호나 미국이 시험하고 있는 아틀라스나 토르보다도 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트 추진연구소의 잭 플로리치 박사는 육군의 주피터 형 로켓은(주피터 C와 별개의 유도탄) 더욱더 큰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상승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달세계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러한 종류의 여러 계획은 현재 신중히 진행되고 있다. 육군 측의 한 대변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궤도를 통과할 때 지구의 사진을 찍어 무전이나 텔레비전으로 송신하는 무게 500파운드의 군사정찰용 우주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육군대변인은 육군 현재의 레드스톤 유도탄보다도 12배나 강력하며 100만 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로켓 모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폰 브라운 박사는 앞으로 종래와 다른 장비를 한 인공위성이 지구상의 궤도를 따라 우주를 여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사람을 지도한다는 것은, 그의 명예와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도한다는 그 자체는 명예요 직분일 따름이지, 특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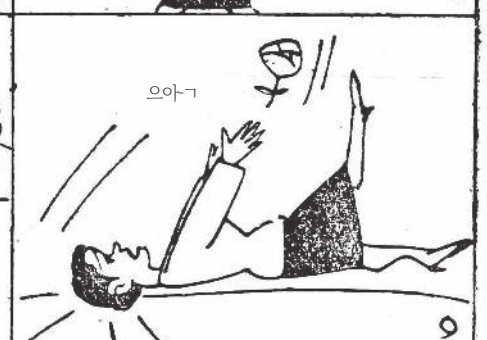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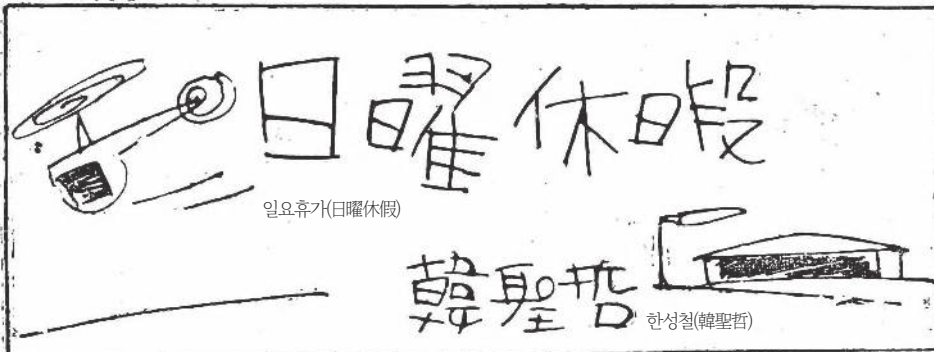
(앙드레 모로아 - 프랑스, 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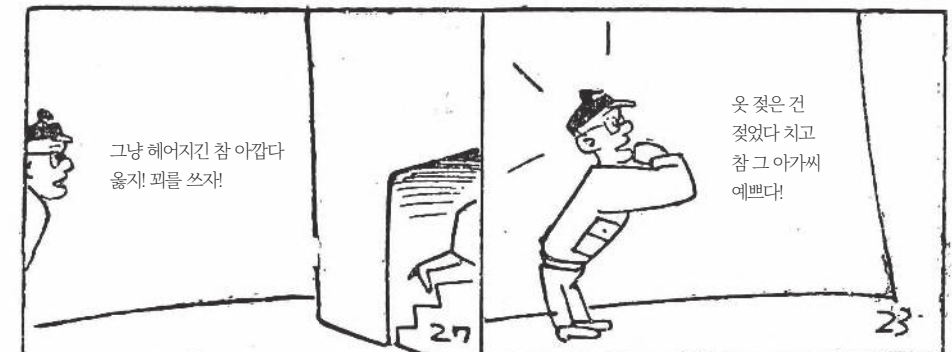
★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습관의 장벽을 쳐부셔야 한다. 이 장벽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독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뉴 - 프랑스, 인생비평가)

★ 오만을 기르지 말며, 욕망을 제멋대로 말고, 뜻을 채우지 말 것이며, 낙을 지나치지 말 것이니라.

(『예기(禮記)』 - 중국고서(中國古書))





☆ 해외만화선(海外漫畵撰) ☆



(1) 로켓 청소기
앞으로는 청소도 제트 추진력을 이용하도록.....
(발명특허 W29528호)



(2) 수평선?
“저 수평선에 있는 배 말이야.....”
“아니, 배를 보는 거야, 여자를 보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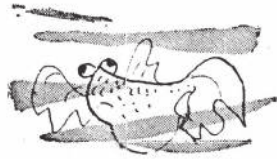


(3) 샘내는 유도탄
“어머나, 깜빡 잊었어요.
내 보이 프렌드가
유도탄기지에 있는 걸.....”



(4) 초초한 사냥꾼들
새는 틀림없습니다!

베스트 골프 (2) (your Best Golf)



토미 아머 저(箸)

제4장 연습장(練習場)의 티(tee)에서

골프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비난하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 골프는 업무로부터 즐겁게 해방되는 것이지, 형태를 달리하는 탄 업무에 시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히 하고 학과를 시작하려고 한다. 즉 우리들은 사활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공을 친다는 목적만을 가진 즐겁고도 흥미 있는 모험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독자가 공을 훌륭히 치지 못하더라도 곤란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교습을 한 후에 잘못 친다면 곤란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과목은 전혀 공포심 없이 시작해 주기 바란다. 이 공포심은 초보자나 또는 표준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샷을 실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스타트를 하지 않는다. 대선수가 시험 전에 하는 것처럼 생도는 모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운동을 해야만 한다.

틀림없이 독자들은 왜 이 책에서 클럽(club)을 쥐는 방법이라든가 기타의 기술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하고 이상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실제 티(tee)위에서 할 수 있는 과목에 되도록 가까운 것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의 기분을 과목에 맞도록 정비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과제로 덮어놓고 들어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생각하기 전(前)에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大部分)의 샷 그르친다〉

이것은 공을 치려고 근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교습의 제1보는 상대방인 생도와 잠시 잡담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에게 우선 교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분이 들 필요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 후에 나는 교습에 임한다. 부연할 것은 생도들 중에는 남자들 외에도 소녀라든가 부인들도 많다. 사실 내가 교습한 중에서 가장 만족할 만하고, 가장 진보가 빠른 상대는 여자들이다.

부인들이 어떤 때 남자들보다 숙달이 빠른 것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에게 대해 가르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들 중에는 골프의 이론이나 비결에 대한 관심이 많아 나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이 많다.

남자들의 골프와 여자들의 골프 간에는 근본적인 이상점이 없다. 단지 부인들의 골프란 남자들의 골프의 소형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골프 코스의 혼잡은 부인들에게 충분히 실습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그 때문에 스코어 상에서 진보가 늦는 게 아닌가 싶다.

부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교습을 잘 받아들여 그 반응이 좋은 것 같다.

남자들 중에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훌륭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선천적 재능을 살려 골프를 하는데 적합시키는 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운동가도 아니며, 또한 평상시의 직업 때문에 예민한 신체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도 없지 않다.

골프에서 부인들이 남자들을 능가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부인들이 테니스, 야구 등에서 남자들의 위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골프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부인들로서는 그들의 골프 수준이 남자들보다 비교적 빠른 진척을 보임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필요에 따라 생도에게 지도와 실습을 적당히 조정된 연습방법을 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좋은 착상이었다. 나는 교습시간 할당이 꼭 차 있기 때문에 생도 한 사람에게 일주 3회 이상의 교습은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생도에게 교습하지 않는 시간에는 실습에 열중하도록 말하고 있다. 다음 교습의 예정일까지 이미 배운 것을 실습을 통해 체득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진보가 늦는 것 같다.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런 사람에게 소요할 시간이 있다면, 그보다 많은 다른 생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적당한 구실이 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숙제 - 골프 실습 - 를 하지 않는 생도는 선생을 괴롭히고 교실 안에서 도외시된다.

이와 동일한 사고가 내가 가르칠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이것을 즉시 적용하지는 않지만, 나의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데, 독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나는 아침나절에만 가르친다. 동계중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중이다. 오전 중은 상대방의 기분도 신선하고 기억력도 좋으며 반응도 정확한 상태에 있다. 종일 교습을

계속한다는 것은 나로서도 너무 피로하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골프를 한다. 또 기분이 나면 지도의 한 방편으로서 생도와 같이 돌며 가벼운 기분으로, 어떻게 현명한 골프를 할 것이냐의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코스과 씨름을 하려는 골퍼가 너무 많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가를 시범 보인다. 즉 그들의 곤란한 샷, 실패의 샷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사고방법을 훈련시키고 코스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처할 방법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오전 중은 생도에게 샷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보내고, 오후에는 그 사람들을 실제 경기를 연습시키는데 보내고 있다.

〈대부분(大部分) 골퍼는 3개(個) 부분(部分)으로 분별(分別)된다. 스트로크(Stroke), 코스(Course) 그리고 상대방(相對方)〉

나는 최초의 2개 부문에 관해서는 가르칠 수가 있다. 제3의 부문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대부분은 경기의 위기에 처해서 평상시보다도 훌륭한 샷을, 때로는 자기의 역량 이상의 훌륭한 샷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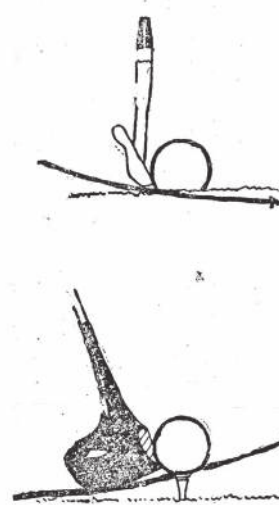
나의 골프 지도법의 구성은 할리우드의 무대감독 방식과 흡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냉정하고 계산된 실제적인 심리학으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능률의 교육학이 해야 할 일이다.

나한테 오는 생도 중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실업계, 기술계, 사교계, 연극영화계, 골프를 포함한 운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나는 이 사람들의 분야의 지위라든가 동등 그 이상인 것, 또 교습시간 중 책임의 태반은 나에게 있기에 나는 명령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교습은 모두 1시간씩이다. 이 시간을 육체적 및 정신적인 양 방면의 지도에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제와 기질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상대의 아이언과 드라이브에 대해서 동시에 가르치지 않는다. 드라이브는 공을 공중으로 쳐 내는 것이다. 아이언 샷(iron shot)에서는 공이 홀(hole)에 세워진 기간(旗竿)을 향해 기분 좋게 날아가도록 산뜻하고 정확하게 클럽을 공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드라이버(driver)는 업스윙(upswing)의 시초(始初)의 찰나(刹那)에 친다.〉

〈아이언은 다운스윙(downswing)에서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2종의 쇼트에 관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나는 과제를 분리한다. 나는 연습장에서나 이 책에서나 그저 되는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한 가지 점을 한 시각에 명백히 이해시키고 깊이 체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과제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체득시킨다는 방식의 좋은 예로 유명한 부인 골퍼의 경우가 있다. 내가 지도하는 1기간 중 2주간을 그 여자는 #6, #7, #8 아이언만으로서 전념케 했다.

그 여자는 부인 골퍼로서 아이언을 가장 잘치는 사람으로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허튼 지도와 연습방법으로 그와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나는 생도와 처음의 잡담을 끝내고 생도들의 태도나 요구 등 골퍼의 지능검사 등으로 힌트를 얻

으면, 다음에는 #8 아이언으로 20까지의 샷을 하도록 해 본다. 이때부터 나는 상대방의 능력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간파할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의 육체적 자질을 연구한다. 상당한 목표를 진보할 수 있는 강인(強韌)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것이 잘 조화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또는 자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짐작한다.

나는 티(tee) 상의 양산 밑에 앉아서 조수가 차례차례로 공을 티에 올려놓는 동안 줄곧 숙고한다. 과제에는 새로운 공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 생도들은 당면(當面)한 일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않는다. 나의 조수는 여름 동안에 훌륭한 클럽에서 직업교사를 하고 있다. 그는 많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공을 어떻게 정확히 티 앞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기묘한 것은 이 명백하고도 간단한, 바보라도 틀리지 않을 극도의 적은 것에 많은 골퍼들이 불행하게도 무지한 점이다. 조수는 생도가 친 공이 나는 상태를 나에게 말해 준다. 나는 생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공이 왜 이런 상태로 날았는 지를 알게 된다.

#8 아이언은 공이 높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표로서 사용된다.

탑(top)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몸을 딱딱하게 만든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얼마간 알고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이 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싸운다는 것은 헛수고이다. #8 아이언이면 공을 반드시 쳐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8 아이언은 클럽 중에서도 가르치는데 가장 좋게 되어있으며, 가장 속

습(熟習)하기 쉬운 클럽이다. #8 아이언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클럽을 사용해도 그다지 고생하지 않는다.

#8 아이언은 골프가 서투른 사람이나 또는 표준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코스를 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다. 드라이버나 기타 우드 롱 아이언(wood long iron)은 때때로 미스를 하더라도 만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8 아이언으로 치다가 실패하면 그것은 반드시 원 스트로크(one stroke)의 손실이 된다.

#8 아이언의 중요한 것과 정확한 사용법을 가르치고 나면, 지도상의 노고는 8할이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 숏 아이언(short iron)을 교습하는 것은 모든 샷에 공통된 중요한 점을 교습하는 것이며, 또 자신을 갖게 하는 귀중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골프에서 공포심이 야기하는 가공할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기술했다.

에버리지 골퍼(average golfer)는 벙커(bunker) 너머로 피치 샷(pitch shot)을 할 때는 돌처럼 굳어진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잃고, 정신의 집중과 조화를 잃는다. 그 샷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공이 모래 속으로 떨어지거나 않을가 하는 공포심 때문에 균형을 잃고 힘을 너무 준다. 숙달한 사람은 최초의 겨냥으로 벙커를 내다볼 뿐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것은 심중으로부터 사라진다.

그는 그 샷을 할 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다지 각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침착하게 자신을 가지고 샷을 한다. 골프처럼 왕왕 결과에 대한 공포심이 중요한 관계를 갖는 스포츠는 없다. 그래서 나는 생도에 대해서 정확함과 힘의 조화보다도 정확한 것을 필요로 하는 샷의 타법을 우선 소개하고 빨리 자신을 갖게끔 노력한다. 이것은 생도의 자신을 배양하지는 기본적인 과제를 우선 해결한다. 에버리지 골퍼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롱 아이언이나 우드를 정확하게 칠 수 없다. 그가 그런 샷을 틀림없이 했어도 자기는 어떻게 쳤는지 모른다.

〈오랜 경험(經驗)으로서 나는 우선(于先) 숏 아이언(short iron)을 충분히 이해(理解)하고 체득(體得)한 후(後) 긴 클럽으로 옮기는 것이 교습을 하는 측(側)이나 교습(教習)을 받는 측(側)에도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基本的)인 연습(練習)은 숏 아이언으로 하는 것을 강력(強力)히 권고(勸告)한다〉

나는 6개의 과목을 일조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초의 4개의 과목은 #9 아이언에서 #5 아이언까지의 짧은 아이언으로 하고 있다. 훌륭한 골퍼들은 모두 손과 발이 강하다. 골프에 요구되는 근육은 많은 시합과 연습을 통해 발달한다. 에버리지 골퍼(average golfer)는 신속하고 힘 있는 동작으로서 클럽(club)을 조정할 정도로 적절한 근육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로서 표준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클럽을 너무 힘들여 쥐지 말라”는 말을 에버리지 골퍼는 지나치게 험겁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숙달한 사람은 대단한 편하게 클럽의 상단을 쥐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은 핸디캡이 많은 초보에게는 상당히 강하게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따라서 초보자는 어떤 방법으론지 전박(前膊)과 손가락을 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다. 테니스에서 공을 쥐는 것 같은 간단한 것도 매우 유익하다.

이와 같은 연습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생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이 그립(grip) 연습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시범을 보일 수는 없다. 독자들은 이와 같은 연습을 시작할는지 모르나 대부분 오랫동안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약점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만이라도 지적해 두는 것이다. 정말로 우수한 골퍼란 다른 운동경기에서처럼 우선 재능을 가진 사람이며, 둘째로는 그 운동경기에 적합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질로서의 셋째 번은 실패에 구애받지 않고 재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에버리지 골퍼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점에 그다지 적합한 것 같지 않다. 이 세 가지 점 중에서 어떤 점으로나 명수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점들에 대한 무지를 극복한다면 적어도 다소나마 우수하다는 측에 근접할 것이다. 나에게 교습을 받으러 오는 생도를 중 약 9할은 아주 흥미상태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죄는 아니다. 현재의 과학은 정신과 근육과의 협동작업에 관해서 극소한 것만을 알 뿐이다. 이처럼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기 위해 나는 생도에게 최초의 20개의 공을 치게 한 후 몸을 쉬게 하고, 상호 당면한 상태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목적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에 좀 더 공을 치게 한 후 또 서로 의견을 교환케 하여 이해를 조장시킨다. 그러므로 가령 잘 생각하고 훌륭하게 근육을 사용해서 샷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숙달한 생도라도, 1시간이라는 과목연습에서 80개의 공을 치기는 극히 드물다. 나는 적극적인 기분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학자습에 도움이 된다. 자기의 샷이나 게임에 관해서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코스에 나가서 샷에 실패한 후 “말한 대로 했는데...” 하고 변명을 하는 잘못은 없을 것이다. 좋지 못한 샷을 한 것은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했는가, 또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성서중에 “당신은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소극적인 가르침의 좋은 예이나, 강하게 “당신은 행하라”라는 방법은 골프에서는 결과가 좋다.

〈샷을 실패(失敗)했을 때 행동(行動)의 어떤 곳이 나빴느냐 하는 것을 결(決)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정확(正確)하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다음 샷을 하라〉

이와 같은 훌륭한 충고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것에 유의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나로서는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생도들은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하고 묻는다.

생도들의 잘못된 점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샷을 하는 도중에서 올바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부분의 필수조건의 한 가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애버리지 골퍼는 뭔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오해와 혼미에 빠져버려, 무엇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나는 정확한 방법을 항상 명확한 초점 위에 놓고 생도가 실패한 샷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야 한다. 다음 샷을 정확하게 한다는 과제에 자신 있는 태도로서 기분 좋게 전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게임을 위해 가장 득이 된다. 나의 교습은 모든 것이 득책(得策)이 될 수 있는 관습을 기르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생도는 처음에는 스트로크를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얼마 후엔 공을 향해 스윙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끝내는 습관을 갖게 된다.

어떤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스윙의 도중이면 스트로크를 완전히 수행하는데 위험천만한 방해가 된다. 스트로크는 극히 재빠르게 행하는 것이므로 주도(周廻)한 신경과정이 근육에까지 생각할 잠이 없다. 따라서 공을 때리는 중도에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명료한 일이다.

독자가 골프를 하는데 해야 할 큰일이라면 공을 정확하게 친다는 것 이외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스윙을 하는 도중에 중심에 들어오는 세부(細部)의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스윙을 그르치는 것은 이 부분적인 사소한 것이지 극소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정신집중에 관해서 특히 가치 있는 요소는 - 가장 우수한 골퍼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 모든 것을 이처럼 방해가 되는 사소한 것을 일소하여 중심에 접근치 못하도록 하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백스윙(back swing)을 시작(始作)하기 전(前)에 마음을 결정(決定)하고 그 후(後)에는 근육(筋肉)에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이쯤 하면 만약에 독자가 〈보카 레이튼 클럽〉의 나의 연습장에 오면 어떤 것이 행하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나의 지도 코스는 독자들이 단지 샷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연구적인 연습을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으로서 막상 경기를 할

때 근육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뇌는 골프 코스를 어떻게 하면 좋은 스코어로서 둘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자유로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클럽(club)은 어떻게 사용(使用)할 것인가?

생도는 언제나 올바른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적인 부호(富豪)라고 말하는 실업가 몇 사람이 나에게 교습을 받으러 왔다. 예에 따라 나는 그들의 체격이나 그 약점을 대강 파악한 뒤 몇 개의 공을 치도록 해 보았는데 도중에 그것을 중지시켰다.

그 사람들이 산 클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상급이었다.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탄 사람에게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나는 그들의 골프를 속달·향상시키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두뇌를 쓴다(물론 이에 대해 그들은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그것에 비해 정확하고 알맞은 도구를 구입하는 것은 그들의 투자 중 가장 저렴한 부분 일 것이다.

〈골프 향상(向上)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단(單) 하나, 정확(正確)하고 알맞은 클럽뿐이다.〉

몇 천 명이던 골퍼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클럽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클럽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선수이든, 토너먼트의 부정기적 수입에 의지하는 직업 선수이든 우승에 근접하는 것까지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물며 스코어를 줄이는데 일일이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자기의 클럽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경우가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특히 옛 골퍼에게는 군말 없는 사실로서, 그 스윙은 오랫동안 모르는 사이에 변화해 왔는데, 변함없이 그들은 받지 않아도 좋은 손을 보게 되는 클럽을 사용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은 처음 골프를 하고난 후 감상을 말하기를 “골프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도구로 경기를 하도록 악마가 고안한 게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처칠이 최초의 플레이에서 되는 대로 그저 주변에 있는 세트를 사용했다면 도구의 비난에 대한 그의 언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알라.”란 말은 골퍼에게 “자기의 클럽을 알라.”라는 중요한 충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골프 클럽의 작용을 잘 고찰해 보자. 클럽 페이스(club face)는 어드레스(address)로부터 스윙(swing)이 끝나는 데까지 20피트에서 26피트 가량의 거리를 움직이게 된다.

자기의 눈과 총신의 조준과의 사이가 짧은 거리를, 이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

클럽 페이스의 1평방인치 가량의 면으로 직경 1.68인치의 구의 하나의 점에 - 더욱 단 한 점에 - 정말하게 맞춰야만 한다는 것에 주의하는게이 좋다.

이와 같이 정말하게 맞추기 위해 신체를 틀어 돌리고, 발을 움직이며, 어깨를 회전시키고, 양팔을 휘둘리며, 손목을 움직이고, 손가락까지 움직이게 한다. 더구나 대부분은 두뇌마저 필요 이상으로 활동시키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와 같은 동작은 정확하게 공을 치기 위해 완전한 스윙을 하는 동작의 리듬(律調)으로서 조화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일체 동작의 목적은 공을 대단히 먼 거리에 있는 직경 4.25인치의 홀에 넣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잘 맞는 도구로 가능한 한 일을 단순화함이 좋다는 것은 명백하다.

<골프처럼, 도구(道具)와 사람과의 정확(正確)한 적합(適合)을 이룩하기 위(爲)해서 많은 사항(事項)들이 엄격(嚴格)히 고려(考慮)해야만 하는 게임은 없다.>

따라서 골프를 쉽게 하기 위해 클럽의 설계나 제작에는 많은 고심과 자력이 든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되었다 하더라도 골프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 것이므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흥미를 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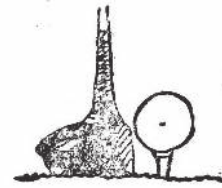
더욱 우수한 클럽을 제작하는데 소비되는 시간, 재능, 자금이 그 클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상쇄되는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다. 사용하는 클럽의 성질을 모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드라이브(drive)의 공을 티업(tee up)할 때 나타난다.

80이나 그보다도 많은 스코어를 내는 사람으로서 드라이브의 경우 티업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드(wood)의 티 샷(tee shot)으로 잔디를 쳐내는 것은 기묘한 타구를 했다든가 자체에 맞지 않는 클럽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티업의 방법이 틀렸던 경우가 많다.

<애버리지 골퍼(average golfer)는 드라이브의 경우(境遇)에 공을 너무 얇게 티를 한다. 능숙(能熟)한 사람은 높게 티업한다. 그 높이는 드라이버를 공의 뒤에 댈 경우(境遇) 그 헤드(head)의 위에 공이 반(半)쯤 올라와 있는 것이 보통(普通)이다.>

이 오류의 원인은, 드라이버는 그 업스윙(upswing)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공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클럽 헤드(club head)도 그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드라이버의 헤드는 샷을 할 때 안정률이 충분하도록 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높이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실패를 피하려고 공을 얇게 티업



한다. 이 높이 올리는 샷은 대체의 샷의 경우, 두 손 대신에 몸 전체를 내던짐으로써 밸런스를 잃는 것이 원인이다. 내가 드라이버를 가르칠 때는 우선 조수에게 최초의 20개의 공을 티업하도록 한다. 다음에 생도에게 20개의 티업을 시켜 보는데, 언제나 반 인치 가량 얇게 티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클럽의 사용법을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티(tee)를 사용할 것인가

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급 정도의 사람에게는 드라이브의 로프트(loft)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보다도 약간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로프트가 극히 적은 드라이브는 중급 정도의 사람에게 페어웨이(fairway)가 현재처럼 습중(濕重)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상당히 쓸모 있는 클럽이었다. 그 당시에는 공을 딱딱한 페어웨이로 내쳐서 멀리까지 바운드를 시켜 굴리고 해서 상당 이상의 거리를 낼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이 충분히 물을 뿌린 페어웨이에는 잔디가 촘촘하다. 코스 관리인이 잔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이상으로 페어웨이의 잔디를 짧게 깎았어도 우드(wood)나 롱 아이언(long iron)이라도 그 공은 기껏해서 수 야드 이상 구르지 않는 게 보통이다. 애버리지 골퍼라면 강한 맞바람이 아닌 한 우드 클럽(wood club)의 #2로 티에서부터 치는 것이 득책이다. 맞바람에 대해서는 샷을 높이 쳐올리는 것보다는 얇은 공을 쳐서 거리를 내는 것이 좋다. 맞바람의 경우에는 15야드로부터 50야드까지 달라진다.

<티업의 방법(方法) 중 최후(最後)로 말할 것은 숏 홀(short hole)에서도 항상 공을 티업한다는 것이다.>

표준 역량 이상의 기량을 가진 골퍼는 얇은 라이(lie)에서도 샷을 할 만한 기교, 판단, 자신을 갖고 있으나, 80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티에서 하는 타구에서 불필요한 불리를 스스로 초래할 필요는 없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해리 바든²⁶⁾과 같이 코스를 돌면서 하나의 교훈을 받았다. 그때는 공을 티 그라운드(tee ground)에 아무렇게나 떨어뜨려 놓고, 이것을 치는 것이 스마트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표준역량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그 바든이 숏 홀에서 티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해도 좋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티업을 하고 있다.”

바든은 우수한 기교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 그는 자기의 실력을 필요도 없는데 스스

26) Harry Vardon

로 시험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게임을 가능한 한 쉽게 하려는 가장 노련한) 잊지 못할 좋은 적예(好適例)라고 생각했다. 비비 존스²⁷⁾도 훌륭하게 되기 전에는 공을 티 그라운드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훌륭하게 되었을 때는 규칙이 허락하는 한 어떤 기회에도 티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 일류의 골퍼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티업을 하고 있다. 독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윈터룰(winter rule)로서 플레이를 하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고집을 부린다면 고상한 골퍼가 될 수 있는 샷은 결코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윈터 룰이란 한 마디로 흥미 본위의 기만이다. 그것은 잔디의 성장을 돕지도 않고 골퍼의 성장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강하기는 하나 확실성이 결여된 골퍼가 있다고 하자. 그가 마치 #8 아이언의 티 샷의 거리라고 생각될 때라도 #7 아이언을 쥐고 티를 너무 높다 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 상식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클럽이 잔디에 걸려 방향을 틀리게 할 일도 없고 훌륭한 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일은 자기의 클럽을 잘 모르거나, 클럽을 자기에게 적합토록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점에 무지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클럽의 설계나 제작에 관여했고, 생산과 판매의 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버리지 골퍼들의 클럽 선택은 가까운 장래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은 80으로부터 90정도의 스코어를 내는 사람이 #2 혹은 #3 아이언의 효과적인 샷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페어웨이에 잔디가 잘 되어있으면 #2 혹은 #3 아이언을 사용해야만 할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으며, 더욱 쉽게 신뢰하고 칠 수 있는 클럽이 따로 있다.

우드 클럽의 경우는 그 촌법(寸法)이나 형(形)으로서도 심리적인 강함이 있으며, 애버리지 골퍼로서는 롱 아이언보다 사용하기가 쉽다. 아이언은 실재는 무거운 것이지만 오히려 적게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생각을 들며 설계를 해도, 대담한 교습법을 써도 대체로 보통 사람은 롱 아이언으로 공을 무리하게 높이 올리려는 만성적인 경향이 있다. 클럽을 내리치고, 클럽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두면 공은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만약에 로프트(loft)가 같은 정도의 #3 아이언이나 #5 우드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면, 애버리지 골퍼에게는 #5 우드의 것이 가장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클럽일 것이다.

나는 페어웨이라 칭할 수 있는 잔디가 있는 코스라면 그곳에서 플레이를 하는 대다수의 골퍼에게 #5, #6, #7 우드가 착실하게 보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27) Bobby Jones

골프 코스의 상태는 코스의 관리자, 잔디의 과학자, 시설의 기술자 등의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 개량되며, 클럽의 사용방법에 대한 조건은 15년 전에 비하면 많이 변했다. 나는 이것을 모든 골퍼들에게 주의시켜주고 싶다.

골프 클럽의 디자인, 재료 제법과 같이 클럽의 샤프트(shaft)도 크게 개량되었다. 이 개량은 스타 선수의 스코어에 반영된 것처럼 대다수의 골퍼의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적합한 클럽을 입수하지 못한데 있다.

〈자기(自己)가 욕망(欲望)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약간(若干) 위피(whippy)한 샤프트를 사용(使用)하라는 것을 나는 항상(恒常) 충고(忠告)하고 있다. 자기에게 저항해서 역운동(逆運動)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爲)해서 움직여주는 클럽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표준역량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의 조화로서 스티프(Stiff)한 샤프트의 클럽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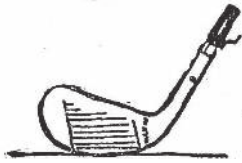
그 이유는 그들의 강한 손과 팔, 그리고 숨쉴 수 있는 스윙의 리듬에 의해서 샤프트에 때리는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버리지 골퍼는 힘이 많다고 해도 기계적인 클럽만을 사용할 수 있다. 클럽의 설계제작자는 골퍼에게 적합하고 사용하기 쉬운 클럽을 만드는 데 대단한 노고를 하고 돈도 쓴다. 클럽의 밑면을 지면에 반듯이 놓으면 샤프트는 거기서 생기는 각도 때문에 위로 뺏는다.

이 각도는 정확하고 편하게 서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스윙이나 히트에 가장 효과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경사이다.

이와 같은 클럽의 라이(lie)는 샤프트의 길이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의 손가락은 대부분 팔을 신체의 양측으로 내렸을 경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로프트(loft)가 많은 클럽에서는 거리보다도 정확한 방향과 구도가 보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라이(lie)와 짧은 샤프트 때문에 볼에 가까이 서서 예리한 샷을 하기 쉽게 해야 한다.

롱 아이언이나 우드로서는 어드레스(address)의 경우, 편하게 서서 클럽 헤드(club head)의 끝이 조금 지면으로부터 뜨는 듯한 라이를 해도 큰 과오는 아니다. 헤드의 끝이 조금 뜬 채로 쳐 오하려 미스를 '해도 좋은 미스'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있다. 하지만 헤드의 뒤꿈치를 지면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치면 백회 중 1회도 좋은 타구를 할 기회가 없다. 퍼터(putter)와 라이(lie) 샤프트와 지면과의 각도와 샤프트의 길이는 개인적인 취미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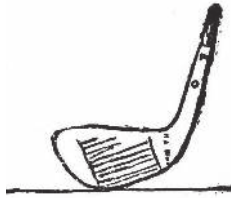
클럽 헤드의 라이(Lie)



솔(Sole)이 지면(地面)과
평행(平行)하다



끝이 약간(若干) 떠 있다



뿌리가 약간(若干) 떠 있다

또 그 취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다. 어떤 시기에는 놀랄 정도로 훌륭한 퍼팅(Putting)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 그 기교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퍼터를 갖고 난 얼마 후에야 그 요령을 회복한다. 나는 이와 같은 허술한 도구, 퍼터에 관해서는 이 책의 후장에서 상세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탄 클럽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욱 결정적인 설명을 해두고 싶다. 개개의 클럽에 관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경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골퍼는 많지 않다. 굳이 지배적인 원칙이 있다면 공을 티로부터 그린(green)까지 가장 용이하고 확실하게 보내는 클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하는 것은 애버리지 골퍼가 코스를 도는데 대체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 #1 우드(드라이버)……맞바람에 대해 티로부터 공은 충분히 티업(tee up)하고
- #2 우드(브라시 - brassie)……순풍에 대해 티로부터 공을 충분히 티업하고

중급 정도의 사람이 티에서의 타구에서 브라시를 사용할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하나의 이유는 캐디(caddy)가 그에게 드라이버를 주기 때문이다. 가방 속에 들어있으니까 캐디(caddy)는 우드로 티에서 쳐야 할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받는 사람도 같이 모르든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캐디가 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어웨이에서 그린까지 250야드 정도니까 브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가 굉장히 좋고 더욱 암풍이 강하면 찬스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중급자 정도면 그린까지 2스트로크의 거리이므로 #3, #4우드로 가볍게 쳐놓고 용이(容易)한 어프로치(approach)까지 이끌고 가서, 다음 핀(pin)에 접근(接近)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우드(스푼-spoon)…… 이것은 중급자 정도가 페어웨이의 좋은 라이에서 우드로서 쳐내는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할 클럽이다.

#4 우드(버퍼-buffy)…… 이 클럽은 페어웨이의 얇은 라이나, 러프(rough) 내에서 라이가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깎집어내는데 사용하면 좋다. 이 클럽으로서 페어웨이에서의 샷을 실패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반쯤 탑(top)을 해도 좋은 미스로서 상당히 나갈 것이다. 러프에서 스푼을 쓸 경우는 공을 향해서 치면 좋다. 그렇게 하면 공은 훌륭히 나갈 것이다. 너무 깊게 친다든가 끌어올리려고 하면, 공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고 만다.

#2 아이언(iron)…… 이것은 위험한 클럽이다. 표준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2 아이언의 로프트는 극소하므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심적 장애가 된다. 그 사용방법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소수의 숙련자가 손에 들면 무서운 무기가 되지만, 그런 숙련자가 아니거나 이 클럽에서 연구나 실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우드를 사용함이 좋다.

#3 아이언……#2 아이언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긴 아이언이다. 중급 정도의 사람이라면 바람이 없는 날, #3 아이언으로서 훌륭하게 치면 160야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다. 혹은 더 먼 거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롱 아이언은 힘들어서 치려는 기분에 끌리는데, 그냥 편하게 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아이언…… 중급 정도의 사람은 이 클럽으로서 잘 치면 140야드 정도의 똑 좋은 거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으로 더 먼 거리를 내려고 생각했다간 샷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

#5 및 #6 아이언…… #2 아이언으로부터 #9까지 번호가 하나씩 많아짐에 따라 비거리는 10야드의 차로 줄어든다. #5, #6 아이언을 사용할 때는 핀(pin)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부터 충분히 공을 높이 올려야만 한다. 높은 구도(球道)를 갖는 공은 정확하게 쳐 있다면 요즘같이 약간 물기가 있는 그린에서는 정지할 것이다. 높은 공은 오버하나 대부분의 샷은 정지할 것이다.

러프(rough)에서 쳐낼 경우에는 페어웨이의 그때보다 #5, 6, 7, 8 및 #9 아이언의 거리를 짧게 계산한다. 그렇게 하면 러프에서의 샷에 무리하게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클럽을 너무 강하게 쥐어 공을 상(傷)하게 할 일도 없을 것이다. #5, 6 아이언은 그린 위를 구르려 하려는 칩 샷(chip shot)에도 유효하다.

#7, #8 및 #9 아이언…… 이들 클럽은 강한 로프트(lof)가 있으므로 정확한 어프로치

**국제적(國際的)인 이발경쟁(理髮競爭)
현재기록(現在紀錄)은 15초(秒)?**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년(當年) 52세의 한 이탈리아 사람은 그의 우수성에 도전해 온 미국의 한 이발사와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폴리시에서 약 1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이발사 보우노 씨는 1954년 8월에 그가 16초만에 한 손님의 한 손님의 얼굴을 완전히 면도함으로써 그 전에 독일 이발사 에미레 알백크 씨가 수립했던 25초라는 기록을 9초나 더 단축하여 큰 명예를 획득했다.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는 루지 보켓 씨는 15초로 면도하여 보우노 씨의 기록을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소식이 보우노 씨에게 전하여 졌을 때, 그는 의심을 표명하고 그의 적대자에 대해 장차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쟁에서 서로 다투어 보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보우노 씨는 그 자신의 명예와 더불어 그의 출생지인 포주올리²⁸⁾ 시의 명예를 걸고 경쟁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이 경쟁이 빨리 개최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대체로 둥근 얼굴일수록 빨리 면도하기 쉬우며, 따라서 소련의 흐루쇼프의 얼굴이라면 12초 미만으로 면도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소한 30초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pproach)를 위해 공을 높이 올리는 미묘한 도구이다. 이것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딴 어떤 클럽의 사용법도 알게 된다.

프린지(FRINGE)²⁹⁾가 있는 니블릭³⁰⁾(각양의 상품명으로서 알려지고 있다)……의 클럽 밑은 췌기모양을 하고 있어 로프트와 스핀이 필요한 벙커 샷(bunker shot)이나 벙커 넘어서 피치 샷(pitch shot), 거리를 낼 필요가 없는 러프에서의 샷에 사용한다.

퍼터(putter)……그런 위에서 사용함은 물론 그린 둘레의 에이프런이 평평하고 라이가 좋을 때는 어프로치에도 가장 유용한 클럽이다.

이것은 또 그린 둘레의 벙커에서 끌어내는 데도 유용할 때가 있다.

공은 모래 위를 굴러, 작은 언덕을 기어올라 깨끗하게 그린 위에 도달한다.

옛 스코틀랜드의 분류법에서는 우드를 플레이 클럽이라 부르고, 아이언을 그린 클럽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클럽의 작용에 관해 상당한 분류법이다. 지금

28) Pozzuoli

29) 그린에 인접해 있는 외곽 지역의 짧은 잔디

30) NIBLICK: 9번 아이언 클럽의 옛 이름

맥주(麥酒)는, 피부병(皮膚病), 위병(胃病)에 유효(有效)?

‘맥주는 액체빵’이라고 옛날부터 독일에 전해 오지만, 이번에 또 다시 바바리아의 한 의사는 말하기를 “맥주에는 중요한 성장요소가 들어 있어 피부병을 방지하고 부러진 다리를 속히 낫게 하는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뮌헨의 영양학자인 빌헬름 슈테프 교수는 <의사가 본 맥주>라는 새로운 저서에서 맥주의 치료상의 가치는 그 성분인 대맥과 효소(酵素)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맥에는 다른 어떤 곡물보다도 비타민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효소는 다량의 비타민 복합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주(飯酒)로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 영양부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펠라그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문둥병 예방요소로 알려져 있는 니코틴 산(酸), 곧 비타민 B2는 맥주의 또 한 가지의 중요성분으로서 맥주를 애음하는 나라에서는 피부병, 위장병, 신경질증을 야기하는 만성병인 이 펠라그라를 볼 수 없다고 슈테프 교수는 주장한다.

그밖에 맥주의 또 하나의 성분인 빅토프라빈(비타민 B2)은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로서 골절상의 치유를 촉진시키며, 그 다음 중요성분 인산염(磷酸鹽)은 육체의 기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2홉 내지 4홉 정도의 맥주를 마시면 건강상 매우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의 클럽의 번호에서는 확실히 그 역할을 항상 정확하게 결정하고 있지 않다.

독자는 클럽의 사용법은 물론 그것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전 문가는 이 점에서 놀랄 만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린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의 어떤 곳이라도 좋다. 85를 때리는 사람을, 다른 어떤 장소에라도 데리고 가 보자. 전문가들은 단지 정확한 클럽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으로 원 라운드(one round)에서 10에서 15스트로크(stroke)를 이기는 것은 틀림없다.

<계속>



<소설(小說)>

혈연(血緣)

장덕조(張德祚)

1.

회사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어서 오너라. 고단하겠구나”

블룩한 빵 언저리에 웃음을 띠며 아들의 서류 든 백을 받아 든다.

다 같이 오십을 넘으면서부터 부친이 점점 말라가는 것과는 반대로 어머니는 살이 찌기 시작했다. 영수는 땀에 신발을 벗으며 두리번거리며 아내 미옥이 있는 곳을 살폈다. 대청마루에서 바른편으로 바라보이는 부엌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잠잠하다. 그 잠잠한 모양이 수상했다. 영수는 그 속에서 일하는 미옥이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다 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내 일을 묻고 싶은 것을 꼭 참고

“명수 내려갔어요?”

하고 탄 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무엇인지 모르게 주춤하는 모양이더니

“오전 통일호로 떠났다.”

한다. 영수의 동생 명수는 부산에서 무슨 무역업 같은 것을 한다면서 며칠 전에 상경해 와서 집에 묵고 있었다. 오늘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였다.

어머니는 간혹 서울에 올라오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가 술도 사 먹고 양담배도 사두었다 주는 모양이였다. 영수도 미혼 시절에는 술도 먹고 마작 같은 것도 하러 다녔으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한 뒤부터는 술과 오락을 다 끊었다. 양친과 아내와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어린 것을 부양해야 하겠으므로 할 수 없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끊었다. 그러므로 그는 저녁 때 간혹 남대문이 쥐구멍만 해져서 모친에게 허풍을 떨고 있는 동생을 보면 울화가 치밀었다. 그 동생의 허풍에 흘러서 맞장구를 치고 앉은 모친에게까지 울화가 났다.

명수는 그 같은 어머니를 우려내 때때로 목돈을 얻어가기도 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영수 내외가 거처하고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와서

“명수가 그러는데 지금 십만 환만 있으면 장사를 해서 당장 몇 곱절을 남길 수 있다는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했다.

영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 돈이 없는 건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래두 꼭 있어야 하나 보더라. 집안 사정을 모르는 아이가 아닌데 난처한 일이 생긴 모양이더군.”

“어떤 사정이 있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월급날까지 먹고 살기도 캄캄한데 저 돌려줄 돈이 어딴어요?”

“글쎄 오죽하니 형한테 의논을 하겠니? 너도 도리는 없겠지만.”

“도리가 있대도 그런 돈 못 해주겠어요. 명수한테 그렇

게 말씀하세요. 저는 독신이고 밥낮 큰 소리 뽕뽕 하고 있으니 외려 버는 돈 좀 집에 올려 보내라구요.”

영수는 지금도 때때로 미옥이 친정에 가서 돈을 얻어 와야 하는 집안형편이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하려다가 참았다. 아내 공을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두 제 형편 아시지 않아요. 일부러 야근을 하고 출장이란 출장은 도맡아 다니다시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제게 그런 돈 마련까지 해내라구 하지 말구 명수한테 어머니 아버지 담뱃값이라도 좀 대라고 이르세요.”

“원, 너도 괜히 그러는구나. 객지에 가 있는 한 피, 한 살, 제동생을 가지고 그럴 게 뭐 있니”

어머니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영수도 그 이상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들은 끼니때면 언제나 안방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명수는 가족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

영수가 출근을 하면서 아랫방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그대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다. 영수는 늦게 일어나는 명수의 시중을 새삼스레 배부른 미옥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그렇게까지 둘째 아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모친까지 원망스러웠다. 젊었을 때 영수 어머니는 미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했고 그 용모와 같이 마음도 상냥스러웠다.

그는 맞아들인 영수가 결혼하기까지 맏아들을 둘째 아들보다 무척 사랑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구두끈까지 매어주던 어머니였다.

그것은 편애(偏愛)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별이었다.

명수도 형만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반항을 한 적도 있었다.

영수를 명수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가 장남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었다. 영수도 어머니로부터 그 같은 관념을 물려받았다.

“나는 장남이다. 장남이기 때문에 이 집안을 이어가고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어렸을 적부터 그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힌 사상이었다.

2.

영수는 건넌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이 건넌방은 그가 총각 시절부터 쓰던 곳이었으나, 양복장이며 이불장이며 예쁜 커버를 씌운 경대 등 7, 8개월 사이에 방 모양이 일신해졌다.

그는 한복 바지에 대넒은 매지 얇은 채 방 아랫목에 퍼놓은 분홍 처네³¹⁾에 속에 두 손을 넣어 보았다. 훈훈한 온기가 여인의 체온처럼 손바닥에 느껴졌다. 아내 생각이 났다. 미옥이 옆에 없는 것이 허전했다.

아내는 지금 틀림없이 부엌 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는

“여보”

하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목소리를 꿀꺽 삼켰다. 어머니가 아직 마루에서 서성거리기 때문이었다. 마치 무엇을 감시하는 사람 같았다. 증풍으로 한편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는데다가 식성이 까다로운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식구의

31) 蓆衣: 부녀자들이 방한을 겸하여 쓰던 내외용 쓰개

생활비는 의외로 많이 들었다. 그달 생활비가 모자라면 미옥은 잠자코 친정엘 다녀온다. 그리고는 돈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귀물을 얻어왔다.

영수가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하면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요새 세상에는 처가댁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얼마든지 남아돌아가는 세상이야. 남자 한 사람에 여자가 한 트럭이란다. 사위 집 사주고 회사 차려주는 사람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단다.”

하기도 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영수 어머니가 둘째 아들 명수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큰아들 며느리에게 대한 반발에서 오는 것임이 분명했다. 영수는 모친의 그 같은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가 보는 데서는 일부러 아내에게 각근(恪謹)히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부리던 계집애도 내보내고 시집온 지 한 달도 안 된 미옥에게 부엌일을 시켰다. 물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앞장을 서서 허드렛일을 했다. 그러나 차차 시어머니는 지휘하는 자리에 물러서게 되고 손끝에는 물을 묻히지 않았다.

영수는 아내가 애처로웠으나 꼭 참았다.

“집안 형편이 그런 모양이야. 미안해”

그는 아내에게만 몰래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다.

미옥에게 임신의 징후가 나타난 것은 결혼한 지 반년도 못되어서였다.

미옥의 친정어머니는 딸이 임신한 것을 알자 부엌일과 빨래 같은 것을 못하게 했다. 그는 사위를 찾아보고

“어린애는 밴지 석 달 전후가 제일 조심스러우니 식모를 구해두고 일을 시키도록 하게.”

하고 경고를 했다. 손을 높이 쳐들어도 안 된다, 차를 오래 태워도 안 된다, 층계 같은 것을 혼자 오르내리게 해도 못쓴다. 이 같은 주의도 시켰다. 그러나 명수 어머니는 끝까지 식모 두는 일에 반대했다. 그 같은 소문을 듣자 미옥의 친정어머니는 영수 어머니를 찾아보고 당분간 딸을 친정에서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

“출가외인이라는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영감이 출장이 잦아 집안이 허전해서 그러니 당분간 그 애를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

하는 것이다.

재무부의 고급관리 부인인 영옥 어머니가 표면 점잖게 이런 제의를 했을 때 영수 어머니는 다만

“의논해 보고 보내겠어요.”

할 뿐이었다. 완곡한 거절이다.

미옥 어머니가 돌아가자 그는

“왕비마마가 포태를 하셨나? 야단스럽게도 구네.”

하며 마누라를 흘겨보았다.

아내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영수는 드디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 처가로 가 버리고 싶었다. 자기네 부처가 이집을 나가면 허풍만 치고 다니는 명수도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가려니 어머니에게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제집을 두고 처가에 가서 부처지내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 미옥은 장모의 딸임에 틀림없으나 자기로서는 남의 집이다. 경우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 영수에게는 그 같은 심리적인 문제보다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옥(家屋)에 관한 일이 있다. 영수가 살고 있는 집은 열서너칸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집이나 영수 부친의 소유였다.

“이집 하나가 물려줄 재산이야.”

하고 영수 부친은 탄식 겸 안심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장차 장자인 영수가 상속을 받을 유일한 재산이었다.

영수는 가옥에 대해 비상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이 집을 떠나 처가로 들어가고 동생 명수가 가옥을 점령하면 이 유일의 재산은 자칫 동생의 손에 떨어지기가 쉬웠다. 명수의 기질로 보아도 그렇거니와 일단 동생이 이곳에서 부모와 동거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면 영수는 후일 그 동생을 내쫓을 도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영수는 따뜻한 처네 아래 손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영수가 지금 버리기를 가슴 아파하는 것은 중풍 걸린 부친과 저를 길러준 늙은 어머니 보다 실상 이 조그만 집 한 채에 대한 권리였다.

“이 집을 내주다니? 어림없지. 이 집은 당연히 우리 부부가 상속을 받을 재산인데.”

그는 곧장이라도 아내를 불러들여 격려의 뜻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싶었다.

바깥에 뛰어나가

“여보”

하고 부엌문을 열어보고 싶다. 그러나 마루에서 서성거리는 모친의 기척을 느끼자 역시 몸과 마음은 돌아들었다. 그는 바른편 팔목에 긴 시계를 보았다.

여섯시였다. 미옥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저녁밥이 다 되었을 시각이다.

“미옥은 저녁준비가 바쁘단 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돌아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는 것은 이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혼자 친정에 간 것이나 아닐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치밀어 별떡 일어서려는데

“저녁 다 되었단다. 건너와 밥 먹도록 해라.”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상냥한 음성이다.

영수는 말없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다. 부엌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미옥이 돌아서서 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

“역시 집에 있었구나, 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모른 척 했어.”

안도와 불안의 상반된 감정이 명수의 가슴속에 흘렀다.

“이상하다.”

미옥은 남편이 마루에 나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편으로는 눈도 주지 않았다. 안방에는 중풍 걸린 부친이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는 역시 말없이 아버지의 정면에 가 앉았다.

어머니가 마루에서 밥상을 받아다 그들 부자(父子) 사이에 놓았다.

조금 있다가 미옥이 다른 상을 들고 들어왔다.

미옥은 이 상에서 밥그릇만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반찬은 시어머니와 같이 먹는 것이다. 그것이 예의였다. 영수는 눈을 들어 밥상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옥도 비로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 문득 시선이 부딪쳤다. 순간 미옥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래?”

힐문하듯 영수가 물었다.

미옥은 밖으로 나가 버린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영수는 내쳐 초조했다. 어머니는 한편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아버지 옆에서 일일이 그 시중을 돌고 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는 그렇게도 말썽스러운 며느님이 남편의 식사 시중을 들 때만은 참는 힘이 대단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까다로운 성미를 일일이 맞춰주고 앉았는 것이다. 영수는 지루한 부친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열린 자기 방으로 건너왔다. 벽에 걸린 양복 호주머니를 뒤져 땀땀을 꺼냈다. 불을 붙여 천천히 연기를 뿜으며 미옥의 설거지가 끝날 시간을 계산해 본다.

3.

두 개째의 담배를 거의 다 태웠을 때 미옥이 손을 훑으며 건넌방으로 들어왔다.

무거운 동작으로 아랫목에 앉는다. 결혼했을 당시에는 날씬한 몸매에 동작도 갓 잠은 물고기같이 발랄했으나 임신의 증후가 있는 뒤로 몸 놀리는 모습이 완연

히 둔해진 것이다.

“왜 그래? 어디 몸이 괴로워?”

영수의 따뜻한 말에 미옥은 갑자기 처녀위에 엎어지며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나?”

영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아 일으키며 급히 물었다.

“왜 그래 응? 왜 그래?”

그제야 미옥은 고개를 들며 손가락으로 눈물을 흘렸다.

“여보, 말을 해야 하잖아? 응,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한테 얘기할 일이 있어요.”

미옥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뭘데 뭐야. 무슨 얘기든지 털어놓구 하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다른 말씀 안 하겠다면 얘기할게요.”

“어머니에게?”

“네, 제애기 듣고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면 큰일나요. 꼭 안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뭐야. 무슨 소리아.”

영수는 한 손을 내밀어 아내의 굵실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촉했다.

“다른 게 아니라 ……”

“그래”

오늘 오전에 도련님 부산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말이에요. 어머니가 애를 쓰시면서 꼭 돈 십만원을 해 보내야 한다고 걱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방에 들어와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더니 당신 몰래 내 가지고 있는 반지, 팔걸이, 귀걸이 그런 걸 잠깐 빌려 달라시는 거예요. 어디다 가져다주고 돈을 마련하시려는 모양이죠.”

“뭘?”

영수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의 관자놀이에 굵은 심줄이 불끈 솟아오른다.

미옥이 가지고 있는 팔찌, 귀걸이, 그런 패물들은 시집에서 해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영수가 해준 것은 결혼반지뿐이었다.

다른 장신구들은 모두 미옥의 친정에서 딸에게 해준 것이다. 그만큼 미옥의 친정은 넉넉했고 아래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하나 있을 뿐 외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재무부에서도 고관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 재무부 고관의 딸과 혼인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일 년 전이었다.

영수는 미옥 아버지와 직장은 다르나 서로 통할 수 있는 회사원이었고 착실하기로도 이름이 있었다.

머리도 좋다는 평이었다. 이 같은 평범한 조건도 신랑감 귀한 시절이라 신부 측의 귀를 솔깃하게 했는지 모른다. 그때 영수는 사실 자신이 없었다. 짝이 기우는 혼인이라 생각했다. 대학을 다니는 상류계급의 딸로 부화한 풍조여라도 져어있으면 큰일이라 주저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다.

그래도 중간에 든 사람이 자꾸 권한 대로 거절당할 셈 치고 미옥의 집으로 선을 보러 갔다.

양실(洋室)로 된 응접실에는 피아노가 놓였고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장모 될 미옥 어머니가 나와 인사를 하고 간단히 학교 다닐 때 일 같은 것을 묻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미옥이 홍차를 날라 왔다.

그 조용한 태도가 단번에 영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여성은 전후파나 그런 것이 아니다.”

첫눈엔 인상이 좋았다. 가슴이 후련했다.

가정교육이 엄하다고는 듣고 있었지만, 처녀의 수줍어하는 모습이 이번 결혼의 모든 호조건(好條件)을 한데 뭉친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영수는 중간에 든 사람에게 우겨서라도 이 혼인을 성립시키고 싶었다.

착실하고 소극적이지만 하던 청년으로서 처음 발휘하는 대담성이었다.

그때 미옥은 S대학 삼학년 재학 중이었으나 엄격하다는 부친은 약혼과 함께 딸의 공부를 중단시켰다. 그들은 석 달 동안 약혼 기간을 두고 결혼을 했다.

결혼식 비용도 신부 편에서 대부분을 부담했다. 가구며 의복이며 침구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패물도 상당히 장만해 주었다.

그때 해가지고 온 며느리의 패물을 영수모친이 빌려갔다는 것이다.

“그게 정말이요?”

무어라 할 말이 없어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당신 앞에서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 주었던 말이지?”

“내 주지 어떻게 해요.”

아침의 통분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미옥의 여윈 듯한 뺨에 증오(憎惡)의 표정이 떠올랐다.

“흠”

“내가 잘못했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내 드리지 말 걸 그랬나요?”

일부러 고개를 가우뚱하며 미옥은 남편의 손을 더듬어 쥐었다.

영수도 아내의 손을 마주 쥐어 주었다. 아련한 정이 그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듯했다.

결혼했을 무렵 아내의 손을 쥐던 생각이 났다. 매끄럽고 감미(甘味)로운 과일과도 같던 아내의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엌일을 하느라고 거칠어졌다.

“미안해. 미안할 뿐이야. 어머니가 너무하시는데. 나도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집안에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어머니는 걸핏하면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역정을 내시지 않아요? 집도 사주고 지참금(持參金)도 얼마든지 가져오겠다는 혼인 자리가 있었는데, 나 때문에 놓쳤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구. 좀 더 일 잘하는 며느리를 데려올 걸 그랬다는 등, 괜히 외팔하고 혼인을 했다는 등……”

“그런 말이 어딴어. 요즘 공부한 여성 가운데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오? 누구나 차려입고 명동이나 돌아다니려고 하지 당신처럼 시집살이에 부엌일을 한단 말이오?”

“부엌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머니는 당장 돈이 소용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나두 취직이나 해서 생활을 보조했으면 좋겠지만 몸도 이렇구 답답할 뿐이에요.”

“취직이 다 뭐야?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소? 어머니가 지나치신 거야.”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그러니까 당신만 믿고 난 고생도 고생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하신걸. 앞으로도 내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당신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실 지도 모르지.”

“나도 그게 걱정이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당신 혼자 친정에 좀 가 있겠소? 몸이 괴롭다구 그러고.”

“나 혼자서요?”

“응. 난 장남이고 또 당장 노인네 두 분만 남겨놓고 떠날 수가 있나. 여기 있으면서 매일같이 당신한테 들리지.”

“싫어요.”

헐떡해진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미옥은 분명히 거절했다.

“싫어요. 난. 당신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건 싫어요. 당신 옆에 있고 싶기 때문에

안 해도 좋을 고생을 하는게 아녜요? 암만 편해도 혼자 친정에 가는 건 싫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테야? 이대로 여기서 버티다간 병나요. 병이 나.”

“그러니까 당신이 결심을 해주어야 하지 않아요?”

“뭘 결심해?”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지도 않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시란 말이예요.”

미옥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남편의 가슴에 고개를 묻으며 말을 이었다.

“우선 이 집을 팔아버려요. 팔고 어머니 아버지는 비용을 드려서 부산으로 내려 가게 하고 우린 친정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흠.”

“싫어요?”

“글쎄.”

“이거 보세요. 당신이 것처럼 부양의무를 느끼는 만치 어머니는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신지도 몰라요.”

드디어 아내는 이런 소리까지 했다.

영수의 눈이 음울하게 빛났다. 그는 지금도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는 삼십년이나 애써 기른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영수의 편역을 들어 주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도 해 보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는 나이 늘어 가는대로 누구한테라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리라. 영수는 이 같은 어머니의 심경을 잘 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꺾을 수도 없었다.

“그럼 당신말대로 하지. 집 팔고 아버지 어머니 명수한테로 가지게 하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옥의 얼굴에 비로소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에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인제까지 부모님 지배를 받을 까닭은 없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관이 되셔야 해요.”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소.”

“육체적인 고생은 다 상관없어요. 여자는 그런 고생쯤 문제도 삼지 않아요.”

영수의 머릿속에는 문득 한 개의 회상(回想)이 떠올랐다.

약혼시대였다.

미옥과 함께 덕수궁 담장 옆을 걸어오며 집안의 넉넉하지 못한 것을 새삼스레 이야기했을 때

“전 여태까지 어머니한테서 귀가 아프도록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여자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시집살이하던 우리나라 여성에다 비기면 아주 호강이라구. 봉건적 가정교육이죠?”

하고 미옥은 웃었다.

“당신은 참 좋은 아내야. 요새 세상에는 드문 여성이야.”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난 당신한테 정말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아주 나쁜 며느리죠.”

“그런 소리 하는게 아냐. 여보”

영수는 외락 아내를 껴안았다. 몸을 뒤흔드는 듯한 애정이 맥맥히 솟아오른다.

4.

며칠 후 영수는 집을 팔기로 했다는 통고를 하러 안방으로 건너갔다.

확실히 그것은 집을 팔 의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고를 하러 간 것이었다.

방문을 여니 안경을 쓴 모친은 문 앞 밝은 빛에 비추어 가며 열심히 무엇을 꿰매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들으세요. 이 집 팔겠어요.”

영수는 흥분해서 말했다.

모친은 쓰고 있던 돋보기를 벗으며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니 집을 어쩐다구?”

팔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누.”

“집 팔구 각각 헤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쳤군. 집을 팔면 얘기는 어디에서 날을려고.”

모친은 대뜸 그 소리를 한다.

“어멈 친정에 가서 날쪼 뭐.”

“제 친정에 가서 우리 아기를 낳아? 못한다. 내 눈이 시퍼런데 남의 집에 가서 해산을 하다니? 얘기는 내 집에서 낳아야 한다.”

어머니도 보시면서 그러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산모가 견디지 못해요. 사람

몸을 주의해 주어야지.”

“남이야 몸이 좀 괴로우면 어때? 내가 모르는 소리다. 산모가 선일을 많이 해야 태아가 충실한 법이야.”

영수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네?”

“나는 내 혈속만 생각한다. 너, 명수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네 새끼,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것들뿐이야. 여편네는 남이란다. 돌아놓기만 하면 남이야.”

영수는 비로소 그 말 뜻을 알았다.

어이없던 표정이 점점 풀리며 픽! 웃음이 터졌다.

혈연! 그렇다. 피만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수명이 아닐까.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만들고 있던 것도 아직 뱃속에서 형용도 제대로 생기지 않았을 어린것의 웃이었다.

좋은 할머니, 영수의 눈앞에는 갑자기 한줄기 광명이 비추어 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좋은 사람, 미옥이도 좋은 사람, 다만 그들은 혈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는 분명히 어떤 해결책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 집의 암운도 걷힌다. 어린 것만 나면 그 어린 것이 미옥과 윈 집안의 핏줄을 비로소 이어주는 것이다.”

영수는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도, 패물을 가져간 할난도 다 견어치우고 그 방을 나왔다. 얘기가 날 때 까지만 그러저럭 집안 형편을 수습해 가면 된다.

얘기만 낳으면 그때는 이 모든 암운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뚜렷이 서 있는 것이었다. <끝>



<소설(小說)>

처첩(妻妾)

박용구(朴容九)

고을의 원이 부른다는 전각을 듣고서 김 부자는 상을 찡그리면서도 하는 수 없이 들어갔다.

“췌!”

김 부자라고 불리니만큼 이 고을에서는 이름난 부자였고, 또 그런 반면에 여러 모로 뜯기는 것도 많았다. 원이 부른다는 말에 우선 또 무엇을 뜯기려니 하는 예감부터 들었다.

“어서 오시오……!”

김 부자를 보자 원은 빙긋이 입가에 웃음조차 띄우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 부자는 더욱 양미간에 찌푸러지기만 했다. 원이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반기는 음성이면 그만큼 시끄러운 일이었고 손재(損財)를 하게 되는 것이 예사여서 김 부자는 더욱 양미간에 찌푸러지기만 했다.

“어서 이리로 오시오.”

“예.”

“근일에 집안이 모두 무고하시오.”

“예. 덕택에……”

김 부자는 식캐먹은 고양이상을 하고서 어설프게 앉았다.

“소문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서울에서 홍윤성(洪允成) 대감이 원수가 되시어서 전라도로 내려오신답니다!”

“……”

김 부자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입술이 말랐다. 그런 사람이 내려온다니 필시 접대하기 위한 경비를 대라는 것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여겨졌다.

“특히 대감께서는 먼저 사람을 시켜 서한을 보내셨는데, 그 사연에 했으되 김 부자 댁으로 숙소를 정하시겠다는구료……”

“……”

“만 유감이 없도록 미리미리 마련을 하시오.”

“예? 예……”

김 부자는 모호하게 대답하며 말머리를 얼버무렸다. 도시 서울에서 평명거리는 대감이 이 전라도에 있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지정을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고, 이는 필시 원의 농간이거나, 참말 서신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원이나 전라감사가 공연한 선전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

“대감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김 부자에게 국색인 딸이 셋 있다는 것을 아시어서 그 중 1인으로 모시게 하라는 분부시오.”

“……”

김 부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 부자는 인근에서 부러워하는 부자였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 딸이 모조리 절색이어서 또한 소문이 자자한 터였다.

“대감의 뜻은 감히 거역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그리고 만일 거역하는 날에는 한 사람만의 화가 아니라, 나나 전라감사도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노릇이오. 그리되면 이는 여러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이르기 쉬우니 각별 명심하시오.”

이는 전라감사도 극히 우려하여 잘 전달하라고 당부가 있었거니와, 나 일신상에도 관련이 되는 일이니 다시 부탁하는 바요”

“……”

“대감이 보내신 서한이 여기에 있으니 직접 보고 사정을 살피시오.”

“.....”

김 부자는 가슴이 답답하여 편지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마지못해 눈결에 보니 원이 말한 대로와 사연이었다. 김 부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고 가늘게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흥운성이라면 쨍쨍대는 대감일 뿐만 아니라 그 성미가 급하고 노하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도 나라 안에서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터였다. 거역했다가는 원의 말대로 집안이 찌그러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장차 무슨 꼴을 당할는지 모르는 노릇이었다.

“잘 살피시오.....”

“.....”

“일신과 집안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시오.”

“.....”

원은 소매를 잡으며 간청을 했으나, 김 부자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자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전하고는 서로 손을 잡고 통곡을 했다.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소?”

“그러게 말이요.....”

“일찍 출가들을 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던들 이런 화는 당하지 않을 것을.....”

이제까지 딸들을 시집보내지 않은 것은 사위를 고르느라고였다. 부자인데다 본인들이 질색이니 혼담은 빗발같이 많았으나 그만큼 고르느라고 차일피일 늦어졌던 것이다.

흥운성이라면 사윗감으로서는 부족할 까닭이 없었으나, 본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그저 일시적인 첩 노릇이 될 것이니,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상대가 아무리 대감이더라도 첩으로나 또 일시적인 노리개로서 딸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이 일을 어쩌우.....?”

“글쎄 말이요.....”

아무리 한숨을 몰아쉬고 눈물을 흘려보아도 별도리가 없었다. 바작바작 가슴이 타기만 했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이 일을 장차 어쩌나.....”

“휴우.....”

남보다 재물을 가진 부자라는 점도 원망스러웠고, 자랑스럽던 딸들의 얼굴도 차

라리 못생기기나 했던들 하는 후회뿐이었다.

“딸이 셋이나 있으면서 혼처를 너무 타박한 벌이 내렸나 보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는 하면 뭘 하우.....”

연달아 한숨을 몰아쉬었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렸다. 마침 막내딸인 보순이 스며나오는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듣고서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휴우-”

김 부자는 딸의 얼굴을 보자 더욱 서러움이 복받쳐서 가슴을 두드렸고,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닦았다.

“아무 일도 아니다. 늦기 전에 어서 가서 자거라.....”

“아버지,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다. 어서 가서 자라니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면.....더구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심화를 하시는 큰일이라면 숨기실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 일이 아니다.”

김 부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도 한숨을 쉴 사이가 없었다. 보순은 그럴수록 더욱 다가왔으며 연유를 물었다.

“아버지.....”

“.....”

“그럼,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

김 부자는 줄리다 못하여 오늘 원에게서 들은 말을 했다. 보순은 잠시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으나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동안 앉아있었다.

“자아, 이제 사정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 어서 돌아 자거라.....”

“아버지.....”

“응?”

“이는 전혀 거역할 수 없는 일이며, 저의 형제 중 누가 흥운성의 상대를 해야지요?”

“휴우-”

“그러면 제가 그 감이 되겠어요.”

“네가?”

김 부자와 부인은 눈이 둥그래서 어린 딸을 바라보았으나, 당사자인 보순은 오히려 옆에 웃음조차 입가에 띄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련하게 남의 노리개나 첩이 될 위인은 아니니 이 어린

딸자식을 믿으세요.”

“휴우-”

김 부자로서는 어린 딸이 집안의 형편을 잘 알고, 또 저의 형들에게 화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기에 더욱이 측은하고 가엾기만 했다.

“고만, 가서 자겨라……”

“예.”

보순이 나간 뒤에도 김 부자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한숨을 몰아쉬었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홍윤성은 원수의 자격으로 전라도로 내려왔다. 벌써 이 고을의 원과 전라감사는 며칠 전부터 김 부자의 집에 와 서성거렸다. 혹시 김 부자가 소홀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마련하느라고 와있는 터였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김 부자의 얼굴에는 혈색이 빠져 갔고 눈만이 번뜩였다.

그날 전라감사와 원은 멀리까지 마중을 나갔고, 홍윤성은 군복을 입고 기세당당하게 김 부자의 집에 들어섰다. 대문을 들어서고 중문을 들어서려다가 홍윤성은 멈칫 걸음을 멈추었다. 중문 옆에는 보순이 찬란하게 치장을 하고서 서있었다. 이 여인이 보순이라는 것을 알 까닭도 없거니와, 그 너무나 절색인데 눈이 번쩍 띄어 낮이 나간 듯했다.

“어느 댁 귀부인이시기에 여기에 서 계시오?”

홍윤성으로서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이었으나, 자색에 빛을 잃은 탓이었다. 보순은 방긋 웃으며 다가서다가 정색을 하고 홍윤성을 바라보았다.

“듣자니, 원수께서는 장차 소녀를 첩을 삼고자 하신다니 참말입니까?”

“……”

홍윤성은 그제야 이집 주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원수께서 일국의 원수이시나, 소녀도 또한 대단하지는 않으나 뜻있는 자입니다. 첩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원수 앞에서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겠사옵니다.”

“아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따라 들어오던 전라감사와 원은 얼굴이 흠뻑이 되어서 벌벌 떨었으나 홍윤성은 빙긋이 웃기까지 했다.

“원수께서는 소녀를 이곳에서 죽게 하고자 하십니까?”

“아 아니, 내 그대를 정실로 맞이하지 첩을 삼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

“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음!”

홍윤성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서도 보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정실로 맞이하겠다고 했으니, 보고 싶은들 나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농으로 돌리기에는 머릿속에 새겨진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다. 그 태도로 보아 첩으로나 노리개로는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 있는 아내를 무단히 내쫓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홍윤성은 생각하던 끝에 세조(世祖)에게 긴 상소문을 올렸다.

“신의 처는 본시 불민³²⁾하여 본가로 돌려보내고자 하오며, 다시 현숙한 처를 맞을까 하오니 윤희하여 주시기를 비는 줄로 아뢰오……”

이런 홍윤성의 상소에 대해 세조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다.

“이는 경의 집안일이니 경이 적당히 처리하라……”

세조로서는 홍윤성의 청이라면 무엇이든 듣는 터였고, 더구나 아내에 대한 일이니 더 묻고 싶지도 않아 간단히 허락한 것이었다.

홍윤성은 아내에게 본집으로 돌아가라는 편지를 띄우고서는, 길일을 택하여 정식으로 보순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정식 성례가 되니 김 부자는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고 안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력을 다하여 성대한 식을 올렸다.

홍윤성은 서울로 올라갈 때 보순을 데리고 갔고, 보순은 당당한 홍윤성의 아내로서 집안을 다스렸다.

홍윤성은 세조가 아끼는 공신이어서 하로는 특히 그의 집으로 행차한 일이 있었다. 이날 보순은 은근히 그의 남편을 불렀다.

“왜?”

“상감마마께서 특히 저의 집에 행차하옵시는 은고³³⁾를 베푸시었으니, 마땅히 첩이 술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그것 좋은 생각이요.”

홍윤성은 빙긋웃으며 세조가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이윽고 마련된 술상이 들어갔을 때, 홍윤성은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겠다고 했고, 세조는 웃으면서 허락했다.

보순은 공경하는 뜻으로 서서히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절을 했고, 두 손으로 주전자를 받쳐들어 술을 따랐다. 세조는 한 잔을 받아 마시고는 물러가 쉬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보순이 역시 허리를 굽히고 나온 뒤에는 세조와 홍윤성이 군신 간에 서로 술을 권하면서 즐거운 담화가 계속되었다.

× ×

32) 不敏: 어리석고 둔하여

33) 恩顧

세계인구(世界人口)의 3분지(分之) 2가 아세아인(亞細亞人)

메사추세츠 대학 총장 샤넌 맥킨 박사는 1958년도 '국제아동교육협회' 연구회의에서 말하기를, 아시아 인구의 폭증으로 말미암아 현재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천년까지에는 적어도 그 4분의 3이 아시아인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교육방침은 장차 아시아인에 대한 보다 나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시아인들은 급격한 혁명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 미국인도 혁명적인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발흥(勃興)하고 있는 새로운 공예 및 과학혁명을 인식하고 이를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태국 출신 학생 70명을 포함한 약 5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열석(列席)하고 있었다 한다.

그 후 세월은 흘러 세조가 돌아가고, 흥윤성도 역시 죽었다. 보순은 과부가 되어 흥윤성의 모든 재물을 다스리게 되었다. 부당하게 내쫓김을 받았던 흥윤성의 전처는 눈엣가시같이 보순이 밟던 차에 들고 일어났다.

“그는 흥윤성의 첩이었는데, 흥윤성이 죽은 뒤에 본처를 저버리고 모든 가산을 함부로 하려고 하오니 살피 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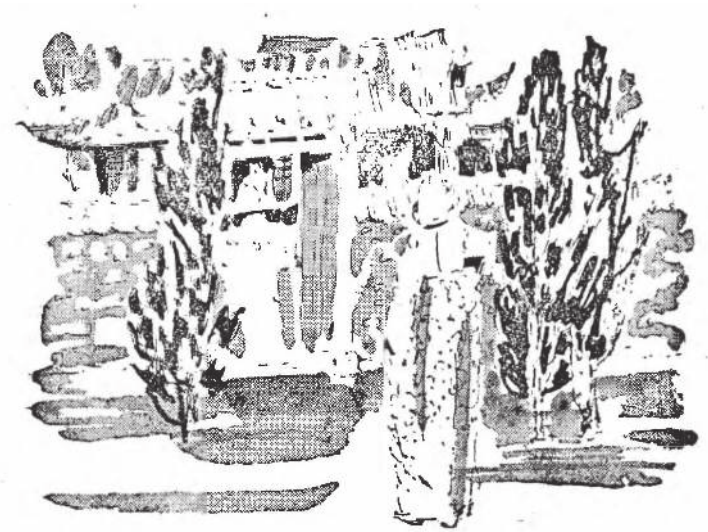
본처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호소를 했다. 이제 와서 누가 처며, 누가 첩이나는 것은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기웃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보순은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느 때에 대행 대왕마마께서 흥윤성의 집으로 행차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행 대왕마마께 엎드려 술을 따랐다. 이제 사람을 시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펴보라. 그때 부인이 술을 따랐다고 했는지, 명백할 것이다.”

이 말을 그럴 듯이 여겨 즉시 정원일기를 살피게 했다. 본즉 부인행주(夫人行酒) 즉 부인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구절이 나왔다. 왕의 행동을 기록한 정원일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으니 죽은 세조를 증인으로 삼은 셈이었다.

전처는 물리침을 받았고, 보순은 흥윤성이 죽은 뒤에도 역시 그의 본처로서 행세할 수 있게 되었다.

-끝-



<연재장편(連載長篇)>

붉은 밤 (3)

임옥인(林玉仁)

나는 석훈을 찾으려고 막연하게 집을 나서서 한참을 헤매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무턱대고 찾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으로 옮겨온 즉시로 석훈이가 선물로 심어준 한 그루의 조그만 사철나무 가지를 붙잡은 채 한눈에 깔리는 저 아래를 바라보았다. 청량리에서 신촌까지 뚫린 넓은 도로 위에는 끊임 새 없이 군용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힐끗힐끗 많이 바라보았지만 역시 활기가 없어서 자꾸 죽음의 거리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경마장(競馬場) 자리 나지막한 건물 꼭대기에는 붉은 기가 펄럭거린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다. 곁에는 아무도 없고 돈도 없다. 또 며칠 안으로 보국대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었다.

나는 문득 새로운 결심을 했다. 집을 비우고 어디 숨어 버리고 싶어졌다. 이때 마음에 떠오르는 집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새 석훈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어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석훈은 내가 아니더라도 숨을 곳이 있기에,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리라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리고 아내가 있다지 않는가? 그렇더라도 기별이나 하고 갈 것이지 간다 온다 소리 없이 나에게 이렇게 걱정을 시킨다 싶어서 노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한 노여움과 원망스러운 생각도 도와서 나는 며칠이라도 집을 비울 결심을 했다. 그 지긋지긋한 근로보국대엔가 나가는 일을 한 차례라도 빠지게 되면 살 것 같았으므로, 동창선배 홍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홍 여사의 집은 수도국이 가까운 산마루에 우로 향했다. 홍 여사의 집은 수도국이 가까운 산마루에 우뚝 솟은 적산가옥이다. 내 손에는 두어 되 쌀주머니를 돌려져 있었다.

어디를 가나 양식이 너무나 결핍된 때라, 연명은 할 만한 준비를 해서 남에게 과도한 폐를 면하고 싶어서였다. 월남한 이듬해 봄에 여러 달 묵던 고향 친지의 집이었으므로 이런 때에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홍 여사의 남편은 고향에서 상재(商材)가 있어서 큰 포목상으로 치부(致富)했던 사람이었다.

나보다 한해 먼저 월남한 그들은 서울에 와서도 커다란, 적산 집도 장만하고 장삿길을 뚫어서 생활에는 염려 없었다.

“웬일이야?”

“못 갔죠!”

도저히 꿈도 못 꾸었으면서도 나는 남하(南下) 못한 유감의 뜻으로 한마디 그렇게 중얼거렸다.

“영인이야 간단한데 왜 못가? 우린 달린 게 많아서 그랬지만……”

홍 여사는 나중히 말하며 남편 송 씨의 얼굴을 살핀다.

“지금이라도……가만있어, 길이 있을지도……”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데, 어디에 비행기가 날아왔는가, 온 장안을 뒤집어엎는 듯한 폭격소리가 난다.

“결단 나는군!”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열어젖힌 창가에 기대서서 하늘이 쏟아지는 듯한 폭격소리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서대문 근방인 것 같았다. 연방 폭탄을 던지고 기총소사를 하고 콩 볶듯 팔 볶듯 하더니 은빛 날개를 번뜩이며 멀리로 사라지는 기체(機體)를 바라보았다. 뒤이어 검은 연기와 붉은 불이 충전하는 것이었다.

“왜놈들이 시설해 놓고 간질, 누리지도 못하고 다 부수고 태워버리는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송 씨는 담배를 붙여 물고, 그 연기 나는 방향을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본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짜르릉 열리려니 누가 찾는 모양이었다. 홍 여사 내외와 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두어마디 웅얼웅얼 말소리가 나더니 벌써 층층대에 구둑발 소리가 들렸다. 서로 마주보는 홍 여사 내외의 얼굴은 제빛이 아니었다. 송 씨는 엉거주춤 문턱에서 어물거리는데, 미닫이밖에 낮모를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 이 선생 아니세요?”

그중 한 청년을 향해서 홍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듯말듯한 스물 서너 살 되어 보이는 파리한 얼굴의 청년이 곁에 서있는 나이 지긋한 사나이에게 눈짓을 한다.

“잠깐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함께 갑시다.”

“가긴 어디로요?”

홍 여사가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치보위부(政治保衛部)까지 좀 갑시다.”

송 씨는 못에 걸렸던 양복 윗저고리를 메어 입고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 다녀올게……”

송 씨는 억지로 태연한 듯 천천히 집을 나갔다.

“기른 강아지에게 발등을 불린다더니……. 저 녀석이 이관태 아들 아뇨? 새파랗게 질려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관태라면 고향에서 날뛰는 이른바 정치요인의 한 사람이다. 그 이관태며 황씨는, 송씨와는 동년배의 사람들이요, 소학교와 중학교 같이 맞춘 죽마지우(竹馬之友)인 터였다.

마포서장으로 왔다는 변 아무개도 그 또래의 사람으로서 이들은 세상 떠난 나의 큰 오빠의 친구들이기도 한 것이다. 생활난에 빠졌던, 이관태나 황 씨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을 송씨가 많이 도와온 것을 나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다. 그 이관태의 아들이 송 씨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사흘이 지나도록 송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골로 피신을 보낸 스물한 살짜리 아들과 열일곱 살짜리 몰래 밤중에 왔다가 큰일이 났다고 발을 굴렀다. 작은아들의 말이었다.

“어머니!”

“왜 그래?”

송 여사와 내가 자리를 나란히 하고 누웠는데 속삭인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댁에도 큰일 났대!”

“잡혀갔나?”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이 아니! 큰 아드님, 둘째, 셋째, 다 묶어다가! 행방불명이라, 누가 잡아갔는지 아세요? 우리 반에서 퇴학 맞은 녀석들이래…….”

“그러게 옛말 그런 데가 있나? 기른 강아지에게 발등을 물린다고…….”

그리고 흥 여사는 후루루 한숨을 쉬며, 머리맡에 놓인 담뱃값을 집어 불을 당긴다.

내가 흥 여사의 집에 묵은 지 닷새 되는 날 아침이었다. 그동안 송 씨가 어디 갇혔는지 행방도 모르다가 아침밥도 뜨는 등 마는 등 하던 흥 여사가 마포서(麻浦署)로 달려야겠다고 했다.

“그래도 인간이면 눈물이 있겠지, 가서 사정해 볼 판이죠.”

서장으로 있다는 변 씨를 찾겠다는 것이다. 나는 흥 여사가 변 서장한테로 간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진다. 내 신변이 직접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고향 사람이 고향사람을 잡는다…… 왜? 잘 알고 있으니까……. 송 씨를 잡아가는 작자들이 내 거처를 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태연한 태도로 마포서로 간다는 흥 여사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곧 흥 여사에게 쪽지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나……어디 갔다오세요?”

“식량 구하러 시골 갔더랬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나는 아무 준비도 없었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때마침 우리 집 대문 앞이 다양하므로 거기다가, 하얗게 대 보리쌀을 명석에 펴고 있던 정혜 어머니가 한쪽 눈을 찡긐 보았다.

나는 그 앞으로 다가갔다.

“낮에는 어느 집이나 밖으로 대문을 잠그고 있어야지, 집안을 뒤지게 마련이니 어떻게 해요! 왜 좀 더 계시다 오시죠?”

“있고 싶어도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왔죠. 붙잡혀 가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자들이야 어쩔라고요?”

정혜 어머니는 내가 이복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인 줄은 모르고 있다.

“구분이 안 왔습니까?”

나는 석훈의 일에 새삼스레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웬걸요! 아마 의용군(義勇軍)으로 잡혀 갔나 보죠?” 나는 가슴이 또 철렁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팔목을 자르려다가 상처만 내고 유혈이 낭자하던 일이, 또 부엌에 쓰러

졌던 그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어디로 갔을까?”

벌써 일주일이 훨씬 넘었다. 내일은 새벽에 석훈이를 찾는 목적으로 길을 나서보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혜 어머니가 소곤거렸다. 나는 우리 집 때문에 쇠를 잠그고 정혜 어머니 곁으로 다 갔다. 내가 집에 들어가 있게 되면 또 근로보국대에 끌려가야 한다. 그래서 정혜네 집 건넌방에 임시 묵기로 한 것이다.

“내 친정에 다녀올게요. 밤에라야 돌아올 테니 가만 계세요!”

아기를 업고 열 살짜리 정혜를 데리고 그는 밖으로부터 대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안방에는 정혜 아버지 윤 씨가 숨어 있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건넌방에 내가 숨어 있다. 겨우 인사나 하는 젊은 남녀를 한 집에 두고 밖으로부터 쇠를 잠그고, 가버린 정혜 어머니의 심경이 어떨까, 그리고 윤 씨의 심경은? 그리고 나는? 이 마당에서는 이미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다만 목숨을 잇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렇게도 나타난 것이다. 정혜 어머니가 대문을 밖으로부터 잠그고 가버린 것은 겨우 10시였는데, 극 기나긴 여름해가 기울고, 밤이 이슬한 때까지의 하루가 왜 그다지도 지루하던지 모르겠다.

마루를 사이에 놓고 서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남과 남! 기침 소리도 못 내고 문소리도 못 내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 안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려다가 소리가 날까봐 깡통에 종이를 비벼놓고…….

가끔 대문 밖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앞뒷집에서는 어디로들 갔담? 모두 잠그고설랑!”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치를 떨었다. 누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우리를 묶어 갈 것만 같아서였다.

언젠가 길에서 산 신문이 핸드백 속에 들었기에 다시 퍼들었다. 공산군이 서울에 침입한 이후에 발간한 것이다. 그 가운데 내 눈을 끄는 필자의 〈서울〉이라는 수필이 있다. 이태준(李泰俊)의 것이다.

이 신문을 보고 그가 서울에 온 것을 알았다. 월북은 했을망정, 나는 이 씨의 성분이 도저히 공산주의에 젖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믿고 있었다. 내가 월남해 오자 이 씨는 내게 문화기동맹가입신청서를 두 번이나 보내왔다. 그러나 그때 나는 혼란시대(사상적인)에, 작가가 앞장을 서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찬성할 수 없노라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요! 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일선에 나서서 날뛰기보다는 떠먹 버티고 앉아서 작품을 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류시인 S 씨와 나와 거의 동시대에 문단에 나온 K 여사, 그리고 내가, 한 자리에 있는데서 이 씨는 나의 그런 의견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을 무려 두 시간이나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요약한다면,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작가가 위치하는 국가나 사회를 전연 문학하기에 당치도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그 방어는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작가 자신들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심할 수 있겠어요?”

이북에서 올민이가 이태준의 소설이 좋하던 말을 회상했다. 올민이는 말하는 것이었다. 이 씨는 장사치나 근로대중이 관심할 수 있는 소설을 쓴다고 그리고, 어떤 소설 어느 대목엔가에 지폐를 구두주격으로 쓴다는 얘기 같은 건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실태를 단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던 것을 상기했다. 역시 이 씨의 생리 속에는 올민이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그 신문조각에서 <서울>이란 이 씨의 수필을 읽고 나는 새삼스럽게 <인간성 상실>이라는 말을 입속에 고이는 쓴 침으로 삼키고 있었다.

나는 외락 신문지를 비벼 소변을 본 강통 속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빈 책상에 이마를 얹고 잠들려고 했다. 서향인 이 방은 저녁때가 되면 따가운 별로 방을 꿰인다. 한참 책상 위에 엎드렸던 내 전신은 물주머니처럼 젖어 버렸다.

안방 장지문이 살며시 열린다. 윈 씨가 마루로 나온다. 신을 신는 모양이다. 건넌방 앞을 지나 변소로 가는 모양이었다.

“오후 네 시!”

가나긴 여름 벌은 아직도 멀었다. 나는 땀을 흘리고 앉아 가만히 있기가 참말 어려웠다. 바느질 가슴이라고 있었으면 하고 방안을 두루 살폈다. 현 양말 한 짝 뒹구는 것이 없었다. 종이로 바른 옛날 의결이 자물쇠가 벌에 반짝거린다.

나는 내 손수건을 책상 위에 퍼놓았다. 소지품으로 늘 가지고 다니는 바늘쌈에 휘감은, 서너 가지의 색실도 풀어 놓았다. 바늘쌈에 핀으로 동동 달아맨 골무는 언젠가 흥 여사가 ‘눈물의 기념품’ 이라고 하면서 내게 선사한 것이다. 내가 월남한 이듬해였다고 기억한다.

흥 여사는 짐 가지로 위협을 무릅쓰고 고향에 간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생존해 계시던 어머니를 모셔다 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러나 곧 다녀온다던 흥 여사는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지나도 서울로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떻게 됐대요?”

그의 남편 송 씨를 보고 물어보았더니,

“글쎄, 놈들에게 갇혔구만... 살아올는지 윈...”

고리짝 12개를 동두천 저쪽까지 운반했다가, 붙잡혀서, 고향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그후 어떻게 짐꾼들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대부분의 짐은 서울로 보내왔더라는 것이었다.

흥 여사는 반년 동안 고향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골무를 겁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료가 있을 턱이 없었으나 함께 들어간 애기 어머니들한테서 처네편실을 뽑아내든가, 타올을 풀든가 해서 그 색실로, 골무를 기웠는데, 그 한 땀 한 땀 마다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기념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나도 두 개나 가졌다.

그 골무를 끼고 나도 이 갑갑한 시간을 메꾸어야 했다. 비늘에 색실을 꿰어 그 손수건 위에 이리저리 십자수나 놓아보자.

방구석에서 연필 콩다리를 주위 형걸 위에 툴립을 그려 보았다. 파란 잎사귀와 진분홍 꽃잎을 수놓았다. 그리고 대각선(對角線) 귀퉁이에는 나물 캐는 처녀를 수놓으며 시간을 보냈다.

흥 여사의 집 식모가 구워주던 옥수수 두 송이가 있었다. 그것을 한 알 한 알 빼먹는 것도 심심풀이가 되었다.

“절커덩!”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이집 안주인이려니 하면서도 가슴이 한번은 ‘철렁’ 내려앉게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어딜 갔어요? 오래 집을 비우게…….”

유엔 비행기의 내습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저 개새끼들 왜 또 와서 보고 지랄이야? 어렵도 없디 어렵도 없어……” 하던 이 동네 반장이다.

“어디 식량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요!”

정혜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 작자의 발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온다. 밤도 이숙해서였다.

나는 방 안에서 벌벌 일어섰으나 장지문을 여는 것은 저어되었다. 정혜 어머니는 안방 문을, 그리고 마루를 건너 내 방문을 열어보고 종이에 쓴 것을 디밀어 주었다.

건빵이었다. 나는 이것으로 끼니를 에우고, 그 방에서 그날 밤을 새웠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이 우우 물러다니는 모양이었다.

대문 밖에서 떠들며 들 지나갔다.

“어림이나 있어요? 막 끌어냈지 뭐요? 아 어린것들을 주렁주렁 두고 가긴 어딜가요?”

동네에서 세차기로 유명한 경남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인의 음성인 듯 했다.

조금 후 정혜 어머니가 대문을 밖으로 잠그고 나갔다가 오테니 지난밤 민청(民靑) 사무실에 가둔 남편을 면회하겠다고 하니 끌어낸 그 경남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여기는 안 되겠는데요!”

정혜 어머니는 초석을 깔았던 마룻장을 들고 지하실로 된 그 밑에 남편을 감추었다.

빈 사무실 같은데다 학교 교실 같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별로 빈 곳 없이 의용군으로 잡은 청년들로 꽉 찼다는 것이었다.

대개는 길에서 잡거나 어느 시장에서나 혹은 집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나간다는 선전을 위해서는 잡아도 그 자리에서 뛰는 사람은 방입하는 것이요, 가두었더라도 경남 어머니와 같이 억지로 끌어내면, 사람 앞에서 강제로 가두지는 못한다는 것이 아직 이때의 형편인 모양이었다.

“석훈이는 어디 갔을까?”

나는 수첩을 꺼내 석훈의 집 주소를 다시 암송했다. 거기까지 가 보려면 동대문시장을 통과해야 한다. 사람 많은 데를 지나가기가 무서웠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석훈의 거취를 알아야만 안심하고 어디로 가든지 숨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석훈의 집을 찾는다 해도 나를 누구로 알고 바로 가르쳐나 줄까?”

검정치마에 흰 모시적삼을 받쳐 입고 길을 걷는데,

“아, 왜 어디 가요?”

홍 여사의 남편 송 씨였다.

길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송씨는 입을 다물고 앞을 서서 걸었다. 청계천가에 줄을 친 하꼬방들을 지나 독섬으로 향하는 선로에까지 와서 주위를 살피고 나서 채소밭 돌 위에 걸터앉아 내게 나직이 말했다.

“왜 그러고 다녀요? 지금이라도 곧 남하(南下)하도록 해요. 여비는 내가 보낼 테니……. 시인 K씨가 우리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 이관태의 아들 녀석한테 붙잡혀 갔는데 행방불명이요. 소문에는 인민재판엔가에서 총살을 당했다는군……. 위험천만인데 어서 숨든지 남하하든지…….”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내게 보탬이 될 돈을 주면서.

“자, 뭐 어찌고저찌고 할 새 없단 말이야. 그놈들이 고문을 안 한다고 선전을 하죠?”

웬걸, 내가 번 서장이 찾아왔다고 해서 불러 나간 자리에서 이런 소릴 들은걸.”

송씨는 권연을 붙여 물고 말을 잇는다.

“○○감방, 끌어내. 석유준비는 됐지?”

소름이 쪽 끼쳐, 7월 염천(七月炎天)이 춤더라는 것이다.

석훈의 집 근처에서 번지를 찾느라고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문패들을 살피고 있는데,

“아아니, 이게 누구세요?”

어깨를 붙드는 것은 이북에서 영감을 총살당하고 외동딸을 데리고 월남해온 윤봉선 여사였다. 나도 그를 보고 몹시 반가웠으나 또 심히 놀랐다.

“을민 씨 소식 들으셨어요?”

“이런 위험한 번 뵈냐? 김 선생님을 수소문 한다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왜 못 찾아요?”

나는 이어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을민이가 나타났으면 싶기도 했다. 잡아 죽이더라도, 보는 즉시로 죽이지는 않으리라. 나는 그에게 물을 말이 하도 많은 것이다.

고모님 부처의 소식도 궁금하고 가정여학교는 물론 없어졌겠지만 나와 가깝던 부녀들과 야학생들의 일도 궁금한 것이며, 더욱이 만주에 계시던 아버지는 돌아오셨는지, 그리고 오빠 내외와 어린 조카딸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소식이나 들었으면……. 나는 윤봉선 여사를 붙들고, 자꾸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저 향교집에 혼자 버리고 온 어머니는 그 후 3년만에 흥 여사를 따라 나를 찾아 서울로 오시려고 고리짜를 동여 놓고는 그 자리에서 중풍이 일어 반신불수(半身不遂)로 1년이나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후의 친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을민이가 서울에 왔다. 서울에 을민이가, 을민이가…….”

가는 그 생각 때문에 꼭 미칠 것만 같았다. 을민이가 죽었다고 해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더니 내 마음에는 월남 이후 혼자 방랑하면서 겪은 가지가지의 설움이 견잡을 수 없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다. 내가 겪은 슬픈 방랑은 을민에게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생각하는 때문인지도 몰랐다.

“지금 내 눈에 을민이가 그 건강한 어깨를 버티고 서 있다면…….”

나는 중얼거리려 본다.

“에에이, 이 녀석아, 누나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는 아마 이 시각에 을민이를 만난다면 이 거리에서 다른 방송통곡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짐승이 다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을민이는 그 소 눈갈 같은 커다

란 눈을 게슴츠레 뜨고

“무슨 잔소리야, 반동분자!”

‘탕’ 하고 내 심장에 권총을 발사할 것이라. 그리고 명중시키고야 말 것이라.

“아무튼, 길에는 나오지 말아 주세요!”

윤 여사도 웃고름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청량리행 전차를 탔다.

“이 집이다!”

석훈의 집 주소를 찾아낸 것이다. 나는 대문을 흔들었다. 대문 밖에는 더벅머리 같은 사철나무가 세 그루 심어져서 있었다.

대문을 벗기고 나타난 이는 백발 파파 할머니였다.

“이 닻이 고석훈 씨 닻이시죠?”

“그렇소! 왜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는데 나는 대문 안으로 쑥 들어섰다. 언뜻 보기에 어딘가 석훈 씨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가름한 중년 여인이 마루 등의자에 걸터앉았다가 마주 나오며,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하고 묻는다.

“고 선생을 찾습니다.”

“지금 집에 없는데요!”

“아뇨, 오늘 오전 10시에 동대문 전차 정류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는데요. 언젠가 제 원고를 맡겨드린 게 있어서요!”

나는 오래전부터 궁리한대로 그렇게 꾸며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안됐다는 듯이,

“저런! 저를 어째? 어디 사골 간 모양인데……”

어딘지 정이 붙는 부인이다. 누님이 한 분 계시다더니 그분인가? 나는 방죽을 살폈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파파 할머니는 처음 경계하던 빛을 거두고 조글조글한 얼굴에 미소까지 피우면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석훈이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지 마시구……”

나는 다시 집안을 살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으면 실토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집에 숨어 계셨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동생인데……”

여인은 내 귀에 입을 대고,

“글쎄 어디 피난 갔을 겁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야 모르죠, 어디 갔는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 온다. 길에서 의용군으로 잡혀서 지금쯤 일선에 끌려갔는지도 모를 석훈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가족들의 태도가 참으로 갑갑했다.

그보다 나를 경계하는 모양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나는 그 석훈의 누님이란 여인의 눈을 정시하면서 눈으로 호소했다.

“안심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만하면 알았어요. 그 애가 나한테는 숨기는 일이 없어요!”

나는 그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숨어 있었는가를 나중에야 해석하고, 얼굴이 확확 달았다.

석훈의 아내라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석훈이도 없어지고 했으면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집 대문을 밀고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 눈을 살폈다. 더욱이 근로동원대로 줄을 지어 맥없이 걸어가는 남자들 속에 끼여있지나 않은가 하고 기웃거리기도 했다. 길에는 참외와 수박이 지천이다. 그것을 한 덩어리 사서 석훈이한테 디밀고 싶은. 나는 참으로 허전하고 안타까웠다.

“나 목말라. 사탕물, 사탕물, 수박 한쪽…… 수박……”

어딘가에서 목이 말라 외치는 석훈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머리를 들고,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모두 무겁고 흐린 얼굴이었다. 모두 배고프고 목마른 얼굴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집에서 견디기로 했다. 죽어도 앉아 죽자는 심산이었다. 송 씨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남하할 길이 없을 것도 아니겠지만 내 건강을 가지고는 길에서 어떻게 도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이 동네 그 짧은 반장이 와서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우리는 동네 앞 높은 지대에 누가 집을 짓다가 만 공지에 집합했다. 한 50명 남짓하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짧은 사람 둘이 나타나 연설을 했다.

“가족들 형편을 보아서 우리들이 지시할 테니까 준비들 하시오!”

그리고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명부예다가 표식을 했는지 몇몇 가구(家口)들을 불러냈다. 이름을 불린 가족들은 여인이 병병해서 주인이 시골 갔다는 사람 아들이 의용군으로 나갔다는 사람 가지각색으로 식구들이 그대로

있는 집이란 별로 없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지하에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전 갈 테예요. 좀 좋습니까. 지상천국처럼 되어가는 이복길이 터었으니 왜 안

가겠는가 말이에요?”

젊은 반장인 성수가 나서 떠들었다.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길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길래 영창에 턱을 걸고 길을 내어보았더니 룡새크를 짊어진 그 젊은 반장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내 가서 편지할 게 뒤따라들 와요!”

가족들에게 말한다. 이북으로 전지(轉地)를 간다는 것이다. 희색이 만연해서 의례히 갈 데를 간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떠나간 이후로는 근로보국대로 나오라고 동네사람을 들볶는 일은 없어졌다.

어느 날 점심때였다. 마루걸레를 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벽이라든가 떨어진 듯 온 동네가 진동했다. 유리문이 부서지고 집 전체를 움푹 들었다 놓는 듯했다.

한참 후에 저 아래 가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곡성이 들려왔다. 달려가 보니 어디선지 폭발물이 날아와서 동네아이 넷이 모여 앉아 공기를 두는 한복판에 떨어져 폭발한 것이었다. 열 살, 아홉 살, 여섯 살, 여덟 살 계집애 둘, 사내 둘이었다.

팔다리가 각각 흩어진 아이, 창자가 나온 아이, 이럴 수도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고 아이들 부모는 광란하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우리 영창을 두드린다. 나는 얼른 창가로 갔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강춘희라는 여인이었다.

“들어가요 댁요?”

나는 얼른 대답하기가 싫었다.

“네, 제가 나가 보죠.”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담벼락에 기대섰다. 강춘희는 내 귀에 입을 대고

“댁에선 재봉침을 잘 하시죠?”

“글쎄요, 별로…….”

나는 강춘희의 호기심에 찬 새까만 눈을 바라보았다.

“피복공장에 다니자고요! 배급도 있고 월급도 두둑하고……”

이야기가 구수하다.

“전 몸이 늘 아파서요. 그런 규칙적인 일은 못할 거예요!”

“이 동네 책임은 내가 맡았는데, 원하는 사람들이야 많지만, 좀 조용히 다니고 싶으니까요!”

나는 그때 호구지책을 위해서는 아무 노동이라도 해야만 했고, 시간을 보내는 데도 그것이 좋은 방도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무렵 나는 결핵으로 자주 발열(發熱)하고

있었으며, 소화기(消火器)도 말이 아니었다.

“저 감당 못할 거예요! 그 대신 집에서 내직할거나 좀 주선해 주세요!”

“그래 보죠!”

강춘희는 그대로 가 버렸다.

큰길 건너 방직공장지대에 자주 폭격이 있을 때마다 방 안에서도 이불을 뒤집어쓰거나 마루 밑으로 들어가 피신하고 했는데, 하루는 앞집, 정혜 어머니가 다양한 우리 집 앞 공지(空地)에 보양계 닭인 보리쌀을 넣어 말리다가 “우르르 쿵쿵, 와지끈 팡팡” 하는 공습을 피하여 집안에 들어갔다 불과 4, 5분 동안이었을까, 나와 보니 마대를 깔고 널었던 보양 보리쌀이 간데없었다.

씻은 듯 부순 듯 날아가 버렸다. 소두 한말이었다고 한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정혜 어머니는 자꾸 울었다.

“그걸로 연명할 참인데……뭘 먹고 산담……애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어디서 지켜보다가 감쪽같이 훔쳐간 것일까? 이런 판국에…… 한참 어이가 없었다. 그 쌀을 먹고 어떻게 색일까?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쟀치인가? 송 씨가 주는 돈으로 감자를 사다가 정혜네와 조금 나눠 먹을 수 있었다.

길에 발자취 소리가 날 때마다 행여나 하고 나는 석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소식과 사람이란 내게는 그밖에 없었다.

“어디서든지 살아만 있다면!”

죽거나 어디 끌려가지 않았다면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을 리가 없다.

석양이다. 누가 밖에서 대문을 흔든다.

나는 맨발로 뛰어났다. (계속)

대형(大型) 원자유조선(原子油槽船) 승무원(乘務員) 없이 대서양(大西洋) 횡단(橫斷)

영국의 한 회사는 한 사람의 승무원도 없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대형 원자력 잠수유조선(潛水艇)을 설계 중이라고 발표했다.

‘만사가 순조롭게 된다면’ 5년 내에 진수하리라는 동 선박은 현재의 어떤 함선보다도 더 크고 빠르며, 오토메이션만으로 조타되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 동 계획의 제1단계인 모형실험은 이미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한다.



<소설(小說)>

망향(望鄉)

최상규(崔翔圭)

비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자신만은 적어도 것처럼 슬프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정하는 것이며, 광대놀음을 보고 웃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만은 그 정도로 못난 짓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을 낸다.

그리고 병신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만은 그보다는 건전하다는 신념 때문에 너그러울 수도 있고, 못난 놈의 어리석은 짓을 보고 폭소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만은 그렇게 못나지를 았았다는 확신 때문에 오만할 수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허영의 일종이다.

그러나 여기 전혀 그렇지 아니한 최소한 단 한사람의 동포가 있으니, 그 이름은 기옥(璣玉)이다. 기옥의 직업은 영어로 말해서 Y.K.B(였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여류 실업자. 그렇지만 구태여 직업을 낸다면 상업이라고나 할까. 장사를 한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앞서는 것도 상업이라면 기옥의 직업도 훌륭한 상업이다.

먼저 옷가지를 판다. 쌀을 사온다.

다음, 시계를 판다. 나무를 사들인다.

그 다음엔 금 부스러기를 판다. 된장과 최소를 산다.

대개 기옥의 직업이 이렇다. 일신상에 망조가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옥의 일신상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기옥에게는 그림자처럼 달라붙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 아버지는 기옥의 아버지일망정 역시 아버지다. 그리고 기옥은 비록 기옥 일망정 딸은 딸이다.

하물며 아버지의 목숨이 딸의 손에 매달린 처지에서야 더 말할 것 없이 그 부녀간이란 아버지나 딸이니 하는 것은 따질 것도 없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제에 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다. 주말(週末). 한 주일이 저문다. 거기다 용하게도 기옥의 재산에도 황혼이 왔다. 그렇게도 아끼고, 그렇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 보려던 것. 기옥은 기어코 그것을 목에서 끌었다. 버스를 타고 마지막 흥정을 하러 나가는 기옥의 가슴은 처참하리만큼 어두웠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순히 그 마지막 것을 판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애처롭게도 기옥은 그날 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없었던 폭언을 퍼붓고만 것이다.

“그렇게 그 짓이 하고 싶으면 나가요 나가서 실컷 하란 말이예요. 어차피 나도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서 이 더러운 꼴 보지 말고 나가요!”

불효막심한 것. 그러나 기옥은 그 말을 했다. 그렇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편할 리가 없다.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마음이 쓰리다.

그러한 기옥을 보고 비록 그 정상을 모른다고는 하더라도 이맛살을 찌푸린다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또 억울한 노릇이다.

버스 안에서 그대로 제일 기옥에게 대해 너그러웠다고 볼 수 있는 고등학생 박군.

“이게 어디서 나온 서양거지야?”

30마일을 지프차로 달려올 대위님과 만나 주말을 즐기려는 타이피스트 미쓰윙.

“몇 십 년이나 해먹었기에 저 꼴이 되었을까?”

뒗골목으로 출근하는 어깨가 넓은 청년 김형.

“요런 건 세상에 없는 아양을 떨고 대들어도 먹을 맛이 안 나갔다가야.”

기옥이 모르니 경멸이고, 기옥이 알았다면 모욕이다. 그러나 대학생 조군의 감정은 약간 다르다.

“아. 제발 좀 눈앞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이렇게 여성이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을까.

왜냐? 무엇 때문이나? 또 왜 나는 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느냐? 아, 나의 괴로움이며! 차라리 나의 앞에서 사라져 주오. 나는 괴로움이 싫다”…… 등 등.

기옥은 확실히 아름답지 못하다. 얼굴도 보기가 흉하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옛날에 그랬다면 율리 상사가 그렇게 기옥일 좋아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없다. 마르고 검버섯이 돋고 눈에선 생기가 사라지고, 주제꼴도 그렇다.

도무지 이제 단별밖에 입을 것이 없다. 그 단별이라는 것이 또 고등학생 박 군의 말대로 서양거지 꼴이다. 그리고 또 가슴이 찢그라지고 다리가 뺏뺏해지며 시커먼 해지는 데 거기 긴 털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밑에 신긴 세무 하이힐은 망가지도 못해 꼬치와 뒤축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이 기옥을 경멸하고, 또 기옥을 보는 게 불쾌했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옥이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기옥은 그저 괴롭고 마음이 쓰리다.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사람인 바에야 과오를 저지르고 회한이 없을 리가 없다. 그리고 기옥이가 이렇게 아버지를 뼈저리게 느껴보는 것도 수년 내 없던 일이었다. 그들 둘의 생애에 황혼이 닥쳐왔던 탓일까?

버스 창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기옥의 허리 퇴색한 딸리아 빛 블라우스 위에 서성거렸다. 가끔 사람의 대가리 모양 하나를 두고 밋밋한 기옥의 엉덩이에도 넘실거렸다. 문득 지나가는 택시 윈도우에 부딪힌 강렬한 햇살이 기옥의 눈을 쏘았다. 기옥은 흐트룩 눈을 깜박이자 왈카 짜증이 솟았다. 저놈의 해에도 죄가 있다.

그 검검한 방, 겨우 도화지 한 장만큼 벽을 뚫은 창문으로까지 기어 들어온 것이 무어냐 말이다. 그제, 고통과 거지 따르는 게으름에 못 이겨 알몸뚱이에 담요 한 장을 두르고 시간 가는 것을 미워하며 뒹굴어 있는 기옥의 머리를 더듬었고, 거기 따라 양지를 탐하는 파리가 한 떼 몰라 간지럽게 기옥의 머리와 가슴패기를 기어 다녔다. 쫓아도 또 덤비고, 또 쫓으면 또 덤비고, 담요를 뒤집어쓰면 또 그 속에서 스물거리고, 또 답답하고……. 그러니 기옥이 아무리 게으름을 떠다고 하더라도 신경질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주워 입었다. 이맛살은 물론 찌푸려져 있었다. 입에선 썩은 침 냄새가 났다. 그리고 기옥의 몸뚱이 Y자가 거꾸로 된 부분에서는 썩은 물이 새었다.

기옥은 병들어 있었다. 율리가 가고난 뒤 기옥은 진짜 타락을 했다.

마구 놀았다. 마구 팔았다. 거기 몸을 바쳤다. 양담배를 가져다 드리면 그저 해벌죽하고 좋아할 줄만 알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기옥은 또 몸을 심하게 굴렀다. 그러니 성할 리가 없다. 기옥은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는 동안 기옥은 담배도 잘 피웠다. 식전에 썩은 침 냄새가 나면 이를 닦기보다 담배 한 대가 더 급했다. 기옥은 그대 일어나는 길로 담배를 찾았다. 오늘 아침 뭇으로 분명 두 개를 어디다 두었는데……. 세 개 얻어온 중에 한개는 어제 밤 아버지와 나누어 피웠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오늘 아침 아버지와 한 개씩 피우기로 작정하고 남겨 둔 거다. 그런데 어디에다 두었던가?

기옥은 초조하기 시작했다. 어디다 두었을까? 그래, 스커트 주머니 속. 그 싱싱한 냄새가 풍기는 시원한 쿨. 스커트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꼬깃꼬깃한 십 환짜리 두 장이 나올 뿐, 아무 것도 없다.

핸드백? 그렇지만 거기다 넣었을 리는 없다. 그래도 또 찾아본다. 없다. 그럼? 이 구석 저 구석 방안을 돌아다니며 찾아본다. 역시 없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블라우스엔 담배가 있을만한 주머니가 없다. 그리고 어제 밤에 그것을 어디다 깊이 두지도 않았다. 깊이 둘 필요도 없다. 분명 어제 밤에 스커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 돌연 기옥의 마음엔 하나의 의혹이 생긴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만……. 또 그럴지도 모른다. 꼭 궁한 생쥐 꼴이 된 아버지다.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없을수록 더 무얼 값아 내려고 들고, 그런다고 무어라도 하면 곧잘 늙은 눈물을 흘리며 비감해 하는 아버지다. 믿을 수가 없다. 궁하면 비굴해지고 수치스러운 것도 행하는 법.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 데…….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이 시초일지도 모르니까-. 시초는 늘 돌연한 변화이고, 그 시초가 없다면 세상만사가 하나도 되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한 아버지가 무얼 탐하여 정신이 없어진다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옥은 무식하지만 체험으로써 그것을 안다.

의혹은 점점 커갔다. 그리고 그것은 드디어 확신으로 변했다. 단 두 식구가 사는 집, 다른 누가 치워 놓을 사람도 없고, 담배 두 개를 훔치러 들어 올 어리석은 도둑도 있을 리 없다. 범인은 아버지다. 아까의 파리와 햇빛 때문에 생겨난 신경질이 울컥 끓어올랐다.

“아버지!”

반신불수의 아버지는 나머지 반의 몸뚱이로나마 하루

한 끼나 두 끼 밥을 끓여야 되었기 때문에 부엌에 있었다.

“아버지! 대답 좀 해요!”

“왜?”

먼 굴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담배 내내요, 담배! 무슨 뒤지개질이야, 뒤지개질아…….”

“쟁 또……내가 뭘…….”

피! 저렇게 유들유들한 게, 늘상 쓰는 투다. 그것으로 피차간 감정을 무더 놓으려 한다. 그리고 나선 슬프다고 짜고-

“아니 그래 꺼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

“내내요, 빨리! 정말 속상해 죽겠네.”

“글쎄 쟈……옳아……그래……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너그럽다.

기욱이가 성이 나가지고 있는 동안은……. 기욱은 늘 지는 줄도 모르고 그것한테 진다. 더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너무 속이 상한다. 너무한다. 정말 얇체다. 누가 안 드릴 줄 알고- 누가 혼자만 피우려고 감춰놓았을 줄 알고- 그럴 몰래 꺼내가다니, 그리고 시치미를 떼다니. 야속하다. 너무하다.

“앓다.”

시커멓고 비쩍 마른 아버지의 좁은 얼굴이 잠깐 나타나며 담배 한 개비가 획 날아와 기욱의 발아래 떨어졌다.

“한 개는 내가 피웠다.”

순간 기욱은 왈각 화가 치밀었다. 그 피죄죄하고 못난 아버지의 꼴 하며, 그 담배를 집어 던지는 꺾여진 몸뚱이 하며. 옛다 한 개는 내가 피웠다 하는 비굴한 목소리 하며. 증오다. 밉다. 말할 수 없이 밉다. 어쩌면 저렇게도 보기 싫은 이가 저기 있을까? 아유, 정말! 기욱은 분했다. 그래 소리쳤다.

“한 개마저 내내요! 내 거예요, 내 거! 왜 마음대로 꺼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또 나타났다. 저 얼굴. 저 얼굴. 담배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저 밉다.

“빨리요! 어디다 두었어요? 빨리 내내요!”

“피웠다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비굴해진다.

“알 게 뭐예요. 누가 피우렸어요, 누가? 빨리 내내요!”

기욱은 획 돌아섰다. 번뜩 방구석에 세워 둔 거울이 기욱을 맞선다. 빌어먹을-. 거기 못 나고 추한 한 계집애의 다리가 시커멓게 비쳤다. 누구의 다리냐?

어떤 년의 것이냐? 왜 저렇게 보기가 흉하나? 흉하다. 흉해. 기욱은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또 한 번 거울을 본다. 찌르르 분노가 등골을 쭈신다.

기욱을 달려들어 발꿈치로 거울을 찾다. 짜그락! 거울이 깨어지고 기욱의 발바닥은 시원했다. 발바닥을 떼다. 피는 나지 않는다. 거울이 깨어졌다. 거기 무언지 모를 것이 잔뜩 우그러져 비쳐 있었다.

“쟁……갖다 주마. 왜……그건……깨치고……참.”

기욱의 눈엔 독이 오른다. 그 눈이 아버지를 향한다.

“어디서 가져 올테요, 어디서?”

“……가져 올게……글쎄.”

기욱의 눈에 독이 오른다. 오른손이 뒤로 간다. 잡히는 게 있다. 무언지 모른다. 집어 든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아니다. 어떤 보기 흉한 얼굴이다. 아주 싫은 얼굴이다. 기욱의 얼굴인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것은 기욱의 그림자의 얼굴이다. 그 얼굴이 차츰 변한다. 차츰 공포에 찬다. 거기 따라 기욱의 오른손이 올라간다. 얼굴이 변한다. 손이 올라간다.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도망치려 한다. 순간. 딱! 얼굴이 사라지고 벽에선 기욱의 손에 집혔던 커다란 크림 통이 깨져 나갔다. 하얀 조각들이 박하사탕처럼 방바닥에 흩어졌다. 그 위로 질경질경 걷고 싶다. 발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걷고 싶다. 차라라. 차라라.

그러나 기욱은 현명했다. 얼른 맥이 풀어질 줄을 알았다. 안 되는 일. 아버지다. 그래도 옛날엔 훌륭했던 아버지. 그러다가 불운의 연속 속에 아침이면 딸의 등을 마사지해 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종내는 완전한 딸의 기생충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간 그것이 6년, 기욱의 나이 스물 둘, 이젠 둘이 다 거지가 되려는 직전의 공동노선에 서 있고-

기욱은 슬프기 시작했다. 꼬챙이처럼 아위어 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증풍에 걸린 아버지. 여학교도 쫓겨나고 무직자가 되어 땅을 치며 울던 아버지. 그러다가 병신. 기욱의 나이지금 스물 둘.

기욱이 기욱을 팔기 시작하기가 6년. 아버지가 매일 밤 제 딸을 팔아먹기 시작한지도 6년.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이에요? 그렇지만-. 기욱이 신경 질도 났다. 거울도 깨뜨렸다.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크림통도 던졌다. 마음만 아플 뿐, 바늘 끝 하나 찔러 주는 게 없어 기욱은 몸부림치며 울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럴 줄은…….

조금 있다 아버지는 다시 얼굴을 내쫘다. 그와 함께 ‘쿨’ 한 개가 또 나타났다.

“가져 왔다! 재! 네 거 가져 왔다. 값는다!”

그러곤……. 빌었다고, 담배장수한테 울면서 빌었다고, 한 개만 달라고 빌었다고- 내 죄를 내가 안다. 나도 쓸개는 있다. 너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아버

지는 개처럼 울었다.

그래서 기옥이 화가 치밀어 해준 거다. 기옥의 현재나 과거의 장사가 거지라는 직업보다 낫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가 멋대로 거지 노릇을 하라고, 나가 실컷 빌어먹으라고 퍼부어 준 거다. 그러곤 마지막 재산을 목에서 끊어져라 하고 잡아떼어 핸드백에 잡아넣고는 율리 상사로 지랄이고 알게 무어나고 실컷 나가 한바탕 놀기나 하고 죽어버린다고 횡감에 결심까지 해가며 뛰쳐나온 것이다.

그러나 밝은 대낮을 만나 다시 다리 사이의 아픔이 심해지고, 또 남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과 전혀 다른 남의 아버지들의 얼굴들도 보고, 행주 쪽 같은 검정 형님을 들치며 이를 쭈시고 나오는 시민을 보고 또- 그러는 동안 옥은 다시 침착해졌고, 그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용서를 빌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냥 왔다. 그리고 마지막 20환을 내고 버스를 탔다.

그리고 나니 후회가 또 생겨났다. 그러자 버스는 떠났고, 그리고 보니 기옥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가슴이 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기옥이 택시 윈도우에 반사된 햇빛을 복 전적으로 해를 나 무라는 것은 아니다. 좀 탓을 돌려보는 마음이 된 것 뿐이다. 그게 아니었다라면 파리가 그렇게 귀찮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었고, 또 파리가 그러지 않았던들 기옥이 그렇게 미리 성나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지 않나?

밖에도 황혼이 가까워졌다. 박 군도 내리고 윤 양도 내리고 김 형도 그리고 조군은 벌써 내린지가 오래다. 버스가 또 한 번 멎었다. 기옥은 손잡이를 놓고 빠근한 허리를 곧추세우며 거리로 내려섰다. 수없이 바글거리는 사람과 전차와 자동차와 소음을 싣고 전후좌우로 아득히 거리는 깔려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거리를 튼튼하게 지어진 굵은 집들이 떠받들고 있었다. 하늘엔 핏빛 구름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기옥은 하늘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오른 발꿈치에 힘을 주어가며 시장으로 들어섰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 사이도 아프고, 온몸이 피곤하고, 구두 뒤축은 발을 떼어놓을 적마다 입을 벌리고, 거기 따라 다리는 어쩔 수 없이 하둥거리고- 기옥의 등엔 조용한 선이 한꺼번에 몇 개씩이나 따랐다.

기옥은 몇 번 드나들은 금방을 찾았다. 주인은 낮이 익어 선선히 기옥이 원하는 데가깝게 값도 주고 흥정이 되었다. 감정하고 달고 또 돈을 세고 하는 동안 기옥은 진열장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곱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 위로 단 한 마리의 파리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먼지엔 파리 발자국과 날개에 붙린 자국이 났다.

파리는 날아가지 않고 여기저기로 기어 다녔다. 뒷다리를 비비다간 몇 발자국, 그러

다간 쟁충 뛰었다. 그러곤 또 기고 또 다리를 부비고-

기옥의 가슴엔 어느 결에 율리 상사의 생각이 꼭 차 있었다. 그리워서가 아니다. 그림지 않아서도 아니다. 이제 마지막 재산을 처분하는 마당에 옛날 그것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엔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율리의 휴가가 끝나는 날, 그들은 기옥의 방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소나무가 우거진 숲 속이었다.

“당신이 좋은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이번 가면 다신 돌아오지 못할 거야. 꼭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지는 모르지……죽으면 그만이야. 죽고 나서야 어떻게 당신을 좋아 할 수가 있는가 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율리는 눈물을 흘렸다. 율리는 상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송이였다. 순진했던 말이지. 고향에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율리는 나오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율리는 그러니까 고아다. 기옥이 아니었다라면 혹시 그는 더 외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옥을 두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눈물까지도 그러니까 흘리게 되고- 그가 없어진다면 기옥이도 곤란했다. 여러 면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꼭 다시 만난다고 위로하는 기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왔다.

그 눈물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율리는 그때, 기옥에게 제 목에 늘 걸고 있던 로켓을 떼어 주었다.

“어머니 거야. 이제 당신밖에 줄 사람이 없어. 자, 늘 걸고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다면…….”

그리고서 율리는 갔다. 기옥의 하얀 어깨에 커다란 눈물방울을 몇 개 남기고. 그 눈물자국이 얼마 동안이나 생채기처럼 쓰라렸다.

그러다가 그 아픔도 사라지려 할 무렵 기옥은 율리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기옥은 진짜 타락을 해버린 거다.

이제 그 율리의 유품을 판다. 그것으로 아버지와 기옥의 밥통에 익은 쌀과 된장 국물을 넘겨야 한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기옥이 혼자서라도 살아야 하고 기옥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 혼자만이라도 살아야 하고- 몇 년 전 어느 아메리카 노파가 목에 걸고 있던 로켓 하나를 두고 기옥이네 부녀는 그때까지도 율리 상사를 뜯어먹고 사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물건이 좀 구식이긴 하지만……그래도 꽤 좋은 물건이군요. 원체는 금값밖에 드리지 않는 것이지만…….”

어린애까지도 욕하는 기옥에게 어째서인지 주인은 친절했고, 그래 기옥은 얼마를 미치는지 어찌는지 아랑곳할 것 없이 덩달아 허물없어진 사이다.

“이제 댁에 신세도 마지막이에요.”

돈을 받아든 기옥은 이 한마디만을 종알거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시장은 여전히 복잡했다. 돌아가는 사람들.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랬다. 파는 사람들까지도. 그들 모두의 머릿속엔 밥과 여편네와 김장과 어린 자녀의 불우물도 놓고 있었으리라.

어두워지는 길. 기옥이 역시 어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문득 기옥은 공복을 느낀다. 몸의 한 부분이 썩어 없어져도 배는 고평 줄을 안다. 영힘스런 밥통아, 그렇지만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울분과 공복. 오늘 밤만이라도 아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께 힘껏 효도해 보자고 했다. 아무런 해야지. 해야지.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걸. 힘껏 해야지.

그때 기옥은 아버지가 좋아 하는 양담배를 샀다. 옛날에 혹시 기옥에게 세상에 없는 욕을 지껄였을지도 모르는 깡쟁이 같은 담배장수 아이에게, 거스름돈을 도로 주고 돌아서는 기옥의 눈앞엔 여전히 바쁜 세상이 있었다. 아가. 이다음부터 욕하지 않아도 좋단다.

그 다음엔 먹을 것을 사야 했다. 우선 익히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기옥은 문득 전에 율리하고 잘 다녔던 케이크 집을 생각한다. 가도 마음이 쓰릴 것이야 없다고 생각된다. 안 가도 좋지만 그 집은 유난히 정갈하고 아담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기옥의 발은 슬며시 그 집을 향했다. 다리를 건넌다. 온갖 오물이 섞인 시커먼 물이 도심(都心)을 뚫고 그 밑을 흐른다. 기옥은 고개를 돌리고, 좀 더 서둘러야 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기옥은 아까부터 유난히 더 심해진 통증을 느낀다. 한시도 편할 사이가 없고, 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찌들어 붙는 거지만, 가끔 이렇게 심한 격통이 올 때 아마 몇 해 치씩이나 늙어 가는가 보다. 그러나 이번엔 좀 더 심하다. 흥정을 마치고 살(生)거리를 손에 넣고 나니 그 아픔을 받치고 있던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탓인지. 가끔 눈앞이 아찔하여 시야가 희부연 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옥에게겐 벌써 몇 년 전부터 무엇이든지 견디어 내는 습속이 있다. 그것은 힘이다. 기옥은 그 힘으로 자꾸 벌죽대고 입을 벌리는 하이힐을 끌고 역시 그 집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계절을 잃은 냉동기가 아직도 한 구석에서 쉬고 있는, 그리고 아른한 향미까지 맴도는 조용한 홀 안에 들어선 기옥은 확실히 일종의 귀신이였다. 전혀 거기 있는 사람들과는 계(界)를 달리 하는 물건인 것과 같은 느낌을 기옥이 자신까지도 가졌다. 그러나 잠시라도 좀 몸을 앉히고 쉬고 싶은 간절한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진한 녹색으로 치장한

폭신한 의자에 등을 돌려대 버렸다. 그리고 겨우 진열장 유리 위에 핸드백만 올려놓은 채,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것만 골라서 샀다. 그렇지만……그래도……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고개를 돌려 본다. 참말 오래간만이다. 율리하고 같이 온 것이 기옥이 이 집에 다닌 전부다.

그가 간 뒤로는 한 번도 이 근방엔 얼씬도 안 해 보았다. 역시 그 전과 같은 치장, 같은 색깔. 천정 색깔이 아마 좀 더 진한 은행색이 되었나보다. 그리고 참 애들도 그때 애들은 아니고. 역시 다른 건 다 마찬가지로. 봉지를 받아 들고 돈을 치르고 난 기옥은 한 번 더 고개를 돌려 저편 구석에 자리를 본다. 율리하고 늘 마주 앉아 소곤거리던 곳. 거기엔 아주 예쁘게 단장한 여자가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까르륵 웃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나 그뿐, 기옥은 그대로 고개를 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만 것이다.

밖은 어둡기 시작했다. 불빛은 훨씬 밝고 고와졌다. 그리고 기옥의 다리는 점점 더 균형을 잃어갔다. 마음만은 그래도 흐릿한 편이었다. 핸드백 속에는 담배가 들고, 동몽치가 들고, 손에는 훌륭한 먹을 것이 들고.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흐릿해졌다고 금방 몸조차 거뜬해 질 수 있을까?

기옥은 아무래도 이대로는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을 느낀다. 각각으로 심해지는 고통과 거기 따르는 전신의 불균형. 옷매무새도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알 수가 없다. 기름기 없이 그냥 매만져 붙인 머리칼은 어떻게 엉클어졌는지 모른다. 그건 오히려 어두워서 보이지 않겠으니 둘째 치고, 걸음걸이 때문에 큰일이다. 또 상이 찌푸려진다. 머리가 달아오른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미 불치의 병. 치료는 생각지도 않지만 잠시라도 좀 고통을 덜 방도가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병원에는 갈 필요가 없다. 피자에 골치만 아프다. 그것보다도 주사. 주사가 있지. 언젠가 뱃속에 무엇이 하나 생겨 그걸 떼고 혼란 적이 있다. 그 때 맞아본 주사가 있다. 진통제. 그걸 한 대만 맞자. 그래서 우선 오늘 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엔 내버려 둔다. 마찬가지로. 이미 썩어 없어질 몸뚱이지만 그것쯤을 위한 거라면 내 몸을 위해 낭비해도 좋다. 그러고서 오늘 밤만 지나보면 아무래도 마찬가지로란 말이다. 이젠 율리조

차도 완전히 사라졌다. 손톱만한 율리의 사진조차 로켓과 함께 장사지내고 말았다. 아버지와 딸 뿐이다. 아버지는 딸 하나를 바랄 수가 있고, 딸은 아버지 하나를 바랄 수 있지만 피자 바람직한 사람이 못 되고 바람직한 방향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도 오늘 밤만은 기옥은 아버지를 위한 기옥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옥이도 이젠 마지막일까?

하늘엔 별도 없었다. 거리에 불빛이 점점 찬란해지고 무수한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질어 갔다.

“이거 뭐야?”

“돌았군.”

“한 잔 했구나.”

“끝까?”

“애, 애 내일 아침 밥맛조차 없어질라.”

그런 종류의 대화가 뒤따라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차길을 건너갔다. 그냥 흘러가는 욕지거리도 있고, 어깨 옆까지 다가오는 야유도 있었다.

그러나 기옥은 다만 약방을 찾았다. 좀 킁킁하고 사람이 없는 약방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리다가 시원히 아픔이 가시는 수도 있건만. 그럴 수는 없을까? 행여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 제발 좀 아프지 않아 봤으면. 제발, 제발 좀. 아프지만 좀 안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약방이 몇 개 지나갔다. 인적이 뜸한 골목이었다. 저만큼 환하게 열려진 가게가 있었고 거기 보석처럼 반짝이는 찬란한 약병들이 전깃불 아래 늘어 놓여 있었다.

기옥은 그젠 견딜 수 없어 휩쓸리듯 그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기옥이 진열장 위로 쓰러지듯 기대는 바람에 핸드백이 휘둘러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때렸다. 수화기가 절겨 하고 뛰는 바람에 기옥은 힘들어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앞엔 여자가 있었다. 하얀 가운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기옥을 쏘아보는 여인. 그러나 기옥은 그것이 여자가기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시죠?”

“네 갑자기…… 배가…… 배가……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저, 진통제…… 한 대만…… 아유!”

“병원에 가 보시지.”

“아니에요……병원에 가래도 좀……아픈 게 가셔야죠. 어서…… 좀…… 네? 아유!”

여자는 호주머니에서 두 손을 뽑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멀찍이 뒤로 젖히고 기옥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가끔 이렇게 아픈가요?”

“아녜요……저 차……아유……처음이에요.”

“놓아 드려요. 그 대신 고통이 덜해지면 어서 병원엘 가셔야죠.”

“네. 네. 아유 어서 좀…….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약방 여주인이 고개를 기웃하는 바람에 데 없는 안경알 두 개가 무섭게 빛났다. 그리

고서 여주인은 들어가고 기옥은 몸을 꼬며 신음했다. 아픈 중에도 그래도 제법 그럴듯하게 연극을 한 것이, 아픈 중에도 또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어쨌든 이제 살았구나. 후-. 어서 주사를 맞고 어서 아버지께 가야지. 참. 응. 핸드백. 돈. 담배. 과자봉지. 다 있다. 어서 좀. 아유-.

이윽고 여주인은 주사기와 알콜 묻은 탈지면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모르핀 한 대를 서슴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따끔한 감촉이 기옥은 어쩌면 그렇게도 시원한지 몰랐다. 반짝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다. 더 좀 시원하고 싶은 아쉬움 가운데 주사는 끝났다. 기옥은 일어섰다. “가만히 계세요. 좀 쉬어야지. 그래야 회복이 되자.”

“아니에요. 바빠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다……다 나왔어요. 저 돈……돈을 드려야죠. ……정말……정말 흔났어요. 얼마죠?”

그러면서 기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지는데 여주인은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고 기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옥의 핸드백 속에서 기옥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돈뭉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다시 한 번 기옥의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기옥은 역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다. 얼마인지 모른다. 여주인이 얼마라고 말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른다.

멀쩡하게 담긴 진열장 유리 위에 지폐를 놓고 기옥은 고맙다는 인사 비슷한 말 한마디를 집어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튀어 나오고 말았다.

약방 안 하얀 가운은 또 한 번 데 없는 안경을 어둠을 향하여 번쩍이고는 수화기를 들고 자동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기. 작……. 거짓인지 정말인지 기옥은 정신이 반짝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걸음도 아까보다 나은 것 같고 몸도 떨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지체 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 과자 봉지와 핸드백을 잔뜩 힘들여 겨드랑이에 끼고는 거의 줄달음질을 치다시피 전차길을 향했다. 그러나 역시 걸음은 걸어지지 않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온몸이 저리고 아팠다. 그러나 이를 악물면서 그대로 걸었다. 하늘엔 여전히 별이 없었고 거리엔 불빛이 찬란했고, 그리고 사람네들은 향기롭게 너울거렸고-. 기옥은 이미 꿈에도 율리는 생각지 않았다.

전차길에 나섰다. 저만큼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바로 앞은 백화점이었다. 그 앞 포도가 넓었다. 거기 멈추어 섰다. 피곤하고 괴로운 까닭이다. 촛보도 옮길 수가 없다. 숨은 턱까지 닿았다. 까딱하면 쓰러질 것만 같다.

기옥은 할 수 없이 가로수에 몸을 기대었다. 머리가 팽핑 돌았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눈을 뜬다. 고개를 든다. 네온사인이 꿈속처럼 깜빡거린다. 건너편 파출소 외등이 마

등처럼 시뻘겋다. 기옥은 꿈길 놀란다. 일종의 생리다. 좌우를 돌아본다. 백화점 옆에 과방이 보인다. 의자들이 있다. 거기 앉으면……앉으면 편하다. 그리고 앉아서 쉬면서 딱끈한 밀크나 좀 마시고……그러고서 돌아가자. 겨우 집에 가서 쓰러진다면 더 큰 불효다. 자. 저기로 들어가자. 어서. 저 붉은 불빛도 피해서.

그때 기옥은 이를 악물고 가로수를 잡은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흔들리려는 몸을 가누고 반쯤 돌아섰다. 그때 뜻밖에도 기옥의 앞을 딱 막고 나서는 시커먼 그림자가 있었다. 기옥은 펄쩍 뿔만큼 놀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 밑에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챙이 좁은 모자가 비뚤름한 장대한 신사. 그 눈은 기옥을 보고 있었다. 기옥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유난히 동요되는 가슴을 억제하며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채 빠져나가기 전에 기옥의 오른쪽 어깨엔 지구덩이처럼 무거운 손이 깃털처럼 가볍게 와 닿았다.

“잠깐만.”

기옥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마는 것이었다.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앞뒤로 흘렀다.

“당신 아까 주사 맞았지요?”

신사는 마치 귀신이였다. 그리고 그 손은 기옥의 어깨를 좀 더 힘 있게 눌렀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주사라고요? 아니예요.”

견잡을 수 없이 왈랑거리는 가슴을 한사코 진정시켜보려고 기옥은 애썼다.

“아니긴? 따라와, 잔말 말고!”

“아니예요. 몸이 좀…… 아니예요.”

“아니긴. 애가? 암전하게 따라오란 말야!”

신사의 목소리는 낮으면서 엄숙했다. 거기다 기옥의 바른 손은 신사의 쇠고랑 같은 손에 꼭 잡히고 말았다.

“자, 부끄럽지 않게 나하고 나란히 걷잔 말야. 이렇게 이렇게……말야!”

기옥은 끌려갔다. 할 수 없었다. 가슴에선 불이 일었다. 그러나 기옥은 끌려갔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사와 어깨가 나란히 되도록 걸어보려고 애쓰면서. 그러나 걸음이 모자랐다. 그래 줄달음질을 치다시피 따라갔다. 그리고 연성 고개를 치켜들어 신사의 옆얼굴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것이었다.

“용서해 주세요, 네? 한 번만……네?……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 좀, ……집엔 병든 아버지가 계세요, 네? 제발 좀, 선생님…… 선생님…… 네? 살려 주세요 네? 한번만…….”

찬란한 거리를 등지고, 아득고 그들은 아주 친한 한 쌍의 남녀처럼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이라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딸이 용서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딸을 용서하지 말고 딸보다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러한 모든 책임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면 그 아버지를 무어라고 욕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 딸은 무어라고 해서 위로해줄 것인가. 나를 배반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몇 마디 말을 듣고 윤리에서 탈출하는 늙은이가 대체로 많지 않은데 기옥의 아버지가 그랬다면 그건 꼭 기옥의 아버지만의 죄라고 해보아도 별 수 없으리라. 그러나 그건 어쨌든 기옥이조차 집에서 내쫓긴 것은 이미 어둠속으로 세 시간 전에 사라진 반신불수의 아버지의 힘이다.

기옥이 아버지를 욕해도 무리는 아니리라. 고대 알몸뚱이로 돌아올망정 몇 마디만 심한 말로 꾸짖어 주고 말았다면 아마 둘이서 같이 며칠이라도 더 살았으리라. 그러나 기옥이 그 날치의 수입을 모조리 날리고 아버지에게 대한 효도거리로 마련한 담배와 케이크마저 송두리째 바치고 간신히 뚱뚱이만 용서를 받고 빠져나와 허둥지둥 집에까지 달려왔을 때, 담요 두 장과 쓰레기 같은 세간 몇 가지와 함께 아버지는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기옥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았을까? 자물쇠도 없이 행하게 열린 시커먼 방안.

전구 알조차 어디로 가버린 방안에 성냥불 한 개만으로 얼굴을 비추고 서 있는 기옥은 정말 귀신이였다. 눈은 바짝 말라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몸은 후두후두 떨렸다. 기옥은 무서워졌다. 시커먼 방 안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노여움과 기옥의 분노가 뒤엉켜져 차 있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귀신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기옥은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았다. 마음으로-. 그러나, 어디서? 어디로? 왜? 아버지가 있을리 없었다. 도심에서 떨어진 전차길을 낫선 사람들만이 난잡하게 횡단하고, 만원이 된 시내버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실어내고 있었다. 기옥은 전차길을 건넜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기옥은 거기 섰다. 아무 마음이 없었다.

아버지도. 월리도. 돈도. 배고픔도. 그리고 뚱뚱이의 아픔도. 기옥은 혹시 이때 미치려는 단계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에서 당연히 서 있는 기옥의 모습은 꼭 무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도 같았고, 어디로 떠나려는 사람인 것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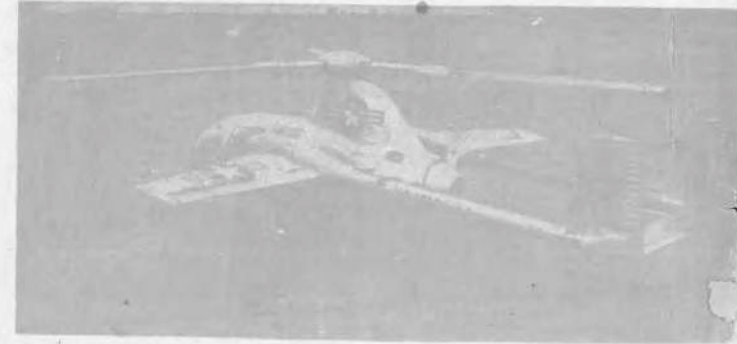
그때, 서늘한 바람이 불며 타원형의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뒤에 구름을 향하여 서서히 움직였다. 계수나무와 토끼가 있었다. 버스가 왔다. 많은 사람이 떠들며 내리고 몇 사람이 타고, 그리고 버스는 떠났다. 좀 있다 또 한 대가 왔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역시 기옥을 두고 떠나갔다. 또 왔다. 또 갔다. 기옥은 언제까지나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어디로 떠나려는 것일까?

딱 잘라진 두 개의 절단면 사이 극히 적은 공백 속에서 이렇게 공백한 마음으로 압전
히서 있는 기옥은, 혹시 우리 사람네 모두가 아주 먼 옛날에 두고 온 아주 먼 먼 곳에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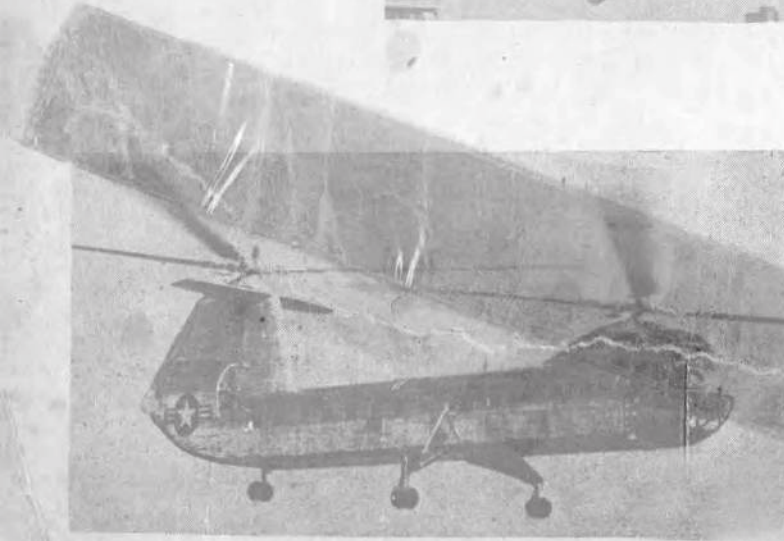


R-223 (U.S.A.F.)
Helicopter

XV-1
Convertiplane



H-21 Series (U.S.A.F.)
"Work Horse"
Multi-Purpose



YH-16 (U.S.A.F.)
"Transporter"
Transport Helicopter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金 基 完
印刷處·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印刷人·空軍大領 李 繼 煥

祝
發
展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空軍本部

李繼煥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本部 政訓監室)
발행 겸 편집인(發行 兼 編輯人): 공군대령
(空軍大領) 김기완(金基完)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空軍本部)
고급부관실 인쇄소(高級副官室 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계환(李繼煥)

축발전(祝發展)
공군본부 고급부관실 인쇄소
(空軍本部 高級副官室 印刷所)

THE COMET

THE COMET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